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8 Survey of High Potential Enterprise)

2018



산업통상자원부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이용자를 위하여

1.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는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2016년말 결산기준) 중 중견기업 4,014개사 대상으로 2017년 경영실적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es)한 것으로, 기존 발표된 중견기업 모집단 통계값과 다를 수 있음. 즉, 각 항목의 구성비 분석에는 유용하나 절대 규모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약을 갖고 있음
2. 통계표의 모든 통계수치는 반올림상의 차이로 인해 세부항목의 합과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통계표 중 복수응답 설문은 기업체 구성비 합계가 100.0을 초과함
4.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내용은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7)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3094)에서 가능함

요약

■ 요 약 ■

1.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 조사 대상

-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2016년말 결산기준) 중 중견기업 4,014개사 대상
- 조사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기준

□ 조사 내용

- 조사는 기업 일반현황,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기술혁신, 투자현황, 금융 및 자금 조달, 인재확보, 국제화 촉진,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9개 부문 76개 문항으로 구성

□ 중견기업 특성

- 전체 중견기업은 4,014개 기업으로 일반 중견기업 1,795개(44.7%), 피출자/관계기업 2,219개(55.3%)
- 업종별로는 제조업(1,552개) 38.7%, 비제조업(2,462개) 61.3%를 차지하고 있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60.6%로 가장 많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낮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인 기업이 53.0%로 가장 많고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낮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 기업이 41.0%로 가장 많고, 0~7년 미만 기업이 15.4%로 20년 미만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56.4% 정도 차지함
- 중견기업의 18.9%는 상장기업이며 81.1%는 비상장기업임

[표 1] 중견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014)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44.7
	피출자/관계기업	(2,219)	55.3
업종	제조업	(1,552)	38.7
	비제조업	(2,462)	61.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0.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37.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2.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7.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8.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7.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4.3
	1조원이상	(89)	2.2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35.9
	50 ~ 100명미만	(686)	17.1
	100 ~ 200명미만	(608)	15.1
	200 ~ 300명미만	(387)	9.6
	300 ~ 500명미만	(397)	9.9
	500 ~ 1,000명미만	(326)	8.1
	1,000명이상	(168)	4.2
업력	0 ~ 7년미만	(617)	15.4
	7 ~ 20년미만	(1644)	41.0
	20 ~ 30년미만	(679)	16.9
	30 ~ 40년미만	(459)	11.4
	40 ~ 50년미만	(340)	8.5
	50년이상	(275)	6.9
상장	상장	(757)	18.9
	비상장	(3257)	81.1

2.1.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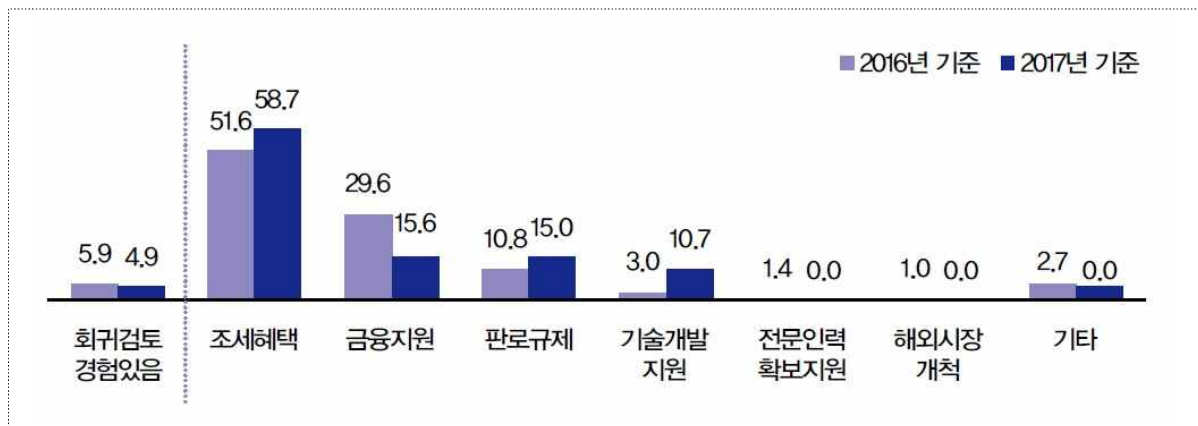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및 검토 요인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4.9%로 나타남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58.7%가 조세혜택을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금융지원(15.6%), 판로 규제(14.9%) 순임

[그림 1] 회귀검토 여부 및 회귀검토 요인

(단위: %)



□ 인수합병(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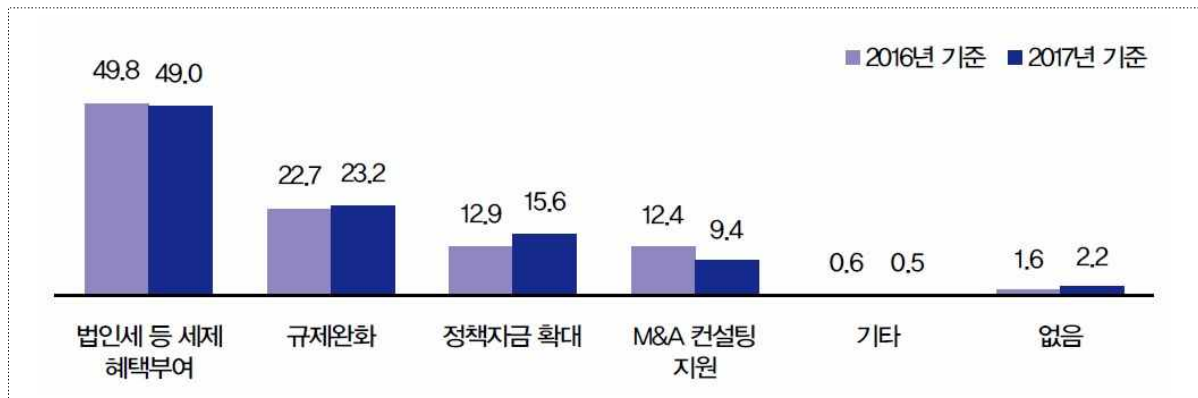
○ 2017년 중견기업의 2.8%는 M&A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험한 인수합병의 형태에 대해서, 중견기업은 동종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34.6%)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종업종 중소·벤처기업(21.9%), 타업종 중소·벤처기업(17.3%) 순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49.0%)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규제완화(23.2%), 정책자금 확대(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49.8%)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규제 완화(22.7%), 정책자금 확대(12.9%) 등의 순임

[그림 2]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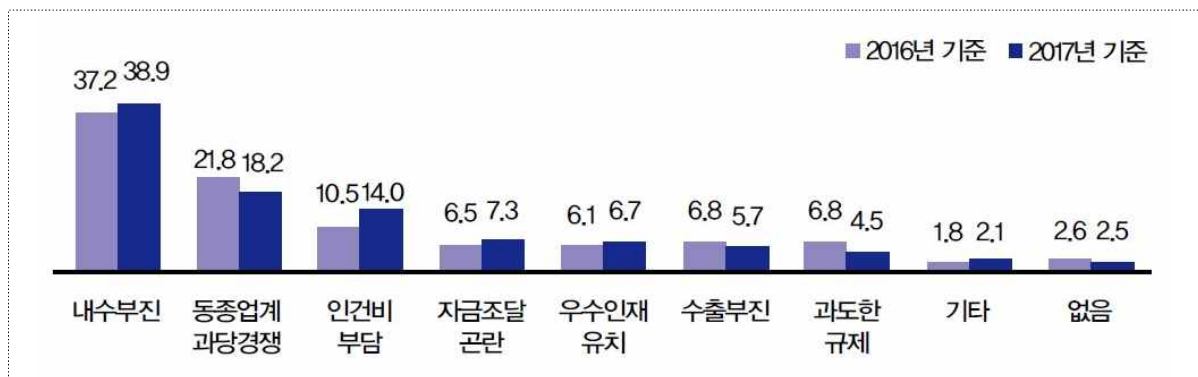


□ 경영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38.9%)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종업계 과당경쟁(18.2%), 인건비 부담(14.0%), 자금조달 곤란(7.3%)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내수부진(37.2%), 동종업계 과당경쟁(21.8%), 인건비 부담(10.5%) 등의 순임

[그림 3] 경영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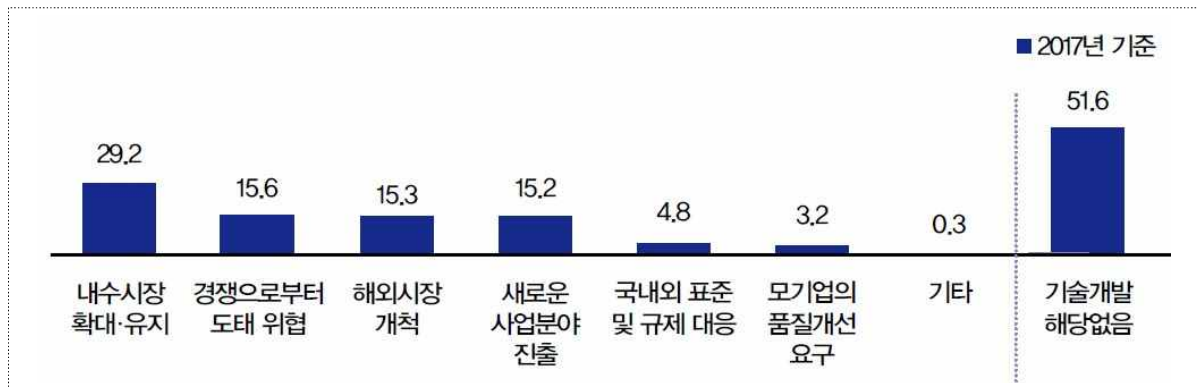
2.2. 기술 혁신

□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는 내수시장 확대·유지가 2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쟁으로부터 도태 위험 15.6%, 해외시장 개척 15.3%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기술개발 동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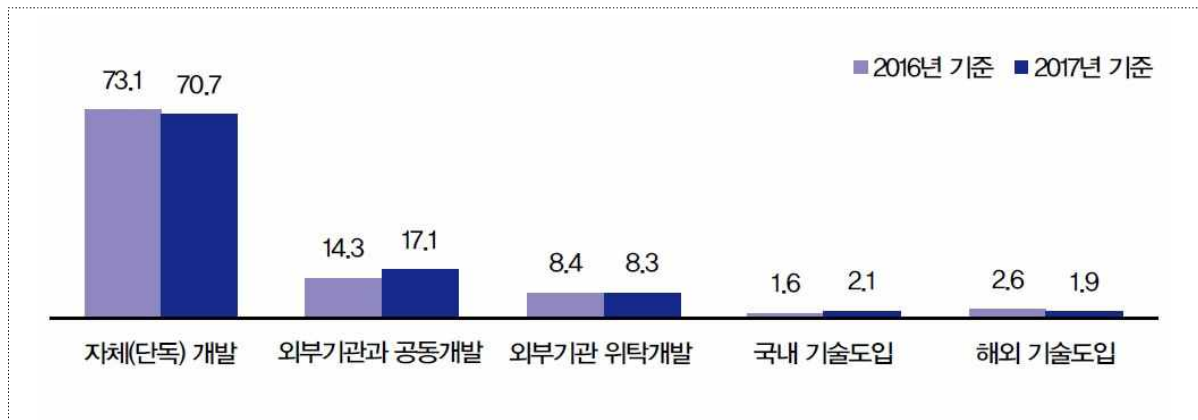


- 중견기업은 기술개발 시 자체개발하는 비중이 70.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 17.1%, 외부기관 위탁개발 8.3%, 국내기술도입 2.1%, 해외기술도입 1.9%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자체개발 73.1%, 외부기관과 공동개발 14.3%, 외부기관 위탁개발 8.4%, 국내 기술도입 1.6%, 해외 기술도입 2.6%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기술개발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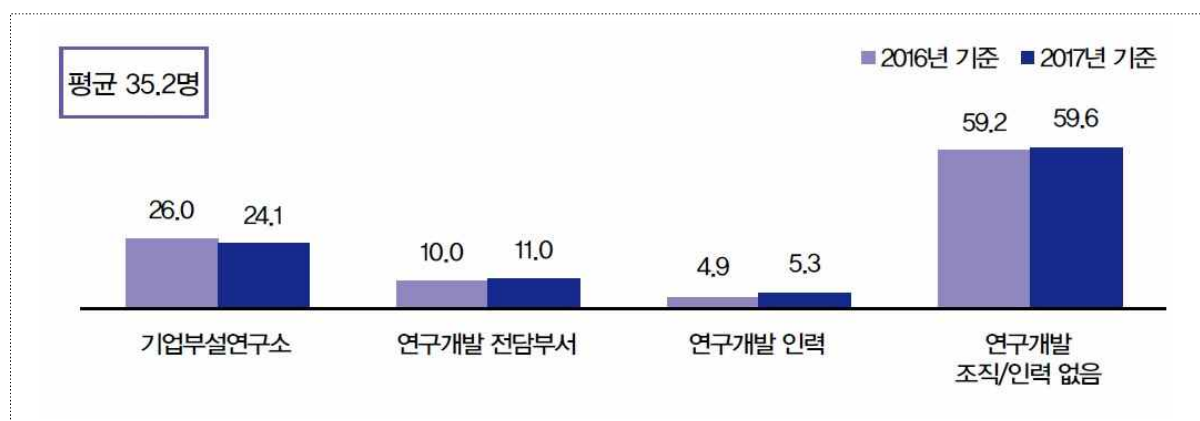


□ 연구개발 조직형태

- 중견기업의 24.1%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11.0%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5.3%는 연구개발 인력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평균 35.2명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기업부설연구소(26.0%), 연구개발 전담부서(10.0%), 연구개발 인력(4.9%) 순임

[그림 6] 연구개발 조직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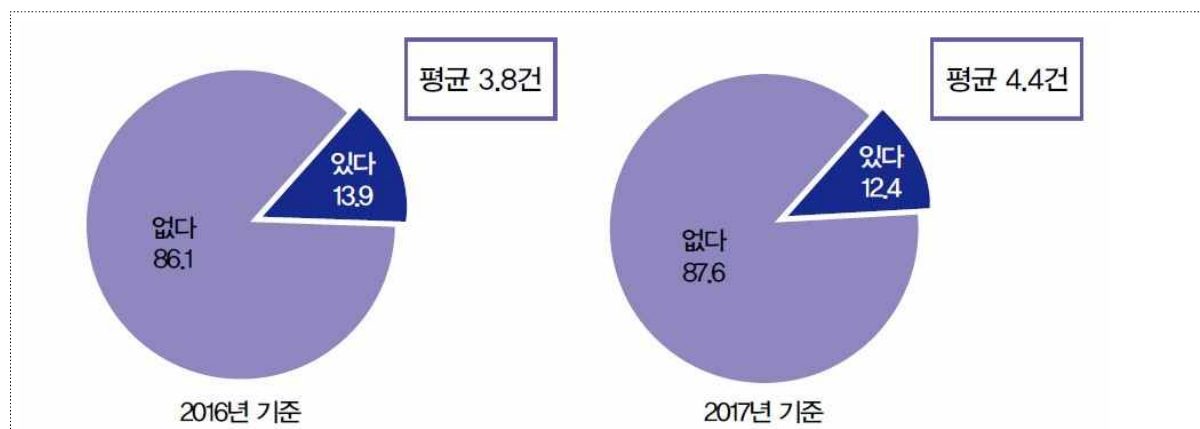


□ 산학협력 활동

- 중견기업의 12.4%는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활동한 기업의 평균 건수는 4.4건으로 나타남

[그림 7] 산학협력 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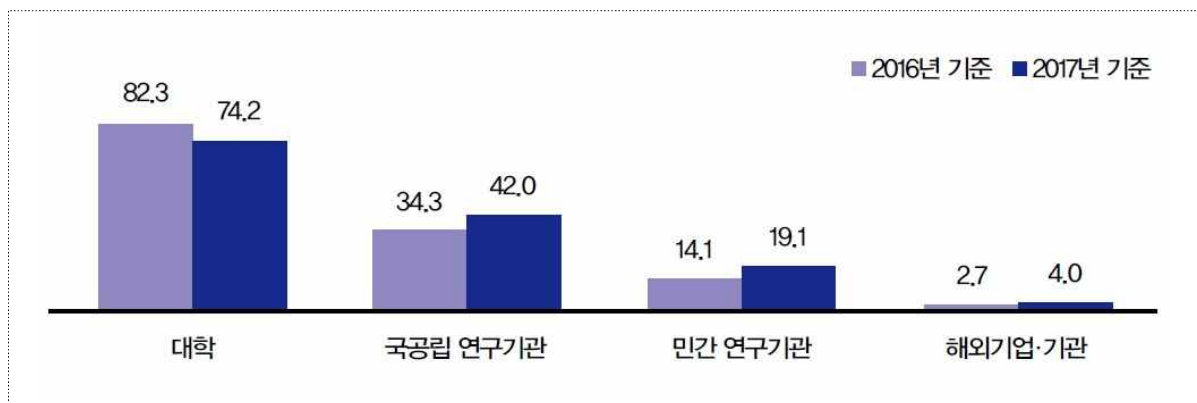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산학협력기관으로는 대학(74.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연구기관(42.0%), 민간 연구기관(19.1%), 해외기업·기관(4.0%)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대학(82.3%), 국공립 연구기관(34.3%), 민간 연구기관(14.1%), 해외기업·기관(2.7%) 순임

[그림 8] 산학협력기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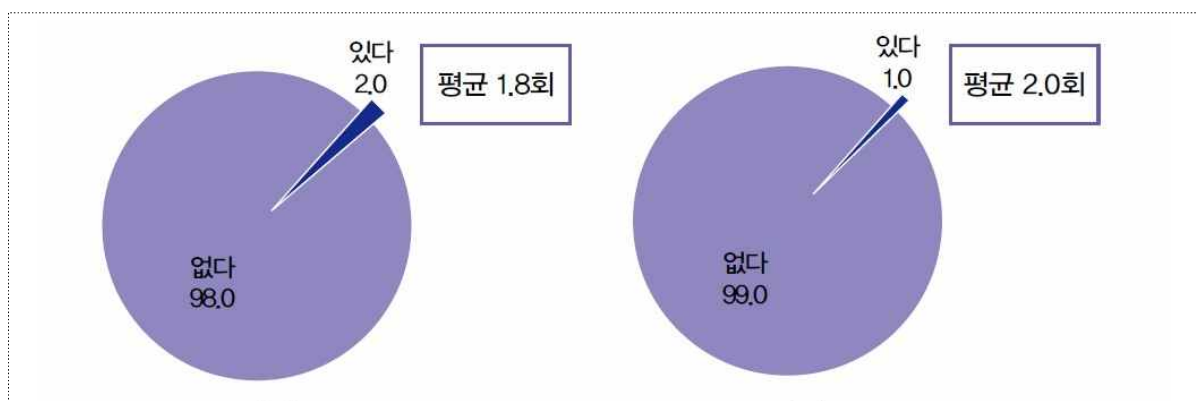


□ 기술이전

- 중견기업의 1.0%는 2017년에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균 횟수는 2.0회로 나타남

[그림 9] 기술이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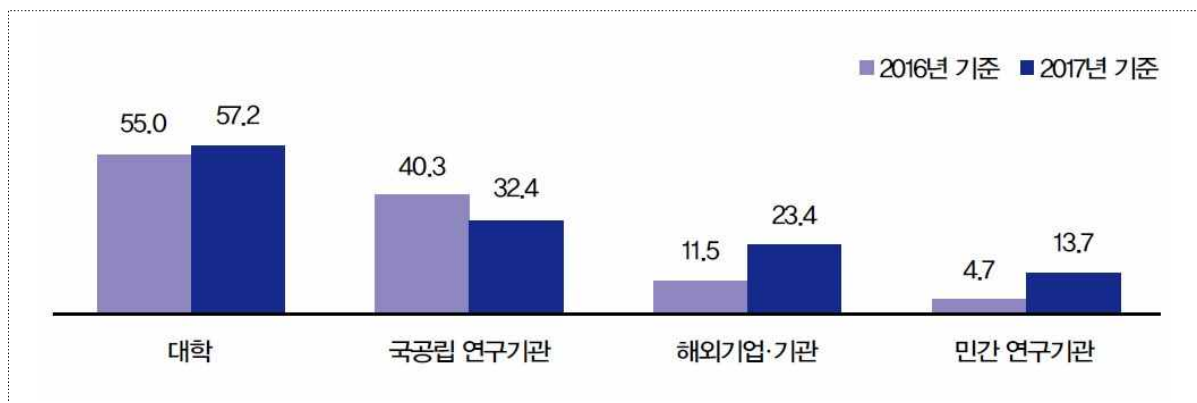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처로는 대학(57.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연구기관(32.4%), 해외기업·기관(23.4%), 민간 연구기관(13.7%)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대학(55.0%), 국공립 연구기관(40.3%), 해외기업·기관(11.5%), 민간 연구기관(4.7%) 순임

[그림 10] 기술이전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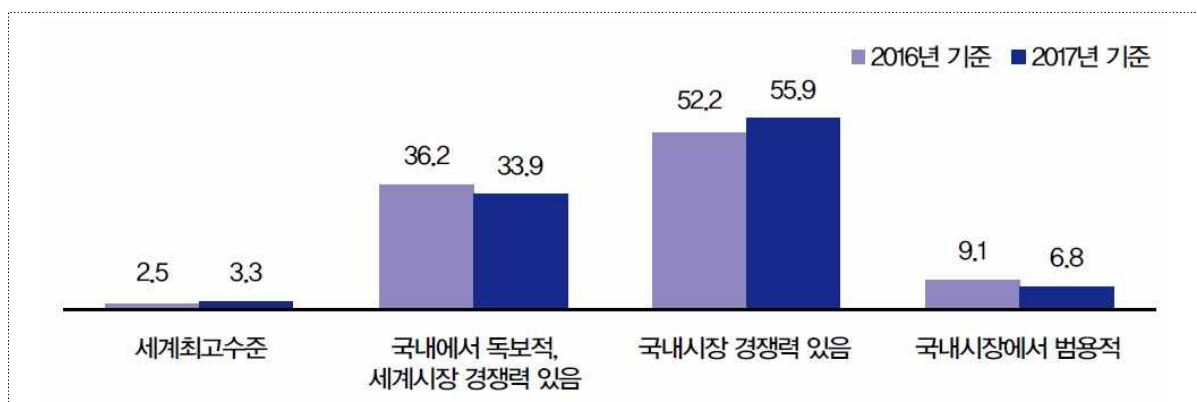


□ 주력기술 수준

-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이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중견기업이 3.3%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주력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응답 2.5%임

[그림 11] 주력기술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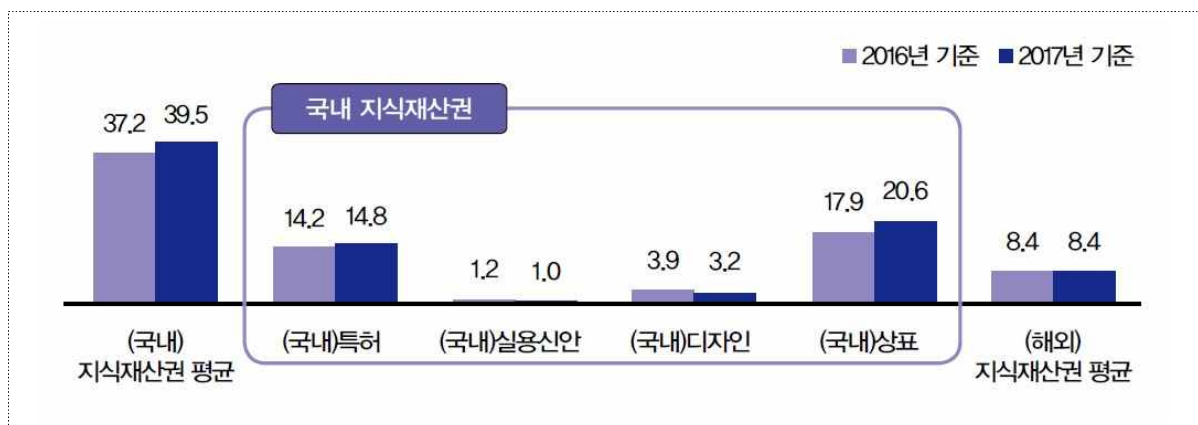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

- 중견기업당 평균 39.5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20.6건, 특허 14.8건, 디자인권 3.2건, 실용신안권 1.0건 순으로 보유함
- 2016년 기준 결과, 국내 지식재산권 평균 37.2건으로 나타났으며, 상표 17.9건, 특허 14.2건, 디자인 3.9건, 실용신안 1.2건, 해외 지식재산권은 8.4건임

[그림 12]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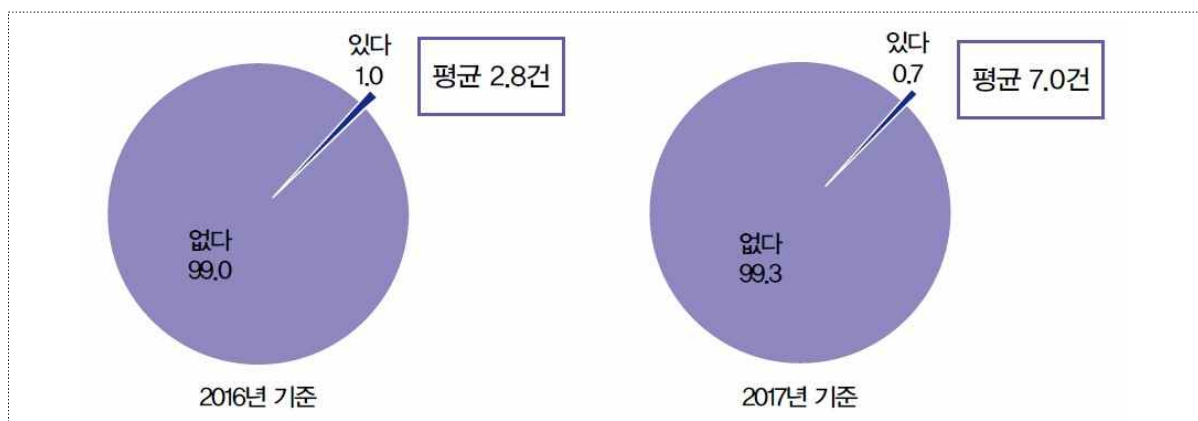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0.7%는 2017년에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으며, 침해당한 기업들이 평균 건수는 7.0건으로 나타남

[그림 13]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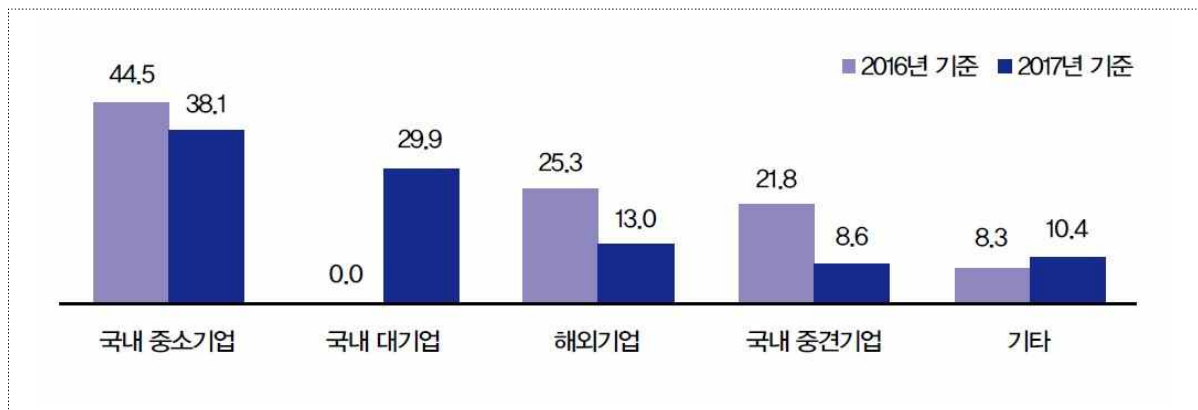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주체에 대해,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38.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내 대기업(29.9%), 해외기업(13.0%), 국내 중견기업(8.6%)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국내 중소기업 44.5%, 해외기업 25.3%, 국내 중견기업 21.8% 순임

[그림 14]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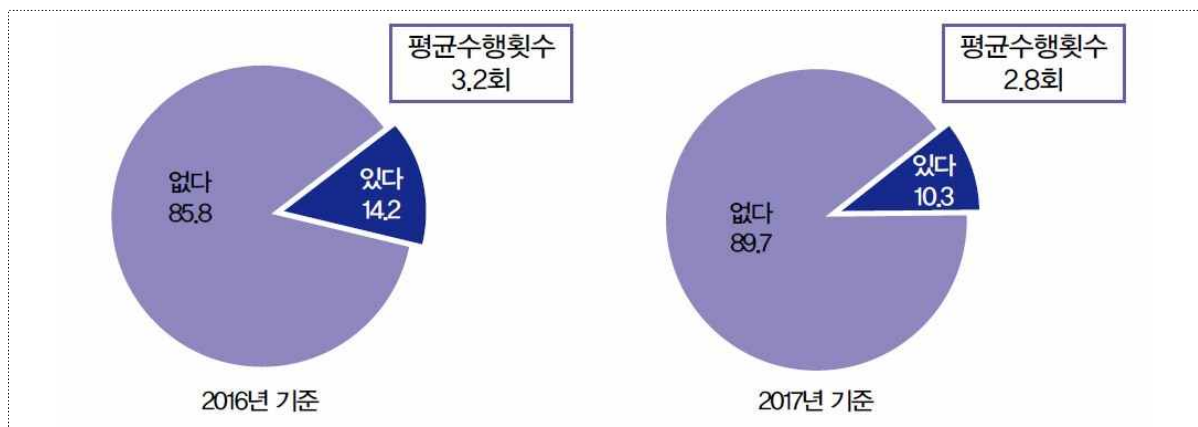


□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 중견기업의 10.3%는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수행횟수는 2.8회로 나타남

[그림 15] 정부지원 R&D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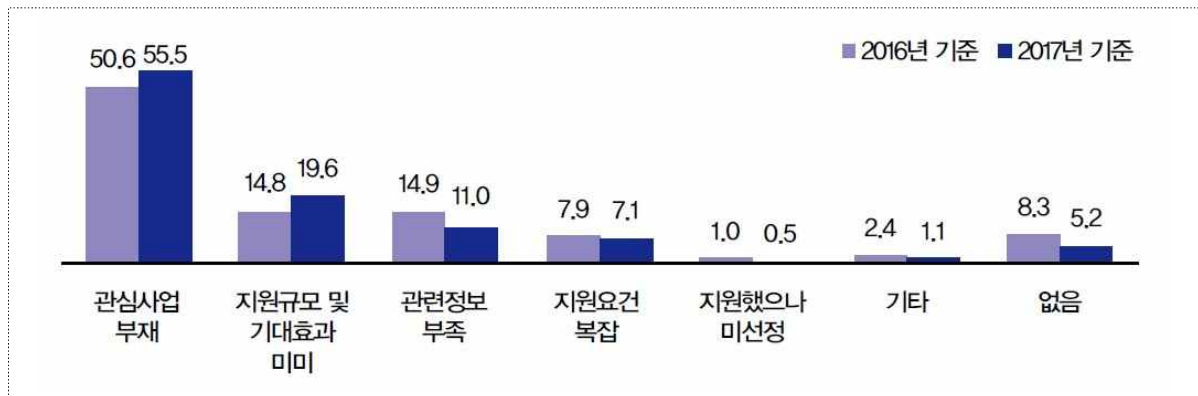
(단위: %)



-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관심 사업의 부재(55.5%)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9.6%), 관련 정보 부족(11.0%), 지원요건 복잡(7.1%)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관심사업의 부재(50.6%), 관련정보 부족(14.9%),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4.8%) 등의 순임

[그림 16]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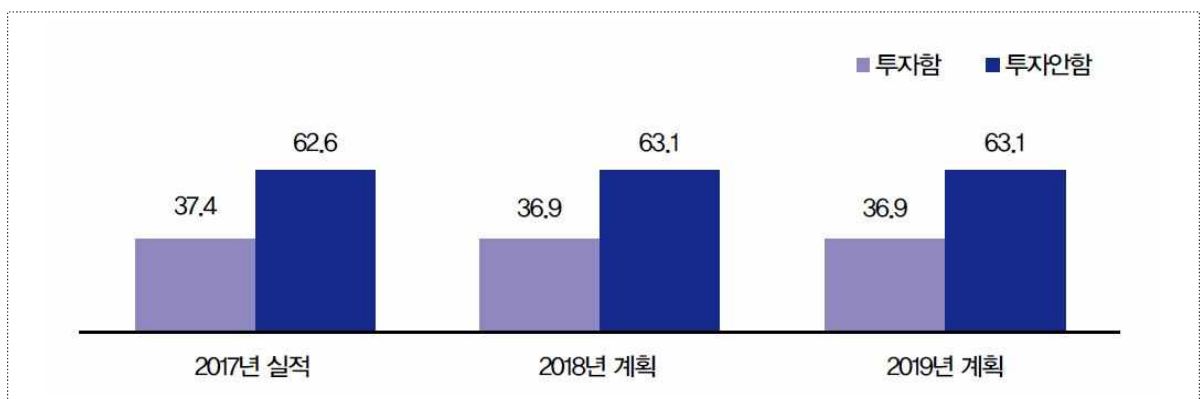
2.3. 투자현황

□ 2017년~2019년 R&D 투자 실적 및 예상

- 중견기업의 R&D 투자는 17년(실적) 37.4%, 18년(계획) 36.9%, 19년(계획) 36.9%이며, 투자 금액은 17년(실적) 18.1억, 18년(계획) 18.6억, 19년(계획) 20.4억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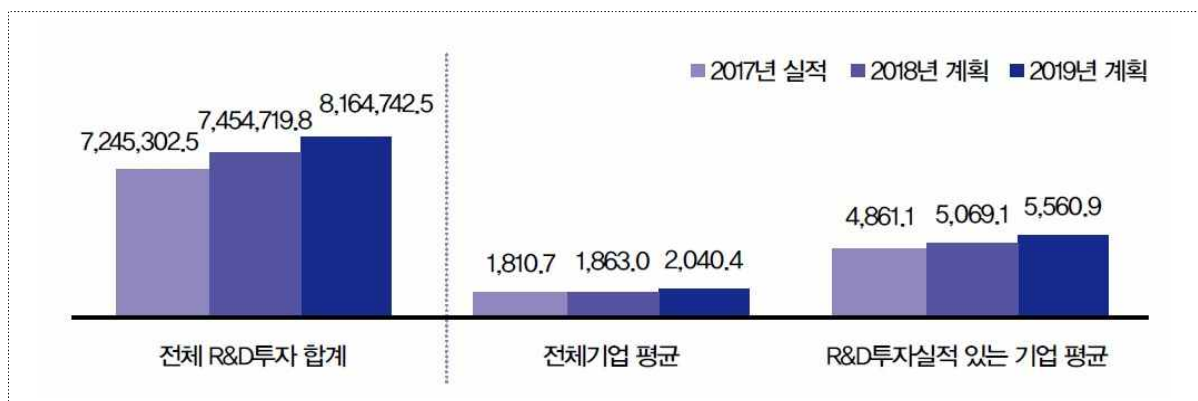
[그림 17] 17년~19년 R&D 투자유무

(단위: %)



[그림 18] 17년~19년 R&D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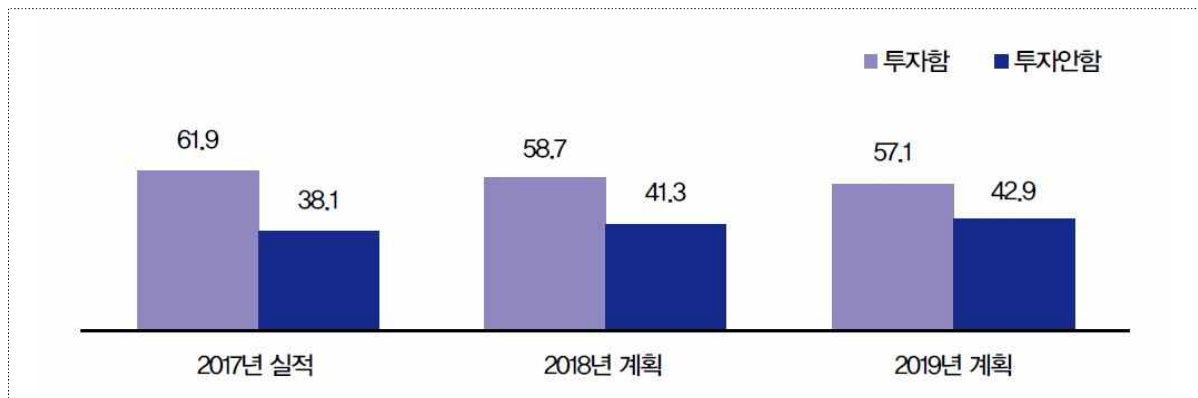


□ 2017년~2019년 설비투자 실적 및 예상

- 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는 17년(실적) 61.9%, 18년(계획) 58.7%, 19년(계획) 57.1%이며, 투자 금액은 17년(실적) 55.1억, 18년(계획) 54.2억, 19년(계획) 63.2억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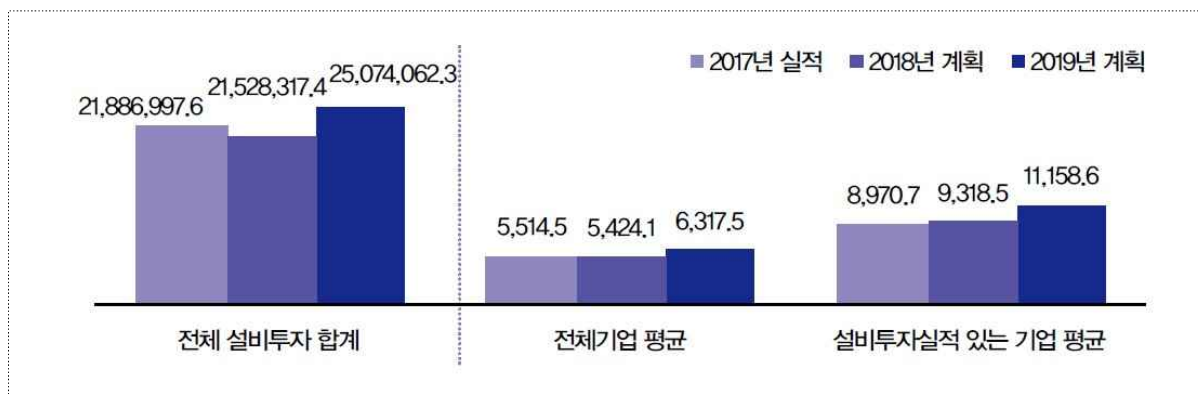
[그림 19] 17년~19년 설비 투자유무

(단위: %)



[그림 20] 17년~19년 설비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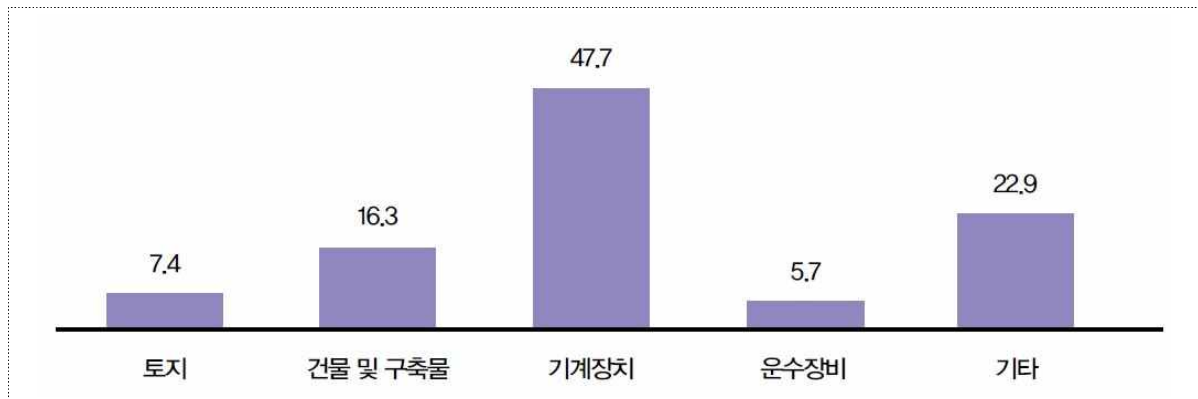


□ 연간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

- 중견기업의 연간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을 보면, 기계장치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물 및 구축물 16.3%, 토지 7.4%, 운수장비 5.7%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 연간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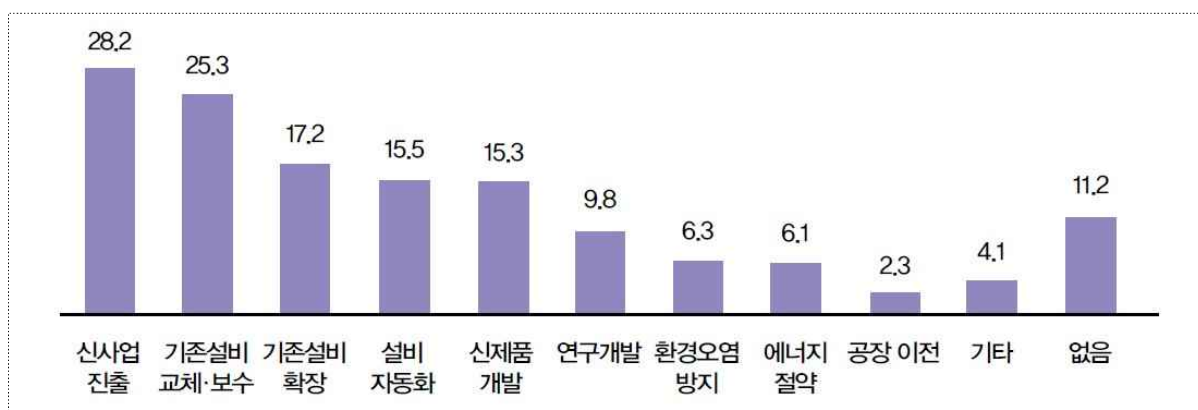


□ 최근 관심있는 투자분야

- 최근 관심있는 투자분야로 중견기업은 신사업 진출(28.2%)이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 다음 기존설비 교체/보수(25.3%), 기존설비 확장(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연간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

(단위: %)



2.4. 금융 및 자금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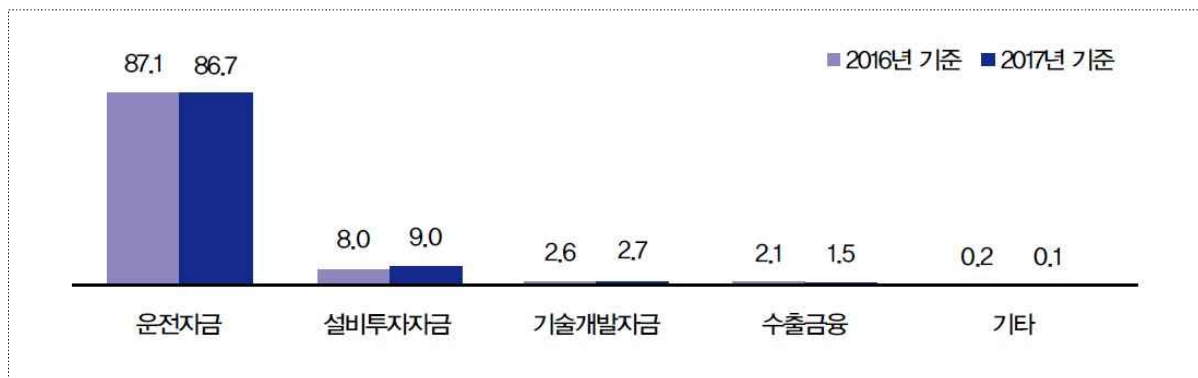
□ 자금조달 용도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6.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설비투자자금(9.0%), 기술개발자금(2.7%)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운전자금(87.1%), 설비투자자금(8.0%), 기술개발자금(2.6%) 등의 순임

[그림 23] 자금조달 용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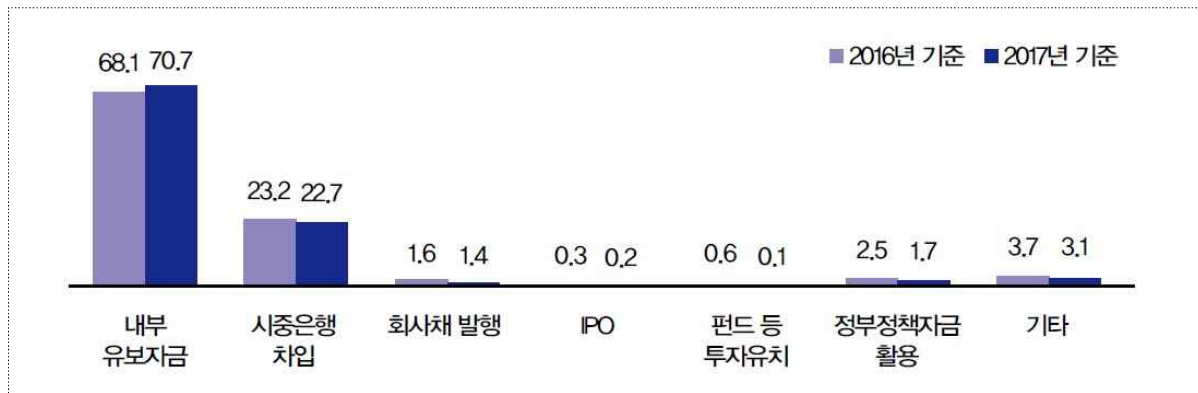
□ 자금조달원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70.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중은행 차입(22.7%), 정부정책자금 활용(1.7%)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동일하게 내부 유보자금(68.1%), 시중은행 차입(23.2%), 정부정책자금 활용(2.5%) 등의 순임

[그림 24] 자금조달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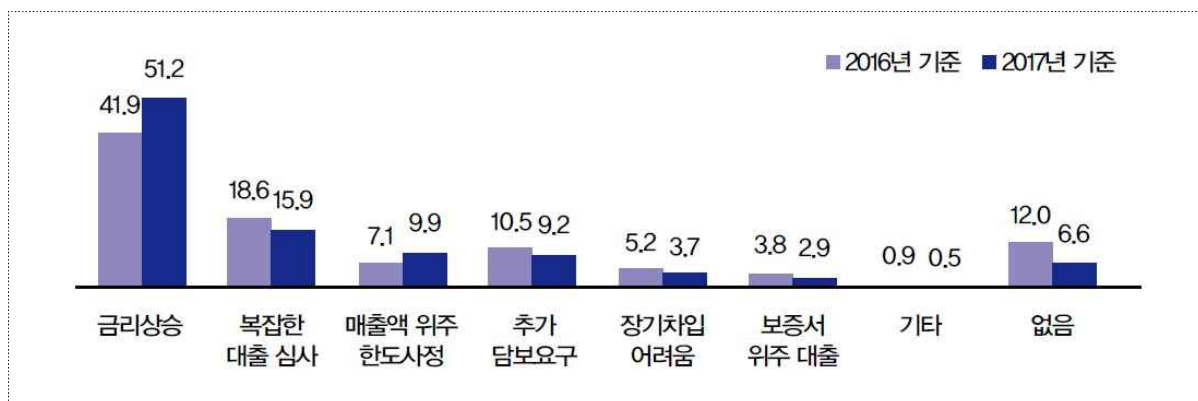


□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은 금리상승(51.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잡한 대출심사(15.9%), 매출액 위주의 한도 산정(9.9%)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금리상승(41.9%), 복잡한 대출심사(18.6%), 추가 담보요구(10.5%) 등의 순임

[그림 25]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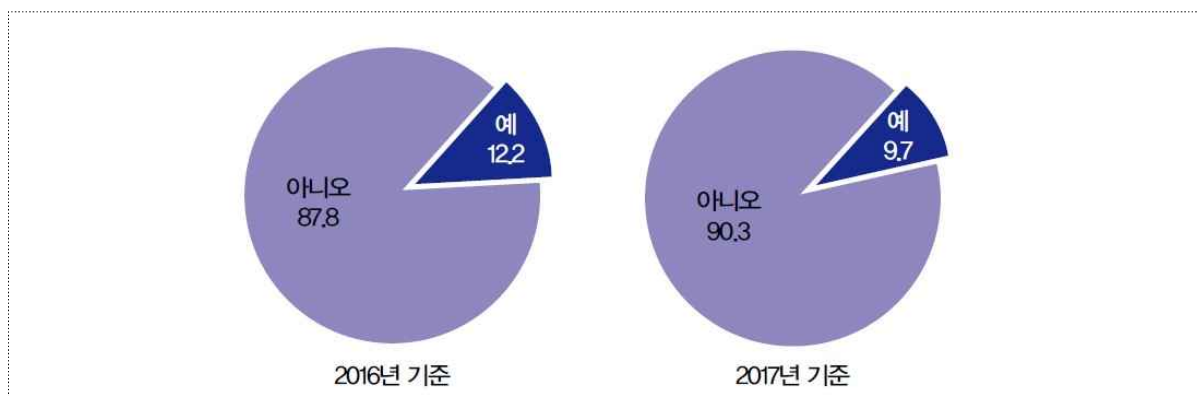


□ 정책자금 활용 여부

- 중견기업의 9.7%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 정책자금 활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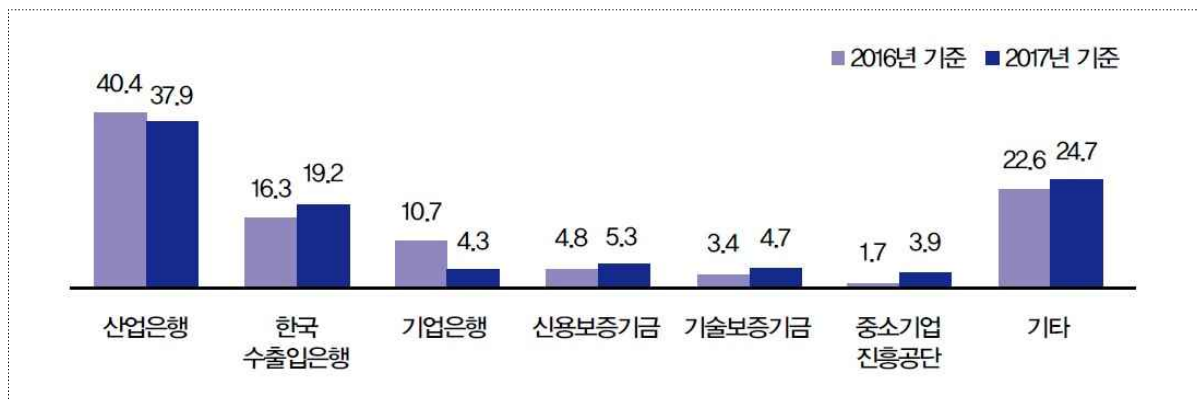


□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 중견기업의 정책자금 활용기관은 산업은행(37.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수출입은행(19.2%), 신용보증기금(5.3%)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산업은행(40.4%), 한국수출입은행(16.3%), 기업은행(10.7%) 순임

[그림 27]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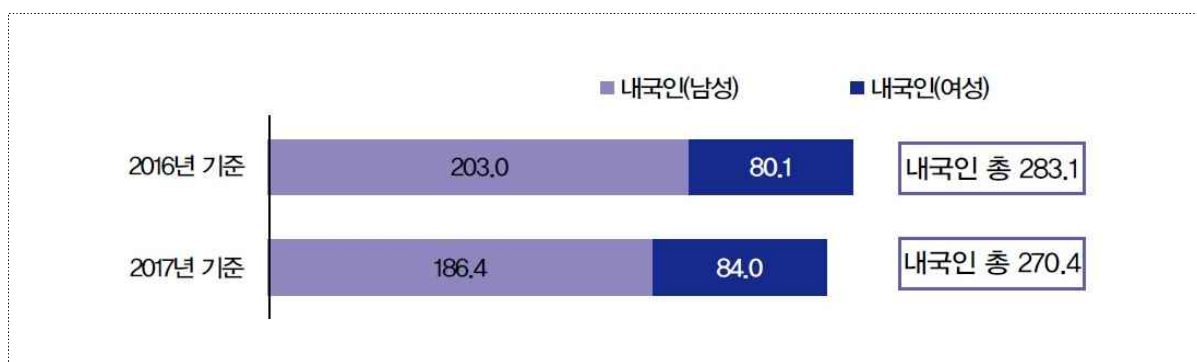
2.5. 인재확보

□ 인력 현황

-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270.4명, 남성 186.4명, 여성 84.0명임
- 2016년 기준 결과, 내국인 근로자 수는 283.1명, 남성 203.0명, 여성 80.1명임

[그림 28] 중견기업 인력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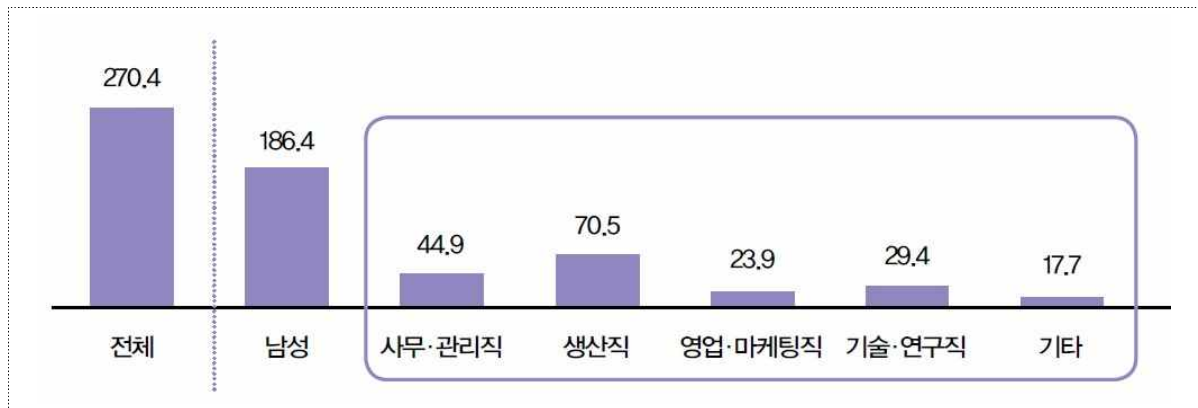


□ 직무별 현황

-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직무별 현황은 생산직 70.5명, 사무/관리직 44.9명, 기술/연구직 29.4명, 영업/마케팅직 23.9명 순임

[그림 29] 직무별 현황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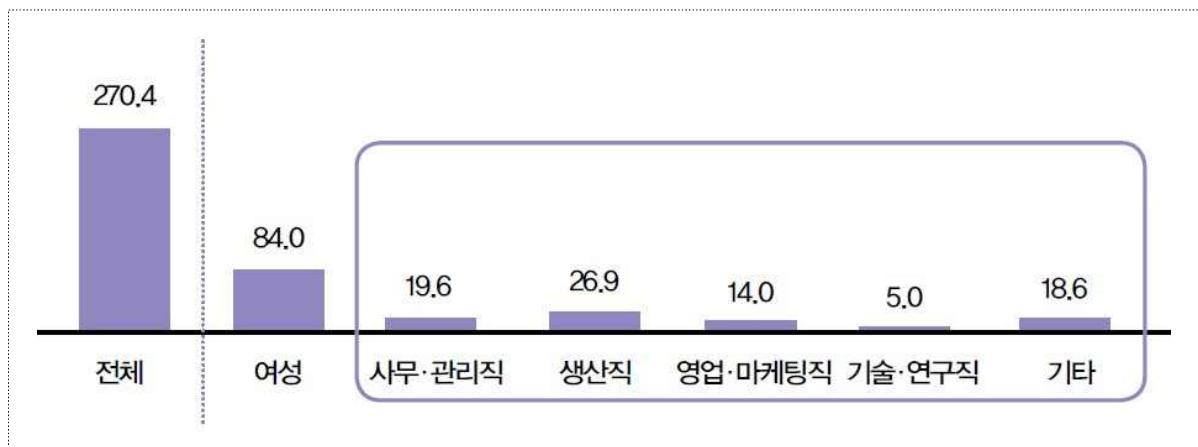
(단위: 명)



-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직무별 현황은 생산직 26.9명, 사무/관리직 19.6명, 영업/마케팅직 14.0명, 기술/연구직 5.0명 순임

[그림 30] 직무별 현황 - 여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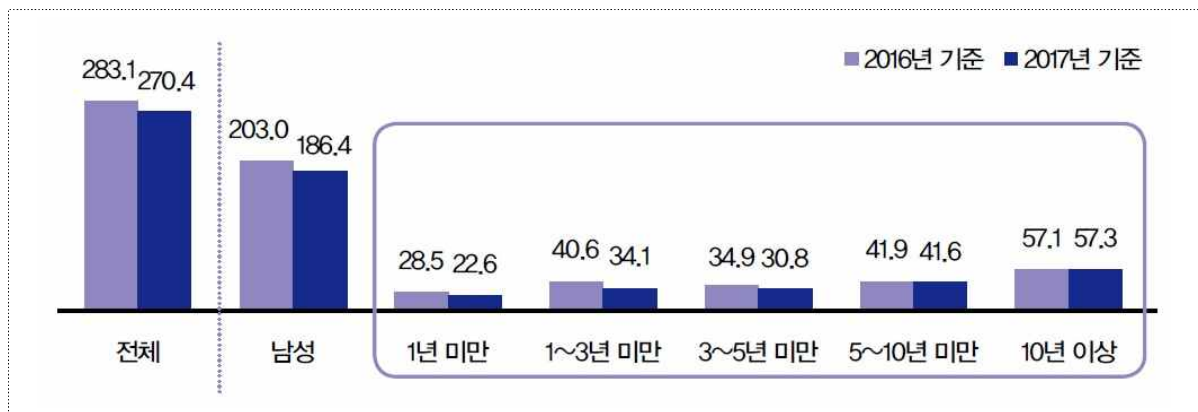


□ 재직연수

-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57.3명, 5~10년 미만 41.6명, 1~3년 미만 34.1명, 3~5년 미만 30.8명, 1년 미만 22.6명 순임
- 2016년 기준 결과, 중견기업 남성직원 재직연수 분포는 10년 이상 57.1명, 5~10년 미만 4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재직연수별 현황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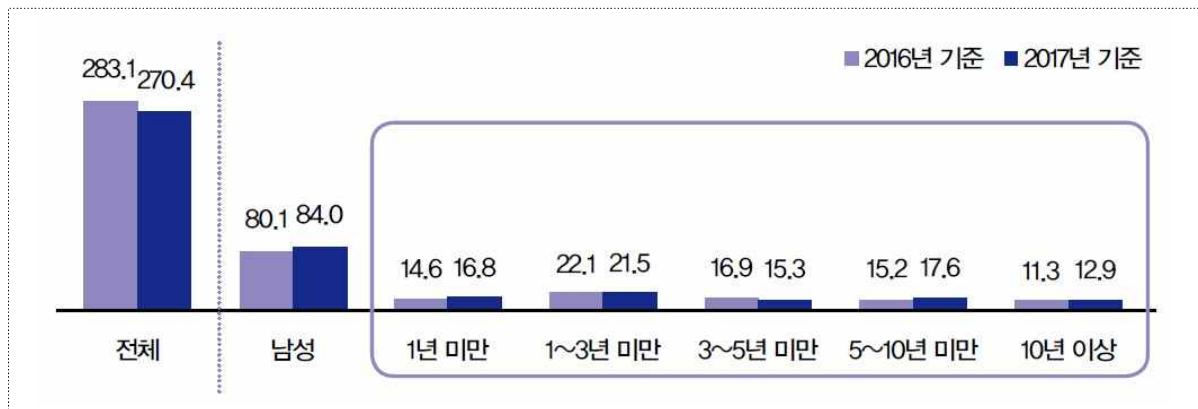
(단위: 명)



-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21.5명, 5~10년 미만 17.6명, 1년 미만 16.8명, 3~5년 미만 15.3명, 10년 이상 12.9명 순임
- 2016년 기준 결과, 중견기업 여성직원 재직연수 분포는 1~3년 미만 22.1명, 3~5년 미만 16.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재직연수별 현황 - 여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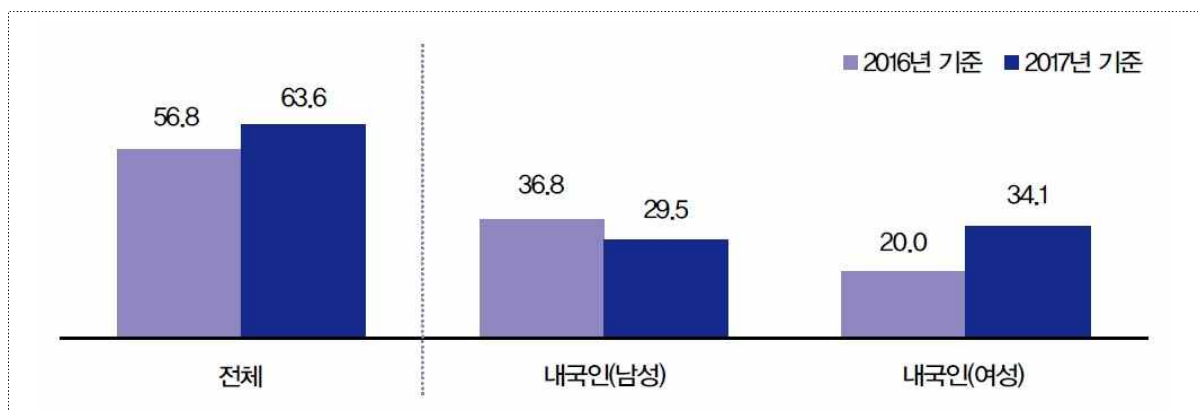


□ 신규 채용

- 중견기업은 2017년 총 253,952명을 채용하였으며, 평균 63.6명(남성 29.5명, 여성 34.1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채용실적은 평균 56.8명(남성 36.8명, 여성 20.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2017년 채용실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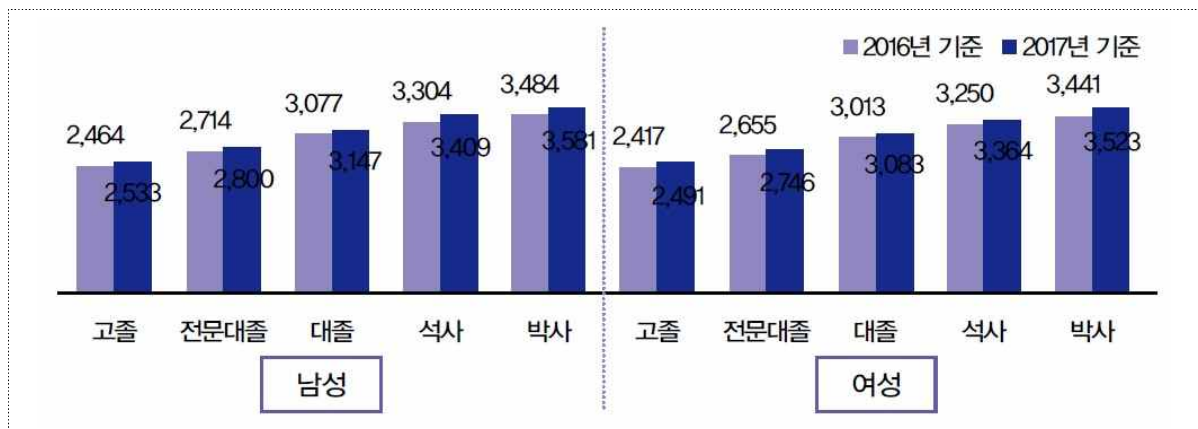


□ 신입사원 초임

- 중견기업의 신입사원 초임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34] 신입사원 초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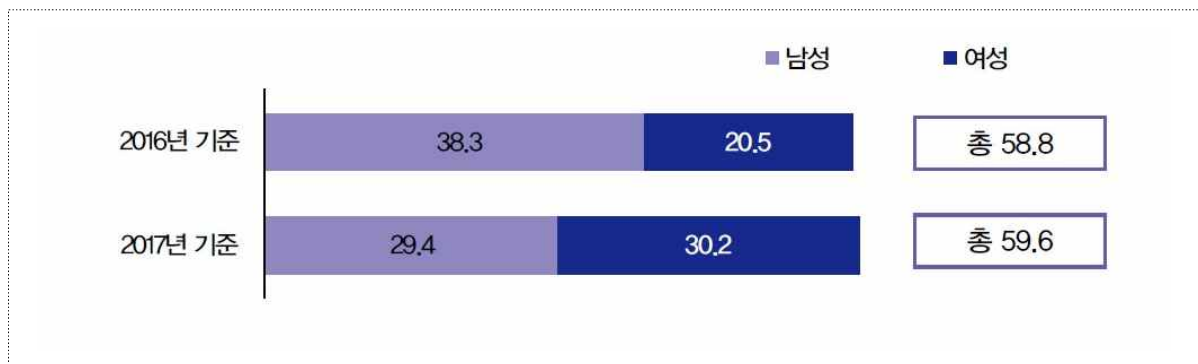


□ 이직자 현황

-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59.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29.4명, 여성 30.2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2.0%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이직자는 평균 58.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38.3명, 여성 20.5명임

[그림 35] 이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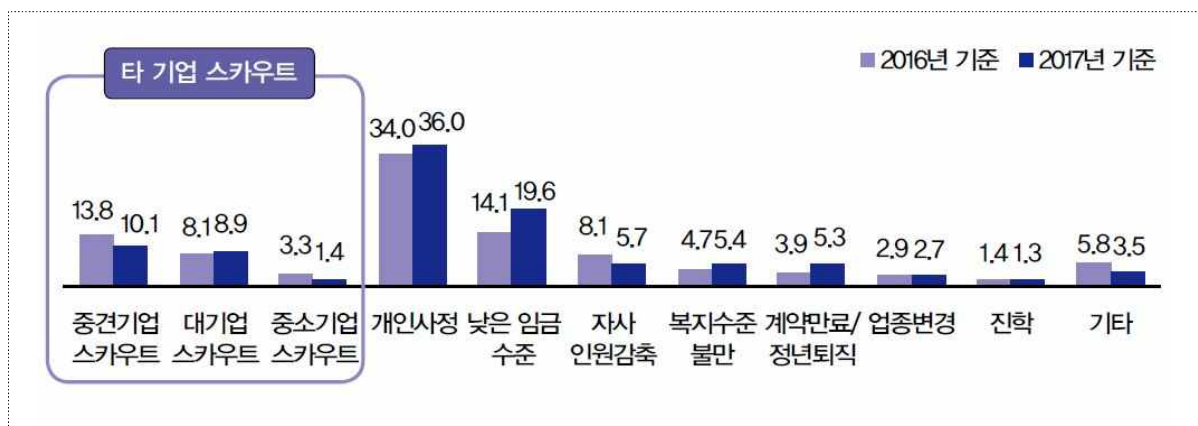
(단위: 명)



- 중견기업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개인사정(36.0%), 타 기업 스카우트 20.4%(중견기업스카우트(10.1%), 대기업 스카우트(8.9%), 중소기업 스카우트(1.4%)), 낮은 임금수준(19.6%), 자사 인원감축(5.1%) 순임
- 2016년 기준 결과,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개인사정(34.0%), 타 기업 스카우트 25.2%(중견기업 스카우트(13.8%), 대기업 스카우트(8.1%), 중소기업 스카우트(3.3%)) 등의 순임

[그림 36] 주요 이직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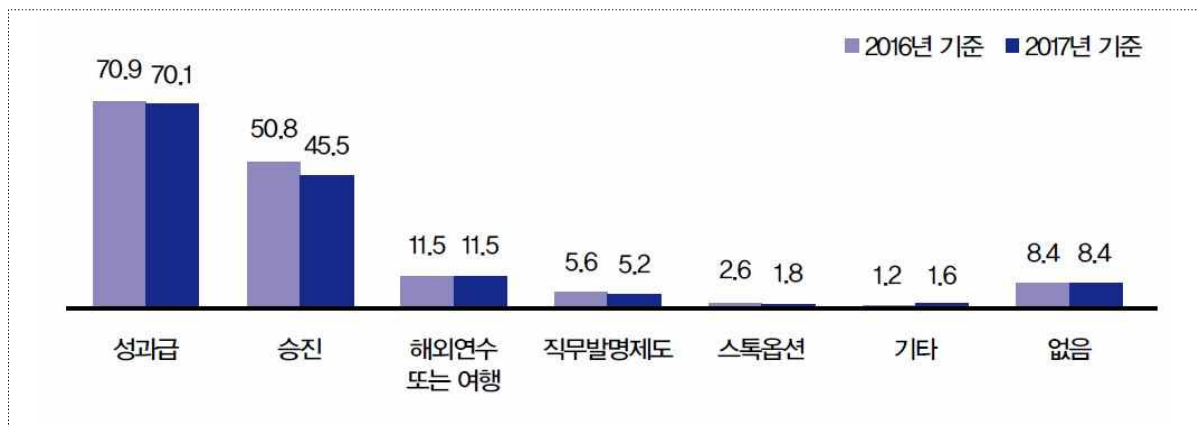


□ 성과보상 제도

- 중견기업의 성과보상 제도는 성과급(70.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승진(45.5%), 해외연수 또는 여행(11.5%), 직무 발명제도(5.2%)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성과급(70.9%), 승진(50.8%), 해외연수 또는 여행(11.5%)등의 순임

[그림 37] 성과보상 제도

(단위: %)



2.6. 국제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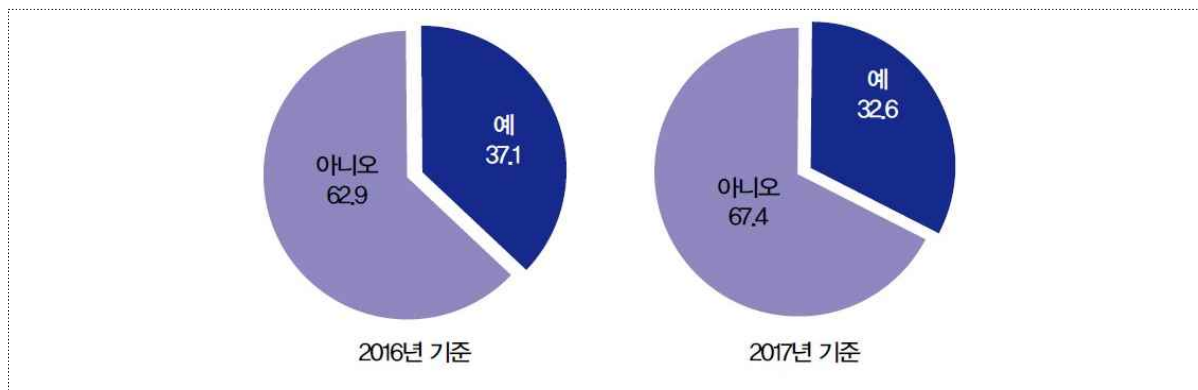
□ 수출

○ 중견기업 전체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2.6%이며, 내수기업은 67.4%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7.1%이며, 내수기업은 62.9%로 나타남

[그림 38] 해외 수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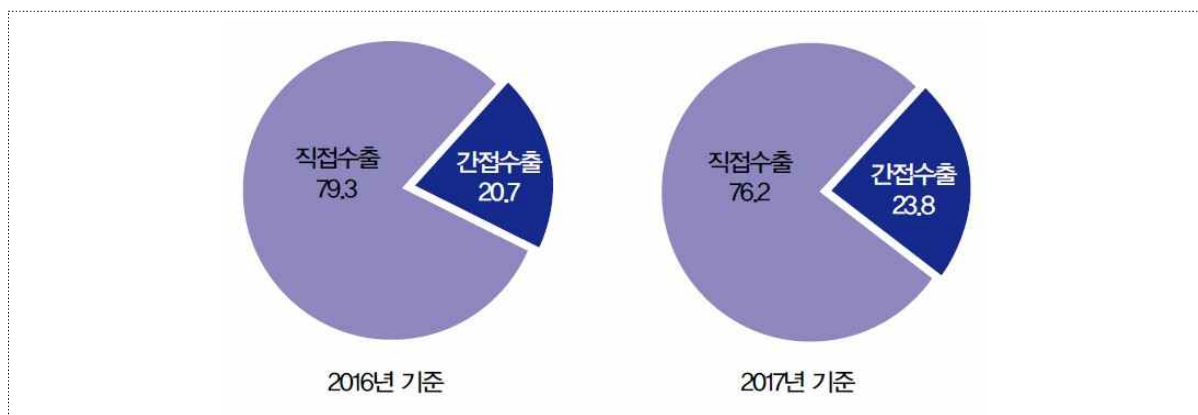
□ 직/간접수출 비중

○ 전체 수출 중견기업 중 직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76.2%,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23.8%로 직접수출 비중이 간접수출 비중의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직접수출을 하는 중견기업은 79.3%, 간접수출은 20.7%로 조사됨

[그림 39] 직/간접수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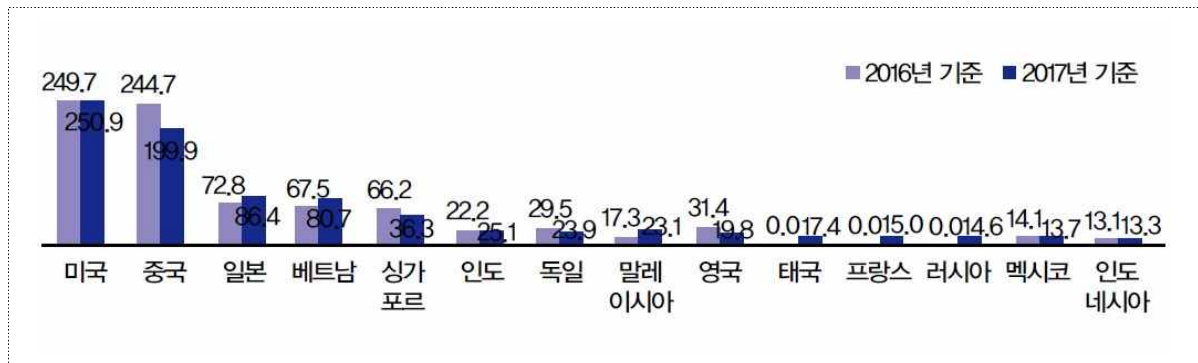


□ 주요 수출지역 및 금액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전체 수출금액은 980억불이며, 수출한 국가는 미국(250.8억불), 중국(199.9억불), 일본(86.3억불), 베트남(80.6억불) 순으로 나타남

[그림 40] 주요수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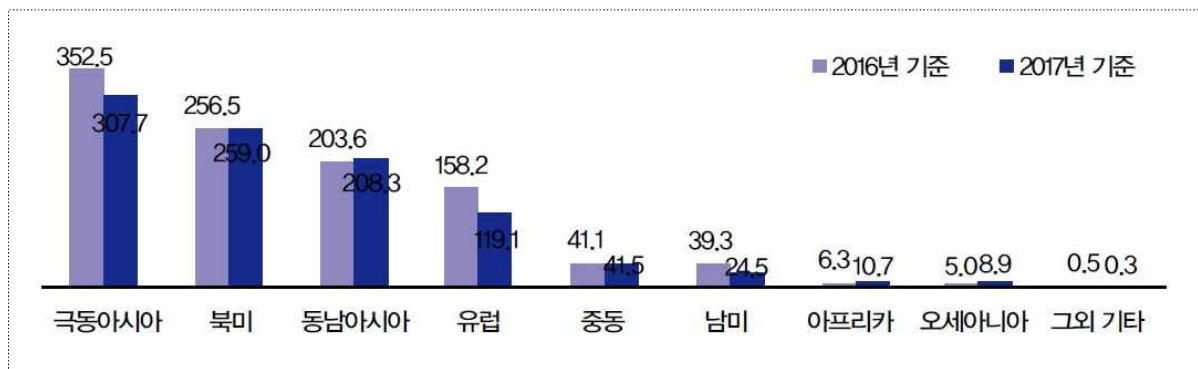
(단위: 억불)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대륙별 수출금액은 극동아시아(307.7억불), 북미(259.0억불), 동남아시아(208.3억불), 유럽(119.1억불)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 주요수출 대륙별 수출금액

(단위: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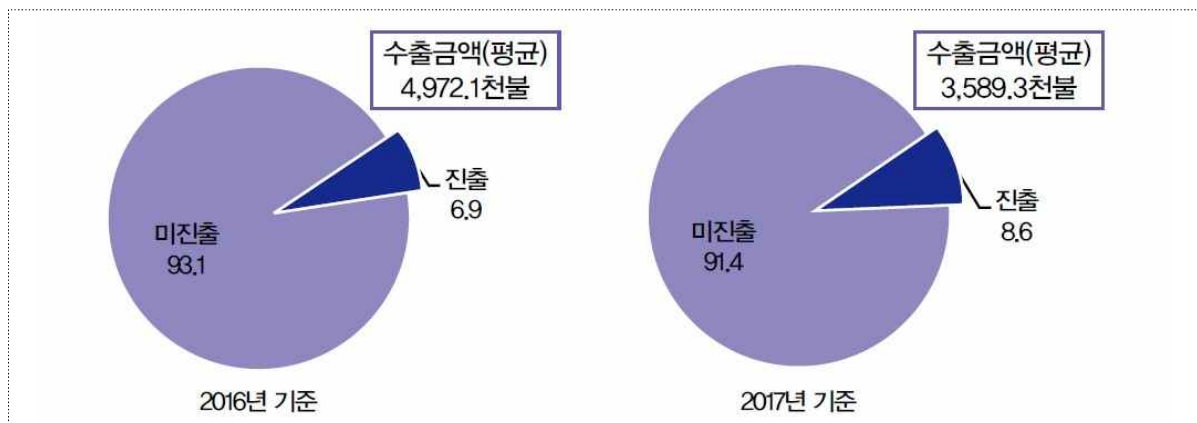


□ 해외 신규 진출

- 수출 중견기업 중 2017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8.6%이며, 이들의 평균 수출금액은 3,589.3천불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6.9%, 수출금액(평균)은 4,972.1천불임

[그림 42] 신규 진출 국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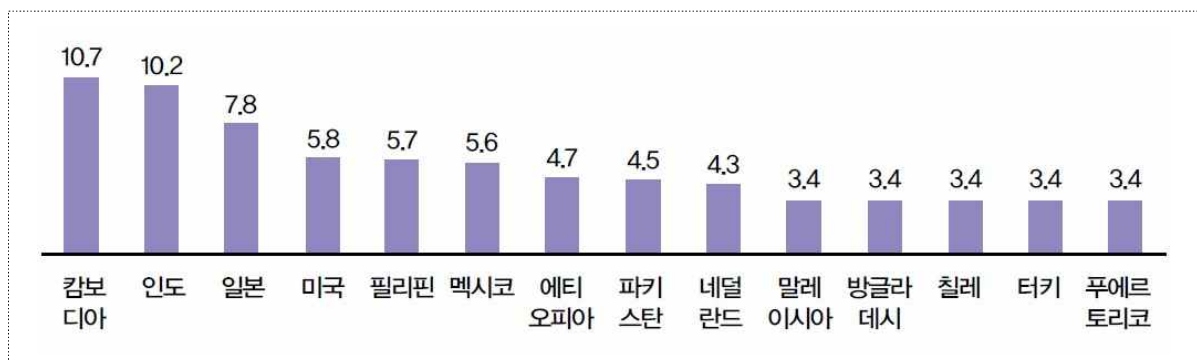


□ 신규 진출 지역

- 해외 수출기업의 신규 진출지역으로는 캄보디아가 1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도(10.2%), 일본(7.8%), 미국(5.87%), 필리핀(5.7%), 멕시코(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 신규 진출 국가(상위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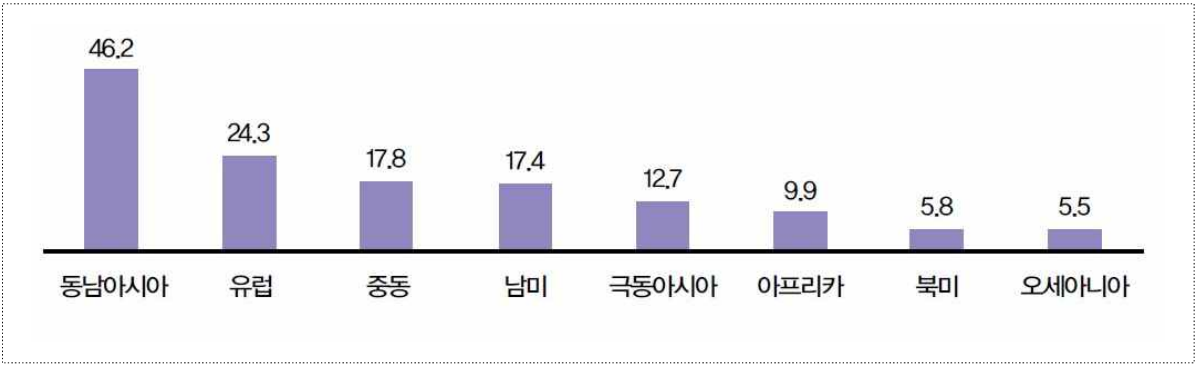
(단위: %)



- 해외 수출기업의 신규 진출 대륙으로는 동남아시아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럽(24.3%), 중동(17.8%), 남미(17.4%), 극동아시아(12.7%), 아프리카(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4] 신규 진출 대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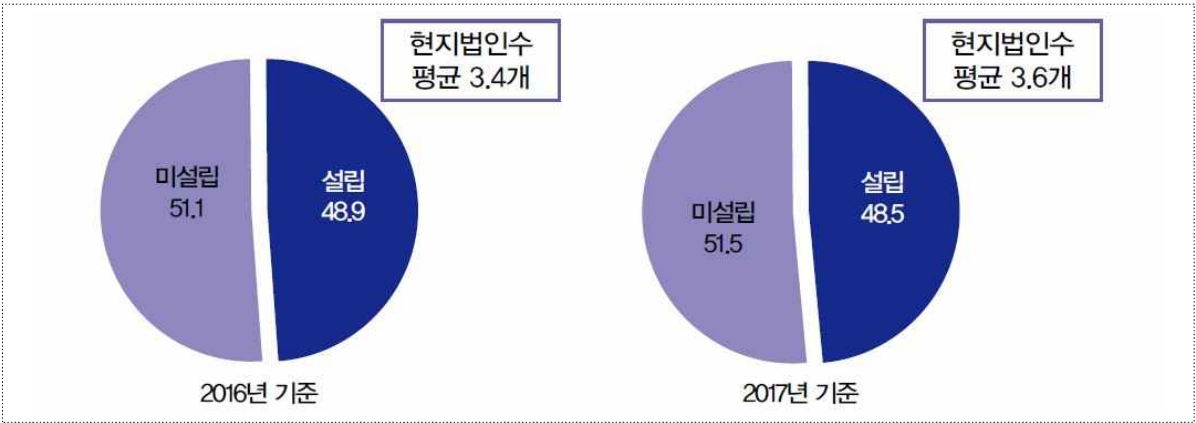


□ 현지법인 설립

- 수출기업 중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은 48.5%이며, 기업당 평균 3.6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현지법인 설립은 48.9%이며, 기업당 평균 3.4개로 조사됨

[그림 45] 현지법인 설립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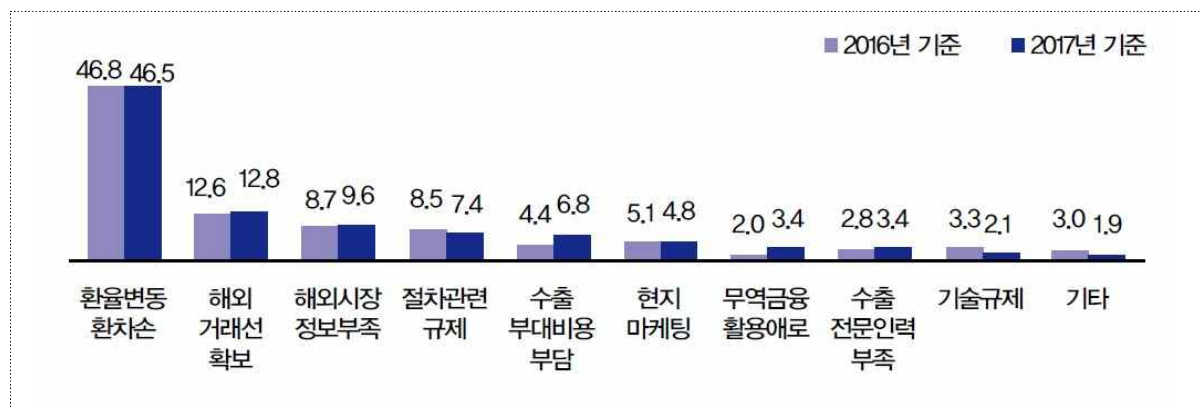


□ 수출시 애로사항

- 수출 중견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으로는 환율변동 환차손(46.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외 거래선 확보(12.8%), 해외시장 정보부족(9.6%), 절차관련 규제(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환율변동 환차손(46.8%), 해외 거래선 확보(12.6%), 해외시장 정보부족(8.7%), 절차관련 규제(8.5%), 수출 부대비용 부담(4.4%), 현지 마케팅(5.1%), 무역금융 활용애로(2.0%), 수출 전문인력 부족(2.8%), 기술규제(3.3%), 기타(3.0%) 등의 순임

[그림 46] 수출시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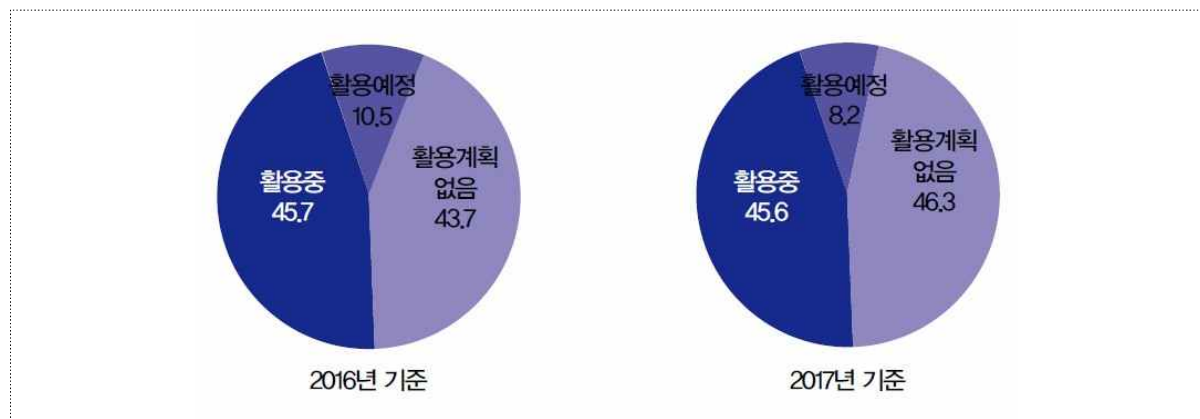


□ FTA 활용 여부

- 수출 중견기업 중 FTA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5.6%, 활용예정 기업은 8.2%, 활용예정인 기업이 없는 기업은 46.3%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5.7%, 활용예정 기업은 10.5%, 활용예정인 기업이 없는 기업은 43.7%로 조사됨

[그림 47] FTA 활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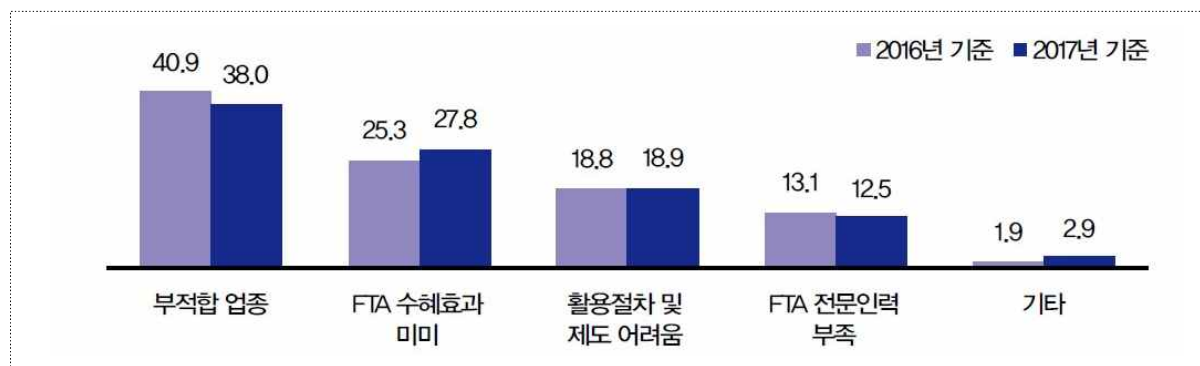


□ FTA 미활용 사유

- 수출 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사유는 부적합 업종(38.0%)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FTA 수혜효과 미미(27.8%),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18.9%)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동일하게 부적합 업종(40.9%), FTA 수혜효과 미미(25.3%),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18.8%) 순임

[그림 48] FTA 미활용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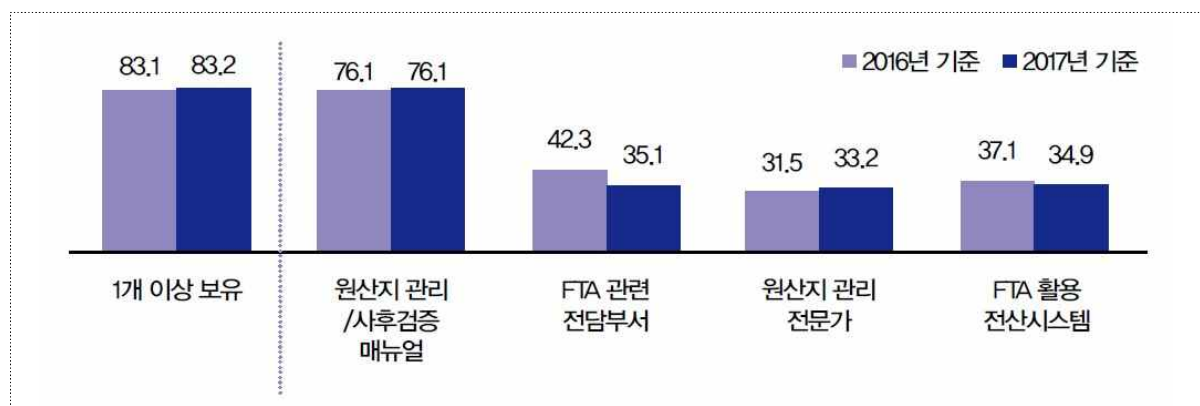


□ FTA 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 FTA를 활용하는 중견기업의 83.2%는 1개 이상의 FTA 관련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76.1%), FTA관련 전담 부서(35.1%)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49]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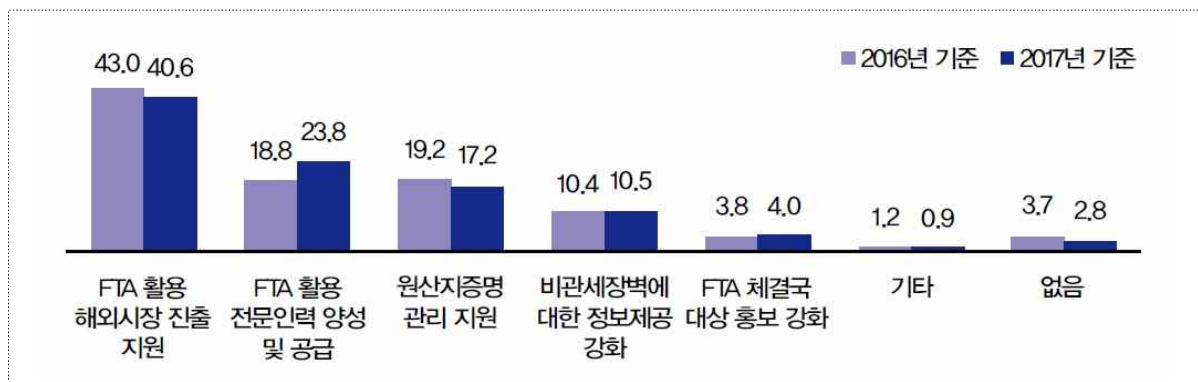


□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는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4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23.8%),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7.2%),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43.0%), 원산지 증명 관리 지원(19.2%),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18.8%),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10.4%) 등의 순임

[그림 50]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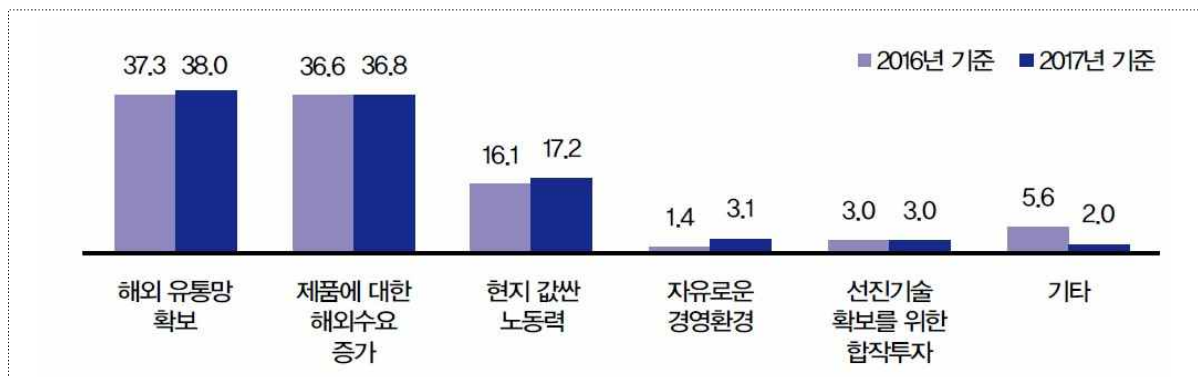


□ 해외진출 고려 이유

-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유통망 확보(38.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6.8%), 현지 값싼 노동력(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동일하게 해외 유통망 확보(37.3%),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6.6%), 현지 값싼 노동력(16.1%) 등의 순임

[그림 51] 해외진출 고려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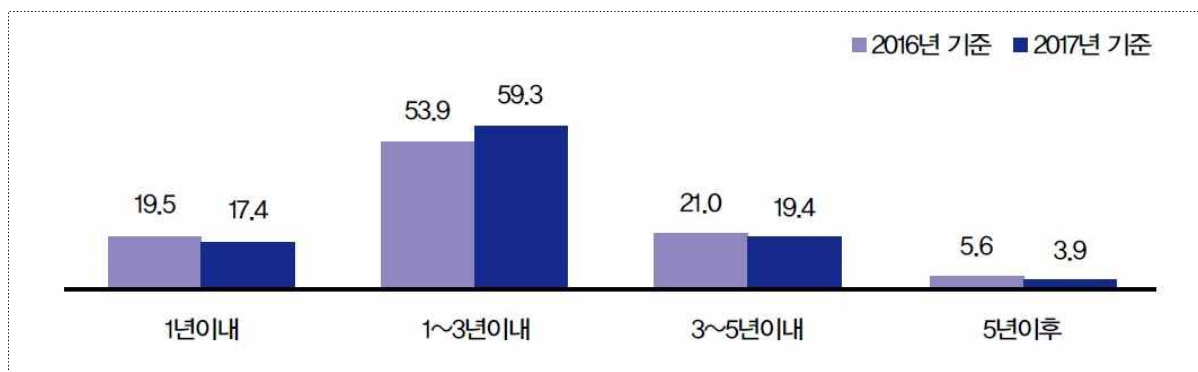


□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은 1~3년 이내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5년 이내(19.4%), 1년 이내(17.4%), 5년 이후(3.9%)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1~3년 이내(53.9%), 3~5년 이내(21.0%), 1년 이내(19.5%), 5년 이후(5.6%) 순임

[그림 52]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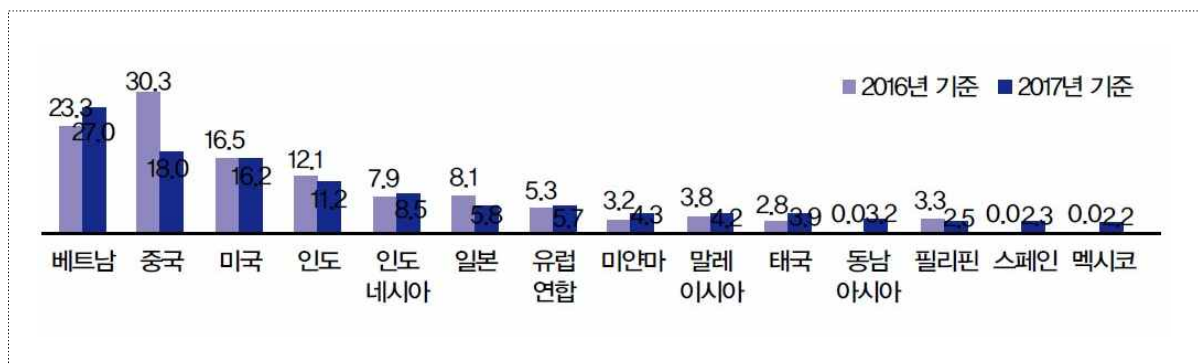


□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 향후 신규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로는 베트남이 2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18.0%), 미국(16.2%), 인도(11.2%), 인도네시아(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중국(30.3%), 베트남(23.3%), 미국(16.5%), 인도(12.1%), 일본(8.1%) 등의 순임

[그림 53]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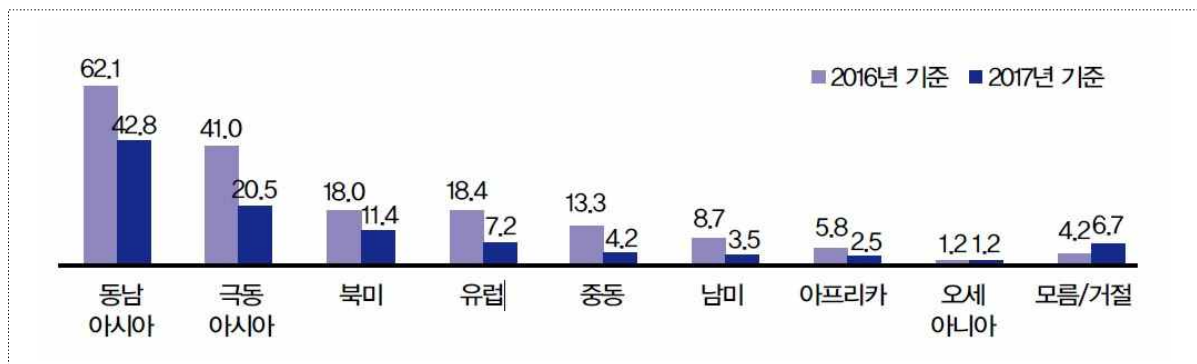
(단위: %)



- 향후 신규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대륙으로는 동남아시아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극동아시아(20.5%), 북미(11.4%), 유럽(7.2%), 중동(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결과로는 동남아시아 (62.1%), 극동아시아(41.0%), 유럽(18.4%), 북미(18.0%), 중동(13.3%) 등의 순임

[그림 54]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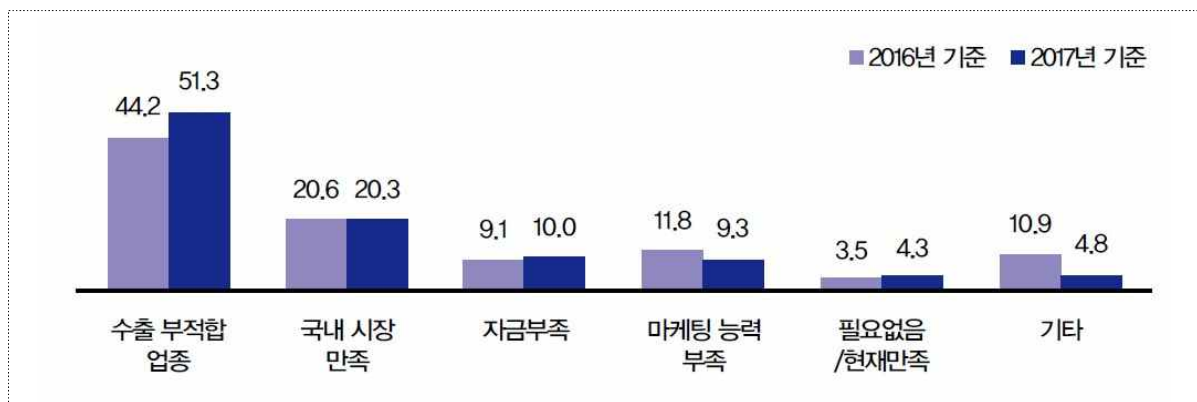


□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중견기업은 주요 사유로 수출 부적합 업종 (51.3%)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 시장 만족(20.3%), 자금부족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수출 부적합 업종 (44.2%), 국내 시장 만족(20.6%), 마케팅 능력 부족 (11.8%) 등의 순임

[그림 55]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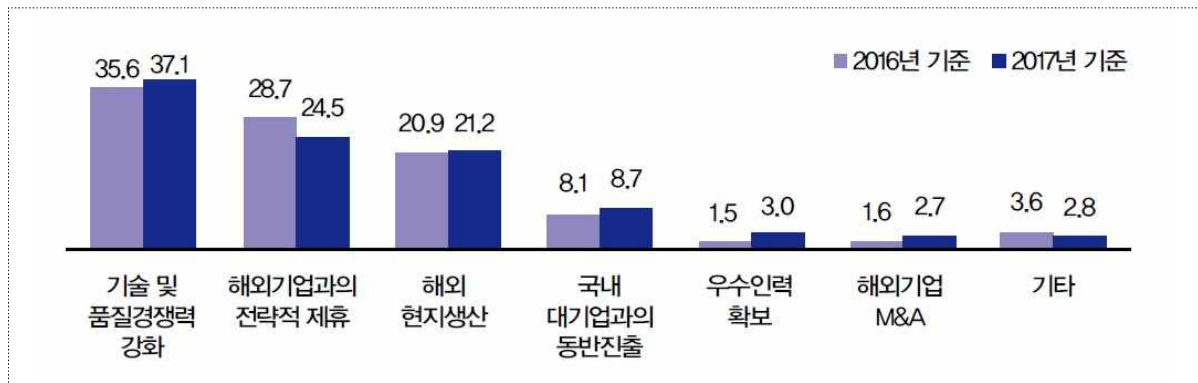
(단위: %)



-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은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으로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7.1%)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4.5%), 해외 현지생산(2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5.6%),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8.7%), 해외 현지생산(20.9%) 등의 순임

[그림 56]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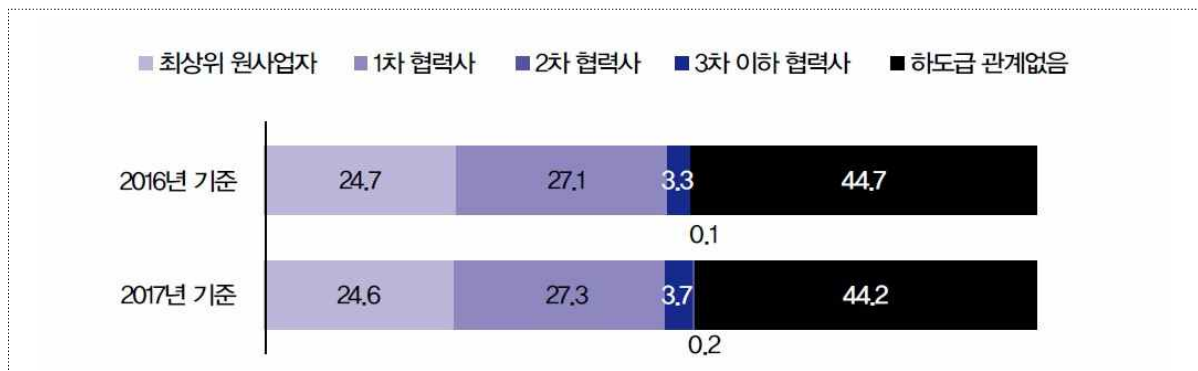
2.7. 수.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

□ 수.위탁 거래 단계

- 중견기업의 55.8%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결과, 중견기업의 55.3%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7] 수.위탁거래 수행기업의 단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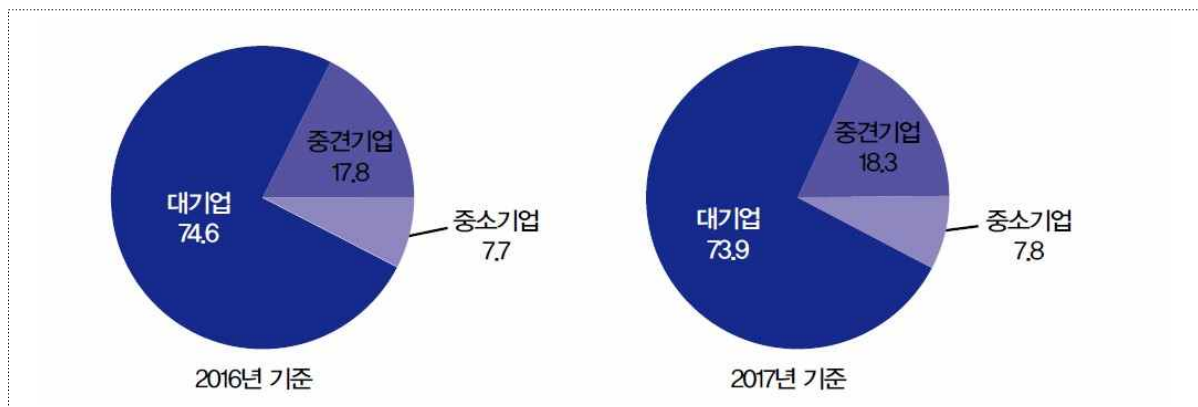


□ 위탁거래 현황

- 수탁 중견기업의 거래대상별 매출 비중을 보면 73.9%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8.3%는 중견기업, 7.8%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대기업(74.6%), 중견기업(17.8%), 중소기업(7.7%)순으로 거래함

[그림 58] 위탁기업 거래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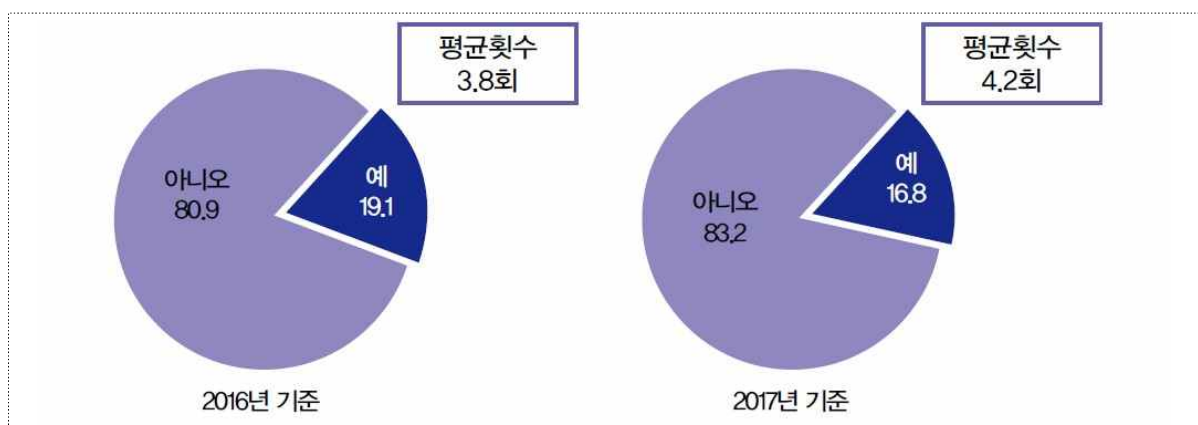


□ 납품단가 인하

- 수탁 중견기업의 16.8%는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횟수는 평균 4.2회, 평균 단가인하율은 3~5%미만(36.6%)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19.1%는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횟수는 평균 3.8회임

[그림 59] 납품단가 인하요구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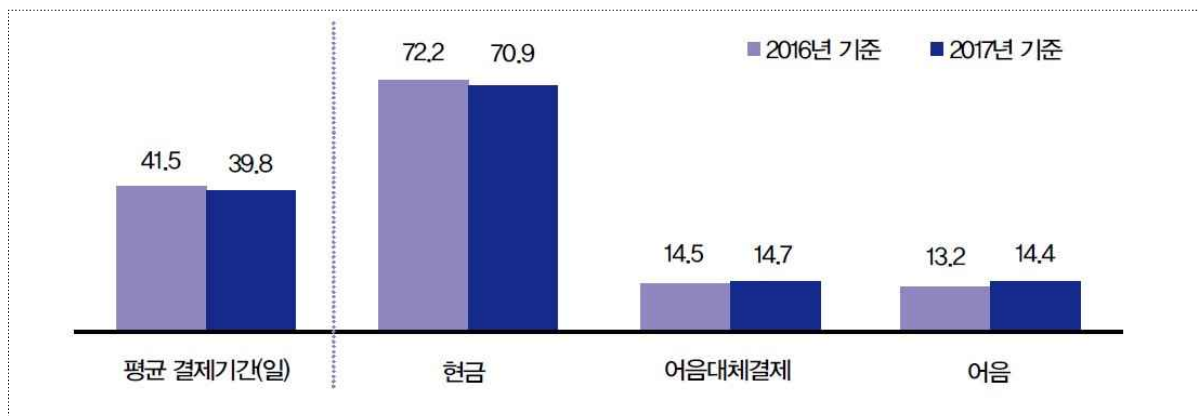


□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 중견기업이 위탁기업(모기업) 결제 수단 비중은 결제수단비중은 현금(70.9%), 어음 대체결제(14.7%), 어음(14.4%)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평균 41.5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72.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음대체결제(14.5%), 어음(13.2%) 순임

[그림 60]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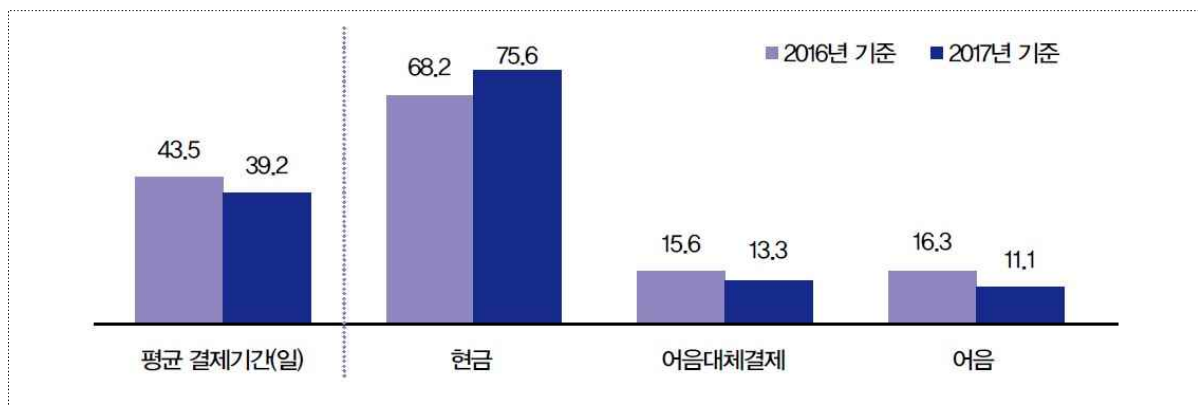


□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 중견기업이 수탁기업(협력사) 결제 수단 비중은 결제수단비중은 현금(75.6%), 어음 대체결제(13.3%), 어음(11.1%)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기간은 평균 43.5일이며, 결제수단비중은 현금(68.2%), 어음(16.3%) 등의 순임

[그림 61]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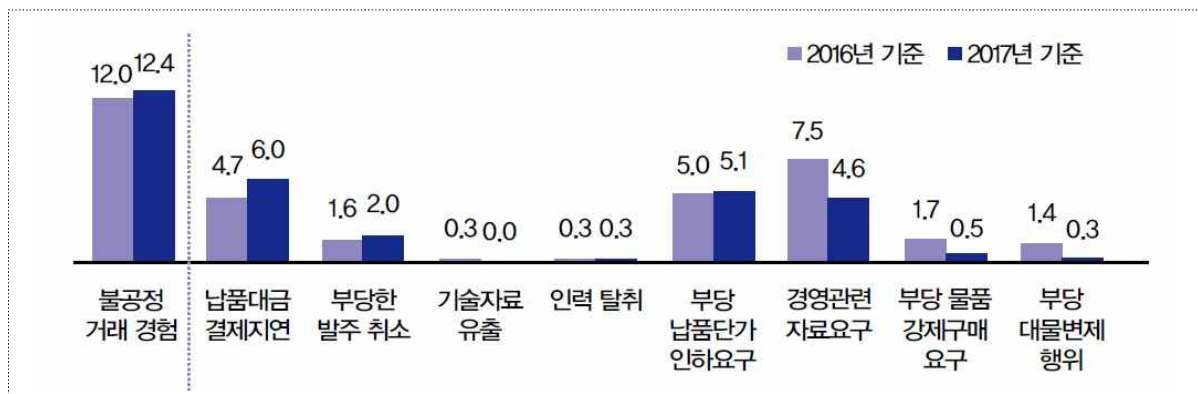


□ 불공정 거래

- 수탁 중견기업 중 12.4%는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납품대금 결제지연(6.0%),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5.1%), 경영관련 자료요구(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12.0%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관련 자료요구(7.5%),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5.0%), 납품대금 결제지연(4.7%) 등의 순임

[그림 62] 불공정거래 경험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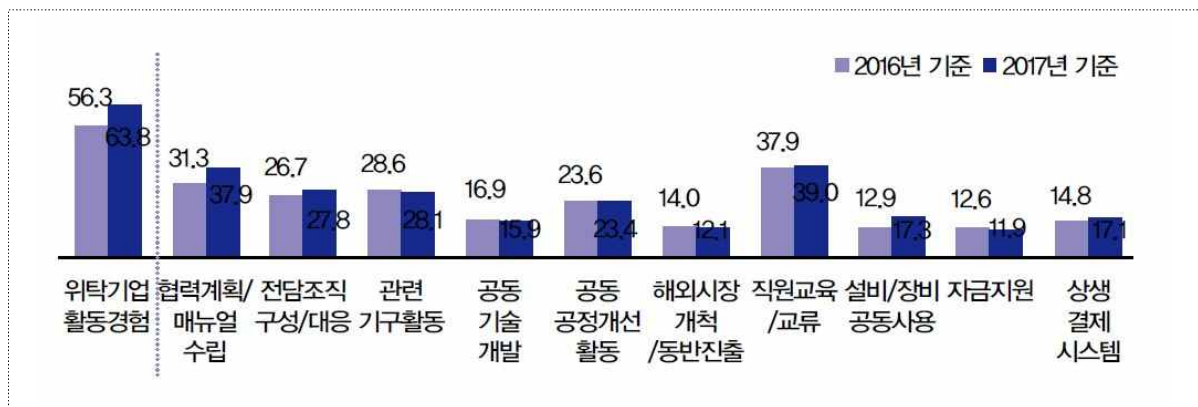


□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수탁 중견기업의 63.8%는 위탁기업(모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원교육/교류(39.0%),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7.9%), 관련 기구활동(28.1%) 등이 높게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56.3%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원교육/교류(37.9%),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1.3%)등의 순임

[그림 63]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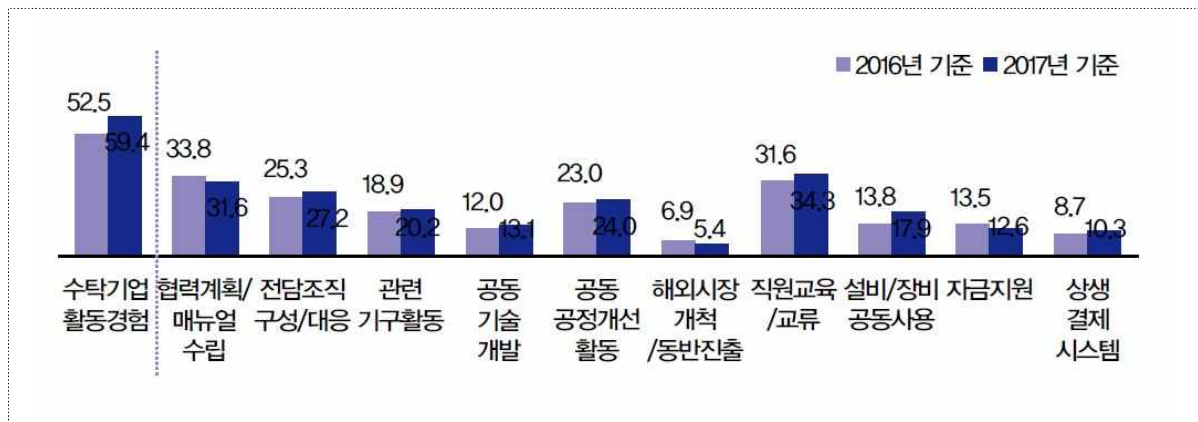


□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위탁 중견기업의 59.4%는 수탁기업(협력사)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원교육/교류(34.3%), 협력계획/매뉴얼 수립(31.6%), 전담조직 구성/대응(27.2%) 등이 높게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52.5%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3.8%), 직원교육/교류(31.6%), 전담조직 구성/대응(25.3%) 등의 순임

[그림 64]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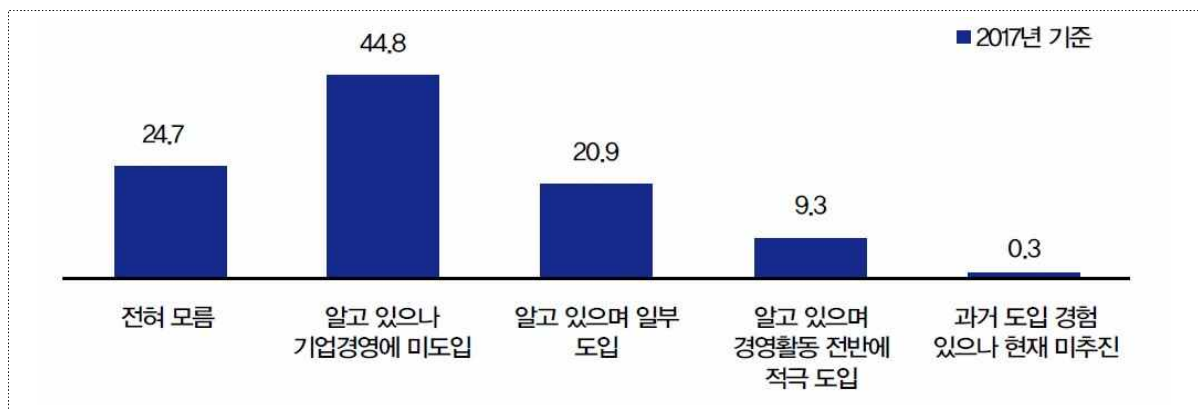
2.8.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 사회적 책임(CSR) 경영 인지 및 도입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을 알고있거나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으나 기업경영에 미도입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혀모름이 24.7%, 일부 도입 20.9%,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도입 9.3%, 과거 도입 경험 있으나 현재 미추진 0.3%로 나타남

[그림 65] 사회적 책임(CSR) 경영 인지 및 도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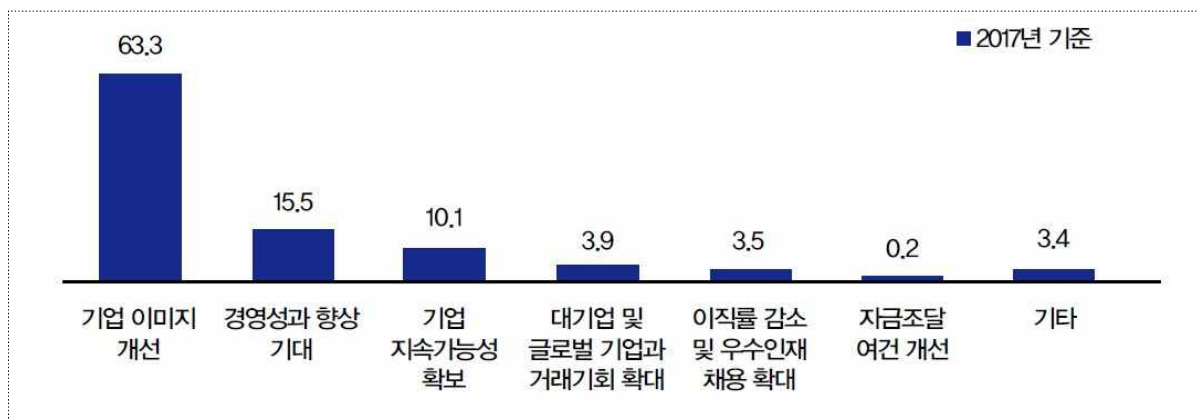


□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 사회적 책임(CSR) 경영을 도입한 중견기업의 도입이유로는 기업 이미지 개선이 6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영성과 향상 기대가 15.5%,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6]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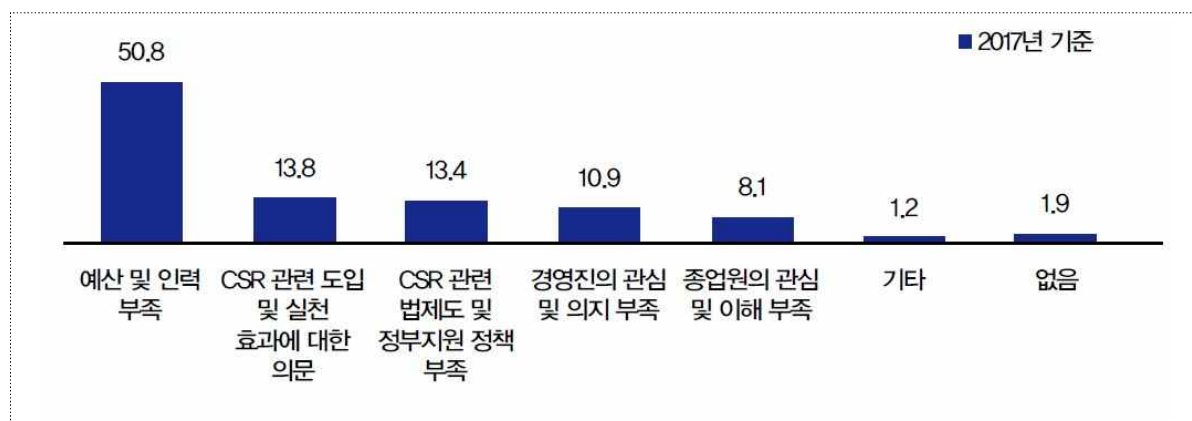


□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및 실천 시 어려운점

-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및 실천시 예산 및 인력 부족이 50.8%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CSR 관련 도입 및 실천 효과에 대한 의문 13.8%, CSR 관련 법제도 및 정부지원 정책 부족 13.4%,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부족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7]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및 실천시 어려운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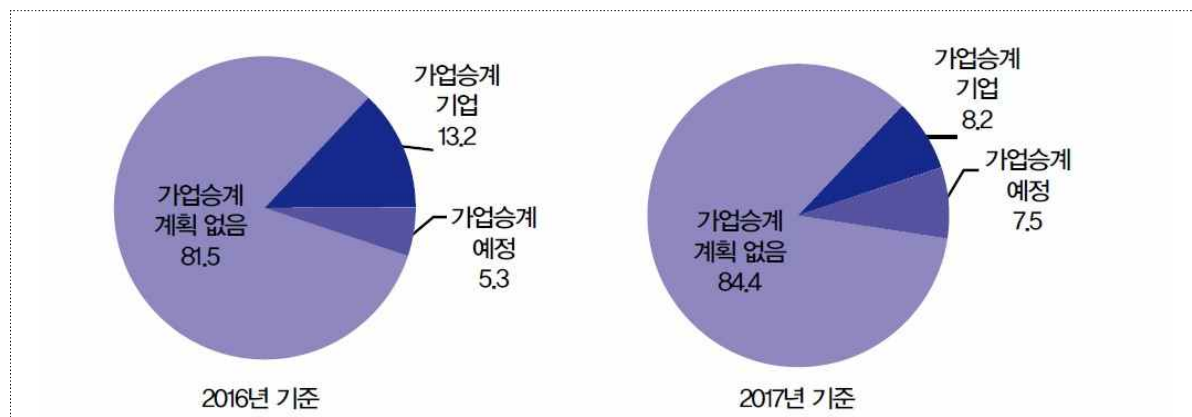


□ 가업승계

- 중견기업의 84.4%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2%는 가업승계 기업, 7.5%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나

[그림 68] 가업승계 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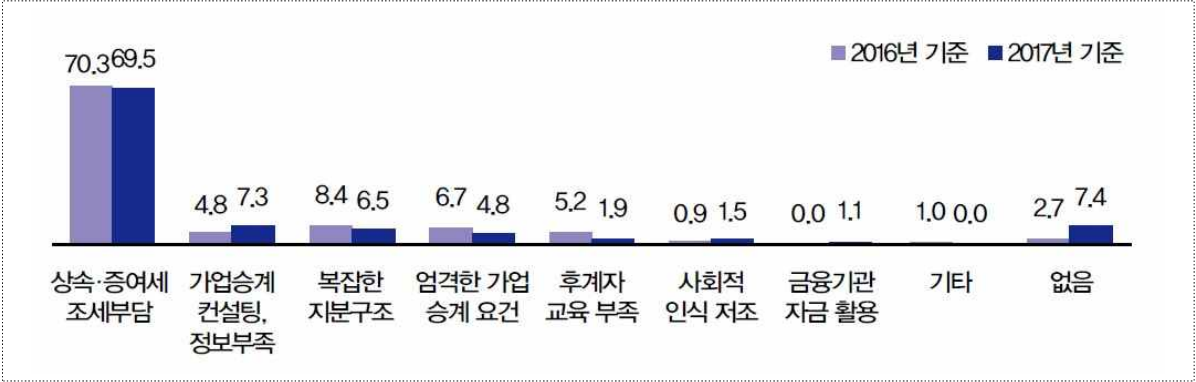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조세부담(69.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7.3%), 복잡한 지분구조(6.5%),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0.3%), 복잡한 지분구조(8.4%),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6.7%) 등의 순임

[그림 69] 가업승계 애로사항

(단위: %)



● ● ● 목 차 ● ● ●

제 1 장 조사개요	3
1절 조사목적	3
2절 중견기업의 정의	4
1. 중견기업 정의 및 범위	4
2. 중견기업 기준	5
3절 조사설계	7
1. 조사개요	7
2. 조사내용	8
3. 표본설계	9
 제 2 장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15
1절 중견기업 특성	15
1. 중견기업 기초 정보	15
2. 일반 중견기업 기초 정보	17
3. 피출자/관계기업 기초 정보	18
2절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19
1.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19
2. 인수합병 (M&A)	25
3. 중견기업 경영 애로	32
3절 기술혁신	37
1.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37
2. 지식재산권	54
3. R&D 관련 정부지원사업	65
4절 투자현황	69
1. 중견기업의 기술/설비 투자	69
5절 금융 및 자금조달	88
1. 자금조달	88

2. 정책자금의 활용	97
6절 인재확보	101
1. 인력 현황	101
2. 직원 복지	125
7절 국제화 촉진	127
1. 수출	127
2. 현지법인	142
3. FTA 활용	150
8절 수.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	179
1. 수.위탁 거래 현황	179
2.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189
9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198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	198
2. 가업승계	208
 부 록. 설 문 지	 215

● ● ● 표 목 차 ● ● ●

[표 1-1] 중견기업의 범위	4
[표 1-2] 기업 규모에 따른 관련 법령	4
[표 1-3] 업종별 중견기업 규모기준	5
[표 1-4] 조사개요	7
[표 1-5] 조사내용	8
[표 2-1] 중견기업 일반 현황	16
[표 2-2] 일반 중견기업 일반 현황	17
[표 2-3] 피출자/관계기업 일반 현황	18
[표 2-4]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20
[표 2-5]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22
[표 2-6]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계속)	23
[표 2-7]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	24
[표 2-8] 인수합병(M&A) 경험	26
[표 2-9]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28
[표 2-10] M&A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30
[표 2-11] M&A활성화 필요정책 : 1+2순위	31
[표 2-12] 경영 애로사항 : 1순위(계속)	33
[표 2-13] 경영 애로사항 : 1순위	34
[표 2-14]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35
[표 2-15]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	36
[표 2-16] 기술개발 동기(계속)	38
[표 2-17] 기술개발 동기	39
[표 2-18] 기술개발 방식	41
[표 2-19]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43
[표 2-20] 산학협력 활동 경험	45
[표 2-21] 협력기관	47
[표 2-22] 기술이전 받은 경험	49
[표 2-23] 기술이전처	51
[표 2-24] 기술수준 정의	52
[표 2-25] 주력기술 수준	53
[표 2-26]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55
[표 2-27]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57
[표 2-28]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계속)	58

[표 2-29]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	59
[표 2-30]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계속)	60
[표 2-31]	지식재산권 침해경험	62
[표 2-32]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64
[표 2-33]	정부지원 R&D사업 수행 경험	66
[표 2-34]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68
[표 2-35]	2017년 R&D 투자실적	71
[표 2-36]	2018년 R&D 투자계획	73
[표 2-37]	2019년 R&D 투자계획	75
[표 2-38]	2017년 설비투자 실적	78
[표 2-39]	2018년 설비투자 계획	80
[표 2-40]	2019년 설비투자 계획	82
[표 2-41]	연간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	84
[표 2-42]	최근 관심있는 투자분야(계속)	86
[표 2-43]	최근 관심있는 투자분야	87
[표 2-44]	주요 자금조달 용도	89
[표 2-45]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91
[표 2-46]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순위(계속)	93
[표 2-47]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순위	94
[표 2-48]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95
[표 2-49]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2순위	96
[표 2-50]	정책자금 활용 여부	98
[표 2-51]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100
[표 2-52]	중견기업 인력 현황	102
[표 2-53]	남성 직무별 현황 : 평균	104
[표 2-54]	여성 직무별 현황 : 평균	106
[표 2-55]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108
[표 2-56]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110
[표 2-57]	2017년 채용실적	112
[표 2-58]	2018년~2019년 채용계획	114
[표 2-59]	남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116
[표 2-60]	여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117
[표 2-61]	이직자 현황	119
[표 2-62]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121
[표 2-63]	주요 이직원인 : 1순위(계속)	122
[표 2-64]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	123
[표 2-65]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계속)	124
[표 2-66]	성과보상 제도	126

[표 2-67] 해외 수출 여부.....	128
[표 2-68] 직/간접수출 비중.....	130
[표 2-69]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	132
[표 2-70]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계속).....	133
[표 2-71] 주요수출 대륙 1+2+3+4+5순위.....	135
[표 2-72] 주요수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136
[표 2-73] 주요수출 대륙별 수출금액.....	137
[표 2-74] 신규 진출 여부.....	139
[표 2-75] 신규 진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140
[표 2-76] 신규 진출 대륙별 수출금액.....	141
[표 2-77] 현지법인 설립.....	143
[표 2-78] 진출 국가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상위 14개).....	144
[표 2-79] 진출 대륙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	144
[표 2-80]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146
[표 2-81]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	147
[표 2-82]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148
[표 2-83]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	149
[표 2-84] FTA 활용 여부.....	151
[표 2-85] FTA 미활용 사유.....	153
[표 2-86]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155
[표 2-87]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157
[표 2-88]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계속).....	158
[표 2-89]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	159
[표 2-90]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계속).....	160
[표 2-91] 해외진출 고려 여부.....	162
[표 2-92]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순위.....	164
[표 2-93]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2순위.....	165
[표 2-94]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167
[표 2-95]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계속).....	169
[표 2-96]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170
[표 2-97]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171
[표 2-98]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173
[표 2-99]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계속).....	175
[표 2-100]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176
[표 2-101]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계속).....	177
[표 2-102]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	178
[표 2-103] 수.위탁거래 단계.....	180
[표 2-104] 위탁기업과의 거래 현황.....	182

[표 2-105]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및 평균단가인하율.....	184
[표 2-106]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186
[표 2-107]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188
[표 2-108] 불공정거래 경험율(계속).....	190
[표 2-109] 불공정거래 경험율.....	191
[표 2-110]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193
[표 2-111]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94
[표 2-112]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196
[표 2-113]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97
[표 2-114] 사회적 책임(CSR) 경영 인지 및 도입.....	199
[표 2-115]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1순위(계속).....	201
[표 2-116]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1순위.....	202
[표 2-117]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1+2순위(계속).....	203
[표 2-118]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1+2순위.....	204
[표 2-119]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및 실천시 어려움점(계속).....	206
[표 2-120]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및 실천시 어려움점.....	207
[표 2-121] 가업승계 도입 여부.....	209
[표 2-122]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211
[표 2-123]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	212
[표 2-124]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213
[표 2-125]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	214

●●● 그림 목 차 ●●●

[그림 2-1]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19
[그림 2-2]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21
[그림 2-3] 인수합병(M&A) 경험.....	25
[그림 2-4]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27
[그림 2-5] M&A 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29
[그림 2-6] 경영 애로사항.....	32
[그림 2-7] 기술개발 동기.....	37
[그림 2-8] 기술개발 방식.....	40
[그림 2-9]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42
[그림 2-10] 산학협력 활동 경험.....	44
[그림 2-11] 산학협력기관.....	46
[그림 2-12] 기술이전 받은 경험.....	48
[그림 2-13] 기술이전처.....	50
[그림 2-14] 주력기술 수준.....	52
[그림 2-15]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54
[그림 2-16]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56
[그림 2-17]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61
[그림 2-18]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63
[그림 2-19]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	65
[그림 2-20]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67
[그림 2-21] 17년~19년 R&D 투자유무.....	69
[그림 2-22] 17년~19년 R&D 투자금액.....	69
[그림 2-23] 17년~19년 설비 투자유무.....	76
[그림 2-24] 17년~19년 설비 투자금액.....	76
[그림 2-25] 연간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	83
[그림 2-26] 최근 관심있는 투자분야.....	85
[그림 2-27] 주요 자금조달 용도.....	88
[그림 2-28]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90
[그림 2-29]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92
[그림 2-30] 정책자금 활용 여부.....	97
[그림 2-31]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99
[그림 2-32] 중견기업 인력 현황 : 평균.....	101
[그림 2-33] 남성 직무별 현황 : 평균.....	103
[그림 2-34] 여성 직무별 현황 : 평균.....	105

[그림 2-35]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107
[그림 2-36]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109
[그림 2-37] 2017년 채용실적 : 평균.....	111
[그림 2-38] 2018년~2019년 채용계획.....	113
[그림 2-39] 신입사원 초임 : 평균.....	115
[그림 2-40] 이직자 현황 : 평균.....	118
[그림 2-41]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120
[그림 2-42] 성과보상 제도.....	125
[그림 2-43] 해외 수출.....	127
[그림 2-44] 직/간접수출 비중.....	129
[그림 2-45]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	131
[그림 2-46] 주요수출 대륙 1+2+3+4+5순위.....	134
[그림 2-47] 주요수출 국가별 총수출금액(상위 14개).....	136
[그림 2-48] 주요수출 대륙별 총수출금액.....	137
[그림 2-49] 신규 진출 여부.....	138
[그림 2-50] 신규 진출 국가(상위 14개).....	140
[그림 2-51] 신규 진출 대륙.....	141
[그림 2-52] 현지법인 설립.....	142
[그림 2-53] 수출시 애로사항.....	145
[그림 2-54] FTA 활용 여부.....	150
[그림 2-55] FTA 미활용 사유.....	152
[그림 2-56]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154
[그림 2-57]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156
[그림 2-58] 해외진출 고려 여부.....	161
[그림 2-59] 해외진출 고려 이유.....	163
[그림 2-60]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166
[그림 2-61]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168
[그림 2-62]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168
[그림 2-63]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172
[그림 2-64]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174
[그림 2-65] 수·위탁거래 단계.....	179
[그림 2-66] 위탁기업과의 거래 비중.....	181
[그림 2-67]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183
[그림 2-68]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185
[그림 2-69]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187
[그림 2-70] 불공정거래 경험을.....	189
[그림 2-71]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92
[그림 2-72]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95

[그림 2-73] 사회적 책임(CSR) 경영 인지 및 도입	198
[그림 2-74]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200
[그림 2-75]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및 실천시 어려움점	205
[그림 2-76] 가업승계 도입 여부	208
[그림 2-77]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210

제 1 장

조 사 개 요

제 1 장 조사개요

1절 조사목적

□ 조사목적

- 현재까지의 정부의 산업 관련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특히 대기업의 공정거래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실하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지속 성장이 어려움
-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 7월 22일 시행하고, 동법 제24조(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1항에 의거하여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인 중견기업 시책수립 및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2015년 11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42017호)로서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공표함
- 주요조사 항목은 중견기업의 인력, 자금,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이며 실태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보완하여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허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조사결과(보고서)는 매년 중견기업 정보마당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게시됨

2절 중견기업의 정의

1. 중견기업 정의 및 범위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
- 중소기업 : 3년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로 400억원(숙박 및 음식업)~1,500억원(1차 금속 제조업 등)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가 금지된 기업집단 ('17년, 31개 집단, 1,266개 기업)

[표 1-1] 중견기업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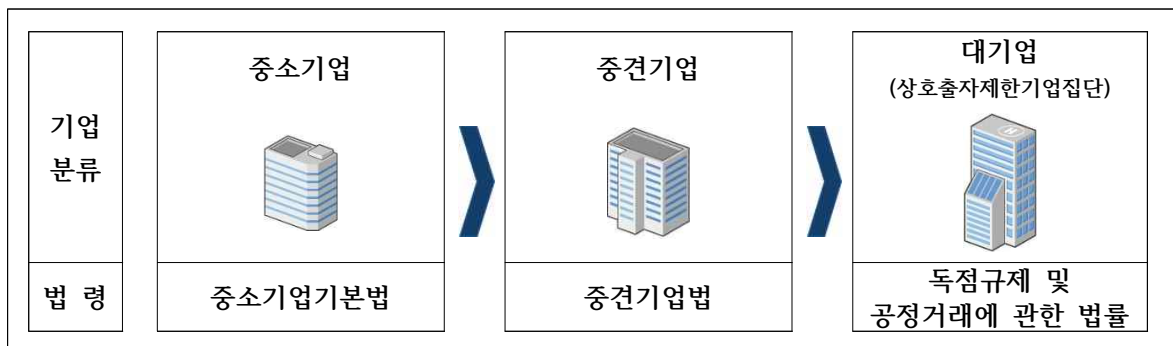
『중견기업법』 제2조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표 1-2] 기업 규모에 따른 관련 법령



2.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상한, 독립성 3가지이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견기업에 해당
- (규모기준) 주된 업종¹⁾에 따른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유예기간²⁾을 경과한 기업

[표 1-3] 업종별 중견기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견기업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

2)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규모기준을 충족한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견기업 규모 기준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3년 평균 매출액 800억원 초과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초과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초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교육 서비스업		P	

- **(상한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원 이상인 기업
- **(독립성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으로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관계가 아래의 2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해당기업의 최다출자자(최대주주)인 경우 <피출자기업>
 -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관계기업³⁾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벗어나는 기업

3) 관계기업 :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3절 조사설계

1. 조사개요

-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2016년 결산기준) 중 중견기업 4,014개사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
- 조사방법은 개별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설문기간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답자의 편리에 따라 전화, fax, E-mail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모집단 구성비에 맞도록 유효표본에 가중치(weight)를 부여 후 통계분석을 실시함

[표 1-4]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2016년 결산기준) 중 중견기업 4,014개 → 일반 중견기업 1,795개, 피출자/관계기업 2,219개
조사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09월 ~ 2018년 11월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형×업종×매출규모로 표본 역등할당 ▪ 표본추출 시 기업유형×업종×매출규모 셀 내에 기업체를 지역별로 정렬 후 계통추출 함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도 95%, 표본오차 ±2.29%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조사, 전화, fax, E-mail 조사를 병행
자료수집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틀 : 중견기업 4,014개 ▪ 표본 크기 결정식 $n = \frac{\left(\sum_{h=1}^L N_h S_h \right)^2}{N^2 \left(\frac{B}{1.96} \right)^2 + \sum_{h=1}^L N_h S_h^2}$ 여기에서 B : 허용오차 = $1.96 * \sqrt{\widehat{Var}(\overline{y_{st}})}$, $\overline{y_{st}}$: 표본평균, 상대표준오차 : $\frac{\sqrt{\widehat{Var}(\overline{y_{st}})}}{\overline{y_{st}}}$ N : 모집단 크기, N_h : 부모집단 크기, S_h^2 : 부모집단의 분산 ▪ 표본 할당식 $n_h = n * \frac{(N_h S_h)^p}{\sum_{h=1}^L (N_h S_h)^p}, \quad 0 < p \leq 1$

2. 조사내용

[표 1-5]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기업 기본정보 - 대표자 정보 - 주요 고객유형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회귀 검토 경험 여부 - 회귀 검토 주요 요인 - M&A 경험 여부 및 형태 - M&A 활성화를 위한 필요정책 - 경영 애로요인
기술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동기 - 기술개발 방식별 비중 -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 - 산학협력 활동 경험 및 협력기관 - 기술이전 경험 및 기술이전처 - 주력 기술 수준 -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및 침해 경험, 침해주체 - 정부지원 R&D사업 수행 경험 - 정부지원 R&D사업 참여에 소극적 이유
투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및 설비투자 실적과 계획 -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 - 가장 관심있는 투자 분야
금융 및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 용도 및 자금조달원 - 자금조달 애로사항 - 정책자금 활용 경험 및 기관별 활용 비중
인재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현황 및 채용 실적과 계획 - 신입사원 초임 수준 - 재직연수별 인력현황 - 이직 현황 및 이직 이유 - 성과 보상 제도
국제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수출 여부 및 실적(국가) - 현지법인 현황 및 국가 - 수출 시 애로사항 - FTA활용, 시스템 구축현황 및 필요 정부지원 - 해외 진출 고려 여부 및 요인, 진출 시점, 진출 국가, 전략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탁거래 단계 및 거래 현황 - 납품단가 인하 요구 및 단가인하율 - 수·위탁거래 결제기간 및 수단 -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경험 - 수·위탁기업과의 결제기간 및 수단 - 수·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도입 및 이유, 애로사항 - 가업승계 여부 및 애로사항

3. 표본설계

□ 모집단

-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2016년말 결산기준) 중 중견기업 4,014개사

□ 층화

- 2개 업종별 × 2개 기업유형 × 8개 매출규모로 층화를 실시
 - 업종(2개) : 제조업, 비제조업
 - 기업유형(2개) : 일반 중견기업, 피출자/관계기업
 - 매출규모(8개) : 1백억원미만, 1백억원~5백억원미만, 5백억원~1천억원미만, 1천억원~2천억원미만, 2천억원~3천억원미만, 3천억원~5천억원미만, 5천억원~1조원미만, 1조원이상

□ 표본의 크기 결정

- 전체 표본수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1,021개로 설정함
- 표본 크기 결정식

$$n = \frac{\left(\sum_{h=1}^L N_h S_h \right)^2}{N^2 \left(\frac{B}{1.96} \right)^2 + \sum_{h=1}^L N_h S_h^2}$$

여기에서 B : 허용오차 = $1.96 * \sqrt{\widehat{Var}(\bar{y}_{st})}$, \bar{y}_{st} : 표본평균,

$$\text{상대표준오차} : \frac{\sqrt{\widehat{Var}(\bar{y}_{st})}}{\bar{y}_{st}}$$

N : 모집단 크기

N_h : 부모집단 크기

S_h^2 : 부모집단의 분산

○ 표본할당식

$$n_h = n^* \frac{(N_h S_h)^p}{\sum_{h=1}^L (N_h S_h)^p}, \quad 0 < p \leq 1$$

□ 표본사업체 추출

- 조사모집단을 제조업_일반 중견기업, 비제조_일반 중견기업, 제조_피출자/관계기업, 비제조_피출자/관계기업으로 층화 후 층내에서 사업체를 매출액 크기로 층화함
- 각 구분별 매출액 층내에 속한 사업체를 매출액 순으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함

□ 추정식

- 업종별 평균 추정치 : $\bar{y}_h = \bar{Y}_{h1} + \sum_{i=2}^4 w_{hi} \bar{y}_{hi}$

여기에서 $\bar{y}_{hi} = \frac{1}{n_{hi}} \sum_{j=1}^{n_{hi}} y_{hij}$

h : 제조, 비제조

\bar{Y}_{h1} : 전수층의 평균

\bar{y}_{hi} : 각 층의 표본평균

n_{hi} : 각층에 할당된 표본의 크기

i : 업종내 매출액 층

y_{hij} : 업종내 매출액 층에 속한 사업체 j 의 특성 값

$$w_{hi} = \frac{N_{hi}}{n_{hi}}$$

- 업종별 표본평균에 대한 분산 추정 : $\hat{Var}(\bar{y}_h) = \sum_{i=2}^4 w_{hi}^2 \hat{Var}(\bar{y}_{hi})$

여기에서 $\hat{Var}(\bar{y}_{hi}) = \frac{1}{n_{hi} - 1} \sum_{j=1}^{n_{hi}} (y_{hij} - \bar{y}_{hi})^2$

- 업종별 총계 추정치 : $\hat{\tau}_{st} = \sum_{h=1}^4 \hat{\tau}_h = \tau_1 + \sum_{h=2}^4 N_h \bar{y}_h$, $h=1$ 은 전수층

○ 업종별 총계의 분산 추정치 : $\hat{Var}(\hat{\tau}_h) = \sum_{h=2}^4 N_h^2 \left(\frac{N_h - n_h}{N_h} \right) \frac{s_h^2}{n_h}$

○ 업종별 표본평균의 허용오차 : $\pm 1.96 * \sqrt{\hat{Var}(\bar{y}_h)}$

- 표본평균의 상대표준오차 : $\frac{\sqrt{\hat{Var}(\bar{y}_h)}}{\bar{y}_h} * 100(\%)$

제 2 장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제 2 장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1절 중견기업 특성

1. 중견기업 기초 정보

- 전체 중견기업은 4,014개 기업으로 일반 중견기업 1,795개(44.7%), 피출자/관계기업 2,219개(55.3%)
 - 2016년 결산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부터 중견기업 구간이 신설, 이에 통계청 기업유형 분류에 따라 일반 중견기업, 피출자/관계기업으로 구분을 명확히 함(기존 : 일반 중견기업, 관계기업 → 변경 : 일반 중견기업, 피출자/관계기업)
 - '17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모집단(15년말 결산기준) : 3,558개(일반 중견기업 2,885개, 관계기업 673개)
- 업종별로는 제조업 1,552개(38.7%), 비제조업 2,462개(61.3%)로 전년 대비 비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함
 - '17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모집단(15년 결산기준) : 제조업 1,488개(41.8%), 비제조업 2,070개(58.2%)
- 매출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60.6%로 가장 많고 매출 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감소함
- 종사자 수별로는 100명 미만인 기업이 53.0%로 가장 많고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기업 비중이 감소함
 - '17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모집단 분포 대비, 50명 미만 기업 비중은 증가('17년 33.6% → '18년 35.9%)한 반면, 1,000명 이상 기업 비중은 감소함('17년 4.9% → '18년 4.2%)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 기업이 41.0%로 가장 많고, 0~7년 미만 기업이 15.4%로 20년 미만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56.4% 정도 차지함
- 중견기업의 18.9%는 상장기업, 81.1%는 비상장기업임

[표 2-1] 중견기업 일반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014)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44.7
	피출자/관계기업	(2,219)	55.3
업종	제조업	(1,552)	38.7
	비제조업	(2,462)	61.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0.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37.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2.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7.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8.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7.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4.3
	1조원이상	(89)	2.2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35.9
	50 ~ 100명미만	(686)	17.1
	100 ~ 200명미만	(608)	15.1
	200 ~ 300명미만	(387)	9.6
	300 ~ 500명미만	(397)	9.9
	500 ~ 1,000명미만	(326)	8.1
	1,000명이상	(168)	4.2
업력	0 ~ 7년미만	(617)	15.4
	7 ~ 20년미만	(1644)	41.0
	20 ~ 30년미만	(679)	16.9
	30 ~ 40년미만	(459)	11.4
	40 ~ 50년미만	(340)	8.5
	50년이상	(275)	6.9
상장	상장	(757)	18.9
	비상장	(3257)	81.1

2. 일반 중견기업 기초 정보

- 전체 중견기업 중 일반 중견기업은 총 1,795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44.7%를 차지
- 일반 중견기업은 제조업이 51.1%, 비제조업이 48.9%로 제조업 비중이 약간 높음
- 매출 규모별로는 1천억원~2천억원 미만 기업의 비중이 34.7%로 가장 많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클수록 기업 비중이 낮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 기업의 비중이 27.4%로 가장 많음

[표 2-2] 일반 중견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795)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100.0
	피출자/관계기업	-	-
업종	제조업	(917)	51.1
	비제조업	(878)	48.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8)	1.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0)	3.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84)	10.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22)	34.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19.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15.7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9.6
	1조원이상	(89)	5.0
종사자수	50명미만	(242)	13.5
	50 ~ 100명미만	(146)	8.1
	100 ~ 200명미만	(307)	17.1
	200 ~ 300명미만	(284)	15.8
	300 ~ 500명미만	(343)	19.1
	500 ~ 1,000명미만	(323)	18.0
	1,000명이상	(150)	8.4
업력	0 ~ 7년미만	(136)	7.6
	7 ~ 20년미만	(492)	27.4
	20 ~ 30년미만	(286)	15.9
	30 ~ 40년미만	(259)	14.4
	40 ~ 50년미만	(211)	11.8
	50년이상	(168)	9.4
상장	상장	(536)	29.9
	비상장	(1016)	56.6

3. 피출자/관계기업 기초 정보

- 전체 중견기업 중 피출자/관계기업은 총 2,219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55.3%를 차지
- 피출자/관계기업은 제조업이 28.6%, 비제조업이 71.4%로 비제조업의 비중이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00억원 미만 기업의 비중이 82.7%로 가장 많고, 2천억원 이상 기업은 없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 기업의 비중이 51.9%로 가장 많음

[표 2-3] 피출자/관계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219)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	-
	피출자/관계기업	(2,219)	100.0
업종	제조업	(635)	28.6
	비제조업	(1584)	71.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01)	18.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33)	64.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25)	14.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0)	2.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	-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	-
	5천억원 ~ 1조원미만	-	-
	1조원이상	-	-
종사자수	50명미만	(1200)	54.1
	50 ~ 100명미만	(540)	24.3
	100 ~ 200명미만	(301)	13.6
	200 ~ 300명미만	(103)	4.6
	300 ~ 500명미만	(54)	2.4
	500 ~ 1,000명미만	(3)	0.1
	1,000명이상	(18)	0.8
업력	0 ~ 7년미만	(481)	21.7
	7 ~ 20년미만	(1152)	51.9
	20 ~ 30년미만	(393)	17.7
	30 ~ 40년미만	(200)	9.0
	40 ~ 50년미만	(129)	5.8
	50년이상	(107)	4.8
상장	상장	(221)	10.0
	비상장	(2241)	101.0

2절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1.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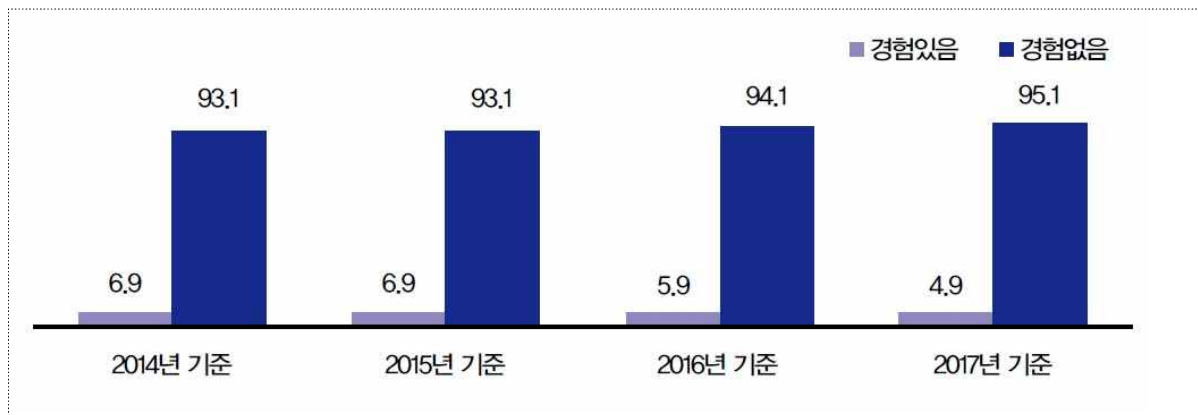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여부

○ 중소기업 정책수혜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4.9%로 나타남

- 2014년~2017년,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이 매년 감소

[그림 2-1]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4.0%, 피출자/관계기업의 5.5%가 중소기업 회귀검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 규모별로는 1백만원 미만 기업의 9.5%, 1천억원~2천억원 미만 기업의 8.6%가 회귀 검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매출 규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의 6.0%, 내수기업의 4.3%가 회귀 검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별로는 100~200명 미만(7.7%)이 가장 높고, 50~100명 미만(7.5%) 순으로 회귀 검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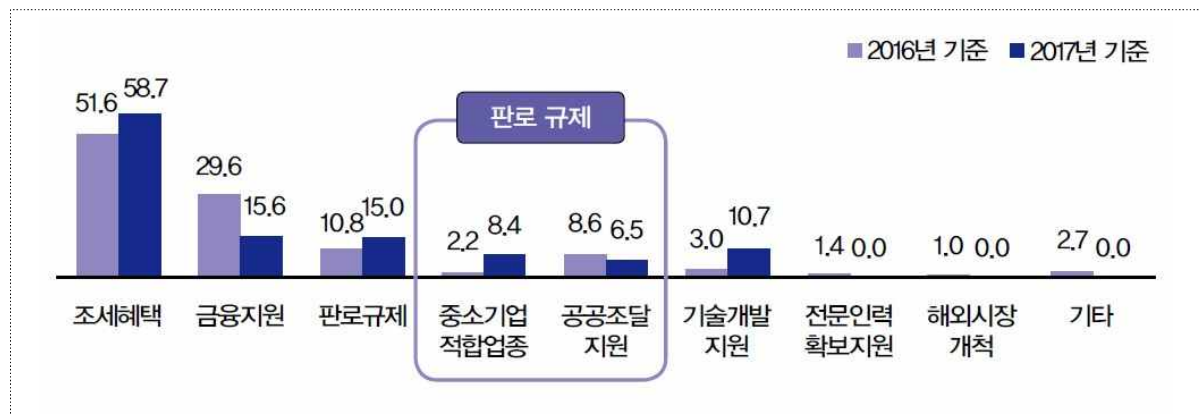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검토경험 있음	검토경험 없음
전체		(4,014)	4.9	95.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4.0	96.0
	피출자/관계기업	(2,219)	5.5	94.5
업종	제조업	(1,552)	4.7	95.3
	비제조업	(2,462)	4.9	95.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9.5	90.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3.8	96.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6.0	94.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8.6	91.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1.5	98.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0.9	99.1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0.0	100.0
	1조원이상	(89)	0.0	10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6.0	94.0
	수출없음	(2,706)	4.3	95.7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3.8	96.2
	50 ~ 100명미만	(686)	7.5	92.5
	100 ~ 200명미만	(608)	7.7	92.3
	200 ~ 300명미만	(387)	6.5	93.5
	300 ~ 500명미만	(397)	4.2	95.8
	500 ~ 1,000명미만	(326)	0.0	100.0
	1,000명이상	(168)	0.0	100.0
업력	0 ~ 7년미만	(617)	0.0	100.0
	7 ~ 20년미만	(1,644)	5.4	94.6
	20 ~ 30년미만	(679)	4.8	95.2
	30 ~ 40년미만	(459)	7.8	92.2
	40 ~ 50년미만	(340)	5.1	94.9
	50년이상	(275)	0.9	99.1
매출유형	B2B	(3,223)	5.0	95.0
	B2C	(650)	4.3	95.7
	B2G	(141)	3.9	96.1
상장	상장	(757)	2.8	97.2
	비상장	(3,257)	5.4	94.6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58.7%가 조세혜택을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금융지원 15.6%, 판로규제 14.9%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판로규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8.4%, 공공조달 지원 6.5%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조세혜택 51.6%, 금융지원 29.6%, 판로규제 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판로규제는 공공조달 지원 8.6%, 중소기업 적합업종 2.2%로 조사됨

[그림 2-2]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단위: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과 피출자/관계기업 모두 조세혜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함
 - 두 번째 회귀 검토 요인으로는 일반 중견기업의 경우 금융지원(22.6%)을 선택한 반면, 피출자/관계기업은 판로규제(18.6%)의 비중이 높아 기업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함
- 제조업의 경우 조세혜택(57.8%), 금융지원(17.4%), 기술개발 지원(16.2%), 판로규제(8.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조세혜택(59.3%), 판로규제(18.8%), 금융지원(14.5%), 기술개발 지원(7.4%)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195개사)

구분		조세혜택	금융지원	계	판로 규제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공조달 지원	
전체		58.7	15.6	15.0	8.4	6.5	10.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0.1	22.6	8.8	3.5	5.3	8.5
	피출자/관계기업	57.9	11.4	18.6	11.4	7.3	12.0
업종	제조업	57.8	17.4	8.7	3.5	5.2	16.2
	비제조업	59.3	14.5	18.8	11.5	7.3	7.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6.6	12.3	12.3	12.3	0.0	18.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9.0	0.0	31.0	15.5	15.5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1.8	37.5	0.0	0.0	0.0	30.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0	23.8	6.6	0.0	6.6	6.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00.0	0.0	0.0	0.0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0.0	0.0	100.0	100.0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	-	-	-	-	-
	1조원이상	-	-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56.5	25.1	8.2	3.3	4.9	10.3
	수출없음	60.2	9.2	19.5	11.9	7.6	11.0
종사자수	50명미만	31.5	26.4	25.6	9.3	16.3	16.5
	50 ~ 100명미만	90.2	0.0	0.0	0.0	0.0	9.8
	100 ~ 200명미만	47.2	25.8	27.0	18.8	8.2	0.0
	200 ~ 300명미만	72.5	15.3	0.0	0.0	0.0	12.3
	300 ~ 500명미만	61.9	0.0	15.2	15.2	0.0	22.9
	500 ~ 1,000명미만	-	-	-	-	-	-
	1,000명이상	-	-	-	-	-	-
업력	0 ~ 7년미만	-	-	-	-	-	-
	7 ~ 20년미만	46.4	19.2	23.9	14.6	9.3	10.5
	20 ~ 30년미만	77.0	15.9	7.1	7.1	0.0	0.0
	30 ~ 40년미만	75.9	6.6	0.0	0.0	0.0	17.6
	40 ~ 50년미만	45.2	17.6	18.6	0.0	18.6	18.6
	50년이상	100.0	0.0	0.0	0.0	0.0	0.0
매출유형	B2B	53.2	17.2	18.1	10.2	7.9	11.5
	B2C	82.3	9.4	0.0	0.0	0.0	8.3
	B2G	100.0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30.0	15.0	26.4	10.5	15.9	28.6
	비상장	62.8	15.7	13.3	8.1	5.2	8.2

[표 2-6]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계속)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195개사)

구분		조세혜택	금융지원	판로 규제		
				계	공공조달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체		72.7	54.5	34.3	21.3	13.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2.9	57.6	19.1	10.3	8.8
	피출자/관계기업	66.7	52.6	43.2	27.8	15.5
업종	제조업	79.5	43.1	22.3	13.6	8.7
	비제조업	68.6	61.4	41.6	25.9	15.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5.4	44.3	49.2	24.6	24.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9.0	54.0	46.6	31.0	15.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5	71.2	20.2	20.2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2.4	56.0	19.4	12.8	6.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00.0	50.0	0.0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00.0	0.0	100.0	0.0	100.0
	5천억원 ~ 1조원미만	-	-	-	-	-
	1조원이상	-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76.0	50.9	32.3	24.1	8.2
	수출없음	70.5	56.8	35.6	19.4	16.2
종사자수	50명미만	53.6	76.6	44.1	34.8	9.3
	50 ~ 100명미만	100.0	47.9	34.1	24.3	9.8
	100 ~ 200명미만	47.2	43.6	41.7	14.7	27.0
	200 ~ 300명미만	87.7	61.4	12.3	12.3	0.0
	300 ~ 500명미만	100.0	22.9	15.2	0.0	15.2
	500 ~ 1,000명미만	-	-	-	-	-
	1,000명이상	-	-	-	-	-
업력	0 ~ 7년미만	-	-	-	-	-
	7 ~ 20년미만	65.5	51.7	52.8	32.9	19.8
	20 ~ 30년미만	91.4	68.2	7.1	0.0	7.1
	30 ~ 40년미만	75.9	64.5	15.3	15.3	0.0
	40 ~ 50년미만	63.8	30.7	37.2	18.6	18.6
	50년이상	100.0	0.0	0.0	0.0	0.0
매출유형	B2B	70.1	50.8	37.2	21.5	15.7
	B2C	82.3	79.4	11.0	11.0	0.0
	B2G	100.0	34.4	65.6	65.6	0.0
상장	상장	56.4	45.0	55.0	28.6	26.4
	비상장	75.0	55.8	31.3	20.2	11.1

[표 2-7]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195개사)

구분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확보지원	해외시장 개척	기타
전체		17.8	3.8	2.0	6.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3.8	0.0	5.3	5.0
	피출자/관계기업	20.1	6.0	0.0	7.3
업종	제조업	34.8	10.0	5.2	0.0
	비제조업	7.4	0.0	0.0	10.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8.8	0.0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5	7.5	0.0	15.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0.8	10.1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22.7	0.0	6.6	6.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0.0	0.0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0.0	0.0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	-	-	-
	1조원이상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22.3	3.9	4.9	4.6
	수출없음	14.7	3.7	0.0	7.6
종사자수	50명미만	16.5	0.0	0.0	0.0
	50 ~ 100명미만	18.1	0.0	0.0	0.0
	100 ~ 200명미만	5.9	15.6	0.0	26.6
	200 ~ 300명미만	23.3	0.0	15.3	0.0
	300 ~ 500명미만	45.8	0.0	0.0	0.0
	500 ~ 1,000명미만	-	-	-	-
	1,000명이상	-	-	-	-
업력	0 ~ 7년미만	-	-	-	-
	7 ~ 20년미만	17.9	0.0	0.0	9.3
	20 ~ 30년미만	0.0	8.6	0.0	0.0
	30 ~ 40년미만	17.6	10.6	9.6	0.0
	40 ~ 50년미만	50.7	0.0	0.0	17.6
	50년이상	0.0	0.0	0.0	0.0
매출유형	B2B	20.0	4.6	2.4	7.8
	B2C	8.3	0.0	0.0	0.0
	B2G	0.0	0.0	0.0	0.0
상장	상장	28.6	0.0	0.0	15.0
	비상장	16.2	4.3	2.3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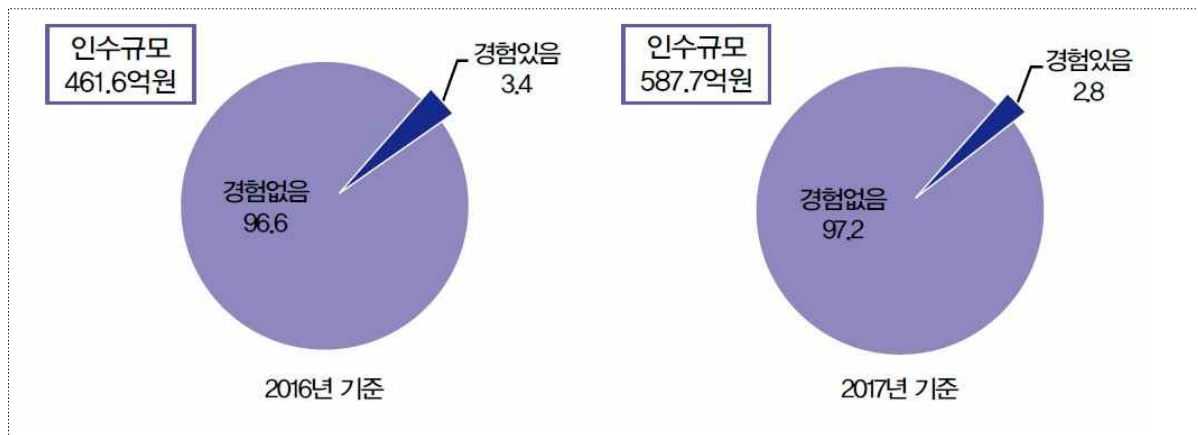
2. 인수합병 (M&A)

□ 인수합병(M&A) 경험

- 중견기업의 2.8%는 M&A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A를 경험한 기업의 평균 인수 규모는 587.7억원임
- 2016년 기준 결과, M&A를 경험한 적이 있는 중견기업이 3.4%로 나타남

[그림 2-3] 인수합병(M&A) 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M&A 경험은 3.7%(평균 인수규모: 634.8억원), 피출자/관계기업은 2.0%(평균 인수규모: 525.1억원)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 1백억원~5백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1.8%(평균 인수규모: 358.2억원)만이 M&A를 경험한 반면, 5천억원~1조원 미만 기업은 7.0%(평균 인수규모 : 2,270.4억원)로 높게 나타남
- 매출규모 1백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M&A 경험은 3.0%지만 평균 인수규모는 1,089.1억원으로 M&A 경험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상장기업의 M&A 경험은 6.0%(평균 인수규모: 779.6억원), 비상장기업은 1.9%(평균 인수규모: 397.1억원)으로 나타남

[표 2-8] 인수합병(M&A) 경험

(단위 :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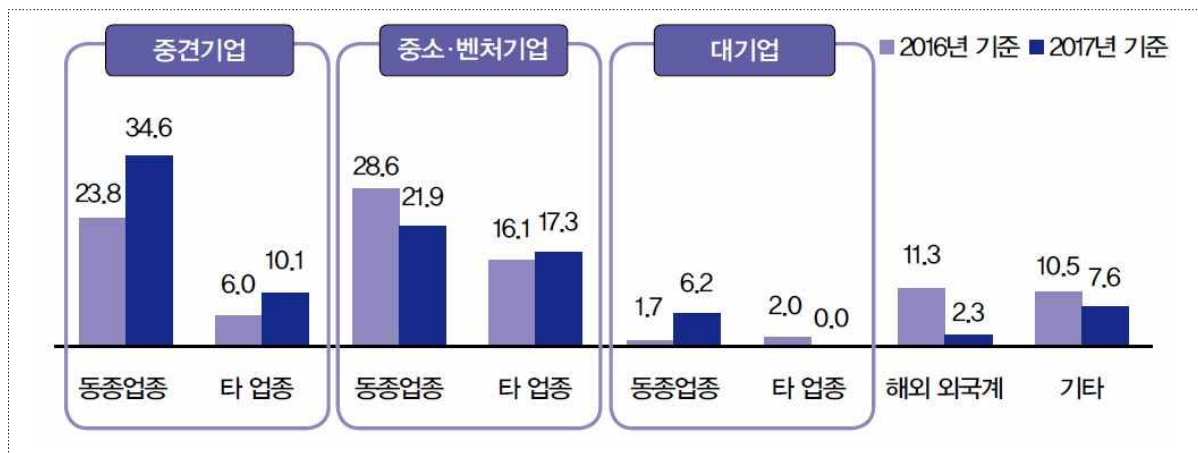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수합병 경험 있음		인수합병 경험 없음
			평균 인수 규모		
전체		(4,014)	2.8	587.7	97.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3.7	634.8	96.3
	피출자/관계기업	(2,219)	2.0	525.1	98.0
업종	제조업	(1,552)	3.0	605.8	97.0
	비제조업	(2,462)	2.6	576.3	97.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3.0	1,089.1	97.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1.8	358.2	98.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2.2	96.7	97.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3.2	208.2	96.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3.9	218.1	96.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3.6	176.3	96.4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7.0	2,270.4	93.0
	1조원이상	(89)	3.2	700.0	96.8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4.4	632.5	95.6
	수출없음	(2,706)	2.0	538.9	98.0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2.0	785.7	98.0
	50 ~ 100명미만	(686)	0.0	-	100.0
	100 ~ 200명미만	(608)	2.8	59.3	97.2
	200 ~ 300명미만	(387)	5.6	173.4	94.4
	300 ~ 500명미만	(397)	2.7	387.8	97.3
	500 ~ 1,000명미만	(326)	5.7	1,007.1	94.3
	1,000명이상	(168)	8.4	895.6	91.6
업력	0 ~ 7년미만	(617)	1.8	700.0	98.2
	7 ~ 20년미만	(1,644)	2.7	730.1	97.3
	20 ~ 30년미만	(679)	3.7	369.4	96.3
	30 ~ 40년미만	(459)	2.9	36.6	97.1
	40 ~ 50년미만	(340)	2.2	1,467.6	97.8
	50년이상	(275)	2.6	238.6	97.4
매출유형	B2B	(3,223)	2.7	558.0	97.3
	B2C	(650)	3.5	668.1	96.5
	B2G	(141)	2.6	736.0	97.4
상장	상장	(757)	6.0	779.6	94.0
	비상장	(3,257)	1.9	397.1	98.1

□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 기업이 경험한 M&A 형태로는 동종업종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34.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종업종 중소·벤처기업(21.9%), 타업종 중소·벤처기업(17.3%) 등의 순임
- 2016년 기준 결과, 동종업종 중소·벤처기업과의 인수합병(28.6%)이 가장 높았으며, 동종업종 중견기업 23.8%, 타 업종 중소기업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단위: %, 인수합병 경험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도 동일하게 동종업종 중견기업(40.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종업종 중소·벤처기업(21.9%), 타업종 중소·벤처기업(17.3%)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출자/관계기업은 동종업종 중견기업(25.5%), 동종업종 중소·벤처기업(20.6%), 타업종 중견기업(19.6%) 순으로 나타남
- B2B 기업은 동종업종 중견기업(37.9%)과의 인수합병이 가장 많았으며, B2C 기업은 동종업종 중소·벤처기업(50.2%)과의 인수합병이 많아 매출유형별로 선호하는 인수합병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상장기업은 동종업종의 중소·벤처기업(31.9%), 동종기업의 중견기업(27.1%), 타업종의 중견기업(21.5%) 순으로 나타났지만, 비상장기업은 동종기업의 중견기업(41.3%), 타업종 중소·벤처기업(24.5%), 동종업종 중소·벤처기업(13.1%) 순으로 나타남
- 상장기업은 타업종보다 동종업종과의 인수합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장기업은 타 업종과의 인수합병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단위 : %, 인수합병 경험 기업 112개사)

구분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해외 외국계	기타
		동종업종	타 업종	동종업종	타 업종	동종업종	타 업종		
전체		34.6	10.1	21.9	17.3	6.2	-	2.3	7.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0.8	3.6	22.8	21.5	4.0	-	3.8	3.5
	피출자/관계기업	25.5	19.6	20.6	11.1	9.5	-	0.0	13.6
업종	제조업	30.4	5.1	14.4	22.6	9.0	-	5.4	13.0
	비제조업	37.7	13.8	27.4	13.4	4.1	-	0.0	3.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0.9	0.0	39.6	39.6	0.0	-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3.8	33.8	16.2	0.0	16.2	-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0.0	0.0	23.0	0.0	23.0	-	0.0	53.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0.5	0.0	33.0	16.5	0.0	-	0.0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57.6	0.0	19.2	23.1	0.0	-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0	0.0	25.0	25.0	0.0	-	25.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20.1	20.1	0.0	40.2	0.0	-	0.0	19.6
	1조원이상	100.0	0.0	0.0	0.0	0.0	-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32.4	4.2	18.2	18.5	7.4	-	4.4	14.8
	수출없음	36.9	16.4	25.9	16.0	4.9	-	0.0	0.0
종사자수	50명미만	9.0	30.1	17.1	29.4	14.5	-	0.0	0.0
	50 ~ 100명미만	-	-	-	-	-	-	-	-
	100 ~ 200명미만	0.0	0.0	46.8	19.4	15.6	-	0.0	18.2
	200 ~ 300명미만	87.9	0.0	12.1	0.0	0.0	-	0.0	0.0
	300 ~ 500명미만	24.9	0.0	23.4	23.4	0.0	-	0.0	28.2
	500 ~ 1,000명미만	28.3	13.0	19.5	13.0	0.0	-	13.7	12.6
	1,000명이상	63.5	0.0	19.3	17.2	0.0	-	0.0	0.0
업력	0 ~ 7년미만	53.0	0.0	0.0	47.0	0.0	-	0.0	0.0
	7 ~ 20년미만	41.0	0.0	29.3	15.7	9.0	-	0.0	5.0
	20 ~ 30년미만	22.9	32.0	0.0	24.9	0.0	-	9.2	11.1
	30 ~ 40년미만	25.9	0.0	53.3	0.0	0.0	-	0.0	20.8
	40 ~ 50년미만	41.5	27.5	31.0	0.0	0.0	-	0.0	0.0
	50년이상	33.6	0.0	0.0	31.8	34.6	-	0.0	0.0
매출유형	B2B	37.9	13.2	15.4	12.5	8.1	-	3.0	10.0
	B2C	11.3	0.0	50.2	38.5	0.0	-	0.0	0.0
	B2G	100.0	0.0	0.0	0.0	0.0	-	0.0	0.0
상장	상장	27.1	21.5	31.9	9.2	0.0	-	0.0	10.4
	비상장	41.3	0.0	13.1	24.5	11.7	-	4.3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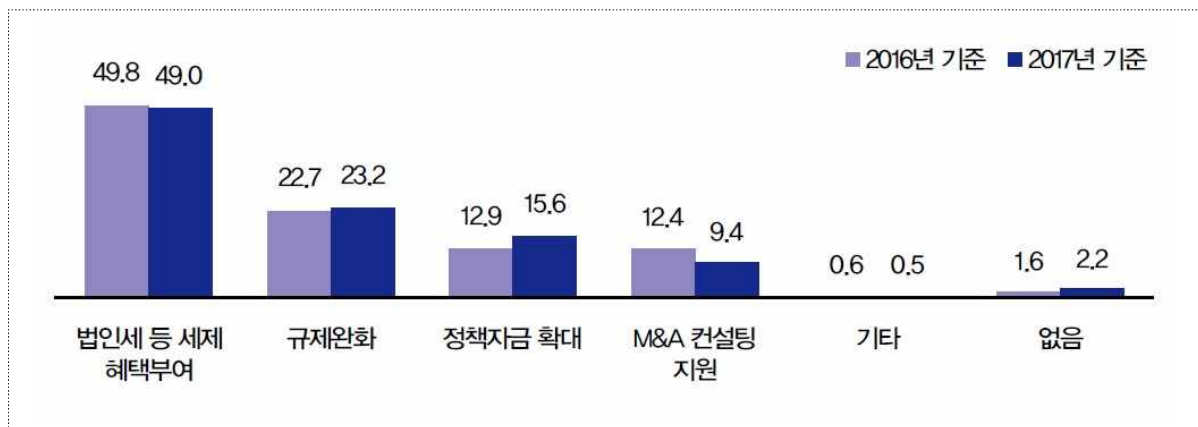
□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중견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49.0%)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규제완화(23.2%), 정책자금 확대(15.6%) 순임. 반면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2.2%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49.8%)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규제 완화(22.7%), 정책자금 확대(12.9%) 등의 순임

[그림 2-5] M&A 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 피출자/관계기업 모두 동일하게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규제완화, 정책자금 확대 순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별 종합순위(1+2순위)는 1백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규제완화(61.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조원 이상의 기업에서는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84.7%)가 타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대체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정책 응답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10] M&A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규제완화	정책자금 확대	M&A 컨설팅 지원	기타	없음
전체		(4,014)	49.0	23.2	15.6	9.4	0.5	2.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49.4	23.4	16.9	9.0	0.2	1.2
	파출자/관계기업	(2,219)	48.6	23.1	14.6	9.7	0.8	3.1
업종	제조업	(1,552)	53.6	19.3	16.2	8.3	0.2	2.4
	비제조업	(2,462)	46.1	25.7	15.3	10.1	0.7	2.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40.9	29.7	14.3	12.1	1.2	1.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49.9	22.5	14.1	9.0	0.6	3.9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48.3	20.4	16.7	11.0	0.8	2.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53.7	16.0	20.6	8.5	0.0	1.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49.8	24.6	13.7	10.9	0.9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43.5	36.2	12.3	8.0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50.1	27.6	13.9	8.4	0.0	0.0
수출여부	1조원이상	(89)	51.6	21.4	24.2	0.0	0.0	2.8
	수출있음	(1,308)	49.6	20.8	19.3	8.5	0.2	1.6
	수출없음	(2,706)	48.7	24.4	13.9	9.8	0.7	2.6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44.8	25.4	16.0	9.7	1.0	3.2
	50 ~ 100명미만	(686)	55.8	21.9	11.4	9.3	0.0	1.7
	100 ~ 200명미만	(608)	43.7	20.3	18.4	15.8	0.7	1.1
	200 ~ 300명미만	(387)	51.8	21.1	16.8	4.5	0.8	4.9
	300 ~ 500명미만	(397)	54.1	24.5	14.4	6.0	0.0	1.0
	500 ~ 1,000명미만	(326)	50.7	26.3	14.5	7.8	0.0	0.8
	1,000명이상	(168)	54.3	17.3	22.4	6.0	0.0	0.0
업력	0 ~ 7년미만	(617)	38.2	26.2	16.8	12.9	0.0	6.0
	7 ~ 20년미만	(1,644)	46.8	23.8	17.0	9.0	1.0	2.3
	20 ~ 30년미만	(679)	54.6	24.1	10.1	9.2	0.0	2.1
	30 ~ 40년미만	(459)	52.8	20.1	14.2	11.0	0.0	1.9
	40 ~ 50년미만	(340)	52.0	22.3	17.3	6.0	0.8	1.6
	50년이상	(275)	47.6	22.1	20.3	10.0	0.0	0.0
매출유형	B2B	(3,223)	49.0	21.9	16.7	9.6	0.5	2.3
	B2C	(650)	52.8	27.9	9.4	8.7	0.0	1.2
	B2G	(141)	31.3	33.7	19.4	6.4	2.8	6.3
상장	상장	(757)	52.4	22.7	14.6	8.8	0.0	1.5
	비상장	(3,257)	48.0	23.4	15.9	9.5	0.7	2.4

[표 2-11] M&A활성화 필요정책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규제완화	정책자금 확대	M&A 컨설팅 지원	기타	없음
전체		(4,014)	69.6	49.1	34.4	22.9	0.5	2.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72.7	47.6	36.6	22.1	0.2	1.2
	피출자/관계기업	(2,219)	67.1	50.4	32.6	23.5	0.8	3.1
업종	제조업	(1,552)	72.1	46.1	38.9	21.5	0.2	2.4
	비제조업	(2,462)	68.0	51.0	31.5	23.8	0.7	2.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59.0	61.6	26.5	26.7	1.2	1.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69.3	48.5	32.8	21.9	0.6	3.9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65.1	46.0	35.3	26.4	0.8	2.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72.0	42.0	42.9	24.3	0.0	1.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73.9	52.0	29.6	24.8	0.9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77.1	53.1	32.7	18.6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73.6	49.8	43.2	18.1	0.0	0.0
수출여부	1조원이상	(89)	84.7	46.0	36.7	6.0	0.0	2.8
	수출있음	(1,308)	71.5	45.2	39.4	21.1	0.2	1.6
	수출없음	(2,706)	68.7	51.0	31.9	23.8	0.7	2.6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63.1	52.6	32.0	24.1	1.0	3.2
	50 ~ 100명미만	(686)	76.3	51.5	27.8	25.6	0.0	1.7
	100 ~ 200명미만	(608)	63.2	39.3	40.7	27.4	0.7	1.1
	200 ~ 300명미만	(387)	76.9	47.8	38.5	13.1	0.8	4.9
	300 ~ 500명미만	(397)	69.7	53.6	39.0	18.2	0.0	1.0
	500 ~ 1,000명미만	(326)	77.2	48.6	32.0	23.7	0.0	0.8
	1,000명이상	(168)	89.4	38.8	42.8	17.4	0.0	0.0
업력	0 ~ 7년미만	(617)	60.3	49.5	35.2	23.0	0.0	6.0
	7 ~ 20년미만	(1,644)	66.4	49.3	35.5	23.5	1.0	2.3
	20 ~ 30년미만	(679)	74.8	54.1	31.5	16.9	0.0	2.1
	30 ~ 40년미만	(459)	72.8	42.7	35.6	25.6	0.0	1.9
	40 ~ 50년미만	(340)	72.8	50.5	33.4	25.5	0.8	1.6
	50년이상	(275)	75.1	44.7	33.3	26.1	0.0	0.0
매출유형	B2B	(3,223)	69.6	47.5	36.8	23.4	0.5	2.3
	B2C	(650)	70.9	55.8	23.3	21.2	0.0	1.2
	B2G	(141)	64.8	56.3	29.1	19.8	2.8	6.3
상장	상장	(757)	76.2	48.1	38.6	20.9	0.0	1.5
	비상장	(3,257)	67.8	49.4	33.2	23.5	0.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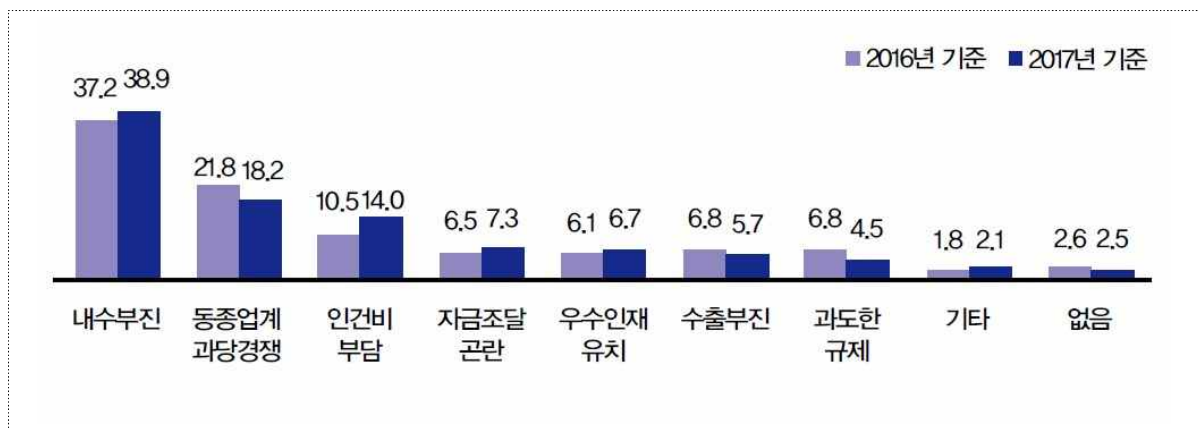
3. 중견기업 경영 애로

□ 경영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38.9%)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종업계 과당경쟁(18.2%), 인건비 부담(14.0%), 자금조달 곤란(7.3%)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동일하게 내수부진을 37.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동종업계 과당경쟁 21.8%, 인건비 부담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 경영 애로사항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내수부진(40.2%), 동종업계 과당경쟁(20.6%), 인건비 부담(9.4%)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출자/관계기업은 내수부진(37.9%), 인건비 부담(17.7%), 동종업계 과당경쟁(16.1%) 순으로 나타나 기업 유형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출기업은 내수부진(37.1%), 동종업계 과당경쟁(17.9%), 수출부진(15.2%)등의 순이지만, 내수기업은 내수부진(39.8%), 동종업계 과당경쟁(18.3%), 인건비 부담(16.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제조/수출기업이 수출부진에 대한 애로가 높은 반면, 비제조/내수기업은 인건비 부담, 자금조달 곤란에 대한 애로사항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대체적으로 업력이 짧은 신생기업보다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내수부진에 대한 애로사항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12] 경영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내수부진	동종업계 과당경쟁	인건비 부담	자금조달 곤란
전체		(4,014)	38.9	18.2	14.0	7.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40.2	20.6	9.4	8.7
	피출자/관계기업	(2,219)	37.9	16.1	17.7	6.1
업종	제조업	(1,552)	41.3	15.8	13.1	8.0
	비제조업	(2,462)	37.4	19.6	14.6	6.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32.3	14.4	13.6	14.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38.4	15.7	19.4	3.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39.3	20.2	13.5	8.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41.9	20.0	13.1	9.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43.2	18.2	6.7	9.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39.9	25.4	4.4	7.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37.3	21.0	9.8	6.9
	1조원이상	(89)	37.1	23.3	3.2	6.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37.1	17.9	9.7	8.1
	수출없음	(2,706)	39.8	18.3	16.1	6.9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35.0	19.0	12.6	9.4
	50 ~ 100명미만	(686)	46.1	15.3	15.1	4.4
	100 ~ 200명미만	(608)	38.0	22.1	12.5	4.9
	200 ~ 300명미만	(387)	44.1	15.5	15.7	6.1
	300 ~ 500명미만	(397)	38.7	18.9	16.2	5.8
	500 ~ 1,000명미만	(326)	41.3	14.3	12.0	10.0
	1,000명이상	(168)	30.3	20.0	21.3	10.3
업력	0 ~ 7년미만	(617)	28.9	7.5	17.1	10.1
	7 ~ 20년미만	(1,644)	36.0	18.2	15.3	8.1
	20 ~ 30년미만	(679)	41.9	17.8	14.2	9.0
	30 ~ 40년미만	(459)	42.6	22.7	12.6	2.7
	40 ~ 50년미만	(340)	35.0	21.2	12.0	6.3
	50년이상	(275)	57.7	17.3	7.6	4.5
매출유형	B2B	(3,223)	38.6	17.3	14.9	7.8
	B2C	(650)	41.3	19.8	11.8	5.5
	B2G	(141)	35.5	29.5	3.6	3.5
상장	상장	(757)	45.0	19.0	7.0	7.6
	비상장	(3,257)	37.2	17.9	15.9	7.2

[표 2-13] 경영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우수인재 유치	수출부진	과도한 규제	기타	없음
전체		(4,014)	6.7	5.7	4.5	2.1	2.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4.8	8.6	3.8	2.2	1.5
	피출자/관계기업	(2,219)	8.3	3.4	5.1	2.0	3.4
업종	제조업	(1,552)	4.3	11.7	1.6	1.8	2.4
	비제조업	(2,462)	8.3	2.0	6.4	2.3	2.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6.5	1.7	7.3	3.5	6.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9.7	3.7	4.8	1.8	3.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4.2	5.9	3.8	1.6	2.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4.2	5.6	1.8	2.8	0.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5.8	10.6	3.8	0.9	1.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5.4	9.9	3.5	4.5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6.9	8.4	9.6	0.0	0.0
	1조원이상	(89)	0.0	21.8	8.4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7.1	15.2	1.2	2.3	1.3
	수출없음	(2,706)	6.6	1.2	6.1	2.0	3.1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5.8	3.8	7.2	2.5	4.6
	50 ~ 100명미만	(686)	8.6	4.0	3.5	0.4	2.5
	100 ~ 200명미만	(608)	9.9	4.4	2.8	3.5	1.9
	200 ~ 300명미만	(387)	6.5	8.5	2.7	1.0	0.0
	300 ~ 500명미만	(397)	6.5	6.6	3.2	2.4	1.8
	500 ~ 1,000명미만	(326)	3.9	14.0	2.2	2.4	0.0
	1,000명이상	(168)	1.9	10.0	4.6	1.5	0.0
업력	0 ~ 7년미만	(617)	13.4	3.5	14.1	1.3	4.0
	7 ~ 20년미만	(1,644)	7.4	5.1	3.6	2.3	4.0
	20 ~ 30년미만	(679)	5.9	4.0	5.0	1.2	0.9
	30 ~ 40년미만	(459)	5.8	6.9	2.9	2.5	1.3
	40 ~ 50년미만	(340)	6.0	11.4	1.8	4.8	1.5
	50년이상	(275)	0.9	6.4	5.6	0.0	0.0
매출유형	B2B	(3,223)	6.2	6.5	4.2	2.2	2.4
	B2C	(650)	9.6	3.0	5.0	1.9	2.1
	B2G	(141)	6.3	0.0	10.8	1.7	9.1
상장	상장	(757)	5.1	10.8	2.6	2.6	0.3
	비상장	(3,257)	7.2	4.3	5.1	2.0	3.2

[표 2-14]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내수부진	동종업계 과당경쟁	인건비 부담	자금조달 곤란
전체		(4,014)	52.6	38.1	27.5	14.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54.7	42.7	20.4	15.3
	피출자/관계기업	(2,219)	50.9	34.3	33.2	14.3
업종	제조업	(1,552)	56.7	35.2	27.9	15.1
	비제조업	(2,462)	50.0	39.9	27.2	14.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39.3	33.6	23.9	27.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53.0	33.0	36.2	10.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53.1	39.7	24.3	14.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54.8	42.5	24.5	17.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58.7	44.4	16.6	14.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58.5	47.7	20.5	14.1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49.9	41.7	25.1	12.5
	1조원이상	(89)	52.0	39.1	9.3	12.1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53.0	36.3	23.8	17.1
	수출없음	(2,706)	52.4	38.9	29.3	13.6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47.5	35.1	23.9	18.8
	50 ~ 100명미만	(686)	61.3	36.4	31.9	12.0
	100 ~ 200명미만	(608)	51.3	43.9	24.7	11.1
	200 ~ 300명미만	(387)	60.6	36.6	27.4	12.0
	300 ~ 500명미만	(397)	51.7	43.4	30.6	12.3
	500 ~ 1,000명미만	(326)	55.1	33.3	30.2	16.6
	1,000명이상	(168)	44.6	49.3	37.5	11.8
업력	0 ~ 7년미만	(617)	37.3	20.3	29.7	23.0
	7 ~ 20년미만	(1,644)	50.2	35.2	28.4	17.0
	20 ~ 30년미만	(679)	55.6	39.6	29.9	17.3
	30 ~ 40년미만	(459)	58.1	46.1	22.9	6.0
	40 ~ 50년미만	(340)	46.6	46.8	30.0	8.5
	50년이상	(275)	73.2	42.9	18.1	10.2
매출유형	B2B	(3,223)	52.4	36.7	29.2	15.6
	B2C	(650)	53.2	43.5	23.8	12.2
	B2G	(141)	54.4	45.1	5.4	5.2
상장	상장	(757)	58.0	43.2	18.8	11.9
	비상장	(3,257)	51.1	36.6	29.9	15.5

[표 2-15]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우수인재 유치	과도한 규제	수출부진	기타	없음
전체		(4,014)	12.9	12.4	12.2	3.4	2.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11.0	11.7	17.3	3.9	1.5
	피출자/관계기업	(2,219)	14.4	13.0	8.0	3.0	3.4
업종	제조업	(1,552)	9.1	8.0	22.7	3.4	2.4
	비제조업	(2,462)	15.3	15.3	5.5	3.3	2.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8.6	14.9	6.5	3.5	6.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13.5	12.6	8.2	3.0	3.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1.6	11.8	12.7	2.2	2.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0.3	7.9	16.2	4.4	0.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15.8	12.9	16.7	3.7	1.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9.7	11.3	14.4	5.4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8.3	23.4	18.1	0.0	0.0
	1조원이상	(89)	8.9	16.9	34.3	6.5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12.7	6.7	28.0	3.8	1.3
	수출없음	(2,706)	13.0	15.2	4.5	3.1	3.1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12.6	14.7	9.8	2.7	4.6
	50 ~ 100명미만	(686)	16.8	11.6	7.3	3.0	2.5
	100 ~ 200명미만	(608)	15.6	9.7	10.8	4.5	1.9
	200 ~ 300명미만	(387)	9.0	13.1	18.7	2.8	0.0
	300 ~ 500명미만	(397)	12.3	10.9	14.3	4.2	1.8
	500 ~ 1,000명미만	(326)	8.7	10.8	23.8	2.4	0.0
	1,000명이상	(168)	8.3	12.2	14.5	6.9	0.0
업력	0 ~ 7년미만	(617)	19.0	24.7	9.3	2.3	4.0
	7 ~ 20년미만	(1,644)	15.3	12.0	8.9	3.4	4.0
	20 ~ 30년미만	(679)	11.1	11.6	10.5	2.6	0.9
	30 ~ 40년미만	(459)	9.5	10.8	15.0	4.5	1.3
	40 ~ 50년미만	(340)	10.6	11.1	23.0	5.5	1.5
	50년이상	(275)	6.3	9.8	18.6	1.0	0.0
매출유형	B2B	(3,223)	12.4	11.3	14.0	3.3	2.4
	B2C	(650)	15.1	14.8	4.7	3.8	2.1
	B2G	(141)	13.6	26.7	5.4	1.7	9.1
상장	상장	(757)	10.3	11.1	21.9	4.4	0.3
	비상장	(3,257)	13.6	12.8	9.5	3.1	3.2

3절 기술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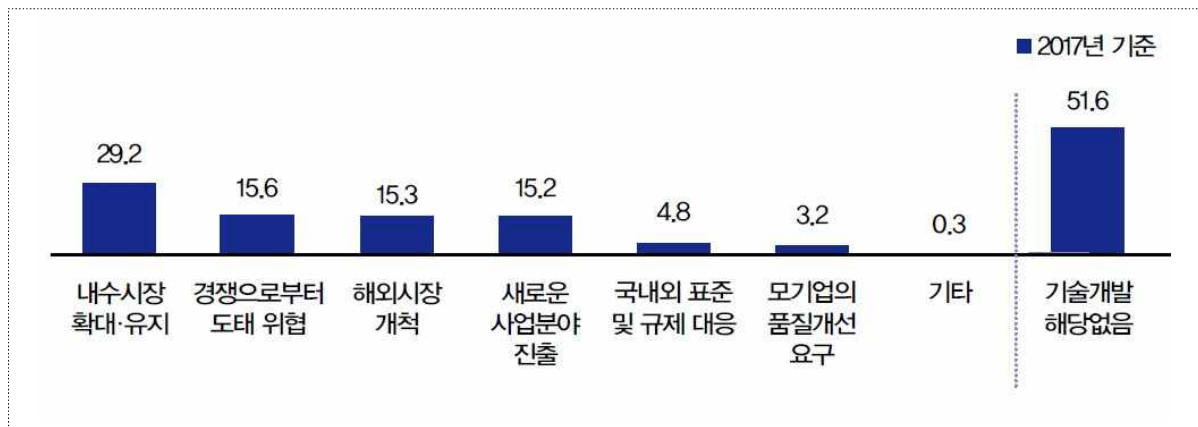
1.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동기

-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는 내수시장 확대·유지가 2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쟁으로부터 도태 위험 15.6%, 해외시장 개척 15.3%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 기술개발 동기

(단위: %, 기술개발이 있는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내수시장 확대·유지(40.2%), 해외시장 개척(24.1%),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21.4%)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출자/관계기업은 내수시장 확대·유지(20.2%), 경쟁으로부터 도태 위험(13.2%),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10.3%) 순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크고,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높을수록 내수시장 확대·유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6] 기술개발 동기(계속)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내수시장 확대·유지	경쟁으로부터 도태 위협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
전체		(4,014)	29.2	15.6	15.3	15.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40.2	18.5	24.1	21.4
	피출자/관계기업	(2,219)	20.2	13.2	8.2	10.3
업종	제조업	(1,552)	47.5	23.4	31.5	25.6
	비제조업	(2,462)	17.6	10.7	5.1	8.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1.4	7.2	5.3	7.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18.6	13.7	7.0	1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37.6	18.4	16.5	16.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40.6	13.2	25.2	22.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42.0	24.2	23.9	15.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43.6	17.9	21.6	24.3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43.2	25.1	26.7	26.5
	1조원이상	(89)	31.1	31.5	43.6	27.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48.2	25.7	39.3	30.2
	수출없음	(2,706)	19.9	10.7	3.7	8.0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14.2	6.3	4.1	4.2
	50 ~ 100명미만	(686)	23.3	17.4	8.5	15.0
	100 ~ 200명미만	(608)	37.5	21.6	19.2	20.2
	200 ~ 300명미만	(387)	39.3	14.4	23.6	21.4
	300 ~ 500명미만	(397)	47.5	26.0	31.2	28.2
	500 ~ 1,000명미만	(326)	54.3	24.2	32.8	24.3
	1,000명이상	(168)	36.0	27.8	34.6	30.2
업력	0 ~ 7년미만	(617)	23.5	14.2	4.4	15.3
	7 ~ 20년미만	(1,644)	20.4	12.4	12.4	12.2
	20 ~ 30년미만	(679)	27.9	14.2	14.1	15.2
	30 ~ 40년미만	(459)	42.1	19.2	19.9	16.6
	40 ~ 50년미만	(340)	44.4	24.1	28.0	23.8
	50년이상	(275)	46.5	21.5	21.1	19.1
매출유형	B2B	(3,223)	30.6	16.1	18.2	15.9
	B2C	(650)	20.1	10.4	2.5	9.7
	B2G	(141)	38.6	28.4	8.3	26.4
상장	상장	(757)	50.3	23.0	33.2	26.1
	비상장	(3,257)	23.3	13.6	10.4	12.2

[표 2-17] 기술개발 동기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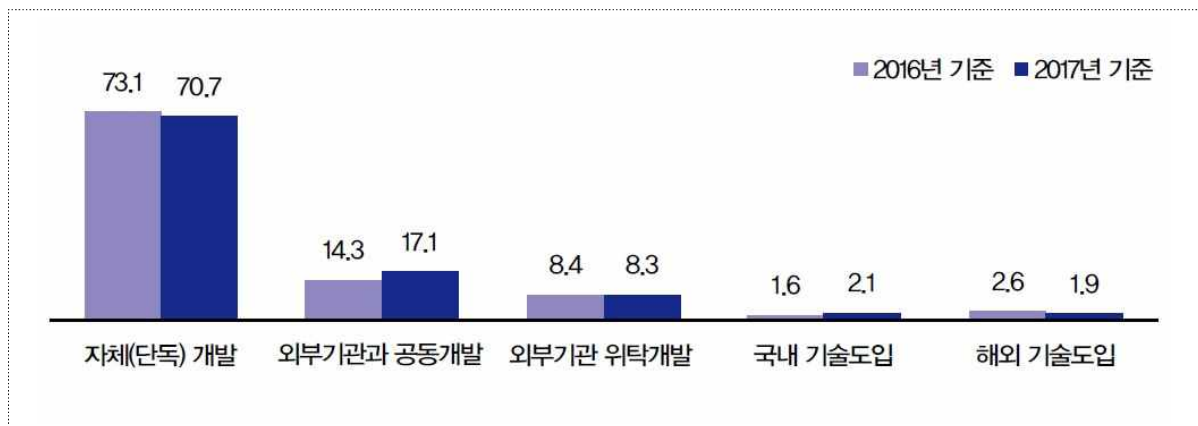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국내외 표준 및 규제 대응	모기업의 품질개선 요구	기타	기술개발 해당없음
전체		(4,014)	4.8	3.2	0.3	51.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6.4	3.2	0.1	36.7
	피출자/관계기업	(2,219)	3.5	3.3	0.4	63.6
업종	제조업	(1,552)	7.5	6.2	0.2	22.6
	비제조업	(2,462)	3.1	1.4	0.4	69.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2	0.6	0.0	80.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3.5	2.6	0.6	64.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4.3	7.3	0.0	41.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5.6	1.5	0.0	37.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7.0	5.5	0.0	33.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7.9	5.3	0.9	37.5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6.9	1.4	0.0	30.3
	1조원이상	(89)	15.8	3.2	0.0	31.3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8.5	5.7	0.9	14.8
	수출없음	(2,706)	2.9	2.1	0.0	69.4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2.1	2.2	0.0	79.4
	50 ~ 100명미만	(686)	2.4	2.8	1.3	51.2
	100 ~ 200명미만	(608)	7.2	2.7	0.0	38.3
	200 ~ 300명미만	(387)	7.8	2.4	0.0	37.3
	300 ~ 500명미만	(397)	7.4	8.4	0.0	26.3
	500 ~ 1,000명미만	(326)	7.1	3.3	0.8	14.9
	1,000명이상	(168)	11.0	5.6	0.0	27.6
업력	0 ~ 7년미만	(617)	1.8	4.2	0.0	59.3
	7 ~ 20년미만	(1,644)	4.3	2.9	0.0	62.2
	20 ~ 30년미만	(679)	3.0	1.5	0.3	52.8
	30 ~ 40년미만	(459)	6.3	5.2	0.0	38.1
	40 ~ 50년미만	(340)	8.6	3.0	0.0	30.8
	50년이상	(275)	7.0	5.5	3.0	30.4
매출유형	B2B	(3,223)	5.1	3.8	0.4	48.5
	B2C	(650)	3.0	0.9	0.0	70.6
	B2G	(141)	6.2	0.0	0.0	35.3
상장	상장	(757)	8.0	5.4	0.0	23.5
	비상장	(3,257)	3.9	2.6	0.4	59.4

□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방식

- 중견기업은 기술개발 시 자체개발하는 비중이 70.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 17.1%, 외부기관 위탁개발 8.3%, 국내기술도입 2.1%, 해외기술도입 1.9%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자체개발 73.1%, 외부기관과 공동개발 14.3%, 외부기관 위탁개발 8.4%, 해외 기술도입 2.6%, 국내 기술도입 1.6% 순으로 나타남

[그림 2-8] 기술개발 방식

(단위: %, 기술개발이 있는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자체개발(73.2%),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6.8%), 외부기관 위탁개발(6.0%), 국내 기술도입(2.3%), 해외 기술도입(1.7%) 순으로 나타나며, 피출자/관계기업도 기술개발 방식 비중이 동일함
- 제조업도 자체개발(74.5%), 외부기관과 공동개발(17.0%), 외부기관 위탁개발(4.4%) 순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자체개발 비중이 높았으며, 내수기업은 수출기업에 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 기업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 외부기관과 공동개발(19.7%)이 높게 나타남

[표 2-18] 기술개발 방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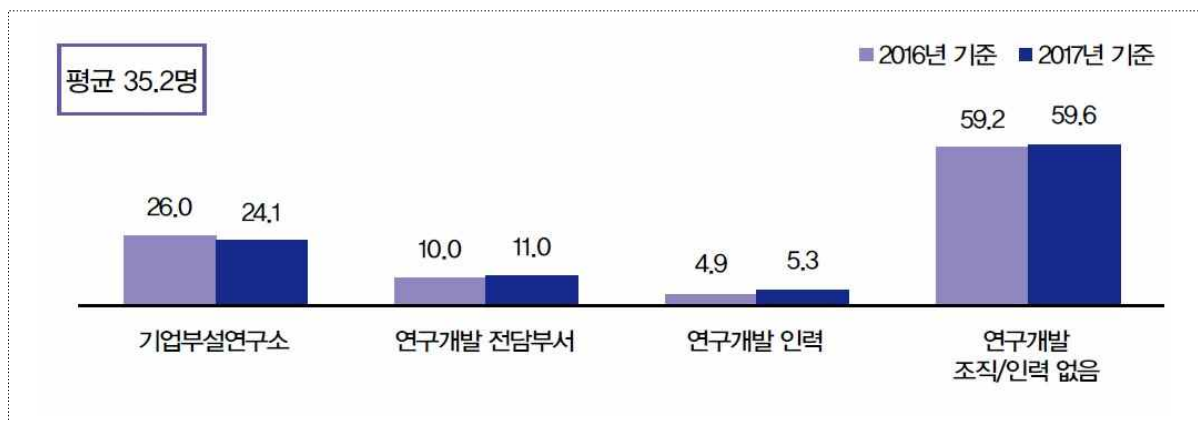
구분		자체(단독) 개발	외부기관과 공동개발	외부기관 위탁개발	국내 기술도입	해외 기술도입
전체		70.7	17.1	8.3	2.1	1.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3.2	16.8	6.0	2.3	1.7
	피출자/관계기업	67.1	17.4	11.5	1.7	2.2
업종	제조업	74.5	17.0	4.4	1.6	2.5
	비제조업	64.4	17.2	14.5	2.8	1.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4.4	14.9	10.6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6.7	17.8	11.6	2.3	1.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1.9	14.4	9.4	1.1	3.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1.9	17.8	6.0	2.6	1.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72.6	18.9	4.7	2.5	1.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5.5	13.7	5.8	2.2	2.8
	5천억원 ~ 1조원미만	67.5	16.1	10.5	2.1	3.8
	1조원이상	69.1	25.5	2.9	1.1	1.4
수출여부	수출있음	76.5	15.4	4.2	1.8	2.1
	수출없음	62.8	19.3	13.8	2.4	1.8
종사자수	50명미만	60.2	19.1	18.3	2.3	0.1
	50 ~ 100명미만	68.6	20.6	5.2	3.1	2.5
	100 ~ 200명미만	74.6	14.3	6.6	1.4	3.1
	200 ~ 300명미만	74.7	17.9	6.2	0.9	0.4
	300 ~ 500명미만	75.0	16.6	5.3	1.3	1.9
	500 ~ 1,000명미만	69.6	14.6	10.2	3.3	2.3
	1,000명이상	73.3	16.3	4.7	2.0	3.7
업력	0 ~ 7년미만	58.2	12.5	27.9	0.8	0.6
	7 ~ 20년미만	69.1	18.7	7.4	2.7	2.1
	20 ~ 30년미만	70.4	19.6	6.8	2.3	0.9
	30 ~ 40년미만	73.6	14.6	8.5	1.0	2.3
	40 ~ 50년미만	71.7	18.8	4.1	2.8	2.6
	50년이상	77.6	11.7	7.6	0.7	2.5
매출유형	B2B	71.1	17.8	7.4	1.8	1.9
	B2C	71.0	9.3	12.1	4.4	3.2
	B2G	61.8	19.7	16.2	2.3	0.0
상장	상장	76.5	15.1	5.8	0.8	1.9
	비상장	67.6	18.1	9.6	2.7	2.0

□ 연구개발 조직형태

- 중견기업의 24.1%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11.0%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5.3%는 연구개발 인력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개발 평균 인력 수는 35.2명임
- 2016년 기준 결과, 기업부설연구소 26.0%, 연구개발 전담부서 10.0%, 연구개발 인력 4.9%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2-9]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39.1%), 연구개발 전담부서(14.0%), 연구개발인력 (4.5%) 순이며, 연구개발 인력 수는 평균 46.8명으로 나타남
- 피출자/관계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수는 평균 15.0명
- 제조업은 48.7%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16.0%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반면 비제조업은 8.6%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7.9%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구개발 인력도 제조업은 전체의 73.0%가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한 반면, 비제조업은 19.9%만이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비제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 대체적으로 매출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수출기업의 81.4%, 내수기업의 20.6%가 연구개발 인력이 있음

[표 2-19]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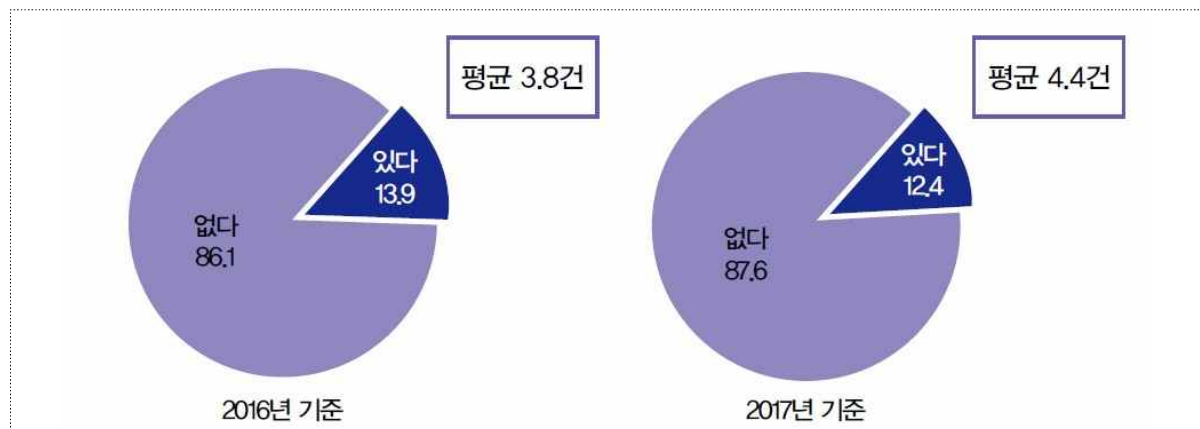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조직/인력 없음	연구개발 인력 수
전체		(4,014)	24.1	11.0	5.3	59.6	35.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39.1	14.0	4.5	42.3	46.8
	파출자/관계기업	(2,219)	12.0	8.6	5.9	73.5	15.0
업종	제조업	(1,552)	48.7	16.0	8.2	27.0	39.9
	비제조업	(2,462)	8.6	7.9	3.5	80.1	24.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0.1	1.9	3.6	84.4	7.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9.8	8.1	6.4	75.7	17.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23.2	18.5	6.1	52.2	15.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42.6	11.9	4.5	41.0	29.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36.4	17.9	6.2	39.5	33.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36.0	16.9	3.5	43.6	48.2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49.0	11.1	4.2	35.7	82.6
	1조원이상	(89)	59.8	8.9	0.0	31.3	177.1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56.5	17.7	7.2	18.6	46.6
	수출없음	(2,706)	8.5	7.8	4.4	79.4	13.5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2.8	2.3	4.7	90.2	4.9
	50 ~ 100명미만	(686)	18.1	13.7	7.2	61.0	7.5
	100 ~ 200명미만	(608)	28.3	19.8	7.6	44.3	21.7
	200 ~ 300명미만	(387)	34.3	16.6	6.1	43.0	18.5
	300 ~ 500명미만	(397)	51.7	16.0	2.1	30.2	42.0
	500 ~ 1,000명미만	(326)	61.1	16.0	3.9	18.9	55.2
	1,000명이상	(168)	56.0	8.7	3.0	32.2	147.6
업력	0 ~ 7년미만	(617)	12.4	9.7	7.7	70.2	37.3
	7 ~ 20년미만	(1,644)	16.7	10.3	3.2	69.8	35.8
	20 ~ 30년미만	(679)	20.9	8.3	9.7	61.1	21.9
	30 ~ 40년미만	(459)	36.8	14.7	5.2	43.3	32.6
	40 ~ 50년미만	(340)	42.5	13.6	4.8	39.1	36.8
	50년이상	(275)	40.6	13.2	4.9	41.2	56.7
매출유형	B2B	(3,223)	26.8	10.9	5.8	56.6	37.0
	B2C	(650)	8.0	11.1	3.6	77.3	28.0
	B2G	(141)	38.1	14.7	1.7	45.5	17.1
상장	상장	(757)	52.8	15.7	3.4	28.2	56.5
	비상장	(3,257)	16.2	9.7	5.8	68.2	22.0

□ 산학협력 활동 경험

- 중견기업의 12.4%는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활동한 기업의 평균 건수는 4.4건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13.9%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건수는 3.8건임

[그림 2-10] 산학협력 활동 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20.1%, 피출자/관계기업의 6.2%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함
 - 일반 중견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건수는 평균 4.8건, 피출자/관계기업은 평균 3.4건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3.7%, 비제조업의 5.3%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함
- 수출기업은 27.9%, 내수기업은 5.0%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함
-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산학협력 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20] 산학협력 활동 경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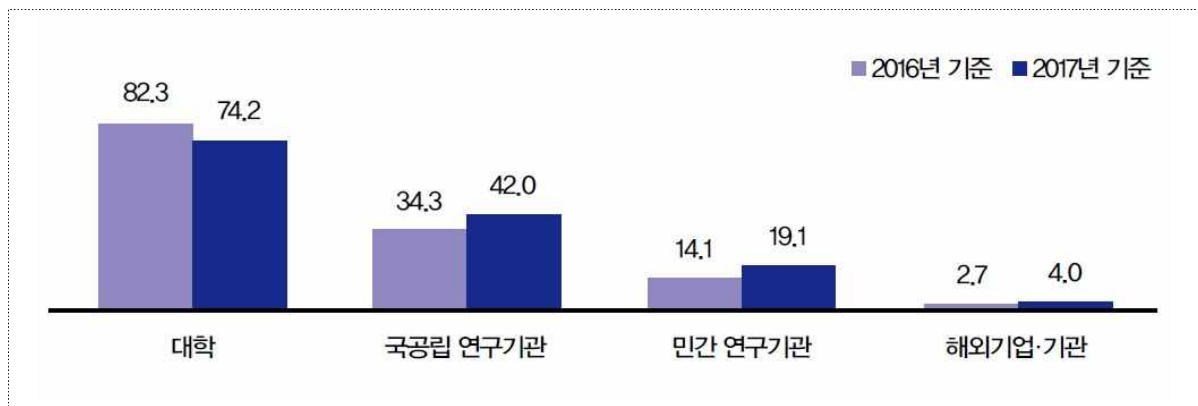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활동 경험 있음		활동 경험 없음
			평균 건수		
전체		(4,014)	12.4	4.4	87.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20.1	4.8	79.9
	피출자/관계기업	(2,219)	6.2	3.4	93.8
업종	제조업	(1,552)	23.7	4.2	76.3
	비제조업	(2,462)	5.3	5.0	94.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3.6	1.8	96.4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6.7	3.4	93.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7.8	4.3	92.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20.0	4.3	8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20.2	2.8	79.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18.0	8.3	82.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23.8	3.8	76.2
	1조원이상	(89)	47.3	6.9	52.7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27.9	5.0	72.1
	수출없음	(2,706)	5.0	2.9	95.0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4.7	1.8	95.3
	50 ~ 100명미만	(686)	5.9	1.7	94.1
	100 ~ 200명미만	(608)	6.6	2.4	93.4
	200 ~ 300명미만	(387)	13.7	2.5	86.3
	300 ~ 500명미만	(397)	31.7	4.3	68.3
	500 ~ 1,000명미만	(326)	32.9	5.2	67.1
	1,000명이상	(168)	38.0	10.5	62.0
업력	0 ~ 7년미만	(617)	16.8	3.8	83.2
	7 ~ 20년미만	(1,644)	8.2	4.0	91.8
	20 ~ 30년미만	(679)	11.0	2.4	89.0
	30 ~ 40년미만	(459)	15.5	4.0	84.5
	40 ~ 50년미만	(340)	19.1	5.2	80.9
	50년이상	(275)	22.1	8.0	77.9
매출유형	B2B	(3,223)	13.7	3.9	86.3
	B2C	(650)	4.4	3.5	95.6
	B2G	(141)	21.3	12.4	78.7
상장	상장	(757)	27.2	5.6	72.8
	비상장	(3,257)	8.3	3.3	91.7

□ 산학협력기관

- 중견기업의 산학협력기관으로는 대학(74.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연구기관(42.0%), 민간 연구기관(19.1%), 해외기업·기관(4.0%)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동일하게 대학 82.3%, 국공립 연구기관 34.3%, 민간 연구기관 14.1%, 해외기업·기관 2.7% 순임

[그림 2-11] 산학협력기관

(단위: %, 산학협력 경험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대학(79.5%), 국공립 연구기관(40.3%), 민간 연구기관(17.1%), 해외기업·기관(4.3%) 순임
-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이 협력기관인 기업은 제조업 71.4%, 비제조업 81.8%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대학과의 적극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보임
- 종사자 수별로는 1,000명 이상의 기업은 다른 구간보다 국공립 연구기관(60.7%)과 많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50~100명 미만의 기업은 다른 구간보다 민간 연구기관(42.7%)과 많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음

[표 2-21] 협력기관

(단위 : %, 산학협력 경험 기업 498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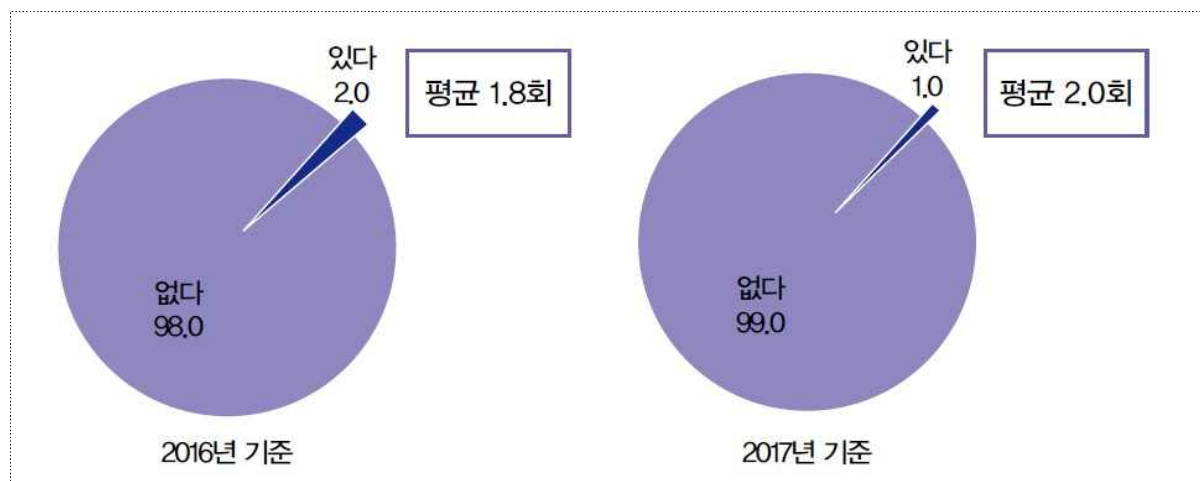
구분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해외기업·기관
전체		74.2	42.0	19.1	4.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9.5	40.3	17.1	4.3
	피출자/관계기업	60.1	46.6	24.2	3.1
업종	제조업	71.4	43.0	20.8	5.4
	비제조업	81.8	39.2	14.5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6.1	50.9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6.7	43.6	30.2	4.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84.5	44.3	7.8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0.5	30.6	11.2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81.9	36.1	17.3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69.8	49.7	24.9	10.1
	5천억원 ~ 1조원미만	88.2	47.1	11.8	11.8
	1조원이상	66.7	65.8	39.3	13.7
수출여부	수출있음	76.2	41.4	21.6	5.5
	수출없음	68.8	43.8	12.3	0.0
종사자수	50명미만	59.3	38.3	12.7	0.0
	50 ~ 100명미만	49.2	29.9	42.7	0.0
	100 ~ 200명미만	89.4	28.3	6.7	0.0
	200 ~ 300명미만	59.1	46.7	5.8	0.0
	300 ~ 500명미만	84.2	37.6	21.7	3.4
	500 ~ 1,000명미만	75.3	45.9	16.4	4.6
	1,000명이상	87.0	60.7	28.8	16.8
업력	0 ~ 7년미만	71.6	50.0	5.1	0.0
	7 ~ 20년미만	66.8	47.9	29.5	6.6
	20 ~ 30년미만	78.0	38.1	14.3	0.0
	30 ~ 40년미만	69.3	37.6	9.4	0.0
	40 ~ 50년미만	85.9	39.9	13.7	6.4
	50년이상	79.8	35.9	31.0	8.3
매출유형	B2B	75.0	40.2	20.5	4.5
	B2C	77.7	22.3	0.0	0.0
	B2G	58.2	87.9	16.4	0.0
상장	상장	81.9	40.6	20.2	6.6
	비상장	67.2	43.3	18.1	1.6

□ 기술이전 받은 경험

- 중견기업의 1.0%는 2017년에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균 횟수는 2.0회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기술이전을 받은 적이 있는 중견기업은 2.0%, 평균 횟수는 1.8회로 나타남

[그림 2-12] 기술이전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1.5%는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받은 경험이 있고 평균 2.3건이며, 피출자/관계기업은 기술이전 받은 경험이 0.5%이고 평균 1.4건으로 나타남
- 기술이전 경험이 제조업은 1.9%, 비제조업은 0.4%로 나타나 기술이전 활동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출기업의 기술이전 경험 비중은 2.4%로 내수기업(0.2%)에 비해 약 10배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이전 건수는 수출기업 평균 2.2건으로 내수기업(1.0건)보다 높음
-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의 기술이전 경험이 많아 대학, 연구소와 적극적인 협력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22] 기술이전 받은 경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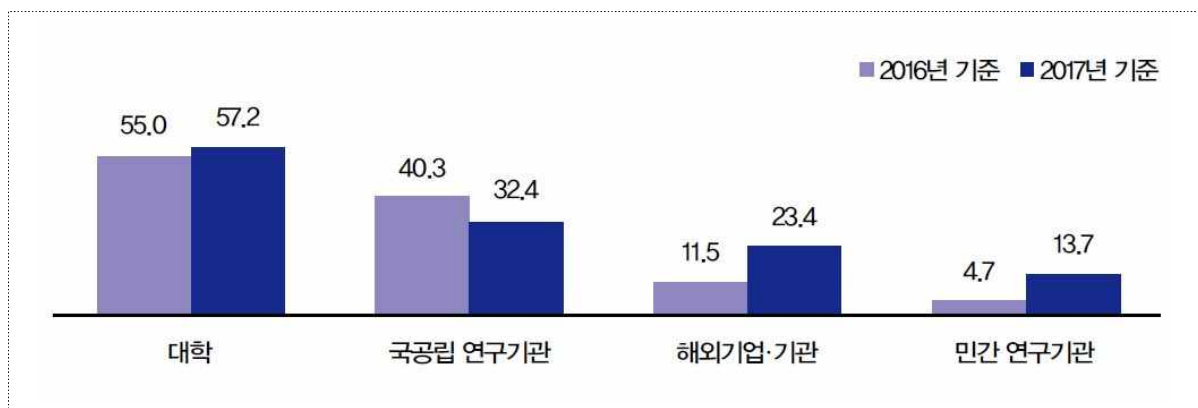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기술이전 경험 있음		기술이전 경험 없음
			평균 건수		
전체		(4,014)	1.0	2.0	99.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1.5	2.3	98.5
	피출자/관계기업	(2,219)	0.5	1.4	99.5
업종	제조업	(1,552)	1.9	1.7	98.1
	비제조업	(2,462)	0.4	3.1	99.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0.0	-	10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0.6	1.5	99.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1	2.8	98.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1	1.0	98.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0.9	2.0	99.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0.0	-	10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1.4	4.0	98.6
	1조원이상	(89)	12.5	2.2	87.5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2.4	2.2	97.6
	수출없음	(2,706)	0.2	1.0	99.8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0.3	1.0	99.7
	50 ~ 100명미만	(686)	1.2	1.5	98.8
	100 ~ 200명미만	(608)	0.5	1.0	99.5
	200 ~ 300명미만	(387)	0.0	-	100.0
	300 ~ 500명미만	(397)	1.0	1.0	99.0
	500 ~ 1,000명미만	(326)	2.5	3.5	97.5
	1,000명이상	(168)	6.6	2.2	93.4
업력	0 ~ 7년미만	(617)	1.1	2.0	98.9
	7 ~ 20년미만	(1,644)	0.8	2.0	99.2
	20 ~ 30년미만	(679)	0.6	2.0	99.4
	30 ~ 40년미만	(459)	1.1	2.8	98.9
	40 ~ 50년미만	(340)	1.5	2.2	98.5
	50년이상	(275)	1.9	1.0	98.1
매출유형	B2B	(3,223)	0.8	2.2	99.2
	B2C	(650)	0.9	1.0	99.1
	B2G	(141)	4.4	2.2	95.6
상장	상장	(757)	2.4	2.2	97.6
	비상장	(3,257)	0.6	1.8	99.4

□ 기술이전처

-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처로는 대학(57.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연구기관(32.4%), 해외기업·기관(23.4%), 민간 연구기관(13.7%)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대학 55.0%, 국공립 연구기관 40.3%, 해외기업·기관 11.5%, 민간 연구기관 4.7% 순임

[그림 2-13] 기술이전처

(단위: %, 기술이전 경험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처는 대학(66.0%), 해외기업·기관(33.5%), 민간연구기관(19.7%), 국공립연구기관(19.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피출자/관계기업은 국공립 연구기관(63.3%), 대학(36.7%)의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대학(65.7%)이 가장 높았으며, 비제조업은 해외기업·기관(70.0%)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은 대학(59.9%), 국공립 연구기관(38.9%), 해외기업·기관(16.8%), 민간연구기관(1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수기업은 해외기업·기관(55.8%), 대학(44.2%)의 순으로 나타남
- 상장기업은 대학(86.1%)이 가장 높았으며, 비상장기업은 국공립연구기관(55.8%)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3] 기술이전처

(단위 : %, 기술이전 경험 기업 39개사, 중복응답)

구분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해외기업·기관	민간연구기관
전체		57.2	32.4	23.4	13.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6.0	19.0	33.5	19.7
	피출자/관계기업	36.7	63.3	0.0	0.0
업종	제조업	65.7	24.7	9.7	17.8
	비제조업	28.5	58.5	70.0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	-	-	-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0.0	50.0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0.0	100.0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1.4	0.0	48.6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00.0	0.0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	-	-	-
	5천억원 ~ 1조원미만	100.0	0.0	0.0	100.0
	1조원이상	74.1	22.4	48.3	25.9
수출여부	수출있음	59.9	38.9	16.8	16.5
	수출없음	44.2	0.0	55.8	0.0
종사자수	50명미만	0.0	100.0	0.0	0.0
	50 ~ 100명미만	54.0	0.0	46.0	0.0
	100 ~ 200명미만	0.0	100.0	0.0	0.0
	200 ~ 300명미만	-	-	-	-
	300 ~ 500명미만	100.0	0.0	0.0	0.0
	500 ~ 1,000명미만	68.4	31.6	0.0	29.0
	1,000명이상	74.1	22.4	48.3	25.9
업력	0 ~ 7년미만	100.0	0.0	0.0	0.0
	7 ~ 20년미만	18.8	50.9	67.9	21.7
	20 ~ 30년미만	100.0	0.0	0.0	0.0
	30 ~ 40년미만	0.0	100.0	0.0	0.0
	40 ~ 50년미만	100.0	0.0	0.0	38.6
	50년이상	100.0	0.0	0.0	0.0
매출유형	B2B	63.0	26.1	10.9	20.0
	B2C	48.3	51.7	0.0	0.0
	B2G	40.7	40.7	100.0	0.0
상장	상장	86.1	12.1	26.0	25.6
	비상장	23.9	55.8	20.3	0.0

□ 주력기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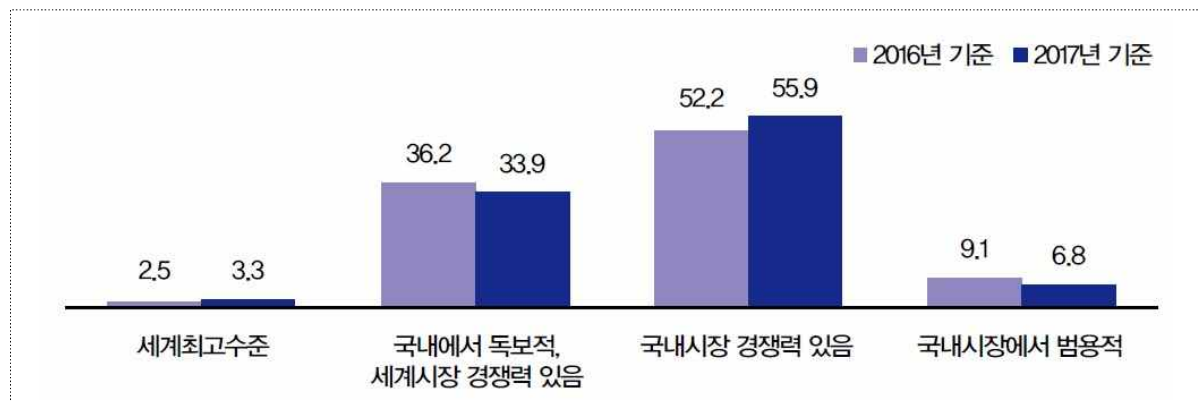
-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이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3%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비중은 33.9%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주력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응답이 2.5%로 나타남

[표 2-24] 기술수준 정의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의 정의
100% 수준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
80 ~ 100%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준
60 ~ 80%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준
60% 미만	국내시장에서도 범용적인 기술수준

[그림 2-14] 주력기술 수준

(단위: %)



특성별 분석

- 주력기술이 세계최고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중견기업 3.0%, 피출자/관계 기업은 3.6%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3.7%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주력기술(서비스)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B2C 기업의 6.1%가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응답, B2B(2.8%) 기업 보다 높게 나타남

[표 2-25] 주력기술 수준

(단위 : %)

구분		사례수	세계최고수준	국내에서 독보적, 세계시장 경쟁력 있음	국내시장 경쟁력 있음	국내시장에서 범용적
전체		(4,014)	3.3	33.9	55.9	6.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3.0	38.1	52.1	6.8
	파출자/관계기업	(2,219)	3.6	30.5	59.0	6.9
업종	제조업	(1,552)	2.8	42.2	49.2	5.7
	비제조업	(2,462)	3.7	28.7	60.1	7.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6.5	30.3	56.1	7.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3.2	29.3	60.8	6.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3.2	36.1	50.2	10.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2.8	38.1	52.3	6.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0.8	34.2	57.6	7.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2.6	41.0	54.7	1.7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4.2	40.4	48.5	6.9
	1조원이상	(89)	6.0	49.2	44.7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2.3	47.3	46.6	3.8
	수출없음	(2,706)	3.9	27.4	60.4	8.3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3.4	28.0	60.8	7.7
	50 ~ 100명미만	(686)	3.5	34.0	52.8	9.7
	100 ~ 200명미만	(608)	2.4	25.6	63.9	8.2
	200 ~ 300명미만	(387)	6.0	36.0	53.4	4.6
	300 ~ 500명미만	(397)	3.2	52.7	42.8	1.3
	500 ~ 1,000명미만	(326)	1.6	43.5	50.7	4.1
	1,000명이상	(168)	2.9	46.3	44.6	6.2
업력	0 ~ 7년미만	(617)	6.3	45.3	42.2	6.1
	7 ~ 20년미만	(1,644)	3.5	31.5	58.3	6.6
	20 ~ 30년미만	(679)	3.2	35.3	53.9	7.5
	30 ~ 40년미만	(459)	1.3	32.6	59.0	7.1
	40 ~ 50년미만	(340)	1.2	39.8	51.2	7.8
	50년이상	(275)	6.2	27.4	61.3	5.1
매출유형	B2B	(3,223)	2.8	34.8	55.0	7.5
	B2C	(650)	6.1	34.3	56.8	2.9
	B2G	(141)	3.6	12.6	73.1	10.7
상장	상장	(757)	2.4	44.0	49.8	3.9
	비상장	(3,257)	3.6	31.1	57.6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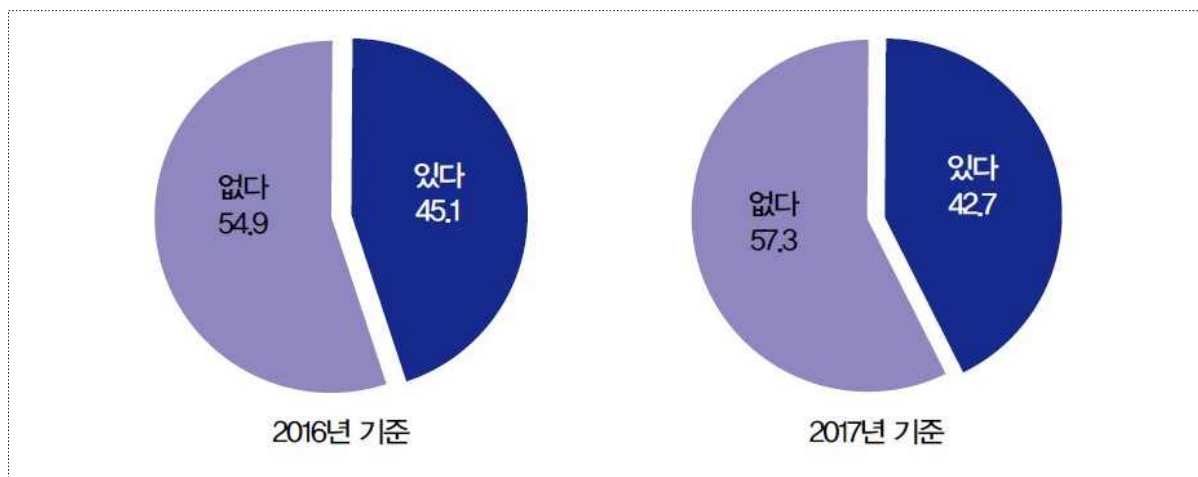
2.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율은 42.7%이며, 미보유율은 57.3%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지식재산권 보유율이 45.1%로 나타남

[그림 2-15]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2%이며, 피출자/관계기업은 28.5%로 일반 중견기업이 피출자/관계기업보다 지식재산권 보유율이 높음
- 제조업 67.1%, 비제조업 27.3%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 규모가 크고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권 보유율이 높게 나타남
- 업력 0~7년 미만의 신생기업의 경우 27.1%만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업력 50년 이상의 기업은 62.5%로 업력이 많을수록 지식재산권 보유율이 높게 나타남
- 상장기업의 77.2%, 비상장기업의 33.2%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
 -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이 비제조업, 내수기업, 비상장기업보다 지식재산권 보유율이 높게 나타남

[표 2-26]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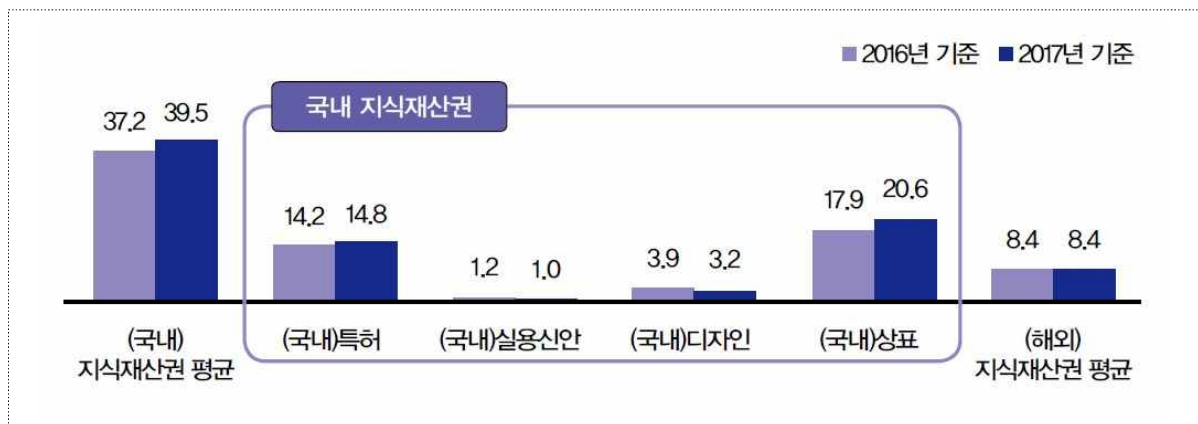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지식재산권 보유	지식재산권 미보유
전체		(4,014)	42.7	57.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60.2	39.8
	피출자/관계기업	(2,219)	28.5	71.5
업종	제조업	(1,552)	67.1	32.9
	비제조업	(2,462)	27.3	72.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7.7	82.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26.2	73.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52.4	47.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62.0	38.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63.9	36.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63.3	36.7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54.5	45.5
	1조원이상	(89)	62.2	37.8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74.0	26.0
	수출없음	(2,706)	27.5	72.5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16.0	84.0
	50 ~ 100명미만	(686)	40.7	59.3
	100 ~ 200명미만	(608)	53.0	47.0
	200 ~ 300명미만	(387)	58.3	41.7
	300 ~ 500명미만	(397)	71.1	28.9
	500 ~ 1,000명미만	(326)	81.6	18.4
	1,000명이상	(168)	63.6	36.4
업력	0 ~ 7년미만	(617)	27.1	72.9
	7 ~ 20년미만	(1,644)	30.7	69.3
	20 ~ 30년미만	(679)	47.6	52.4
	30 ~ 40년미만	(459)	60.0	40.0
	40 ~ 50년미만	(340)	60.5	39.5
	50년이상	(275)	62.5	37.5
매출유형	B2B	(3,223)	44.4	55.6
	B2C	(650)	33.2	66.8
	B2G	(141)	46.9	53.1
상장	상장	(757)	77.2	22.8
	비상장	(3,257)	33.2	66.8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중견기업은 평균 39.5건(합계:158,631건)의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20.6건, 특허 14.8건, 디자인권 3.2건, 실용신안권 1.0건 순임. 해외 지식재산권은 평균 8.4건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권 4.4건, 특허권 3.5건, 디자인권 0.5건, 실용신안권 0.1건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국내 지식재산권 평균 37.2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상표 17.9건, 특허 14.2건, 디자인 3.9건, 실용신안 1.2건 순이며, 해외 지식재산권은 8.4건임

[그림 2-16]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단위: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평균 79.1건(합계:142,003건)의 국내 지식재산권(상표 40.9건, 특허 29.9건, 디자인권 6.1건, 실용신안권 2.1건), 18.2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평균 81.5건의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평균 13.1건을 보유하여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수가 약 6배 정도 많음
- 대체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이 평균 415.6건의 국내 지식재산권과 113.8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매출액 1백억원 미만 기업(1.2건의 국내 지식재산권, 0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연구개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 비중이 높아,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임

[표 2-27]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605개사)

구분		국내					해외				
		합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39.5	14.8	1.0	3.2	20.6	8.4	3.5	0.1	0.5	4.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9.1	29.9	2.1	6.1	40.9	18.2	7.5	0.2	1.1	9.5
	피출자/관계기업	7.5	2.5	0.2	0.8	4.1	0.5	0.2	0.0	0.0	0.2
업종	제조업	81.5	35.0	2.2	6.8	37.5	19.3	8.5	0.1	1.2	9.5
	비제조업	13.1	2.0	0.3	0.9	9.9	1.6	0.3	0.1	0.1	1.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2	0.5	0.1	0.0	0.7	0.0	0.0	0.0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0	1.7	0.1	0.2	4.0	0.4	0.2	0.0	0.0	0.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0.8	8.7	0.5	2.7	8.9	2.5	1.4	0.0	0.1	1.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5.8	12.4	1.3	5.7	46.3	13.5	2.8	0.3	0.4	1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4.1	17.4	0.7	3.6	22.4	16.3	3.3	0.1	3.2	9.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62.1	25.0	1.4	5.9	29.8	11.6	5.3	0.2	0.4	5.6
	5천억원 ~ 1조원미만	136.3	49.3	1.0	4.7	81.3	20.8	7.6	0.1	0.2	12.8
	1조원이상	415.6	244.7	22.9	38.1	109.9	113.8	78.8	0.3	4.0	30.7
수출여부	수출있음	97.4	41.3	2.8	7.7	45.6	23.5	9.9	0.1	1.4	12.1
	수출없음	11.5	1.9	0.2	1.0	8.4	1.1	0.4	0.1	0.1	0.6
종사자수	50명미만	2.5	0.8	0.0	0.2	1.5	0.3	0.0	0.0	0.0	0.3
	50 ~ 100명미만	12.3	1.9	0.4	0.8	9.3	0.3	0.0	0.0	0.1	0.1
	100 ~ 200명미만	30.0	4.4	0.3	2.4	23.0	3.6	0.5	0.0	0.0	3.0
	200 ~ 300명미만	42.0	12.8	0.7	4.5	24.2	11.3	2.4	0.0	0.0	8.9
	300 ~ 500명미만	72.6	28.8	1.4	8.0	34.5	25.0	8.0	0.6	3.6	12.8
	500 ~ 1,000명미만	68.5	31.7	2.2	4.8	29.9	10.4	4.0	0.1	0.2	6.1
	1,000명이상	361.6	163.0	13.0	24.0	161.5	79.4	48.5	0.3	2.4	28.4
업력	0 ~ 7년미만	35.9	26.9	2.2	3.8	2.9	8.3	6.8	0.1	1.1	0.3
	7 ~ 20년미만	24.2	6.7	0.3	2.0	15.3	5.5	1.0	0.0	0.7	3.7
	20 ~ 30년미만	19.6	8.8	0.4	1.8	8.6	5.7	2.4	0.3	0.2	2.8
	30 ~ 40년미만	87.6	34.4	3.6	4.7	44.9	18.3	10.5	0.1	0.3	7.4
	40 ~ 50년미만	49.9	19.9	0.9	3.4	25.7	8.4	5.4	0.0	0.0	2.9
	50년이상	85.4	24.0	1.7	10.0	49.8	16.0	2.6	0.1	0.2	13.0
매출유형	B2B	35.6	17.0	1.1	2.8	14.7	7.9	4.2	0.1	0.2	3.3
	B2C	61.4	4.5	0.5	5.7	50.8	13.1	0.6	0.0	1.9	10.6
	B2G	28.1	11.1	2.2	0.2	14.6	0.1	0.1	0.0	0.0	0.0
상장	상장	129.2	51.3	3.3	10.0	64.6	29.3	12.8	0.1	1.9	14.5
	비상장	14.8	4.7	0.4	1.3	8.4	2.7	0.9	0.1	0.1	1.6

[표 2-28]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계속)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605개사)

구분		합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48.0	18.2	1.1	3.7	24.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97.4	37.4	2.3	7.2	50.4
	피출자/관계기업	8.0	2.7	0.2	0.8	4.3
업종	제조업	100.8	43.5	2.3	8.0	47.0
	비제조업	14.7	2.3	0.4	1.0	11.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3	0.5	0.1	0.0	0.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4	1.9	0.1	0.2	4.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3.3	10.1	0.5	2.8	9.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9.3	15.2	1.6	6.1	56.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0.3	20.7	0.7	6.8	32.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3.6	30.4	1.6	6.3	35.4
	5천억원 ~ 1조원미만	157.1	57.0	1.1	4.9	94.2
	1조원이상	529.5	323.5	23.2	42.1	140.7
수출여부	수출있음	120.9	51.2	3.0	9.1	57.7
	수출없음	12.7	2.3	0.3	1.1	9.1
종사자수	50명미만	2.9	0.8	0.0	0.2	1.8
	50 ~ 100명미만	12.6	1.9	0.4	0.9	9.4
	100 ~ 200명미만	33.5	4.8	0.3	2.4	26.0
	200 ~ 300명미만	53.3	15.1	0.7	4.5	33.0
	300 ~ 500명미만	97.6	36.8	2.1	11.6	47.2
	500 ~ 1,000명미만	78.9	35.7	2.3	5.0	35.9
	1,000명이상	441.0	211.4	13.3	26.4	189.9
업력	0 ~ 7년미만	44.2	33.7	2.3	5.0	3.2
	7 ~ 20년미만	29.7	7.7	0.3	2.7	19.0
	20 ~ 30년미만	25.3	11.2	0.7	2.0	11.4
	30 ~ 40년미만	105.9	44.9	3.7	5.1	52.3
	40 ~ 50년미만	58.3	25.3	0.9	3.4	28.6
	50년이상	101.4	26.6	1.8	10.2	62.9
매출유형	B2B	43.5	21.2	1.2	3.0	18.0
	B2C	74.5	5.1	0.5	7.6	61.4
	B2G	28.1	11.2	2.2	0.2	14.6
상장	상장	158.5	64.1	3.4	11.9	79.1
	비상장	17.4	5.5	0.5	1.4	10.0

[표 2-29]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065개사)

구분		국내					해외				
		합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158,631	59,223	4,192	12,728	82,488	33,890	13,919	372	2,009	17,59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42,003	53,667	3,850	11,025	73,461	32,756	13,383	368	1,939	17,065
	피출자/관계기업	16,629	5,556	343	1,702	9,027	1,134	536	3	70	525
업종	제조업	126,449	54,279	3,398	10,557	58,215	29,927	13,267	153	1,815	14,692
	비제조업	32,182	4,945	794	2,170	24,273	3,963	652	218	194	2,89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33	197	50	3	282	13	13	0	0	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8,943	2,550	182	303	5,908	625	310	0	9	30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0,580	4,438	257	1,372	4,513	1,264	689	15	62	49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4,853	8,482	876	3,903	31,591	9,196	1,901	215	289	6,79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5,778	6,235	234	1,283	8,026	5,821	1,177	30	1,141	3,47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7,507	7,060	382	1,671	8,395	3,258	1,502	61	112	1,582
	5천억원 ~ 1조원미만	23,448	8,487	171	801	13,988	3,582	1,314	24	39	2,206
	1조원이상	36,990	21,774	2,040	3,392	9,784	10,131	7,013	26	357	2,735
수출여부	수출있음	127,416	54,038	3,706	10,017	59,656	30,786	12,906	153	1,862	15,864
	수출없음	31,215	5,186	486	2,711	22,832	3,105	1,013	218	147	1,726
종사자수	50명미만	3,628	1,168	35	253	2,173	499	36	4	53	406
	50 ~ 100명미만	8,440	1,286	266	529	6,360	181	30	0	59	92
	100 ~ 200명미만	18,239	2,650	167	1,434	13,988	2,160	285	30	8	1,836
	200 ~ 300명미만	16,256	4,933	262	1,722	9,340	4,358	914	3	15	3,426
	300 ~ 500명미만	28,818	11,411	569	3,163	13,675	9,919	3,176	249	1,426	5,068
	500 ~ 1,000명미만	22,362	10,334	703	1,577	9,748	3,394	1,314	43	54	1,984
	1,000명이상	60,888	27,443	2,191	4,049	27,204	13,379	8,163	43	396	4,777
업력	0 ~ 7년미만	10,623	7,963	659	1,137	864	2,456	2,011	33	333	79
	7 ~ 20년미만	42,498	11,750	518	3,435	26,796	9,645	1,722	47	1,294	6,582
	20 ~ 30년미만	14,581	6,531	272	1,372	6,407	4,205	1,783	228	138	2,055
	30 ~ 40년미만	45,370	17,796	1,878	2,453	23,242	9,451	5,430	28	176	3,817
	40 ~ 50년미만	20,241	8,075	371	1,378	10,417	3,402	2,200	3	4	1,195
	50년이상	25,317	7,108	494	2,953	14,762	4,732	773	33	64	3,862
매출유형	B2B	114,709	54,728	3,572	9,002	47,407	25,354	13,528	351	782	10,693
	B2C	39,980	2,935	313	3,704	33,028	8,526	381	21	1,227	6,897
	B2G	3,942	1,561	307	22	2,052	10	10	0	0	0
상장	상장	112,229	44,567	2,862	8,685	56,115	25,493	11,135	115	1,628	12,615
	비상장	46,402	14,657	1,330	4,043	26,373	8,397	2,784	257	381	4,975

[표 2-30]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계속)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065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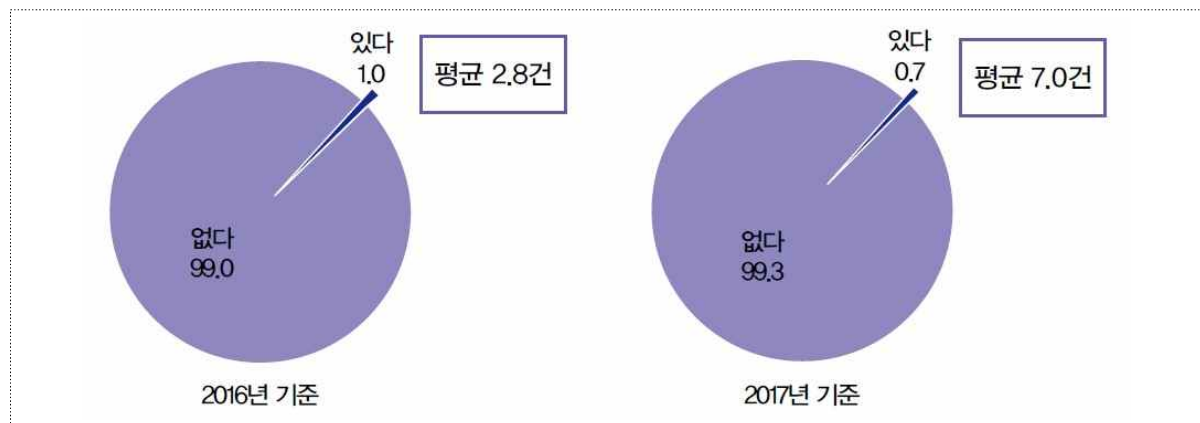
구분		합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192,521	73,143	4,564	14,737	100,07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4,759	67,050	4,218	12,964	90,526
	피출자/관계기업	17,763	6,092	346	1,773	9,552
업종	제조업	156,376	67,546	3,551	12,372	72,907
	비제조업	36,145	5,597	1,013	2,364	27,17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46	210	50	3	28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567	2,860	182	312	6,21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1,844	5,127	272	1,434	5,01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4,049	10,383	1,091	4,192	38,38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1,600	7,413	265	2,424	11,49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0,765	8,561	443	1,783	9,978
	5천억원 ~ 1조원미만	27,030	9,801	195	839	16,194
	1조원이상	47,121	28,788	2,066	3,749	12,518
수출여부	수출있음	158,201	66,944	3,859	11,879	75,520
	수출없음	34,320	6,199	705	2,858	24,558
종사자수	50명미만	4,127	1,204	38	305	2,579
	50 ~ 100명미만	8,622	1,316	266	588	6,452
	100 ~ 200명미만	20,399	2,935	198	1,442	15,824
	200 ~ 300명미만	20,615	5,847	265	1,736	12,766
	300 ~ 500명미만	38,737	14,587	818	4,589	18,743
	500 ~ 1,000명미만	25,756	11,648	746	1,631	11,732
	1,000명이상	74,267	35,606	2,234	4,446	31,981
업력	0 ~ 7년미만	13,079	9,975	692	1,470	943
	7 ~ 20년미만	52,143	13,471	565	4,729	33,378
	20 ~ 30년미만	18,786	8,314	500	1,510	8,462
	30 ~ 40년미만	54,821	23,226	1,907	2,629	27,059
	40 ~ 50년미만	23,643	10,276	374	1,382	11,612
	50년이상	30,050	7,881	527	3,017	18,624
매출유형	B2B	140,063	68,256	3,923	9,784	58,100
	B2C	48,506	3,317	334	4,931	39,925
	B2G	3,952	1,571	307	22	2,052
상장	상장	137,722	55,702	2,977	10,313	68,730
	비상장	54,799	17,441	1,587	4,424	31,348

□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중견기업 0.7%(평균 7.0건)가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1.0%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8건임

[그림 2-17]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1.0%, 피출자/관계기업의 0.5%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음
 - 일반 중견기업이 경험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평균 3.2회, 피출자/관계기업은 평균 12.6회로 일반 중견기업이 피출자/관계기업보다 침해당한 경험은 높지만, 침해 건수는 피출자/관계기업이 많음
- 제조업의 1.0%(7.0건), 비제조업의 0.6%(6.9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의 1.2%(7.0건), 내수기업은 0.5%(6.9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B2C 기업은 1.0%(3.4건)가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이 있으며 B2B(0.7%), B2G(0%) 기업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1] 지식재산권 침해경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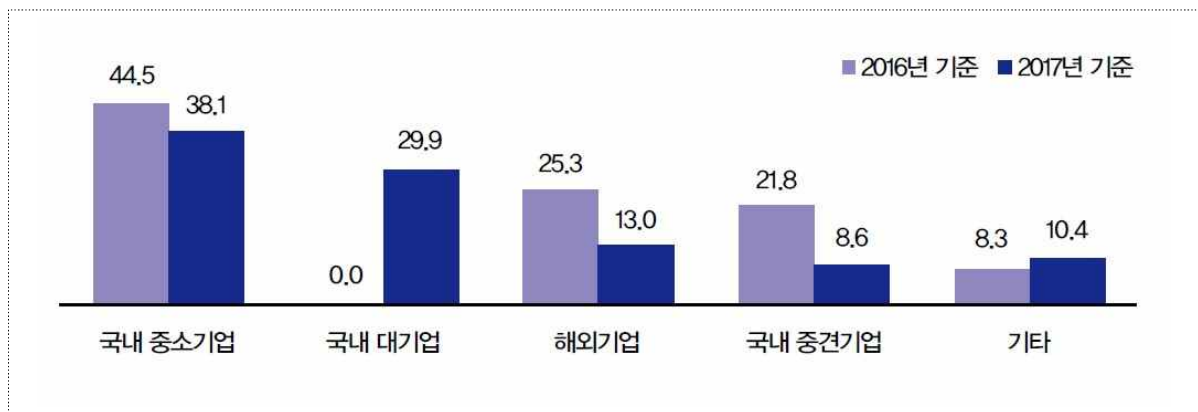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침해경험 있음		침해경험 없음
				평균 침해 건수	
전체		(4,014)	0.7	7.0	99.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1.0	3.2	99.0
	피출자/관계기업	(2,219)	0.5	12.6	99.5
업종	제조업	(1,552)	1.0	7.0	99.0
	비제조업	(2,462)	0.6	6.9	99.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0.0		10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0.6	10.0	99.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1	11.2	98.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1	5.0	98.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0.0		10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1.8	2.0	98.2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1.4	2.0	98.6
	1조원이상	(89)	0.0		10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1.2	7.0	98.8
	수출없음	(2,706)	0.5	6.9	99.5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0.0		100.0
	50 ~ 100명미만	(686)	1.7	12.6	98.3
	100 ~ 200명미만	(608)	0.6	5.0	99.4
	200 ~ 300명미만	(387)	0.0		100.0
	300 ~ 500명미만	(397)	2.3	3.0	97.7
	500 ~ 1,000명미만	(326)	0.0		100.0
	1,000명이상	(168)	2.9	2.0	97.1
업력	0 ~ 7년미만	(617)	0.9	2.0	99.1
	7 ~ 20년미만	(1,644)	1.0	9.6	99.0
	20 ~ 30년미만	(679)	0.7	1.5	99.3
	30 ~ 40년미만	(459)	0.7	5.0	99.3
	40 ~ 50년미만	(340)	0.0		100.0
	50년이상	(275)	0.0		100.0
매출유형	B2B	(3,223)	0.7	8.0	99.3
	B2C	(650)	1.0	3.4	99.0
	B2G	(141)	0.0		100.0
상장	상장	(757)	1.3	2.8	98.7
	비상장	(3,257)	0.6	9.5	99.4

□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주체에 대해,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38.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내 대기업(29.9%), 해외기업(13.0%), 국내 중견기업(8.6%)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국내 중소기업 44.5%, 해외기업 25.3%, 국내 중견기업 21.8% 순임

[그림 2-18]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단위: %, 지재권 침해경험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 주체 유형은 국내 중소기업(63.9%), 해외기업(21.7%), 국내 중견기업(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출자/관계기업은 국내 대기업(74.2%)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조업은 국내 중소기업(39.8%)의 침해 비중이 가장 높고, 비제조업은 국내 대기업(63.7%)의 침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로 지식재산권 침해 주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 기업은 국내 대기업(38.3%)을 침해 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소비자가 주 거래처인 B2C 기업은 해외기업(59.4%), 정부/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 기업은 침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주 거래처별로 침해 주체 대상이 다를 수 있음

[표 2-32]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단위 : %, 지재권 침해경험 기업 30개사)

구분		국내중소기업	국내대기업	해외기업	국내중견기업	기타
전체		38.1	29.9	13.0	8.6	10.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3.9	0.0	21.7	14.4	0.0
	피출자/관계기업	0.0	74.2	0.0	0.0	25.8
업종	제조업	39.8	0.0	24.4	16.2	19.6
	비제조업	36.3	63.7	0.0	0.0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	-	-	-	-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0.0	100.0	0.0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6.1	0.0	0.0	0.0	53.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0.0	0.0	50.0	0.0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	-	-	-	-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8.6	0.0	0.0	51.4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00.0	0.0	0.0	0.0	0.0
	1조원이상	-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39.8	0.0	24.4	16.2	19.6
	수출없음	36.3	63.7	0.0	0.0	0.0
종사자수	50명미만	-	-	-	-	-
	50 ~ 100명미만	0.0	74.2	0.0	0.0	25.8
	100 ~ 200명미만	0.0	0.0	100.0	0.0	0.0
	200 ~ 300명미만	-	-	-	-	-
	300 ~ 500명미만	71.7	0.0	0.0	28.3	0.0
	500 ~ 1,000명미만	-	-	-	-	-
	1,000명이상	100.0	0.0	0.0	0.0	0.0
업력	0 ~ 7년미만	0.0	0.0	0.0	100.0	0.0
	7 ~ 20년미만	34.4	48.7	0.0	0.0	16.9
	20 ~ 30년미만	100.0	0.0	0.0	0.0	0.0
	30 ~ 40년미만	0.0	0.0	100.0	0.0	0.0
	40 ~ 50년미만	-	-	-	-	-
	50년이상	-	-	-	-	-
매출유형	B2B	37.4	38.3	0.0	11.0	13.3
	B2C	40.6	0.0	59.4	0.0	0.0
	B2G	-	-	-	-	-
상장	상장	66.0	0.0	34.0	0.0	0.0
	비상장	20.9	48.4	0.0	13.9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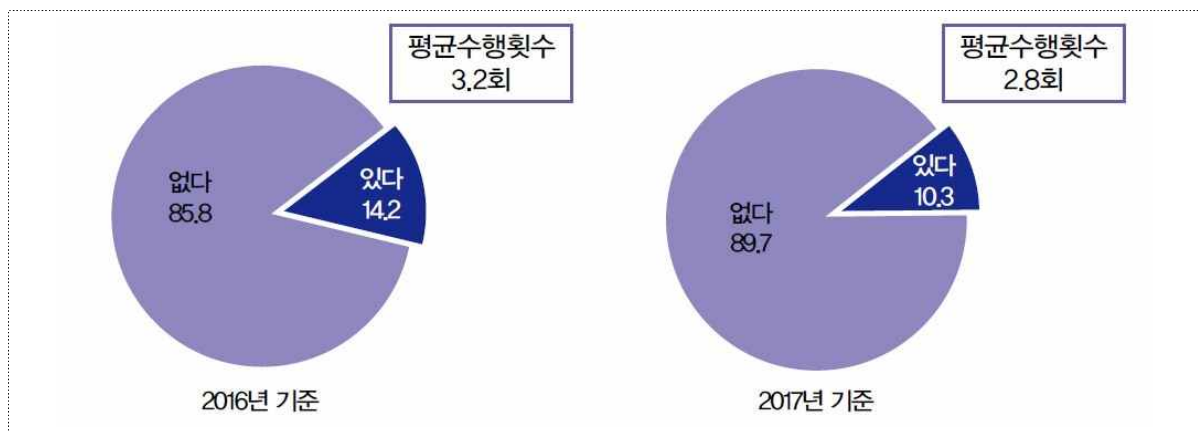
3.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 2017년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여부

- 중견기업의 10.3%는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수행횟수는 2.8회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은 14.2%, 평균 수행횟수는 3.2회로 나타남

[그림 2-19]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17.5%는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수행 횟수는 3.1회로 나타남
- 제조업의 22.3%, 비제조업의 2.8%가 정부지원 R&D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 R&D사업이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체적으로 매출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 및 업력이 많을수록 정부지원 R&D 사업을 수행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장기업의 24.8%, 비상장기업의 6.3%가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수행횟수는 상장기업 3.2건, 비상장기업 2.4건으로 나타남

[표 2-33] 정부지원 R&D사업 수행 경험

(단위 :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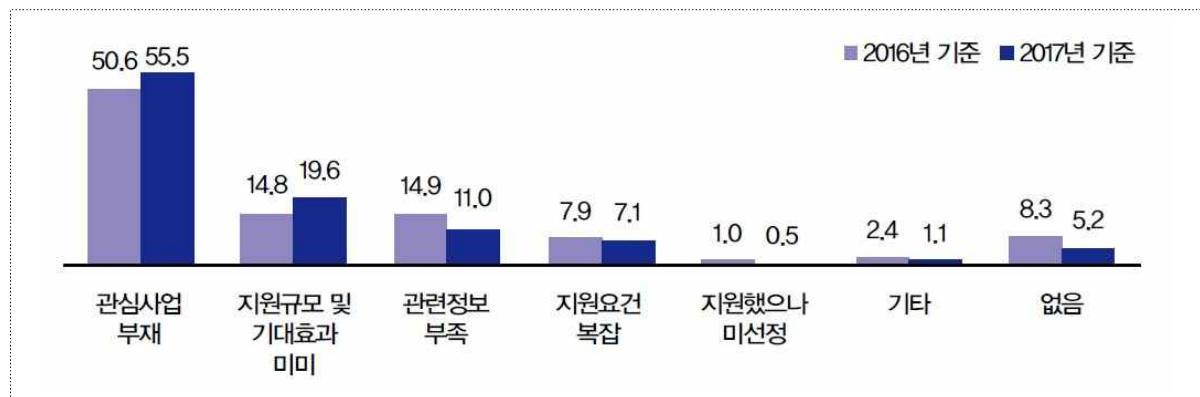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수행경험 있음		수행경험 없음
				평균수행횟수	
전체		(4,014)	10.3	2.8	89.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17.5	3.1	82.5
	피출자/관계기업	(2,219)	4.5	1.9	95.5
업종	제조업	(1,552)	22.3	2.7	77.7
	비제조업	(2,462)	2.8	3.5	97.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4.8	1.5	95.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3.1	2.2	96.9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0.6	3.0	89.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8.9	2.8	81.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14.1	2.3	85.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16.2	3.7	83.8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22.4	2.9	77.6
	1조원이상	(89)	34.8	4.1	65.2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26.7	2.9	73.3
	수출없음	(2,706)	2.4	2.3	97.6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1.4	2.2	98.6
	50 ~ 100명미만	(686)	5.4	1.2	94.6
	100 ~ 200명미만	(608)	8.3	1.7	91.7
	200 ~ 300명미만	(387)	15.4	2.4	84.6
	300 ~ 500명미만	(397)	28.4	2.6	71.6
	500 ~ 1,000명미만	(326)	26.7	3.6	73.3
	1,000명이상	(168)	28.3	5.4	71.7
업력	0 ~ 7년미만	(617)	5.2	3.4	94.8
	7 ~ 20년미만	(1,644)	6.2	2.3	93.8
	20 ~ 30년미만	(679)	9.3	3.3	90.7
	30 ~ 40년미만	(459)	14.9	2.3	85.1
	40 ~ 50년미만	(340)	17.1	2.7	82.9
	50년이상	(275)	25.3	3.7	74.7
매출유형	B2B	(3,223)	11.7	2.6	88.3
	B2C	(650)	3.8	3.6	96.2
	B2G	(141)	8.7	7.8	91.3
상장	상장	(757)	24.8	3.2	75.2
	비상장	(3,257)	6.3	2.4	93.7

□ R&D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

-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관심 사업의 부재(55.5%)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9.6%), 관련 정보 부족(11.0%), 지원요건 복잡(7.1%)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관심사업의 부재 50.6%, 관련정보 부족 14.9%,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 14.8%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20]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 R&D사업 미참여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관심사업 부재(51.1%),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22.7%)가 높게 나타났으며, 피출자/관계기업도 동일하게 관심사업 부재(58.6%),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7.5%)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40.1%, 비제조업의 63.3%가 관심사업의 부재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응답함

[표 2-34]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 %, R&D사업 미참여 기업 3,599개사)

구분		관심사업 부재	지원규모및 기대효과 미미	관련정보 부족	지원요건 복잡	지원했으나 미선정	기타	없음
전체		55.5	19.6	11.0	7.1	0.5	1.1	5.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1.1	22.7	12.1	8.3	0.7	1.2	3.8
	피출자/관계기업	58.6	17.5	10.2	6.3	0.4	1.0	6.2
업종	제조업	40.1	30.5	12.6	13.4	1.1	0.8	1.5
	비제조업	63.3	14.2	10.1	4.0	0.2	1.2	7.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9	12.0	9.3	4.3	1.2	0.0	10.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1.0	16.7	9.1	6.9	0.0	1.2	5.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1.9	22.7	13.0	4.4	0.7	0.7	6.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4.8	29.0	14.9	6.3	1.4	1.4	2.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6.9	19.1	15.9	12.6	0.0	0.0	5.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7.8	17.1	9.4	8.6	1.1	2.0	4.1
	5천억원 ~ 1조원미만	58.8	19.8	7.1	12.5	0.0	1.8	0.0
	1조원이상	25.8	47.0	5.0	13.6	0.0	4.3	4.3
수출여부	수출있음	39.5	30.8	15.7	10.7	1.4	0.7	1.3
	수출없음	61.3	15.6	9.3	5.8	0.2	1.2	6.6
종사자수	50명미만	64.8	13.0	9.4	2.3	0.4	1.4	8.7
	50 ~ 100명미만	50.0	25.0	11.4	9.7	0.0	1.0	2.8
	100 ~ 200명미만	51.0	24.0	10.4	9.8	0.6	1.3	3.0
	200 ~ 300명미만	55.6	18.7	17.8	5.5	1.2	1.2	0.0
	300 ~ 500명미만	48.1	27.5	12.4	9.3	0.9	0.0	1.9
	500 ~ 1,000명미만	41.3	24.7	9.4	20.8	1.6	0.0	2.2
	1,000명이상	41.1	23.4	11.1	10.2	0.0	0.0	14.2
업력	0 ~ 7년미만	45.7	20.3	15.7	9.8	0.0	0.0	8.4
	7 ~ 20년미만	61.7	16.6	8.1	5.2	0.5	1.1	6.8
	20 ~ 30년미만	54.4	20.1	12.5	8.6	1.0	0.4	3.0
	30 ~ 40년미만	44.0	27.6	17.3	6.0	0.0	0.5	4.6
	40 ~ 50년미만	48.2	22.5	12.1	12.4	0.8	0.7	3.3
	50년이상	59.3	19.7	7.6	8.0	0.0	5.4	0.0
매출유형	B2B	53.7	19.8	11.1	7.9	0.6	1.3	5.5
	B2C	63.3	15.7	12.0	4.3	0.0	0.0	4.8
	B2G	57.1	35.0	4.0	3.9	0.0	0.0	0.0
상장	상장	45.5	31.0	9.4	10.9	0.4	1.4	1.5
	비상장	57.7	17.1	11.3	6.3	0.5	1.0	6.0

4절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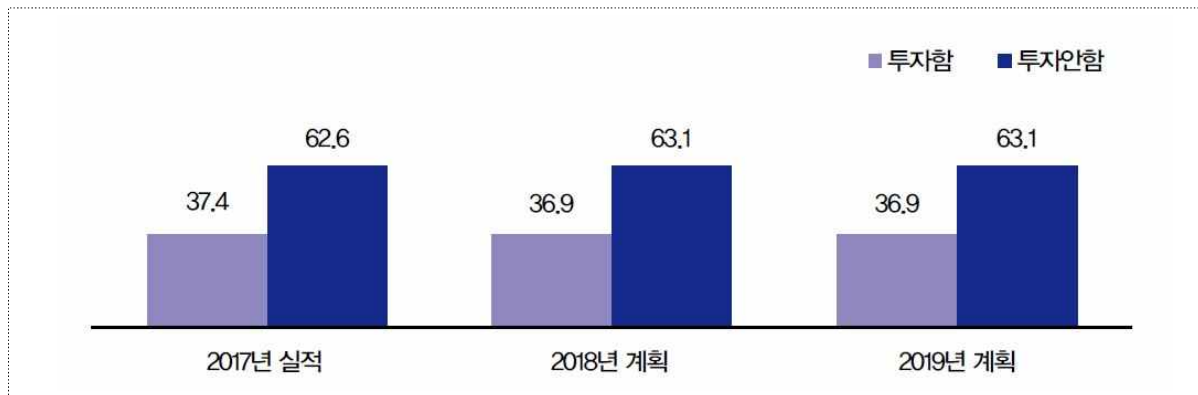
1. 중견기업의 기술/설비 투자

□ 2017년~2019년 R&D 투자 실적 및 예상

- 중견기업의 R&D 투자는 17년(실적) 37.4%, 18년(계획) 36.9%, 19년(계획) 36.9%이며, 투자 금액은 17년(실적) 18.1억, 18년(계획) 18.6억, 19년(계획) 20.4억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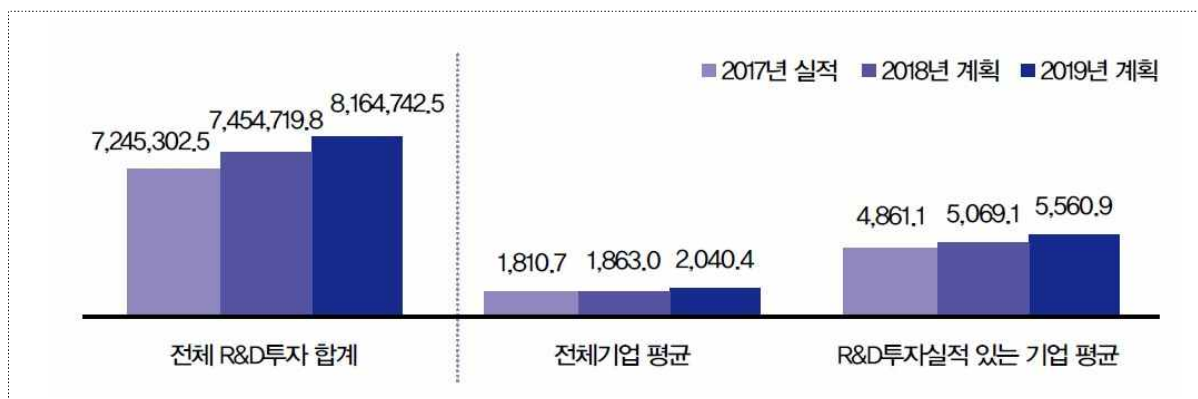
[그림 2-21] 17년~19년 R&D 투자유무

(단위: %)



[그림 2-22] 17년~19년 R&D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 2017년 R&D 투자실적

- 중견기업의 37.4%는 2017년 R&D 투자실적이 있으며, 총 7조 2,453억원을 투자함. 기업당 평균 18.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균 48.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53.8%가 투자실적이 있으며, 피출자/관계기업은 24.2%로 나타나 일반 중견기업이 피출자/관계기업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일반 중견기업의 R&D 투자금액은 총 6조 6,558억원, 기업평균 37.3억임
- 제조업의 67.9%, 비제조업 18.2%의 비중으로 투자실적이 있어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R&D 투자금액은 제조업이 전체 6조 4,516억원을 투자, 비제조업이 7,936억원을 투자함
 - 제조업 평균 41.9억원, 비제조업 평균 3.2억원을 R&D에 투자함
- 수출기업의 76.2%가 2017년에 R&D 투자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내수기업은 18.7%만이 R&D 투자 실적이 있음
- 상장 여부별로는 상장기업의 68.9%, 비상장 기업의 28.8%가 R&D 투자 실적이 있음
-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이 비제조업, 내수기업, 비상장기업보다 R&D 투자 경험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R&D투자를 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비용 또한 크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5] 2017년 R&D 투자실적

(단위 : %, 백만원)

구분		사례수	R&D 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4,014)	37.4	62.6	7,245,302.5	1,810.7	4,861.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53.8	46.2	6,655,856.2	3,734.1	6,980.7
	피출자/관계기업	(2,219)	24.2	75.8	589,446.3	265.6	1,097.7
업종	제조업	(1,552)	67.9	32.1	6,451,671.8	4,190.9	6,193.9
	비제조업	(2,462)	18.2	81.8	793,630.7	322.4	1,768.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3.1	86.9	30,455.4	71.0	540.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22.6	77.4	324,830.2	217.6	963.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44.1	55.9	359,079.4	705.5	1,600.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53.7	46.3	1,005,013.5	1,482.0	2,771.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53.9	46.1	736,396.5	2,075.9	3,885.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57.3	42.7	819,348.1	2,932.0	5,149.6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61.5	38.5	1,434,244.5	8,338.6	13,568.3
	1조원이상	(89)	65.9	34.1	2,535,934.9	29,447.3	45,499.6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76.2	23.8	6,655,724.7	5,121.8	6,735.6
	수출없음	(2,706)	18.7	81.3	589,577.7	218.2	1,173.7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9.6	90.4	50,452.1	35.0	365.5
	50 ~ 100명미만	(686)	32.5	67.5	124,368.6	181.4	557.5
	100 ~ 200명미만	(608)	49.4	50.6	277,567.2	459.3	936.6
	200 ~ 300명미만	(387)	55.4	44.6	453,325.9	1,172.2	2,114.0
	300 ~ 500명미만	(397)	66.8	33.2	1,142,156.3	2,902.8	4,365.0
	500 ~ 1,000명미만	(326)	77.6	22.4	1,442,316.8	4,493.3	5,815.8
	1,000명이상	(168)	64.7	35.3	3,755,115.7	22,298.3	34,485.8
업력	0 ~ 7년미만	(617)	25.1	74.9	852,831.0	2,881.8	11,487.8
	7 ~ 20년미만	(1,644)	27.5	72.5	2,352,059.8	1,343.9	4,932.6
	20 ~ 30년미만	(679)	34.4	65.6	692,934.1	932.8	2,710.0
	30 ~ 40년미만	(459)	54.1	45.9	985,879.0	1,918.0	3,564.8
	40 ~ 50년미만	(340)	57.1	42.9	1,011,447.0	2,495.1	4,366.9
	50년이상	(275)	60.3	39.7	1,350,151.5	4,607.6	7,692.3
매출유형	B2B	(3,223)	40.3	59.7	6,806,278.9	2,118.0	5,278.3
	B2C	(650)	20.8	79.2	272,227.6	420.5	2,063.2
	B2G	(141)	49.1	50.9	166,795.9	1,187.0	2,415.9
상장	상장	(757)	68.9	31.1	5,220,597.1	6,031.6	8,769.8
	비상장	(3,257)	28.8	71.2	2,024,705.4	645.7	2,261.8

□ 2018년 R&D 투자계획

- 중견기업의 36.9%는 2018년 R&D 투자계획이 있으며, 총 7조 4,547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기업당 평균 18.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평균 50.6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남

특성별 분석

- 기업유형별로는 2018년에 R&D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중이 일반 중견기업 53.1%, 피출자/관계기업 23.9%로 일반 중견기업이 피출자/관계기업보다 R&D 투자가 많을 것으로 조사됨
 - 2018년 R&D 투자계획 금액은 일반 중견기업이 전체 6조 8,520억원, 피출자/관계기업이 6,026억원이며, 일반 중견기업이 평균 38.4억원, 피출자/관계기업이 2.7억원임
- 제조업의 67.3%는 2018년 R&D 투자계획이 있으며, 총 6조 6,9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업당 평균 43.4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제조업은 17.8%만이 투자계획이 있으며, 총 7,635억원이며, 기업당 평균 3.1억원으로 조사됨
- 매출유형별로는 B2G기업이 49.1%로 가장 투자계획이 높으며, 다음으로 B2B기업이 39.9%, B2C기업이 19.9% 순으로 나타났지만,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B2B기업이 21.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B2G기업 11.1억원, B2C기업 4.2억원 순으로 나타남
- 투자경험과 동일하게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이 비제조업, 내수기업, 비상장기업보다 R&D 투자계획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R&D투자계획의 비중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6] 2018년 R&D 투자계획

(단위 : %, 백만원)

구분		사례수	R&D 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4,014)	36.9	63.1	7,454,719.8	1,863.0	5,069.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53.1	46.9	6,852,070.4	3,844.2	7,287.4
	피출자/관계기업	(2,219)	23.9	76.1	602,649.3	271.6	1,136.3
업종	제조업	(1,552)	67.3	32.7	6,691,209.5	4,346.5	6,484.7
	비제조업	(2,462)	17.8	82.2	763,510.2	310.1	1,740.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2.6	87.4	27,330.0	63.7	506.4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22.3	77.7	336,075.3	225.1	1,009.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43.1	56.9	372,961.6	732.7	1,700.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53.7	46.3	1,017,643.4	1,500.6	2,806.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52.9	47.1	789,511.7	2,225.7	4,238.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55.6	44.4	870,622.4	3,115.5	5,648.3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61.5	38.5	1,471,237.6	8,553.7	13,918.2
	1조원이상	(89)	65.9	34.1	2,569,337.8	29,835.2	46,098.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75.6	24.4	6,904,275.9	5,313.1	7,045.3
	수출없음	(2,706)	18.3	81.7	550,443.8	203.7	1,121.9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8.9	91.1	48,038.5	33.3	372.3
	50 ~ 100명미만	(686)	32.2	67.8	127,134.1	185.4	576.7
	100 ~ 200명미만	(608)	49.4	50.6	291,906.0	483.0	984.9
	200 ~ 300명미만	(387)	55.4	44.6	467,789.5	1,209.6	2,181.5
	300 ~ 500명미만	(397)	66.2	33.8	1,232,990.0	3,133.7	4,756.1
	500 ~ 1,000명미만	(326)	75.9	24.1	1,442,949.7	4,495.3	5,958.3
	1,000명이상	(168)	64.7	35.3	3,843,911.9	22,825.6	35,301.3
업력	0 ~ 7년미만	(617)	25.1	74.9	827,056.8	2,794.7	11,140.6
	7 ~ 20년미만	(1,644)	27.0	73.0	2,391,269.4	1,366.3	5,111.1
	20 ~ 30년미만	(679)	34.4	65.6	739,206.1	995.1	2,891.0
	30 ~ 40년미만	(459)	53.7	46.3	1,046,056.4	2,035.1	3,817.6
	40 ~ 50년미만	(340)	56.5	43.5	1,016,216.2	2,506.9	4,437.9
	50년이상	(275)	58.4	41.6	1,434,914.9	4,896.9	8,448.9
매출유형	B2B	(3,223)	39.9	60.1	7,019,821.2	2,184.5	5,504.7
	B2C	(650)	19.9	80.1	278,356.1	429.9	2,203.2
	B2G	(141)	49.1	50.9	156,542.5	1,114.1	2,267.4
상장	상장	(757)	67.9	32.1	5,232,240.3	6,045.0	8,913.9
	비상장	(3,257)	28.4	71.6	2,222,479.5	708.7	2,515.1

□ 2019년 R&D 투자계획

- 중견기업의 36.9%는 2019년 R&D 투자계획이 있으며, 총 8조 1,647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기업당 평균 20.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평균 55.6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남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52.6%, 피출자/관계기업의 24.2%가 R&D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투자금액은 일반 중견기업이 7조 3,104억원, 피출자/관계기업 8,542억원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2019년에 R&D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 66.6%, 비제조업 18.1%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R&D 투자가 많을 것으로 조사됨
 - 2019년 R&D 투자계획 금액은 제조업이 전체 7조 2,412억원, 비제조업이 9,235억원임
 - 제조업은 평균 70.8억원, 비제조업 평균 20.6억원을 2019년 R&D에 투자할 예정임(투자계획이 있는 기업 기준)
-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2019년에 R&D 투자를 할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출기업의 74.3%가 2019년에 R&D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내수기업은 18.8%만이 R&D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력별로도 업력이 길수록 R&D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상장 여부별로는 비상장 기업의 28.1%가 2019년에 R&D 투자 계획이 있으며 상장기업은 68.7%가 R&D 투자 계획에 있음
- 상장기업 및 수출기업이 2019년 R&D 투자계획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투자 금액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37] 2019년 R&D 투자계획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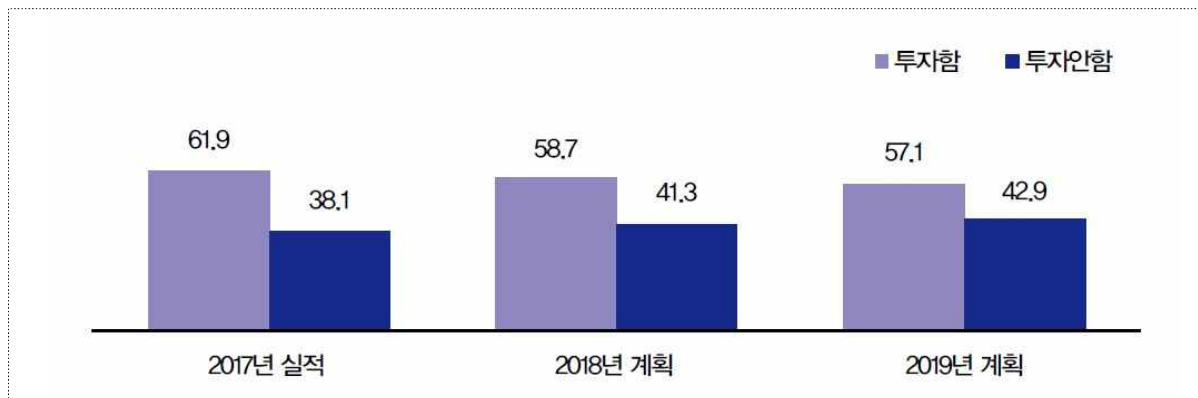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R&D 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4,014)	36.9	63.1	8,164,742.5	2,040.4	5,560.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52.6	47.4	7,310,446.6	4,101.3	7,849.1
	피출자/관계기업	(2,219)	24.2	75.8	854,295.9	385.0	1,591.3
업종	제조업	(1,552)	66.6	33.4	7,241,242.0	4,703.8	7,086.6
	비제조업	(2,462)	18.1	81.9	923,500.5	375.1	2,068.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2.0	88.0	29,005.2	67.6	565.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22.7	77.3	572,360.8	383.4	1,689.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42.8	57.2	397,066.3	780.1	1,823.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52.8	47.2	1,005,928.5	1,483.3	2,824.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52.9	47.1	872,727.7	2,460.3	4,685.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56.4	43.6	946,768.5	3,388.0	6,047.5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61.5	38.5	1,479,309.5	8,600.6	13,994.6
	1조원이상	(89)	65.9	34.1	2,861,576.1	33,228.7	51,342.3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74.3	25.7	7,472,802.8	5,750.6	7,758.0
	수출없음	(2,706)	18.8	81.2	691,939.8	256.1	1,370.2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9.6	90.4	226,317.1	157.0	1,636.0
	50 ~ 100명미만	(686)	31.8	68.2	138,623.9	202.2	635.5
	100 ~ 200명미만	(608)	49.2	50.8	308,446.6	510.3	1,045.0
	200 ~ 300명미만	(387)	53.3	46.7	499,655.2	1,292.0	2,421.8
	300 ~ 500명미만	(397)	66.2	33.8	1,377,303.5	3,500.5	5,312.8
	500 ~ 1,000명미만	(326)	75.9	24.1	1,469,358.9	4,577.6	6,067.3
	1,000명이상	(168)	64.7	35.3	4,145,037.3	24,613.7	38,066.8
업력	0 ~ 7년미만	(617)	26.1	73.9	856,516.5	2,894.2	11,077.9
	7 ~ 20년미만	(1,644)	26.6	73.4	2,615,331.9	1,494.3	5,658.4
	20 ~ 30년미만	(679)	33.9	66.1	799,220.1	1,075.8	3,170.8
	30 ~ 40년미만	(459)	53.2	46.8	1,115,841.9	2,170.8	4,106.0
	40 ~ 50년미만	(340)	55.8	44.2	1,022,624.6	2,522.7	4,520.8
	50년이상	(275)	61.4	38.6	1,755,207.5	5,989.9	9,821.8
매출유형	B2B	(3,223)	39.8	60.2	7,718,084.2	2,401.8	6,063.6
	B2C	(650)	19.9	80.1	276,021.3	426.3	2,184.8
	B2G	(141)	49.1	50.9	170,637.0	1,214.4	2,471.5
상장	상장	(757)	68.7	31.3	5,805,496.9	6,707.3	9,781.6
	비상장	(3,257)	28.1	71.9	2,359,245.6	752.3	2,697.1

□ 2017년~2019년 설비투자 실적 및 예상

- 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는 17년(실적) 61.9%, 18년(계획) 58.7%, 19년(계획) 57.1%이며, 투자 금액은 17년(실적) 55.1억, 18년(계획) 54.2억, 19년(계획) 63.2억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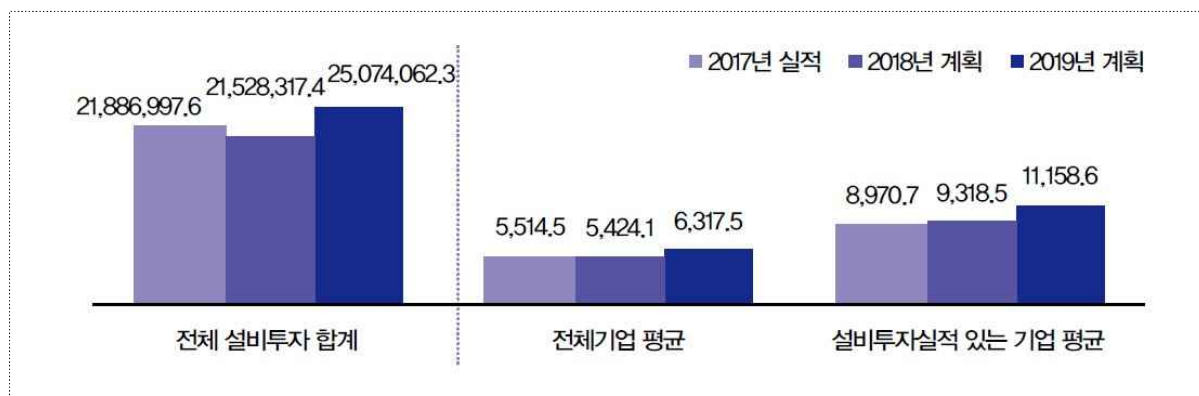
[그림 2-23] 17년~19년 설비 투자유무

(단위: %)



[그림 2-24] 17년~19년 설비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 2017년 설비투자 실적

- 중견기업의 61.9%는 2017년 설비투자 실적이 있으며, 총 21조 8,869억원을 투자함. 기업당 평균 55.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균 89.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77.5%가 설비 투자실적이 있으며, 피출자/관계기업은 49.3%로 나타나 일반 중견기업이 피출자/관계기업보다 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설비 투자금액은 총 18조 6,336억원, 기업평균 105.6억임
- 제조업의 85.4%, 비제조업 47.1%의 비중으로 투자실적이 있어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설비 투자가 약 2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설비 투자금액은 제조업이 전체 13조 3,305억원을 투자, 비제조업이 8,556억원을 투자함
 - 제조업 평균 87.3억원, 비제조업 평균 35.0억원을 설비에 투자함
- 수출기업의 86.4%가 2017년에 설비 투자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내수기업은 50.1%만이 설비 투자 실적이 있음
- 상장 여부별로는 상장기업의 82.5%, 비상장 기업의 56.2%가 설비 투자 실적이 있음
-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이 비제조업, 내수기업, 비상장기업보다 설비 투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설비 투자를 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기업당 평균 비용 또한 크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8] 2017년 설비투자 실적

(단위 : %, 백만원)

구분		사례수	설비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4,014)	61.9	38.1	21,886,997.6	5,514.5	8,970.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77.5	22.5	18,633,648.7	10,565.9	13,712.4
	피출자/관계기업	(2,219)	49.3	50.7	3,253,348.9	1,475.2	3,009.7
업종	제조업	(1,552)	85.4	14.6	13,330,585.1	8,735.2	10,258.6
	비제조업	(2,462)	47.1	52.9	8,556,412.6	3,502.6	7,503.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27.7	72.3	487,840.6	1,150.6	4,283.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49.9	50.1	1,444,821.0	973.3	1,961.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62.4	37.6	2,163,943.7	4,251.4	6,809.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78.6	21.4	3,191,349.3	4,731.3	6,035.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82.3	17.7	3,309,061.6	9,473.4	11,579.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86.2	13.8	2,958,183.2	10,585.9	12,299.9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87.6	12.4	3,848,392.9	23,020.7	26,384.6
	1조원이상	(89)	88.3	11.7	4,483,405.3	55,270.4	63,382.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86.4	13.6	13,065,506.1	10,091.8	11,698.9
	수출없음	(2,706)	50.1	49.9	8,821,491.5	3,298.6	6,667.7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37.5	62.5	2,354,256.9	1,643.4	4,424.7
	50 ~ 100명미만	(686)	64.9	35.1	1,425,248.4	2,091.9	3,235.5
	100 ~ 200명미만	(608)	67.6	32.4	1,591,148.7	2,644.5	3,934.6
	200 ~ 300명미만	(387)	80.8	19.2	2,170,171.9	5,611.6	6,940.8
	300 ~ 500명미만	(397)	82.4	17.6	3,090,742.0	7,909.8	9,633.7
	500 ~ 1,000명미만	(326)	93.6	6.4	5,561,146.2	17,799.1	19,071.7
	1,000명이상	(168)	84.7	15.3	5,694,283.6	34,829.7	41,330.7
업력	0 ~ 7년미만	(617)	57.5	42.5	2,442,364.4	8,395.7	14,796.7
	7 ~ 20년미만	(1,644)	52.0	48.0	6,556,840.5	3,774.9	7,336.1
	20 ~ 30년미만	(679)	58.6	41.4	3,438,719.1	4,651.7	7,963.9
	30 ~ 40년미만	(459)	78.8	21.2	3,121,038.7	6,134.1	7,822.7
	40 ~ 50년미만	(340)	79.9	20.1	4,198,323.9	10,418.8	13,067.5
	50년이상	(275)	79.3	20.7	2,129,710.9	7,340.2	9,301.8
매출유형	B2B	(3,223)	62.6	37.4	16,756,758.6	5,250.5	8,432.5
	B2C	(650)	59.2	40.8	4,261,511.6	6,689.9	11,463.8
	B2G	(141)	57.6	42.4	868,727.5	6,182.5	10,733.1
상장	상장	(757)	82.5	17.5	10,123,318.4	11,924.0	14,529.5
	비상장	(3,257)	56.2	43.8	11,763,679.2	3,770.4	6,748.7

□ 2018년 설비투자 계획

- 중견기업의 58.7%는 2018년 설비투자 계획이 있으며, 총 21조 5,283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기업당 평균 52.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평균 93.1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남

특성별 분석

- 기업유형별로는 2018년에 설비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중이 일반 중견기업 74.6%, 피출자/관계기업 45.8%로 일반 중견기업이 피출자/관계기업보다 설비 투자가 많을 것으로 조사됨
 - 2018년 설비 투자계획 금액은 일반 중견기업이 전체 18조 3,132억원, 피출자/관계기업이 3조 2,151억원이며, 일반 중견기업이 평균 103.8억원, 피출자/관계기업이 14.5억원임
- 제조업의 83.9%는 2018년 설비 투자계획이 있으며, 총 12조 8,48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업당 평균 84.1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제조업은 42.8%만이 투자계획이 있으며, 총 8조 6,801억원이며, 기업당 평균 35.5억원으로 조사됨
- 매출유형별로는 B2B기업이 59.2%로 가장 투자계획이 높으며, 다음으로 B2G기업이 57.6%, B2C기업이 56.5% 순으로 나타났지만,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B2G기업이 86.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B2B기업 55.3억원, B2C기업 41.7억원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투자경험과 동일하게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이 비제조업, 내수기업, 비상장기업보다 설비 투자계획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설비투자계획의 비중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9] 2018년 설비투자 계획

(단위 : %, 백만원)

구분		사례수	설비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4,014)	58.7	41.3	21,528,317.4	5,424.1	9,318.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74.6	25.4	18,313,209.3	10,384.2	13,999.5
	피출자/관계기업	(2,219)	45.8	54.2	3,215,108.1	1,457.8	3,208.2
업종	제조업	(1,552)	83.9	16.1	12,848,118.6	8,419.0	10,068.2
	비제조업	(2,462)	42.8	57.2	8,680,198.9	3,553.2	8,393.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26.4	73.6	179,734.8	423.9	1,658.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45.6	54.4	1,729,328.6	1,165.0	2,571.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57.9	42.1	1,434,017.8	2,817.3	4,865.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76.9	23.1	3,530,877.7	5,234.6	6,826.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77.2	22.8	3,125,679.3	8,948.4	11,671.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83.6	16.4	2,442,684.4	8,741.2	10,478.3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87.6	12.4	3,574,896.4	21,384.7	24,509.5
	1조원이상	(89)	88.3	11.7	5,511,098.6	67,939.6	77,911.6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84.7	15.3	14,107,634.3	10,896.8	12,888.7
	수출없음	(2,706)	46.1	53.9	7,420,683.1	2,774.8	6,104.1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32.4	67.6	1,914,591.7	1,336.5	4,179.8
	50 ~ 100명미만	(686)	62.2	37.8	1,645,003.2	2,414.4	3,899.0
	100 ~ 200명미만	(608)	65.4	34.6	1,741,656.9	2,894.7	4,454.1
	200 ~ 300명미만	(387)	78.7	21.3	2,244,651.8	5,804.2	7,370.6
	300 ~ 500명미만	(397)	81.5	18.5	3,388,262.3	8,671.2	10,682.2
	500 ~ 1,000명미만	(326)	91.0	9.0	4,536,528.7	14,519.7	16,027.1
	1,000명이상	(168)	82.8	17.2	6,057,622.8	37,052.1	45,036.8
업력	0 ~ 7년미만	(617)	56.8	43.2	2,517,474.1	8,653.9	15,434.2
	7 ~ 20년미만	(1,644)	48.7	51.3	5,926,801.1	3,412.2	7,091.6
	20 ~ 30년미만	(679)	56.3	43.7	2,918,788.3	3,948.3	7,037.9
	30 ~ 40년미만	(459)	71.0	29.0	2,509,557.9	4,932.3	6,993.7
	40 ~ 50년미만	(340)	78.7	21.3	5,238,025.7	12,998.9	16,553.0
	50년이상	(275)	76.8	23.2	2,417,670.3	8,332.6	10,919.1
매출유형	B2B	(3,223)	59.2	40.8	17,656,812.2	5,532.5	9,415.8
	B2C	(650)	56.5	43.5	2,661,901.6	4,178.8	7,517.4
	B2G	(141)	57.6	42.4	1,209,603.6	8,608.5	14,944.6
상장	상장	(757)	80.5	19.5	10,488,335.0	12,354.0	15,428.8
	비상장	(3,257)	52.6	47.4	11,039,982.4	3,538.5	6,771.0

□ 2019년 설비투자 계획

- 중견기업의 57.1%는 2019년 설비투자 계획이 있으며, 총 25조 7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기업당 평균 63.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평균 111.5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남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72.8%, 피출자/관계기업의 44.4%가 설비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당 투자금액은 일반 중견기업이 117.2억원, 피출자/관계기업 19.8억원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2019년에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 80.8%, 비제조업 42.2%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설비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설비투자 계획 금액은 제조업 13조 9,212억원, 비제조업 11조 1,528억원임
 - 제조업은 평균 113.2억원, 비제조업은 평균 109.4억원을 2019년 설비에 투자할 예정임(투자계획이 있는 기업 기준)
- 매출규모별로는 매출규모가 클수록 2019년에 설비투자를 할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출기업의 81.9%가 2019년에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내수기업은 45.1%만이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장 여부별로는 비상장 기업의 51.3%, 상장기업의 78.3%가 2019년 설비투자 계획이 있음
- R&D 투자계획과 같이 상장기업 및 수출기업의 2019년 설비투자 계획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40] 2019년 설비투자 계획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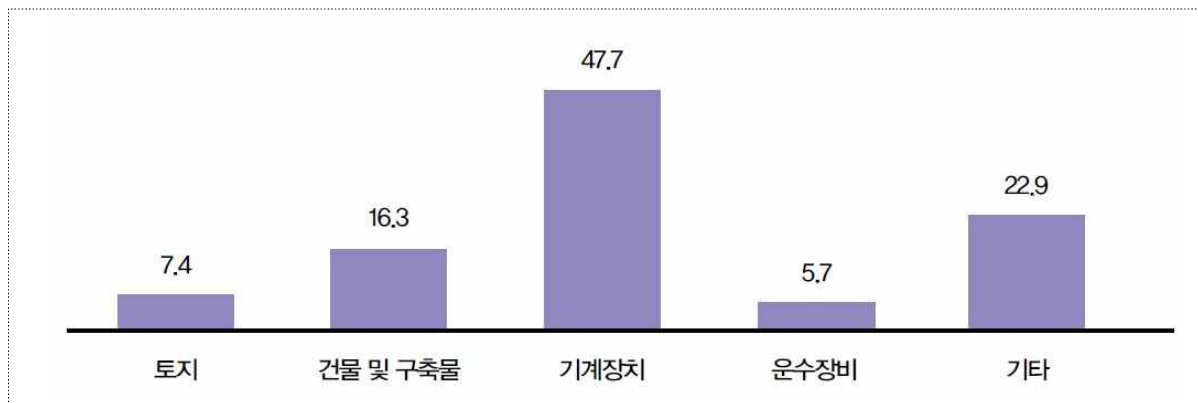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설비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4,014)	57.1	42.9	25,074,062.3	6,317.5	11,158.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72.8	27.2	20,685,679.8	11,729.5	16,214.5
	피출자/관계기업	(2,219)	44.4	55.6	4,388,382.6	1,989.8	4,518.0
업종	제조업	(1,552)	80.8	19.2	13,921,218.2	9,122.2	11,335.2
	비제조업	(2,462)	42.2	57.8	11,152,844.1	4,565.4	10,945.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25.2	74.8	200,506.2	472.9	1,945.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45.3	54.7	2,801,411.0	1,887.2	4,192.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52.8	47.2	2,470,683.7	4,854.0	9,195.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73.8	26.2	3,783,506.4	5,609.2	7,633.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75.6	24.4	3,057,486.4	8,753.1	11,677.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83.6	16.4	2,703,611.5	9,674.9	11,597.6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87.6	12.4	3,760,573.3	22,495.4	25,782.5
	1조원이상	(89)	88.3	11.7	6,296,283.7	77,619.2	89,011.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81.9	18.1	15,016,728.0	11,599.0	14,200.1
	수출없음	(2,706)	45.1	54.9	10,057,334.4	3,760.7	8,454.8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31.3	68.7	3,585,195.5	2,502.6	8,115.6
	50 ~ 100명미만	(686)	60.8	39.2	1,460,089.5	2,143.0	3,538.2
	100 ~ 200명미만	(608)	64.5	35.5	1,737,728.0	2,888.1	4,507.7
	200 ~ 300명미만	(387)	72.8	27.2	2,460,931.7	6,363.4	8,740.3
	300 ~ 500명미만	(397)	80.5	19.5	3,555,935.3	9,100.3	11,348.3
	500 ~ 1,000명미만	(326)	90.2	9.8	5,327,240.1	17,050.5	18,997.1
	1,000명이상	(168)	81.2	18.8	6,946,942.1	42,491.8	52,712.4
업력	0 ~ 7년미만	(617)	54.7	45.3	3,898,920.3	13,402.6	24,841.6
	7 ~ 20년미만	(1,644)	47.0	53.0	6,364,580.9	3,664.3	7,886.0
	20 ~ 30년미만	(679)	55.5	44.5	3,488,963.6	4,719.6	8,534.7
	30 ~ 40년미만	(459)	69.2	30.8	3,165,839.1	6,222.2	9,064.0
	40 ~ 50년미만	(340)	76.1	23.9	5,307,194.7	13,170.6	17,333.9
	50년이상	(275)	75.9	24.1	2,848,563.7	9,817.7	13,019.8
매출유형	B2B	(3,223)	57.2	42.8	19,572,593.8	6,132.8	10,803.5
	B2C	(650)	56.6	43.4	3,295,907.5	5,174.1	9,299.1
	B2G	(141)	57.6	42.4	2,205,561.1	15,696.4	27,249.6
상장	상장	(757)	78.3	21.7	11,990,564.7	14,123.4	18,161.0
	비상장	(3,257)	51.3	48.7	13,083,497.7	4,193.4	8,245.1

□ 연간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

- 중견기업의 연간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을 보면, 기계장치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물 및 구축물 16.3%, 토지 7.4%, 운수장비 5.7%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5] 연간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 피출자/관계기업 모두 기계장치의 비중이 46.0%, 49.8%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설비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기계장치의 비중이 66.0%로 높게 나타나 업종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업력별로는 40~50년 미만에서 기계장치의 비중이 60.7%로 나타났으며, 50년 이상에서 건물 및 구축물이 17.7%, 0~7년 미만에서는 토지가 9.0%로 다른 업력 대비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유형별로 기계장치의 비중이 B2B(52.7%), B2G(33.0%)로 높게 나타난 반면, B2C에서는 건물 및 구축물 비중이 26.5%로 높게 나타남

[표 2-41] 연간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

(단위 : %, 2017년 설비투자한 기업 2,485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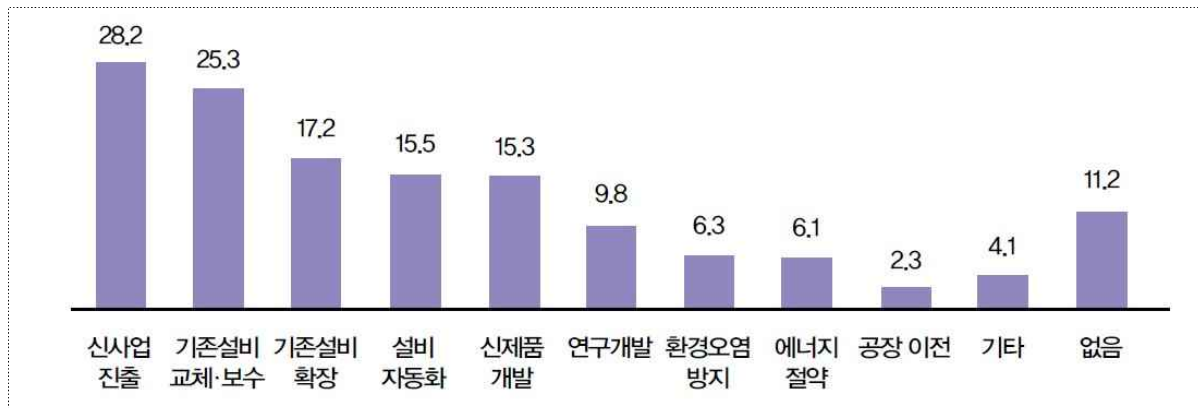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운수장비	기타
전체		7.4	16.3	47.7	5.7	22.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9.0	18.7	46.0	6.4	19.9
	피출자/관계기업	5.4	13.3	49.8	4.8	26.7
업종	제조업	3.9	13.9	66.0	1.6	14.5
	비제조업	11.4	19.1	26.8	10.3	32.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3	24.1	48.5	4.4	18.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8	11.7	45.6	5.3	32.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6.8	17.0	49.5	6.1	20.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0	18.6	47.2	7.5	18.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9.3	16.2	51.2	3.9	19.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1.0	17.0	50.1	5.6	16.2
	5천억원 ~ 1조원미만	12.8	17.5	46.9	4.1	18.6
	1조원이상	7.1	26.7	42.7	7.2	16.3
수출여부	수출있음	5.3	13.5	59.0	3.3	18.8
	수출없음	9.2	18.7	38.2	7.7	26.3
종사자수	50명미만	9.9	20.4	38.1	9.3	22.3
	50 ~ 100명미만	4.6	10.4	53.0	2.2	29.9
	100 ~ 200명미만	5.0	16.9	42.7	7.5	27.9
	200 ~ 300명미만	7.6	15.9	51.0	4.6	20.8
	300 ~ 500명미만	10.1	16.2	51.8	3.0	18.9
	500 ~ 1,000명미만	7.3	16.0	58.2	5.8	12.7
	1,000명이상	7.7	19.8	41.6	6.4	24.5
업력	0 ~ 7년미만	9.0	14.8	55.6	5.9	14.7
	7 ~ 20년미만	7.9	16.2	41.7	5.4	28.8
	20 ~ 30년미만	7.2	17.3	48.8	5.1	21.6
	30 ~ 40년미만	7.4	17.4	46.1	7.6	21.5
	40 ~ 50년미만	8.5	13.9	60.7	3.9	12.9
	50년이상	3.1	17.7	47.9	7.0	24.2
매출유형	B2B	5.8	14.8	52.7	5.1	21.6
	B2C	15.5	26.5	24.5	6.9	26.6
	B2G	8.9	7.4	33.0	14.2	36.5
상장	상장	6.5	17.4	56.8	3.7	15.6
	비상장	7.8	15.9	44.0	6.5	25.8

□ 최근 관심있는 투자분야

- 최근 관심있는 투자분야로 중견기업은 신사업 진출(28.2%)이 가장 비중이 높으며, 다음으로 기존설비 교체/보수(25.3%), 기존설비 확장(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6] 최근 관심있는 투자분야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최근 관심있는 투자분야 비중은 신사업 진출(33.2%), 기존설비 교체/보수(26.8%), 기존설비 확장(19.7%), 설비 자동화(16.2%) 등의 순임
- 업종별로는 신사업 진출 비중이 제조업 23.6%, 비제조업 31.1%로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진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투자분야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유형별로는 B2G기업의 신사업 진출이 49.1%로 가장 투자분야 비중이 높으며, B2B기업은 기존설비 교체/보수가 25.4%, B2C기업은 기존설비 확장이 18.5%로 나타나 유형별 다른 양상을 보임

[표 2-42] 최근 관심있는 투자분야(계속)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신사업 진출	기존설비 교체·보수	기존설비 확장	설비 자동화	신제품 개발
전체		(4,014)	28.2	25.3	17.2	15.5	15.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33.2	26.8	19.7	16.2	19.3
	피출자/관계기업	(2,219)	24.2	24.0	15.1	15.0	12.1
업종	제조업	(1,552)	23.6	33.1	21.9	28.6	28.7
	비제조업	(2,462)	31.1	20.4	14.1	7.3	6.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31.6	17.7	10.7	8.3	9.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23.4	24.6	15.3	13.1	11.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28.9	23.4	14.6	22.6	17.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31.7	27.3	19.4	15.3	22.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19.4	31.5	24.0	17.8	19.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34.4	31.3	20.4	19.7	13.4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43.1	26.4	27.7	21.0	22.4
	1조원이상	(89)	48.8	21.4	17.7	19.0	22.7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29.2	27.7	21.1	25.9	30.2
	수출없음	(2,706)	27.7	24.1	15.2	10.5	8.1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27.6	21.8	14.8	6.6	9.2
	50 ~ 100명미만	(686)	21.5	26.1	13.6	21.0	10.4
	100 ~ 200명미만	(608)	24.5	25.7	16.7	17.6	15.8
	200 ~ 300명미만	(387)	30.7	31.4	20.2	23.7	22.7
	300 ~ 500명미만	(397)	34.9	27.5	22.9	17.1	30.4
	500 ~ 1,000명미만	(326)	32.1	27.6	24.2	25.4	19.5
	1,000명이상	(168)	45.4	26.1	19.1	20.5	24.9
업력	0 ~ 7년미만	(617)	38.3	26.2	20.6	10.8	15.4
	7 ~ 20년미만	(1,644)	25.7	21.9	15.8	12.5	12.8
	20 ~ 30년미만	(679)	26.7	25.1	13.7	18.1	12.7
	30 ~ 40년미만	(459)	26.6	33.6	25.4	23.3	19.1
	40 ~ 50년미만	(340)	30.6	31.5	19.2	17.4	18.3
	50년이상	(275)	36.2	21.9	13.0	15.9	25.5
매출유형	B2B	(3,223)	28.2	25.4	17.3	17.2	17.0
	B2C	(650)	24.2	25.4	18.5	10.5	8.9
	B2G	(141)	47.2	22.4	7.8	0.0	6.3
상장	상장	(757)	36.5	27.7	19.3	20.3	28.1
	비상장	(3,257)	25.9	24.6	16.6	14.2	11.8

[표 2-43] 최근 관심있는 투자분야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연구개발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약	공장 이전	기타	없음
전체		(4,014)	9.8	6.3	6.1	2.3	4.1	11.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12.9	5.3	5.5	3.2	2.2	9.1
	피출자/관계기업	(2,219)	7.3	7.1	6.5	1.6	5.7	12.9
업종	제조업	(1,552)	15.4	5.3	4.0	3.5	1.9	2.6
	비제조업	(2,462)	6.2	6.9	7.3	1.5	5.5	16.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4.7	10.6	11.7	0.6	4.7	13.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8.0	6.6	5.5	1.5	6.1	14.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8.5	4.0	3.5	2.0	4.6	11.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1.6	5.0	5.5	4.4	0.5	9.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15.1	1.8	4.6	5.3	3.3	13.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12.5	9.6	9.6	0.0	2.6	3.4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12.6	8.3	6.9	1.4	1.4	0.0
	1조원이상	(89)	21.8	6.0	0.0	5.6	6.5	5.6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20.7	4.9	4.0	2.9	1.4	1.6
	수출없음	(2,706)	4.5	7.0	7.1	2.0	5.5	15.9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3.1	9.3	8.2	0.6	4.8	16.5
	50 ~ 100명미만	(686)	6.8	1.0	5.5	3.3	4.4	13.9
	100 ~ 200명미만	(608)	12.3	8.2	5.3	3.0	5.2	6.0
	200 ~ 300명미만	(387)	8.7	6.1	4.8	2.8	3.0	9.6
	300 ~ 500명미만	(397)	23.0	5.0	5.4	5.1	2.2	3.4
	500 ~ 1,000명미만	(326)	18.9	3.8	3.4	1.0	2.6	3.9
	1,000명이상	(168)	23.4	3.1	1.9	4.4	3.1	9.9
업력	0 ~ 7년미만	(617)	2.8	9.3	6.0	0.8	4.2	4.0
	7 ~ 20년미만	(1,644)	9.5	6.6	6.6	1.5	5.2	12.8
	20 ~ 30년미만	(679)	6.4	5.4	5.2	3.2	3.5	16.9
	30 ~ 40년미만	(459)	12.8	4.4	2.0	4.6	3.3	7.0
	40 ~ 50년미만	(340)	12.1	8.7	10.4	2.7	3.8	4.4
	50년이상	(275)	18.7	3.3	6.1	1.1	0.9	11.5
매출유형	B2B	(3,223)	10.8	5.7	5.7	2.2	4.1	10.4
	B2C	(650)	3.4	6.7	6.7	1.9	5.4	16.7
	B2G	(141)	16.0	16.8	10.5	6.3	0.0	4.7
상장	상장	(757)	17.7	4.9	4.2	4.6	1.2	4.5
	비상장	(3,257)	7.6	6.7	6.6	1.6	4.9	13.1

5절 금융 및 자금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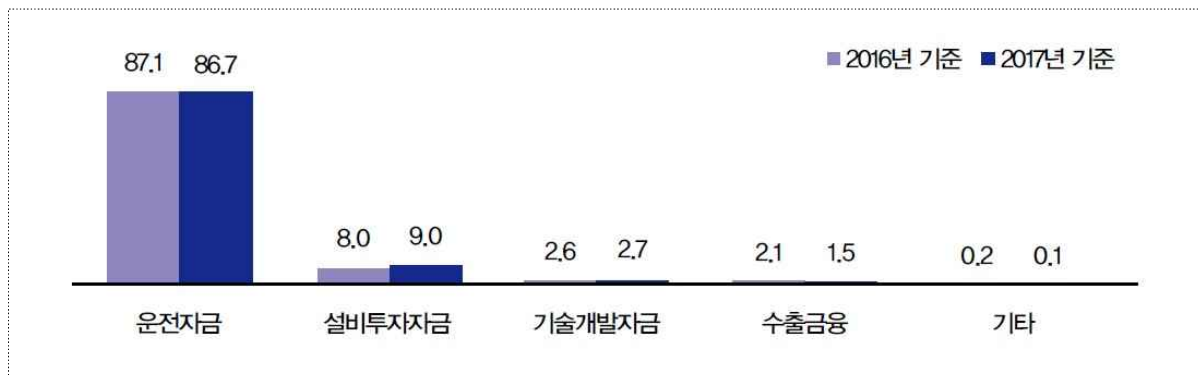
1. 자금조달

□ 자금조달 용도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6.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설비투자자금(9.0%), 기술개발자금(2.7%)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운전자금 87.1%, 설비투자자금 8.0%, 기술개발자금 2.6% 등의 순임

[그림 2-27] 주요 자금조달 용도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2.1%), 설비투자자금(11.2%), 기술개발자금(2.7%) 등의 순이며, 피출자/관계기업은 대부분 운전자금(90.4%)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전자금 비중은 제조업(80.8%), 비제조업(90.4%)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제조업은 설비투자자금(11.2%), 기술개발자금(4.9%), 수출금융(3.1%) 비중이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운전자금 용도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설비투자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 비중이 높음
- 수출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운전자금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지만, 설비투자·기술개발·수출금융을 위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음

[표 2-44] 주요 자금조달 용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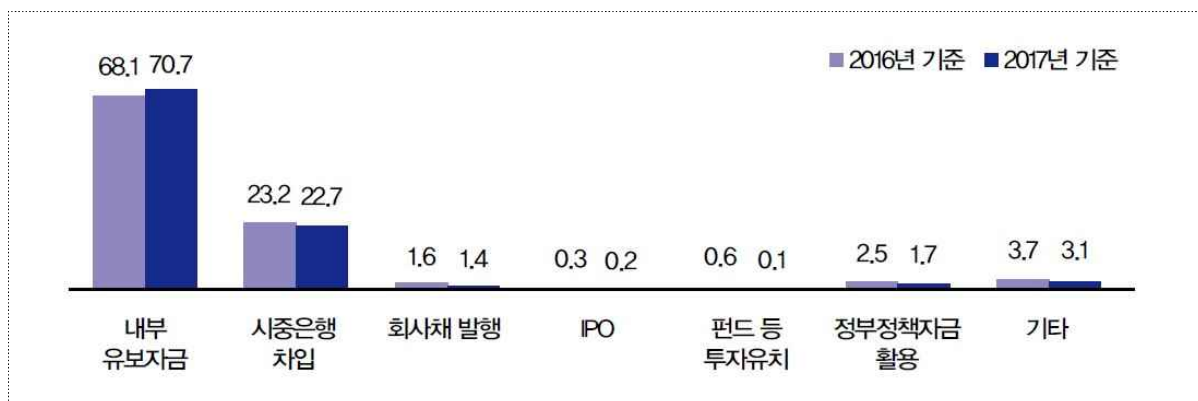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운전자금	설비투자 자금	기술개발 자금	수출금융	기타
전체		(4,014)	86.7	9.0	2.7	1.5	0.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82.1	11.2	3.5	3.1	0.1
	피출자/관계기업	(2,219)	90.4	7.3	2.0	0.3	0.0
업종	제조업	(1,552)	80.8	11.2	4.9	3.1	0.1
	비제조업	(2,462)	90.4	7.7	1.3	0.5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92.0	6.2	1.9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91.7	6.4	1.8	0.1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85.3	10.6	3.1	1.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82.3	10.3	3.3	4.1	0.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80.3	13.1	3.4	2.9	0.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80.4	12.3	3.8	3.4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79.7	12.7	4.4	3.1	0.1
	1조원이상	(89)	78.9	14.7	4.6	1.4	0.4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78.3	11.2	5.7	4.7	0.1
	수출없음	(2,706)	90.8	8.0	1.2	0.0	0.0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92.4	6.2	0.7	0.7	0.0
	50 ~ 100명미만	(686)	87.1	9.9	2.7	0.3	0.0
	100 ~ 200명미만	(608)	88.1	7.2	3.2	1.5	0.0
	200 ~ 300명미만	(387)	82.4	11.1	2.7	3.8	0.1
	300 ~ 500명미만	(397)	79.7	12.6	4.8	2.8	0.1
	500 ~ 1,000명미만	(326)	75.0	14.9	6.5	3.5	0.1
	1,000명이상	(168)	80.2	11.9	5.6	2.0	0.4
업력	0 ~ 7년미만	(617)	83.4	13.5	2.3	0.9	0.0
	7 ~ 20년미만	(1,644)	88.9	7.7	2.4	1.0	0.0
	20 ~ 30년미만	(679)	88.4	8.2	1.8	1.6	0.0
	30 ~ 40년미만	(459)	84.7	9.5	3.1	2.5	0.2
	40 ~ 50년미만	(340)	81.9	11.5	4.0	2.6	0.1
	50년이상	(275)	82.9	10.3	4.7	2.0	0.0
매출유형	B2B	(3,223)	86.6	8.4	3.0	1.9	0.1
	B2C	(650)	86.9	11.9	1.0	0.0	0.1
	B2G	(141)	87.4	10.7	1.8	0.0	0.0
상장	상장	(757)	79.8	11.5	5.2	3.3	0.2
	비상장	(3,257)	88.6	8.3	2.0	1.0	0.0

□ 자금조달원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70.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중은행 차입(22.7%), 정부정책자금 활용(1.7%)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동일하게 내부 유보자금 68.1%, 시중은행 차입 23.2%, 정부정책자금 활용 2.5% 등의 순임

[그림 2-28]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62.2%, 피출자/관계기업의 77.5%가 내부 유보자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시중은행 차입 및 정부정책자금 활용 비중이 높음
- 매출 규모가 클수록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음
- B2G 기업은 시중은행 차입이 30.5%로 B2B 및 B2C 보다 높게 나타남

[표 2-45]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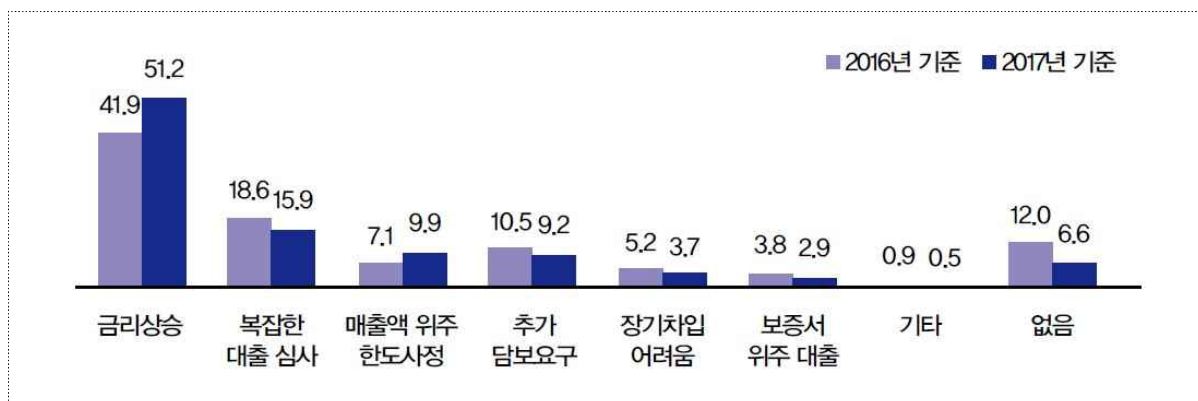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부 유보자금	시중은행 차입	회사채 발행	IPO	펀드 등 투자유치	정부정책 자금활용	기타
전체		(4,014)	70.7	22.7	1.4	0.2	0.1	1.7	3.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62.2	28.8	2.8	0.5	0.2	3.1	2.5
	피출자/관계기업	(2,219)	77.5	17.9	0.3	0.0	0.0	0.7	3.7
업종	제조업	(1,552)	65.2	26.6	2.4	0.3	0.1	3.2	2.2
	비제조업	(2,462)	74.1	20.3	0.8	0.2	0.1	0.9	3.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72.1	18.7	0.5	0.0	0.0	1.3	7.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80.6	16.0	0.3	0.0	0.1	0.3	2.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71.5	23.2	0.3	0.2	0.0	1.6	3.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57.8	31.2	3.2	0.5	0.1	3.4	3.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62.5	29.6	2.1	0.8	0.4	3.8	0.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62.9	31.5	1.2	0.0	0.5	2.8	1.1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62.8	27.5	6.5	1.0	0.0	1.7	0.6
	1조원이상	(89)	62.9	24.1	5.6	0.4	0.0	5.3	1.7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63.5	26.8	2.9	0.2	0.1	4.1	2.4
	수출없음	(2,706)	74.2	20.7	0.7	0.2	0.1	0.6	3.5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75.5	17.9	0.3	0.0	0.0	0.8	5.5
	50 ~ 100명미만	(686)	75.6	21.5	0.5	0.0	0.1	0.7	1.7
	100 ~ 200명미만	(608)	69.5	26.5	1.0	0.0	0.0	1.5	1.6
	200 ~ 300명미만	(387)	61.3	26.2	3.3	0.4	0.1	4.6	4.0
	300 ~ 500명미만	(397)	63.0	30.3	1.5	1.2	0.2	2.7	1.1
	500 ~ 1,000명미만	(326)	65.5	27.7	3.0	0.1	0.4	2.6	0.7
	1,000명이상	(168)	63.1	20.0	8.7	1.3	0.6	4.9	1.5
업력	0 ~ 7년미만	(617)	66.5	26.6	0.4	0.0	0.0	1.1	5.5
	7 ~ 20년미만	(1,644)	71.6	21.2	1.1	0.2	0.1	1.3	4.5
	20 ~ 30년미만	(679)	70.8	23.0	2.2	0.1	0.1	2.0	1.7
	30 ~ 40년미만	(459)	70.2	25.0	0.6	0.1	0.2	1.7	2.1
	40 ~ 50년미만	(340)	66.6	25.8	2.6	1.1	0.1	3.2	0.6
	50년이상	(275)	75.6	18.6	2.2	0.0	0.0	2.4	1.1
매출유형	B2B	(3,223)	70.9	22.3	1.7	0.2	0.1	2.0	2.9
	B2C	(650)	70.8	23.3	0.2	0.4	0.3	1.1	4.0
	B2G	(141)	64.6	30.5	1.1	0.0	0.0	0.2	3.7
상장	상장	(757)	62.3	27.2	4.7	1.0	0.2	3.1	1.5
	비상장	(3,257)	73.0	21.5	0.5	0.0	0.1	1.4	3.6

□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은 금리상승(51.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잡한 대출심사(15.9%), 매출액 위주의 한도 산정(9.9%)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금리상승 41.9%, 복잡한 대출심사 18.6%, 추가 담보요구 10.5% 등의 순임

[그림 2-29]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금리상승(54.5%), 복잡한 대출심사(13.5%), 추가 담보요구(10.2%) 순이며, 피출자/관계기업은 금리상승(48.6%), 복잡한 대출심사(17.9%), 매출액 위주의 한도 산정(12.5%) 순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복잡한 대출심사, 매출액 위주의 한도 산정, 추가 담보요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매출 규모가 크고 업력이 높을수록 금리상승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46]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금리상승	복잡한 대출 심사	매출액 위주 한도사정	추가 담보요구
전체		(4,014)	51.2	15.9	9.9	9.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54.5	13.5	6.7	10.2
	피출자/관계기업	(2,219)	48.6	17.9	12.5	8.3
업종	제조업	(1,552)	53.5	14.3	8.0	8.9
	비제조업	(2,462)	49.8	16.9	11.1	9.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46.7	19.8	14.8	10.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47.4	18.3	12.6	7.9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52.4	12.3	9.8	9.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54.1	12.6	5.8	10.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50.8	19.7	7.3	12.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58.6	13.3	6.1	8.8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58.3	12.5	5.5	5.5
	1조원이상	(89)	73.4	2.8	5.6	6.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54.0	14.1	8.4	8.8
	수출없음	(2,706)	49.9	16.8	10.7	9.4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48.1	17.9	15.2	6.3
	50 ~ 100명미만	(686)	48.6	18.6	8.9	7.8
	100 ~ 200명미만	(608)	48.5	14.9	8.4	16.8
	200 ~ 300명미만	(387)	53.9	12.8	6.7	12.8
	300 ~ 500명미만	(397)	54.6	12.8	4.3	10.6
	500 ~ 1,000명미만	(326)	59.2	17.4	2.3	8.6
	1,000명이상	(168)	69.5	3.0	9.5	1.7
업력	0 ~ 7년미만	(617)	47.3	28.4	6.9	8.2
	7 ~ 20년미만	(1,644)	48.3	16.7	12.7	9.9
	20 ~ 30년미만	(679)	54.4	14.4	7.6	8.1
	30 ~ 40년미만	(459)	51.5	13.9	10.0	7.2
	40 ~ 50년미만	(340)	56.8	14.1	6.6	9.7
	50년이상	(275)	56.6	8.9	6.8	11.3
매출유형	B2B	(3,223)	51.8	15.3	10.6	9.0
	B2C	(650)	48.6	19.4	7.7	10.4
	B2G	(141)	49.2	15.0	3.6	7.6
상장	상장	(757)	61.1	13.4	6.5	7.0
	비상장	(3,257)	48.5	16.6	10.9	9.8

[표 2-47]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장기차입 어려움	보증서 임주 대출	기타	없음
전체		(4,014)	3.7	2.9	0.5	6.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5.2	2.9	1.1	5.8
	피출자/관계기업	(2,219)	2.6	3.0	0.0	7.2
업종	제조업	(1,552)	5.6	2.6	0.6	6.5
	비제조업	(2,462)	2.6	3.2	0.5	6.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4.3	2.4	0.0	2.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1.3	3.1	0.0	9.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6.8	1.3	1.0	7.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5.4	4.4	1.1	5.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3.5	0.8	0.0	5.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5.3	4.3	0.9	2.6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5.6	4.2	2.8	5.5
	1조원이상	(89)	3.2	2.8	0.0	6.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4.7	3.2	0.7	6.1
	수출없음	(2,706)	3.3	2.8	0.4	6.8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2.9	2.9	0.3	6.4
	50 ~ 100명미만	(686)	1.2	4.1	0.0	10.8
	100 ~ 200명미만	(608)	4.6	1.3	0.4	5.0
	200 ~ 300명미만	(387)	5.9	2.3	1.0	4.7
	300 ~ 500명미만	(397)	4.7	5.0	1.3	6.8
	500 ~ 1,000명미만	(326)	5.4	1.5	1.5	4.1
	1,000명이상	(168)	7.1	4.5	0.0	4.6
업력	0 ~ 7년미만	(617)	4.5	0.0	0.0	4.7
	7 ~ 20년미만	(1,644)	3.4	3.2	0.4	5.5
	20 ~ 30년미만	(679)	6.1	3.7	0.3	5.2
	30 ~ 40년미만	(459)	3.6	3.4	1.2	9.2
	40 ~ 50년미만	(340)	2.8	3.4	1.2	5.4
	50년이상	(275)	0.8	0.8	0.0	14.8
매출유형	B2B	(3,223)	3.6	2.8	0.4	6.5
	B2C	(650)	5.4	1.7	0.6	6.2
	B2G	(141)	0.0	12.8	1.7	10.2
상장	상장	(757)	3.8	2.6	0.6	5.0
	비상장	(3,257)	3.7	3.1	0.5	7.0

[표 2-48]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금리상승	복잡한 대출 심사	추가 담보요구	매출액 위주 한도사정
전체		(4,014)	61.5	37.4	23.6	19.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65.2	34.6	24.8	14.3
	피출자/관계기업	(2,219)	58.4	39.7	22.6	23.6
업종	제조업	(1,552)	64.6	36.6	24.5	17.6
	비제조업	(2,462)	59.5	37.9	23.0	20.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54.6	48.0	27.8	23.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57.0	39.4	19.6	25.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63.5	29.7	26.7	18.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62.2	34.6	27.7	16.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61.7	45.1	29.6	10.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78.1	31.0	18.6	12.4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72.3	33.3	19.4	11.1
	1조원이상	(89)	79.0	14.9	21.0	8.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65.5	33.1	23.3	17.9
	수출없음	(2,706)	59.5	39.5	23.8	20.2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59.0	40.5	20.4	24.1
	50 ~ 100명미만	(686)	58.9	36.5	19.9	23.3
	100 ~ 200명미만	(608)	56.9	37.4	33.9	18.5
	200 ~ 300명미만	(387)	65.9	40.8	24.9	16.6
	300 ~ 500명미만	(397)	62.5	32.7	27.3	11.3
	500 ~ 1,000명미만	(326)	73.4	31.9	25.0	7.9
	1,000명이상	(168)	74.3	28.6	14.7	15.7
업력	0 ~ 7년미만	(617)	58.6	56.7	19.6	16.8
	7 ~ 20년미만	(1,644)	58.1	38.2	24.4	22.2
	20 ~ 30년미만	(679)	65.8	36.1	22.6	17.2
	30 ~ 40년미만	(459)	61.2	31.8	23.6	18.4
	40 ~ 50년미만	(340)	68.1	34.6	22.3	14.3
	50년이상	(275)	64.9	30.3	26.9	20.1
매출유형	B2B	(3,223)	62.1	36.2	23.8	21.0
	B2C	(650)	58.7	42.5	24.3	13.8
	B2G	(141)	60.7	41.4	16.4	8.8
상장	상장	(757)	70.5	34.1	24.9	11.6
	비상장	(3,257)	59.0	38.3	23.3	21.6

[표 2-49]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장기차입 어려움	보증서 위주 대출	기타	없음
전체		(4,014)	14.4	7.3	1.2	6.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17.9	7.5	2.3	5.8
	피출자/관계기업	(2,219)	11.6	7.2	0.3	7.2
업종	제조업	(1,552)	18.4	6.3	1.4	6.5
	비제조업	(2,462)	12.0	8.0	1.1	6.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3.9	8.9	0.8	2.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10.4	6.6	0.3	9.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4.6	5.4	1.5	7.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6.8	8.5	3.1	5.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15.5	4.9	0.0	5.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23.9	7.9	1.8	2.6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18.0	11.2	4.2	5.5
	1조원이상	(89)	25.5	14.9	0.0	6.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16.4	7.5	1.8	6.1
	수출없음	(2,706)	13.5	7.3	1.0	6.8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12.0	7.2	1.0	6.4
	50 ~ 100명미만	(686)	11.4	8.2	0.4	10.8
	100 ~ 200명미만	(608)	14.7	3.8	1.0	5.0
	200 ~ 300명미만	(387)	16.5	6.8	2.9	4.7
	300 ~ 500명미만	(397)	19.1	11.6	1.9	6.8
	500 ~ 1,000명미만	(326)	18.8	6.1	2.3	4.1
	1,000명이상	(168)	23.0	11.7	0.0	4.6
업력	0 ~ 7년미만	(617)	17.8	4.0	0.0	4.7
	7 ~ 20년미만	(1,644)	13.5	7.9	1.2	5.5
	20 ~ 30년미만	(679)	15.1	8.9	1.3	5.2
	30 ~ 40년미만	(459)	13.0	6.9	1.8	9.2
	40 ~ 50년미만	(340)	21.0	7.1	1.2	5.4
	50년이상	(275)	8.5	4.5	1.6	14.8
매출유형	B2B	(3,223)	14.1	7.4	1.3	6.5
	B2C	(650)	16.5	4.9	1.0	6.2
	B2G	(141)	12.5	17.0	1.7	10.2
상장	상장	(757)	18.2	6.7	1.9	5.0
	비상장	(3,257)	13.4	7.5	1.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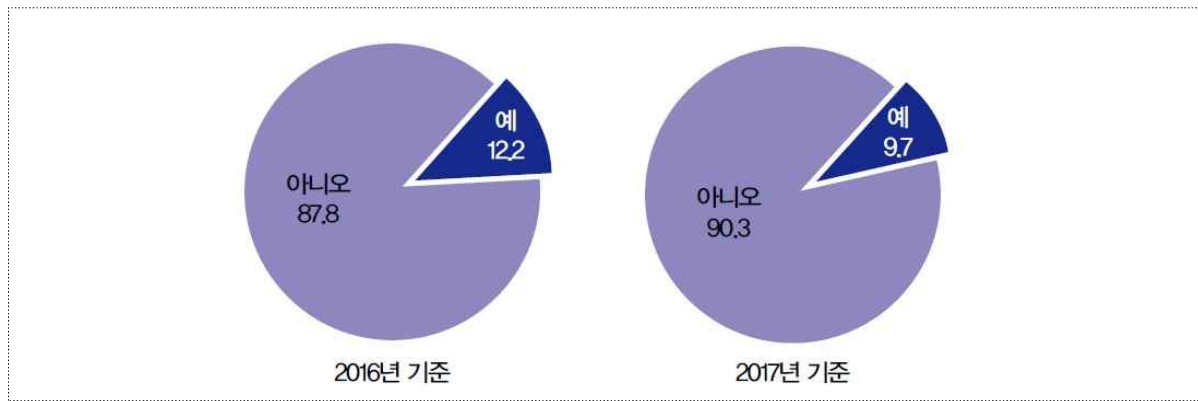
2. 정책자금의 활용

□ 정책자금 활용 여부

- 중견기업의 9.7%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12.2%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0] 정책자금 활용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16.4%, 피출자/관계기업의 4.3%가 정책자금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17.5%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지만, 비제조업은 4.8%만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정책자금 활용률이 높음
- 수출기업의 22.0%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지만, 내수기업은 3.8%만이 정책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2-50] 정책자금 활용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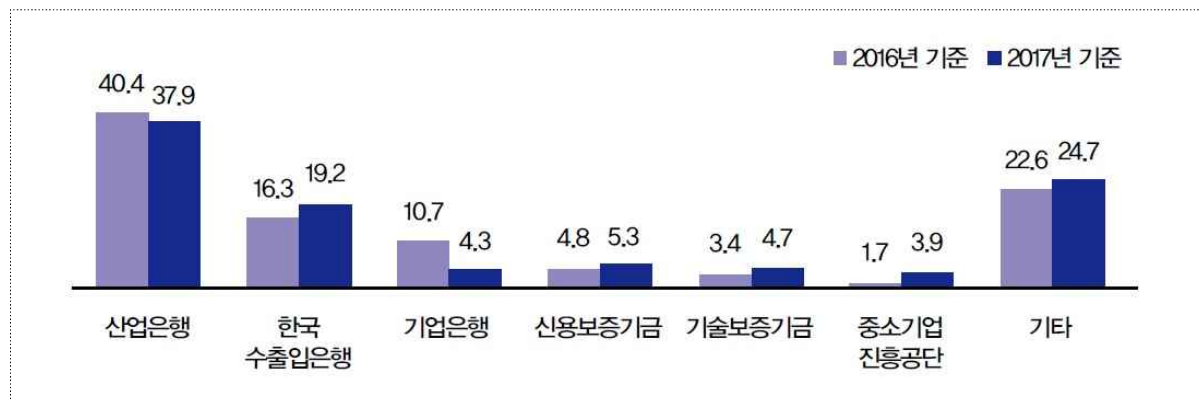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정책자금 활용	정책자금 미활용
전체		(4,014)	9.7	90.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16.4	83.6
	피출자/관계기업	(2,219)	4.3	95.7
업종	제조업	(1,552)	17.5	82.5
	비제조업	(2,462)	4.8	95.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4.6	95.4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3.4	96.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8.2	91.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7.3	82.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18.0	82.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19.7	80.3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8.4	91.6
	1조원이상	(89)	28.3	71.7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22.0	78.0
	수출없음	(2,706)	3.8	96.2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4.1	95.9
	50 ~ 100명미만	(686)	6.1	93.9
	100 ~ 200명미만	(608)	7.6	92.4
	200 ~ 300명미만	(387)	20.4	79.6
	300 ~ 500명미만	(397)	16.5	83.5
	500 ~ 1,000명미만	(326)	20.8	79.2
	1,000명이상	(168)	17.5	82.5
업력	0 ~ 7년미만	(617)	6.5	93.5
	7 ~ 20년미만	(1,644)	7.7	92.3
	20 ~ 30년미만	(679)	13.2	86.8
	30 ~ 40년미만	(459)	7.8	92.2
	40 ~ 50년미만	(340)	12.1	87.9
	50년이상	(275)	16.1	83.9
매출유형	B2B	(3,223)	10.2	89.8
	B2C	(650)	8.3	91.7
	B2G	(141)	4.5	95.5
상장	상장	(757)	18.0	82.0
	비상장	(3,257)	7.4	92.6

□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 중견기업의 정책자금 활용기관은 산업은행(37.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수출입은행(19.2%), 신용보증기금(5.3%)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산업은행 40.4%, 한국수출입은행 16.3%, 기업은행 10.7% 순임

[그림 2-31]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단위: %, 정책자금 활용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산업은행(43.8%), 한국수출입은행(21.2%), 신용보증기금(6.3%) 순이며, 피출자/관계기업은 산업은행(19.8%), 한국수출입은행(13.3%), 중소기업진흥공단(5.4%) 순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 1백억원 미만 기업은 기술보증기금(35.6%), 5천억원~1조원 미만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69.0%), 1조원 이상 기업은 산업은행(59.4%)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자금 활용 비중이 매출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체적으로 종사자가 많을수록 산업은행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상장기업(46.2%)이 비상장기업(32.4%)보다 산업은행 활용 비중이 높음

[표 2-51]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단위 : %, 정책자금 활용 기업 390개사)

구분		산업은행	한국수출입 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타
전체		37.9	19.2	4.3	5.3	4.7	3.9	24.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3.8	21.2	4.1	6.8	3.9	3.4	16.8
	피출자/관계기업	19.8	13.3	4.7	0.6	7.1	5.4	49.1
업종	제조업	41.1	23.6	5.4	2.7	4.9	2.4	19.9
	비제조업	30.4	9.2	1.6	11.2	4.3	7.5	35.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25.5	13.4	0.0	35.6	0.0	25.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9.1	0.0	0.0	0.0	0.0	8.3	52.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3.4	19.6	4.4	1.5	4.2	14.9	42.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39.7	19.9	3.6	11.6	5.7	4.1	15.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51.3	23.7	6.8	5.4	2.0	0.0	10.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3.9	18.0	6.5	2.2	1.4	0.0	28.0
	5천억원 ~ 1조원미만	21.0	69.0	0.0	5.0	5.0	0.0	0.0
	1조원이상	59.4	12.2	0.0	3.2	0.0	0.0	25.3
수출여부	수출있음	41.2	22.9	4.1	2.8	5.7	4.1	19.2
	수출없음	28.5	8.7	4.7	12.3	2.0	3.5	40.3
종사자수	50명미만	25.5	11.2	4.4	15.2	3.4	7.2	33.1
	50 ~ 100명미만	16.1	20.8	2.2	1.5	11.9	6.2	41.3
	100 ~ 200명미만	30.4	11.8	3.6	9.6	7.5	7.9	29.3
	200 ~ 300명미만	37.3	20.3	3.6	5.4	8.1	1.2	24.1
	300 ~ 500명미만	48.6	31.6	6.4	1.0	1.2	0.0	11.2
	500 ~ 1,000명미만	41.9	21.0	5.9	1.1	1.1	5.6	23.6
	1,000명이상	74.5	10.2	1.4	2.7	0.0	0.0	11.1
업력	0 ~ 7년미만	45.7	31.8	4.8	3.2	14.5	0.0	0.0
	7 ~ 20년미만	25.0	23.0	5.5	3.7	10.3	5.1	27.5
	20 ~ 30년미만	49.7	12.0	2.1	9.4	1.7	7.3	17.6
	30 ~ 40년미만	35.8	16.1	3.7	11.9	0.0	0.0	32.4
	40 ~ 50년미만	44.1	26.0	7.1	1.6	0.0	2.3	18.8
	50년이상	42.5	14.0	2.6	0.0	0.0	0.0	40.9
매출유형	B2B	37.0	22.6	5.0	4.5	4.0	3.8	23.1
	B2C	41.1	0.9	0.6	10.7	9.3	4.8	32.6
	B2G	57.5	0.0	0.0	0.0	0.0	0.0	42.5
상장	상장	46.2	23.9	5.3	1.4	0.5	0.7	22.0
	비상장	32.4	16.0	3.6	7.9	7.5	6.1	26.6

6절 인재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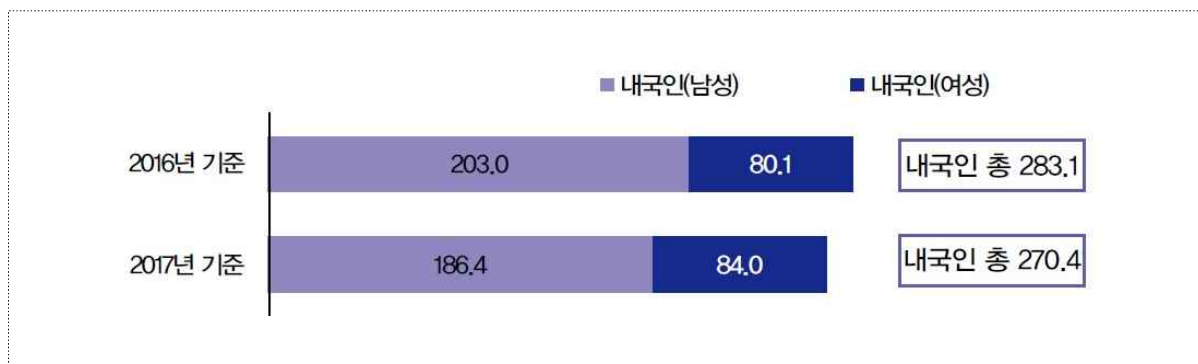
1. 인력현황

□ 전체 인력 현황

-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270.4명⁴⁾(남성 186.4명, 여성 84.0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0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내국인 근로자 수가 평균 283.1명으로(남성 203.0명, 여성 80.1명)으로 조사됨

[그림 2-32] 중견기업 인력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508.3명(남성 349.7명, 여성 158.8명)임
- 제조업은 평균 339.8명, 비제조업은 평균 226.7명이 종사함
 - 제조업 종사자 평균 339.8명 중 남성이 276.2명, 여성이 63.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 종사자 226.7명 중 남성이 129.8명, 여성이 96.9명인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남녀 성비 차이가 비제조업에 비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높을수록 종사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4) 중견기업 통계(2016년 결산기준) 상 중견기업 평균 인력 : 304.3명

[표 2-52] 중견기업 인력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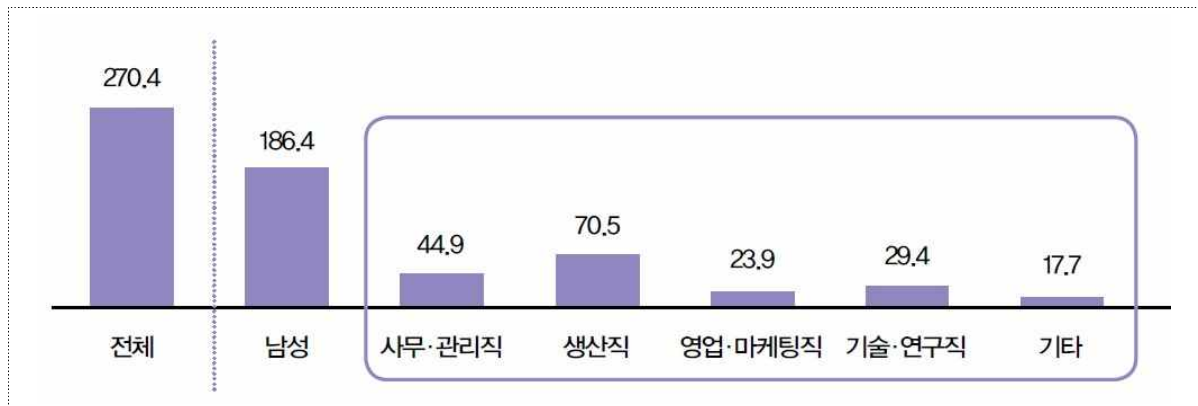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4,014)	748,231	337,194	1,085,425	186.4	84.0	270.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627,709	284,740	912,450	349.7	158.6	508.3
	피출자/관계기업	(2,219)	120,522	52,454	172,976	54.3	23.6	78.0
업종	제조업	(1,552)	428,664	98,737	527,401	276.2	63.6	339.8
	비제조업	(2,462)	319,567	238,457	558,024	129.8	96.9	226.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8,442	3,823	12,265	19.7	8.9	28.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81,129	41,583	122,712	54.3	27.9	82.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73,115	27,882	100,997	143.6	54.8	198.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32,557	47,016	179,573	194.4	68.9	263.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116,748	81,595	198,343	326.1	227.9	554.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103,938	24,550	128,488	368.6	87.1	455.6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101,952	25,262	127,215	592.7	146.9	739.6
	1조원이상	(89)	130,350	85,483	215,832	1464.6	960.5	2425.1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443,989	118,999	562,988	339.4	91.0	430.4
	수출없음	(2,706)	304,242	218,195	522,437	112.4	80.6	193.1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21,561	6,436	27,997	15.0	4.5	19.4
	50 ~ 100명미만	(686)	37,831	11,150	48,982	55.2	16.3	71.4
	100 ~ 200명미만	(608)	67,687	21,217	88,903	111.3	34.9	146.2
	200 ~ 300명미만	(387)	74,567	21,115	95,682	192.8	54.6	247.4
	300 ~ 500명미만	(397)	117,404	34,249	151,653	295.9	86.3	382.3
	500 ~ 1,000명미만	(326)	182,970	43,475	226,445	560.5	133.2	693.7
	1,000명이상	(168)	246,212	199,553	445,764	1462.0	1185.0	2647.0
업력	0 ~ 7년미만	(617)	55,783	11,606	67,389	188.5	39.2	227.7
	7 ~ 20년미만	(1,644)	217,779	159,104	376,884	124.0	90.6	214.7
	20 ~ 30년미만	(679)	112,119	69,695	181,813	150.9	93.8	244.7
	30 ~ 40년미만	(459)	117,413	31,691	149,103	226.7	61.2	287.9
	40 ~ 50년미만	(340)	142,000	43,428	185,428	350.3	107.1	457.4
	50년이상	(275)	103,138	21,670	124,808	348.1	73.1	421.2
매출유형	B2B	(3,223)	606,875	237,660	844,535	188.3	73.7	262.1
	B2C	(650)	108,783	94,852	203,635	167.2	145.8	312.9
	B2G	(141)	32,573	4,682	37,255	231.8	33.3	265.1
상장	상장	(757)	347,819	93,188	441,007	400.3	107.3	507.6
	비상장	(3,257)	400,412	244,006	644,418	127.3	77.6	204.9

□ 직무별 현황

-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직무별 현황은 생산직 70.5명, 사무/관리직 44.9명, 기술/연구직 29.4명, 영업/마케팅직 23.9명 순임

[그림 2-33] 남성 직무별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 남성직원 총 349.7명 중 생산직 인원이 136.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출자/관계기업 남성직원 총 54.3명 중 생산직 인원은 17.0명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생산직이 144.2명, 사무/관리직이 63.9명, 기술/연구직이 37.9명, 영업/마케팅직이 27.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사무/관리직 33.0명, 기술/연구직 24.1명, 생산직 24.0명, 영업/마케팅직 21.5명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생산직 직원이 많은 반면, 비제조업은 사무/관리직이 많을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 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남성근로자의 평균 근로자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임

[표 2-53] 남성 직무별 현황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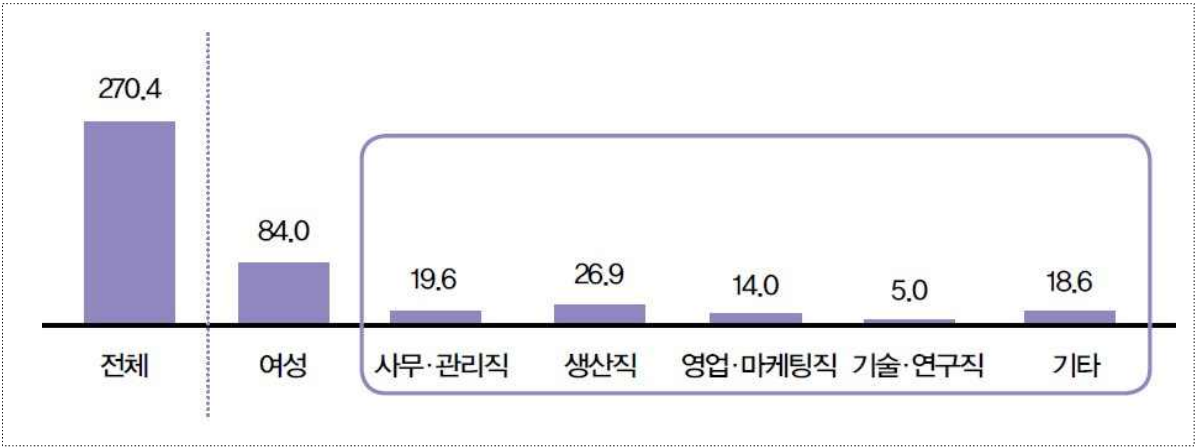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사무· 관리직	생산직	영업· 마케팅직	기술· 연구직	기타
전체		(4,014)	270.4	186.4	44.9	70.5	23.9	29.4	17.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508.3	349.7	82.9	136.6	46.2	53.7	30.1
	피출자/관계기업	(2,219)	78.0	54.3	14.2	17.0	5.8	9.7	7.6
업종	제조업	(1,552)	339.8	276.2	63.9	144.2	27.8	37.9	2.5
	비제조업	(2,462)	226.7	129.8	33.0	24.0	21.5	24.1	27.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28.6	19.7	7.1	3.9	2.3	5.0	1.4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82.2	54.3	13.5	14.4	5.0	10.3	11.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98.4	143.6	37.3	41.2	16.4	20.1	28.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263.3	194.4	50.4	65.8	26.8	36.9	14.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554.0	326.1	65.8	144.2	50.0	32.6	33.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455.6	368.6	93.3	152.0	51.3	64.7	7.3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739.6	592.7	160.8	230.7	83.5	70.6	47.2
	1조원이상	(89)	2425.1	1464.6	295.7	670.5	157.3	259.0	82.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430.4	339.4	79.3	157.6	34.0	60.8	7.6
	수출없음	(2,706)	193.1	112.4	28.3	28.4	19.0	14.2	22.5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19.4	15.0	7.2	3.7	2.1	1.2	0.8
	50 ~ 100명미만	(686)	71.4	55.2	21.5	15.2	7.6	9.7	1.1
	100 ~ 200명미만	(608)	146.2	111.3	30.0	35.4	20.9	19.6	5.3
	200 ~ 300명미만	(387)	247.4	192.8	52.0	83.8	24.3	25.2	7.4
	300 ~ 500명미만	(397)	382.3	295.9	71.3	105.8	35.5	55.1	28.2
	500 ~ 1,000명미만	(326)	693.7	560.5	146.6	237.1	63.1	82.8	31.0
	1,000명이상	(168)	2647.0	1462.0	241.8	557.5	183.0	232.3	247.4
업력	0 ~ 7년미만	(617)	227.7	188.5	52.2	95.0	21.4	18.8	1.1
	7 ~ 20년미만	(1,644)	214.7	124.0	28.6	39.7	18.8	22.2	14.7
	20 ~ 30년미만	(679)	244.7	150.9	37.4	52.5	21.4	26.4	13.3
	30 ~ 40년미만	(459)	287.9	226.7	68.9	92.0	24.6	32.0	9.3
	40 ~ 50년미만	(340)	457.4	350.3	76.0	145.5	28.5	32.6	67.8
	50년이상	(275)	421.2	348.1	69.2	133.2	55.2	81.5	9.0
매출유형	B2B	(3,223)	262.1	188.3	44.1	78.4	21.4	28.1	16.4
	B2C	(650)	312.9	167.2	47.9	33.3	38.3	19.9	27.8
	B2G	(141)	265.1	231.8	50.9	61.3	14.9	104.1	0.5
상장	상장	(757)	507.6	400.3	96.0	173.0	48.2	70.2	12.9
	비상장	(3,257)	204.9	127.3	30.8	42.2	17.2	18.2	19.0

-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직무별 현황은 생산직 26.9명, 사무/관리직 19.6명, 영업/마케팅직 14.0명, 기술/연구직 5.0명 순임

[그림 2-34] 여성 직무별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제조업 여성직원 생산직이 32.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관리직 17.4명, 영업/마케팅직 7.8명, 기술/연구직 5.1명의 순으로 나타남. 비제조업 여성직원 생산직 23.4명, 사무/관리직 21.0명, 영업/마케팅직 17.8명, 기술/연구직 4.9명의 순임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사무/관리직과 생산직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수 있음
- 매출유형별로는 B2C 기업의 경우 사무/관리직 39.9명, 생산직 32.9명, 영업/마케팅직 39.9명, 기술/연구직이 7.5명으로 나타나 다른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54] 여성 직무별 현황 : 평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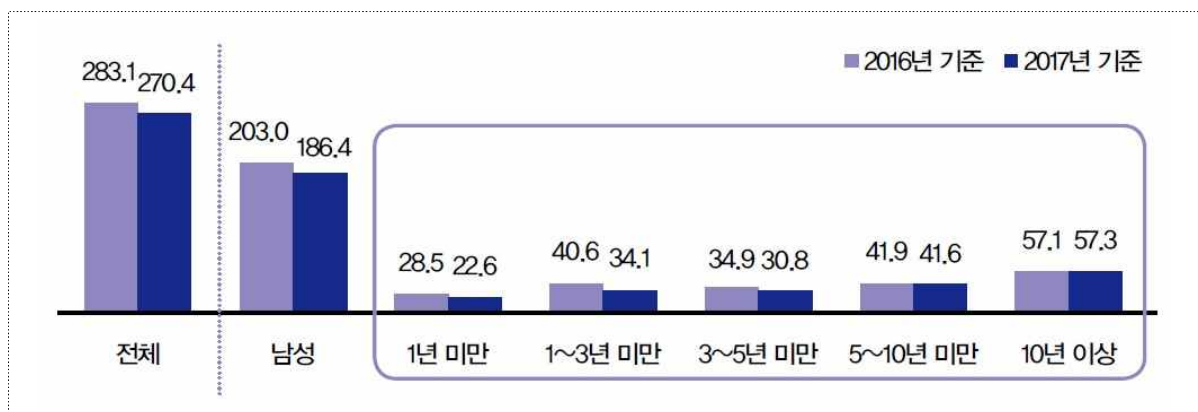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여성					
					사무· 관리직	생산직	영업· 마케팅직	기술· 연구직	기타
전체		(4,014)	270.4	84.0	19.6	26.9	14.0	5.0	18.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508.3	158.6	35.9	54.4	28.4	8.8	31.1
	파출자/관계기업	(2,219)	78.0	23.6	6.4	4.7	2.3	1.9	8.4
업종	제조업	(1,552)	339.8	63.6	17.4	32.4	7.8	5.1	1.0
	비제조업	(2,462)	226.7	96.9	21.0	23.4	17.8	4.9	29.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28.6	8.9	4.3	1.2	1.3	1.1	0.9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82.2	27.9	6.2	4.1	2.4	2.3	12.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98.4	54.8	16.2	15.1	5.1	2.1	16.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263.3	68.9	18.4	31.9	9.8	6.5	2.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554.0	227.9	27.6	98.4	52.3	5.3	44.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455.6	87.1	38.7	23.7	17.1	6.4	1.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739.6	146.9	48.6	31.5	35.1	14.3	17.2
	1조원이상	(89)	2425.1	960.5	196.8	275.2	145.4	49.8	293.3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430.4	91.0	23.5	32.3	10.5	9.8	14.8
	수출없음	(2,706)	193.1	80.6	17.7	24.3	15.6	2.7	20.4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19.4	4.5	3.0	0.4	0.6	0.2	0.4
	50 ~ 100명미만	(686)	71.4	16.3	8.2	3.6	2.3	1.1	1.0
	100 ~ 200명미만	(608)	146.2	34.9	15.6	5.8	6.5	5.2	1.8
	200 ~ 300명미만	(387)	247.4	54.6	18.5	20.3	5.7	2.8	7.3
	300 ~ 500명미만	(397)	382.3	86.3	27.7	29.2	15.5	7.4	6.4
	500 ~ 1,000명미만	(326)	693.7	133.2	49.2	46.9	17.8	13.6	5.7
	1,000명이상	(168)	2647.0	1185.0	148.5	395.5	210.9	44.1	386.0
업력	0 ~ 7년미만	(617)	227.7	39.2	14.5	6.9	14.4	2.7	0.6
	7 ~ 20년미만	(1,644)	214.7	90.6	18.7	21.2	17.4	5.5	27.8
	20 ~ 30년미만	(679)	244.7	93.8	19.2	58.4	7.4	3.8	4.9
	30 ~ 40년미만	(459)	287.9	61.2	23.2	17.8	12.9	4.5	2.8
	40 ~ 50년미만	(340)	457.4	107.1	21.1	22.7	10.4	2.9	49.9
	50년이상	(275)	421.2	73.1	22.3	22.8	16.1	10.9	1.0
매출유형	B2B	(3,223)	262.1	73.7	15.9	26.6	9.1	4.3	18.0
	B2C	(650)	312.9	145.8	39.9	32.9	39.9	7.5	25.6
	B2G	(141)	265.1	33.3	10.8	6.2	6.0	9.9	0.4
상장	상장	(757)	507.6	107.3	35.4	42.1	16.5	10.8	2.5
	비상장	(3,257)	204.9	77.6	15.2	22.7	13.3	3.4	23.0

□ 재직연수별 현황

-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57.3명, 5~10년 미만 41.6명, 1~3년 미만 34.1명, 3~5년 미만 30.8명, 1년 미만 22.6명 순임
- 2016년 기준 결과, 중견기업 남성직원 재직연수 분포는 10년 이상 57.1명, 5~10년 미만 4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5]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112.8명, 5~10년 미만 78.2명, 1~3년 미만 61.6명, 3~5년 미만 56.7명, 1년 미만 40.4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남성직원 총 349.7명 중 10년 이상 근속 인원이 112.8명(3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피출자/관계기업 남성직원 총 54.3명 중 10년 이상 근속 인원은 12.4명(22.8%)으로 피출자/관계기업보다 일반 중견기업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남성 직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근속연수 10년 이상이 100.0명, 5~10년 미만 63.6명, 1~3년 미만 45.2명, 3~5년 미만 41.5명, 1년 미만 25.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10년 이상 30.4명, 5~10년 미만 27.7명, 1~3년 미만 27.2명, 3~5년 미만 24.0명, 1년 미만 20.5명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근속연수가 긴 직원이 많은 반면,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짧은 직원이 많아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의 근속연수가 더 긴 것을 알 수 있음

[표 2-55]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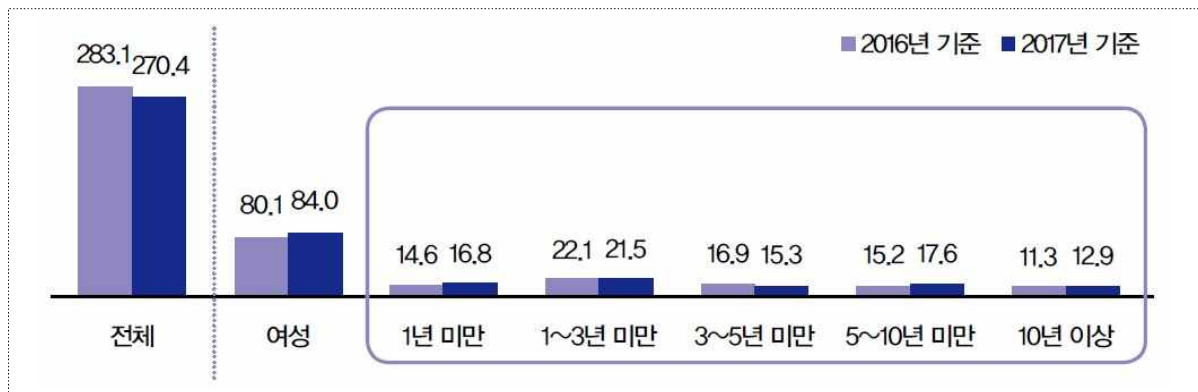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남성					
				1년미만	1년 ~ 3년미만	3년 ~ 5년미만	5년 ~ 10년미만	10년이상	
전체		(4,014)	270.4	186.4	22.6	34.1	30.8	41.6	57.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508.3	349.7	40.4	61.6	56.7	78.2	112.8
	피출자/관계기업	(2,219)	78.0	54.3	8.1	12.0	9.8	12.0	12.4
업종	제조업	(1,552)	339.8	276.2	25.9	45.2	41.5	63.6	100.0
	비제조업	(2,462)	226.7	129.8	20.5	27.2	24.0	27.7	30.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28.6	19.7	3.0	5.5	4.2	3.5	3.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82.2	54.3	8.5	11.0	9.6	12.5	12.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98.4	143.6	24.7	34.4	25.8	30.0	28.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263.3	194.4	20.8	36.7	32.1	46.1	58.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554.0	326.1	54.5	73.3	59.1	68.7	70.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455.6	368.6	31.6	58.1	58.3	89.2	131.4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739.6	592.7	62.7	104.1	106.7	122.8	196.3
	1조원이상	(89)	2425.1	1464.6	120.3	170.9	184.3	328.3	660.8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430.4	339.4	36.1	55.1	51.4	78.1	118.7
	수출없음	(2,706)	193.1	112.4	16.0	24.0	20.8	24.0	27.7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19.4	15.0	1.5	3.2	2.7	3.9	3.6
	50 ~ 100명미만	(686)	71.4	55.2	5.6	11.2	10.1	12.8	15.6
	100 ~ 200명미만	(608)	146.2	111.3	13.1	21.9	20.7	25.0	30.6
	200 ~ 300명미만	(387)	247.4	192.8	24.9	36.8	28.8	43.4	58.9
	300 ~ 500명미만	(397)	382.3	295.9	35.5	58.4	50.5	70.5	81.1
	500 ~ 1,000명미만	(326)	693.7	560.5	50.6	92.8	90.0	132.5	194.7
	1,000명이상	(168)	2647.0	1462.0	216.3	260.0	235.0	293.1	457.7
업력	0 ~ 7년미만	(617)	227.7	188.5	20.0	37.1	32.5	38.5	60.5
	7 ~ 20년미만	(1,644)	214.7	124.0	18.5	24.9	21.3	27.1	32.2
	20 ~ 30년미만	(679)	244.7	150.9	23.5	27.6	23.2	34.2	42.3
	30 ~ 40년미만	(459)	287.9	226.7	26.3	44.7	38.2	49.9	67.8
	40 ~ 50년미만	(340)	457.4	350.3	34.2	61.8	61.4	79.1	113.8
	50년이상	(275)	421.2	348.1	24.2	46.3	49.4	83.3	145.0
매출유형	B2B	(3,223)	262.1	188.3	22.6	34.1	30.5	41.9	59.1
	B2C	(650)	312.9	167.2	22.6	33.8	27.5	36.2	47.0
	B2G	(141)	265.1	231.8	20.8	36.8	50.9	58.6	64.7
상장	상장	(757)	507.6	400.3	37.5	63.2	58.9	94.3	146.4
	비상장	(3,257)	204.9	127.3	18.4	26.1	23.0	27.0	32.7

-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21.5명, 5~10년 미만 17.6명, 1년 미만 16.8명, 3~5년 미만 15.3명, 10년 이상 12.9명 순임
- 2016년 기준 결과, 중견기업 여성직원 재직연수 분포는 1~3년 미만 22.1명, 3~5년 미만 16.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6]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41.3명, 5~10년 미만 34.8명, 3~5년 미만 29.6명, 1년 미만 27.2명, 10년 이상 25.8명 순임
- 제조업 여성직원의 근속연수는 1~3년 미만이 15.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이 13.8명, 5~10년 미만이 13.2명, 3~5년 미만이 12.0명, 1년 미만 9.0명의 순으로 나타남. 비제조업 여성직원의 근속연수는 1~3년 미만이 25.1명, 1년 미만 21.7명, 5~10년 미만 20.4명, 3~5년 미만 17.3명, 10년 이상 12.3명의 순임
- 남성 직원과 동일하게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의 근속연수가 높으며, 매출규모, 업력이 길수록 평균 근속연수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장기업의 여성직원 근속연수는 구간별로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띄고 있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평균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됨
- 대체적으로 여성직원의 근속연수가 남성직원의 근속연수보다 낮게 조사됨
- 이는 여성의 임신 및 육아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2-56]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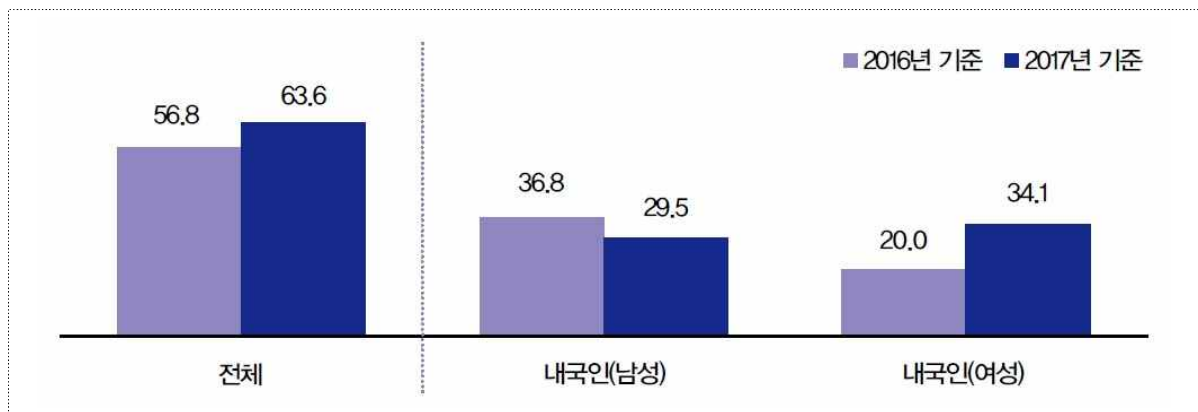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여성					
				1년미만	1년 ~ 3년미만	3년 ~ 5년미만	5년 ~ 10년미만	10년이상	
전체		(4,014)	270.4	84.0	16.8	21.5	15.3	17.6	12.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508.3	158.6	27.2	41.3	29.6	34.8	25.8
	피출자/관계기업	(2,219)	78.0	23.6	8.4	5.5	3.7	3.8	2.4
업종	제조업	(1,552)	339.8	63.6	9.0	15.6	12.0	13.2	13.8
	비제조업	(2,462)	226.7	96.9	21.7	25.1	17.3	20.4	12.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28.6	8.9	1.6	3.0	2.0	1.4	0.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82.2	27.9	11.2	5.5	4.1	4.4	2.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98.4	54.8	12.3	16.1	10.8	10.5	5.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263.3	68.9	13.3	19.1	14.2	13.7	8.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554.0	227.9	44.3	86.0	43.7	32.1	21.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455.6	87.1	13.8	19.7	17.1	21.5	14.9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739.6	146.9	24.2	37.2	27.3	25.7	32.5
	1조원이상	(89)	2425.1	960.5	121.6	142.9	155.6	302.8	237.6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430.4	91.0	15.8	22.3	16.4	18.1	18.3
	수출없음	(2,706)	193.1	80.6	17.2	21.1	14.7	17.4	10.3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19.4	4.5	0.7	1.2	0.9	1.0	0.7
	50 ~ 100명미만	(686)	71.4	16.3	1.9	3.9	3.4	3.9	3.1
	100 ~ 200명미만	(608)	146.2	34.9	5.8	9.4	8.2	6.8	4.8
	200 ~ 300명미만	(387)	247.4	54.6	11.3	14.4	10.3	9.9	8.7
	300 ~ 500명미만	(397)	382.3	86.3	12.9	24.6	16.8	19.4	12.7
	500 ~ 1,000명미만	(326)	693.7	133.2	20.6	34.3	25.9	30.0	22.4
	1,000명이상	(168)	2647.0	1185.0	269.3	294.2	199.1	244.4	177.9
업력	0 ~ 7년미만	(617)	227.7	39.2	5.4	9.6	8.5	7.5	8.2
	7 ~ 20년미만	(1,644)	214.7	90.6	23.8	18.0	14.1	20.8	13.9
	20 ~ 30년미만	(679)	244.7	93.8	15.3	30.7	17.2	20.2	10.4
	30 ~ 40년미만	(459)	287.9	61.2	10.5	15.0	10.5	11.6	13.6
	40 ~ 50년미만	(340)	457.4	107.1	11.2	38.9	27.2	16.3	13.5
	50년이상	(275)	421.2	73.1	9.2	18.1	15.9	14.6	15.3
매출유형	B2B	(3,223)	262.1	73.7	16.8	20.7	13.4	12.9	10.0
	B2C	(650)	312.9	145.8	19.6	27.6	26.2	43.6	28.7
	B2G	(141)	265.1	33.3	4.6	10.9	7.4	5.3	5.1
상장	상장	(757)	507.6	107.3	18.4	27.3	20.8	22.5	18.3
	비상장	(3,257)	204.9	77.6	16.4	19.8	13.7	16.3	11.4

□ 2017년 채용실적

- 중견기업은 2017년 총 253,952명을 채용하였으며, 평균 63.6명(남성 29.5명, 여성 34.1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채용실적은 평균 56.8명(남성 36.8명, 여성 20.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7] 2017년 채용실적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총 147,625명을 채용하였으며, 평균 83.1명(남성 49.9명, 여성 33.1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평균 83.1명을 채용한 반면, 피출자/관계기업은 48.0명을 채용하여 일반 중견기업의 채용실적이 월등히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1명(남성 34.0명, 여성 11.0명)을 채용한 반면, 비제조업이 75.4명(남성 26.7명, 여성 48.7명)을 채용하여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1.5배 가량 높은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남성 채용이 여성보다 약 3.0배 높은 반면, 비제조업은 남성 채용이 약 1.8배 높아 제조업이 남성에게 더 많은 채용 기회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음
- 업력별로는 0~7년미만(27.3명), 7~20년미만(85.0명), 20~30년미만(48.8명), 30~40년미만(48.9명), 40~50년미만(53.0명), 50년 이상(51.0명)으로 대체적으로 업력이 길수록 채용인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7] 2017년 채용실적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4,014)	117,823	136,129	253,952	29.5	34.1	63.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88,741	58,884	147,625	49.9	33.1	83.1
	피출자/관계기업	(2,219)	29,082	77,245	106,327	13.1	34.9	48.0
업종	제조업	(1,552)	52,639	17,080	69,719	34.0	11.0	45.1
	비제조업	(2,462)	65,184	119,049	184,233	26.7	48.7	75.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469	764	2,233	3.4	1.8	5.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22,497	75,251	97,748	15.1	50.4	65.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4,490	7,179	21,669	29.1	14.4	43.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8,094	12,358	30,453	26.5	18.1	44.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24,870	16,584	41,454	70.0	46.7	116.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9,964	3,889	13,853	36.0	14.0	5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12,562	4,861	17,422	74.1	28.7	102.7
	1조원이상	(89)	13,878	15,242	29,120	155.9	171.3	327.2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59,581	27,259	86,840	46.0	21.1	67.1
	수출없음	(2,706)	58,242	108,870	167,112	21.6	40.4	61.9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2,643	1,144	3,787	1.8	0.8	2.6
	50 ~ 100명미만	(686)	5,002	1,752	6,754	7.3	2.6	9.9
	100 ~ 200명미만	(608)	10,462	4,218	14,680	17.2	6.9	24.1
	200 ~ 300명미만	(387)	11,435	5,124	16,559	29.8	13.3	43.1
	300 ~ 500명미만	(397)	17,469	6,520	23,990	44.9	16.8	61.6
	500 ~ 1,000명미만	(326)	18,505	7,121	25,626	58.1	22.3	80.4
	1,000명이상	(168)	52,307	110,251	162,557	310.6	654.7	965.3
업력	0 ~ 7년미만	(617)	6,327	1,669	7,997	21.6	5.7	27.3
	7 ~ 20년미만	(1,644)	44,591	103,602	148,193	25.6	59.4	85.0
	20 ~ 30년미만	(679)	21,167	14,948	36,115	28.6	20.2	48.8
	30 ~ 40년미만	(459)	19,245	6,086	25,330	37.2	11.8	48.9
	40 ~ 50년미만	(340)	15,560	5,789	21,349	38.6	14.4	53.0
	50년이상	(275)	10,933	4,035	14,968	37.2	13.7	51.0
매출유형	B2B	(3,223)	96,527	121,368	217,894	30.1	37.8	67.9
	B2C	(650)	17,593	14,061	31,654	27.2	21.8	49.0
	B2G	(141)	3,704	700	4,404	26.9	5.1	32.0
상장	상장	(757)	42,586	20,407	62,994	49.4	23.7	73.1
	비상장	(3,257)	75,237	115,722	190,959	24.0	37.0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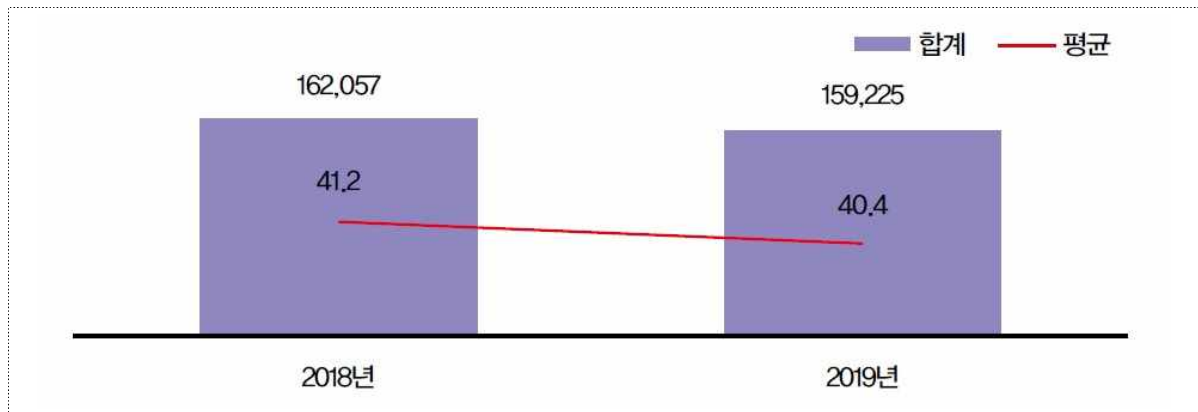
□ 2018년~2019년 채용계획

- 중견기업은 2018년 총 162,057명(평균 41.2명), 2019년 총 159,225명(40.4명)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이석진

[그림 2-38] 2018년~2019년 채용계획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2018년은 제조업은 총 44,636명(평균 29.3명), 비제조업은 총 117,421명(평균 48.6명), 2019년에는 제조업은 총 38,704명(평균 25.4명), 비제조업은 120,520명(평균 49.9명)을 채용할 예정임
 -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채용할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8~2019년 모두 종사자수별로는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신규 채용계획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장기업은 2018년 평균 50.2명, 2019년 평균 42.6명을 채용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비상장기업은 2018년 38.6명, 2019년 39.8명으로 비상장기업보다 상장기업의 채용계획이 높음

[표 2-58] 2018년~2019년 채용계획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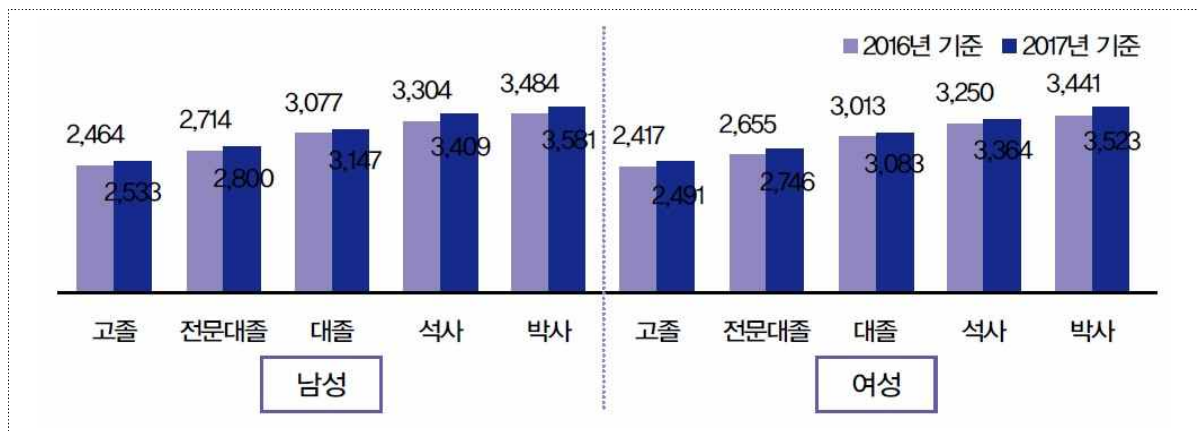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2018년		2019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전체		(4,014)	41.2	162,057	40.4	159,22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58.3	102,946	53.0	93,645
	피출자/관계기업	(2,219)	27.2	59,111	30.2	65,580
업종	제조업	(1,552)	29.3	44,636	25.4	38,704
	비제조업	(2,462)	48.6	117,421	49.9	120,52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4.1	1,726	4.9	2,08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35.6	52,692	41.3	61,08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25.3	11,969	21.3	10,09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27.3	18,443	20.9	14,08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87.3	30,509	89.0	31,07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34.8	9,714	35.1	9,812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77.9	13,205	57.6	9,770
	1조원이상	(89)	275.1	23,799	245.4	21,223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48.2	61,985	42.3	54,383
	수출없음	(2,706)	37.7	100,072	39.5	104,842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1.6	2,315	1.0	1,436
	50 ~ 100명미만	(686)	6.4	4,283	5.9	3,979
	100 ~ 200명미만	(608)	13.6	8,166	12.6	7,544
	200 ~ 300명미만	(387)	34.3	13,025	28.3	10,746
	300 ~ 500명미만	(397)	38.8	15,177	32.4	12,676
	500 ~ 1,000명미만	(326)	54.9	17,451	47.2	15,009
	1,000명이상	(168)	622.5	101,641	660.5	107,836
업력	0 ~ 7년미만	(617)	15.6	4,490	17.8	5,122
	7 ~ 20년미만	(1,644)	56.7	97,672	58.0	99,929
	20 ~ 30년미만	(679)	26.1	19,142	23.5	17,201
	30 ~ 40년미만	(459)	36.3	18,344	34.4	17,358
	40 ~ 50년미만	(340)	32.8	12,873	29.1	11,408
	50년이상	(275)	32.2	9,536	27.7	8,206
매출유형	B2B	(3,223)	42.7	134,744	42.5	134,329
	B2C	(650)	38.5	24,600	34.9	22,289
	B2G	(141)	19.3	2,714	18.5	2,606
상장	상장	(757)	50.2	42,900	42.6	36,394
	비상장	(3,257)	38.6	119,157	39.8	122,830

□ 신입사원 초임

- 중견기업의 신입사원 초임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 남성 : 박사 3,581만원, 석사 3,409만원, 대졸 3,147만원, 전문대졸 2,800만원, 고졸 2,533만원
 - 여성 : 박사 3,523만원, 석사 3,364만원, 대졸 3,083만원, 전문대졸 2,746만원, 고졸 2,491만원
 - 2016년 기준 결과, 동일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2-39] 신입사원 초임 : 평균

(단위: 만원)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비제조업(대졸신입 남성: 3,078만원, 여성: 3,015만원)에 비해 제조업(대졸신입 남성: 3,255만원, 여성: 3,189만원)의 초임이 더 높음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신입사원의 초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신입사원 초임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상장여부에 따라 학력별 초임 격차에서 다른 양상을 보임
 - 상장기업의 고졸 남성 초임은 2,621만원, 박사 남성 초임은 3,884만원으로 1,263만원 차이가 나는 반면, 비상장기업의 고졸 남성 초임은 2,508만원, 박사 남성 초임은 3,461만원으로 953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 상장기업의 학력별 초임 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59] 남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4,014)	2,533	2,800	3,147	3,409	3,58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2,581	2,872	3,272	3,499	3,714
	피출자/관계기업	(2,219)	2,494	2,742	3,044	3,317	3,442
업종	제조업	(1,552)	2,613	2,878	3,255	3,491	3,739
	비제조업	(2,462)	2,474	2,749	3,078	3,340	3,44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2,439	2,724	2,992	3,247	3,38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2,478	2,729	3,036	3,308	3,42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2,531	2,814	3,149	3,394	3,52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2,538	2,782	3,124	3,334	3,51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2,536	2,815	3,237	3,448	3,67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2,648	2,976	3,406	3,632	3,831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2,867	3,112	3,633	3,920	4,201
	1조원이상	(89)	2,764	3,201	3,723	3,892	4,126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2,604	2,932	3,337	3,563	3,797
	수출없음	(2,706)	2,496	2,734	3,053	3,307	3,436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2,473	2,738	3,063	3,337	3,505
	50 ~ 100명미만	(686)	2,484	2,753	3,066	3,246	3,365
	100 ~ 200명미만	(608)	2,512	2,776	3,094	3,371	3,452
	200 ~ 300명미만	(387)	2,488	2,803	3,143	3,428	3,631
	300 ~ 500명미만	(397)	2,636	2,913	3,296	3,472	3,682
	500 ~ 1,000명미만	(326)	2,741	2,971	3,447	3,645	3,897
	1,000명이상	(168)	2,687	2,985	3,450	3,774	4,045
업력	0 ~ 7년미만	(617)	2,556	2,796	3,196	3,550	3,977
	7 ~ 20년미만	(1,644)	2,472	2,737	3,048	3,311	3,433
	20 ~ 30년미만	(679)	2,512	2,777	3,120	3,412	3,617
	30 ~ 40년미만	(459)	2,517	2,800	3,142	3,324	3,442
	40 ~ 50년미만	(340)	2,778	3,039	3,425	3,660	3,809
	50년이상	(275)	2,601	2,910	3,385	3,603	3,863
매출유형	B2B	(3,223)	2,553	2,823	3,181	3,468	3,657
	B2C	(650)	2,476	2,666	2,951	3,131	3,202
	B2G	(141)	2,349	2,914	3,249	3,380	3,659
상장	상장	(757)	2,621	2,910	3,374	3,638	3,884
	비상장	(3,257)	2,508	2,770	3,084	3,326	3,461

[표 2-60] 여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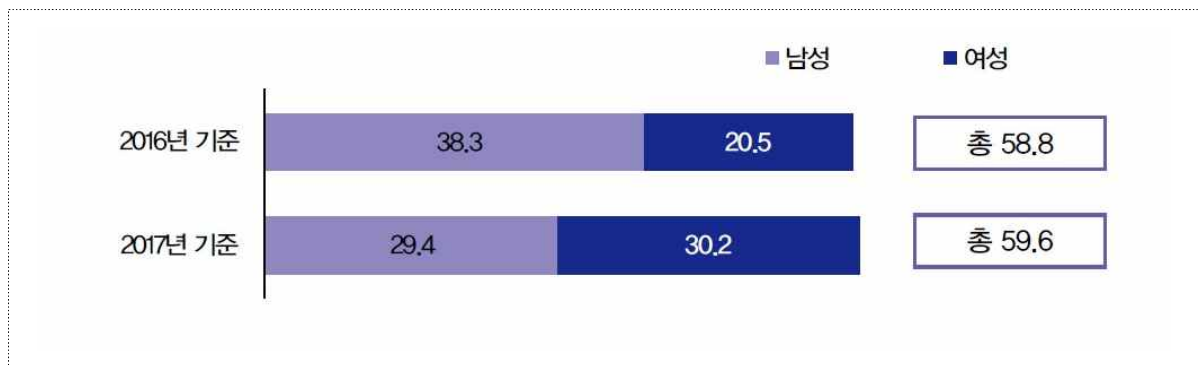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4,014)	2,491	2,746	3,083	3,364	3,52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2,547	2,815	3,197	3,446	3,653
	피출자/관계기업	(2,219)	2,446	2,691	2,990	3,280	3,390
업종	제조업	(1,552)	2,570	2,827	3,189	3,442	3,679
	비제조업	(2,462)	2,433	2,693	3,015	3,301	3,39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2,386	2,697	2,960	3,217	3,33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2,425	2,666	2,980	3,267	3,369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2,503	2,777	3,092	3,353	3,49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2,508	2,720	3,040	3,280	3,42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2,498	2,740	3,118	3,393	3,62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2,604	2,904	3,316	3,569	3,771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2,836	3,091	3,612	3,885	4,177
	1조원이상	(89)	2,764	3,182	3,723	3,862	4,068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2,576	2,888	3,280	3,522	3,745
	수출없음	(2,706)	2,447	2,676	2,986	3,262	3,375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2,422	2,673	3,000	3,295	3,440
	50 ~ 100명미만	(686)	2,428	2,698	3,007	3,204	3,321
	100 ~ 200명미만	(608)	2,483	2,723	3,025	3,321	3,378
	200 ~ 300명미만	(387)	2,478	2,786	3,095	3,394	3,601
	300 ~ 500명미만	(397)	2,567	2,827	3,194	3,422	3,622
	500 ~ 1,000명미만	(326)	2,733	2,933	3,393	3,590	3,825
	1,000명이상	(168)	2,651	2,977	3,418	3,728	4,014
업력	0 ~ 7년미만	(617)	2,520	2,746	3,172	3,527	3,942
	7 ~ 20년미만	(1,644)	2,427	2,689	2,996	3,272	3,378
	20 ~ 30년미만	(679)	2,489	2,734	3,061	3,391	3,581
	30 ~ 40년미만	(459)	2,473	2,742	3,059	3,263	3,396
	40 ~ 50년미만	(340)	2,718	2,956	3,311	3,579	3,714
	50년이상	(275)	2,550	2,841	3,307	3,539	3,793
매출유형	B2B	(3,223)	2,508	2,766	3,118	3,421	3,593
	B2C	(650)	2,442	2,621	2,884	3,094	3,174
	B2G	(141)	2,333	2,878	3,205	3,375	3,616
상장	상장	(757)	2,579	2,846	3,276	3,569	3,812
	비상장	(3,257)	2,466	2,719	3,029	3,290	3,411

□ 이직자 현황

-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59.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29.4명, 여성 30.2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2.0%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이직자는 평균 58.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38.3명, 여성 20.5명임

[그림 2-40] 이직자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83.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47.8명, 여성 35.5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16.3%로 나타남
- 피출자/관계기업은 평균 40.6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이직자 수가 피출자/관계기업에 비해 약 2.0배 많으나 이직률은 피출자/관계기업이 약 3.0배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 이직률 13.3%(남성 11.8%, 여성 19.7%), 비제조업 이직률 30.2%(남성 21.0%, 여성 42.5%)로 비제조업의 이직률이 제조업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조사됨
- 수출기업 이직률 14.2%(남성 12.0%, 여성 22.6%), 내수기업 이직률 30.3%(남성 21.2%, 여성 43.0%)로 내수기업의 이직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수기업, 비제조업, 비상장기업이 수출기업, 제조업, 상장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2-61] 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이직률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4,014)	117,693	120,729	238,423	29.4	30.2	59.6	15.7	35.8	22.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85,136	63,213	148,349	47.8	35.5	83.2	13.6	22.2	16.3
	피출자/관계기업	(2,219)	32,558	57,516	90,074	14.7	25.9	40.6	27.0	109.7	52.1
업종	제조업	(1,552)	50,630	19,440	70,070	32.7	12.6	45.3	11.8	19.7	13.3
	비제조업	(2,462)	67,064	101,289	168,353	27.3	41.3	68.6	21.0	42.5	30.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509	680	2,189	3.5	1.6	5.1	17.9	17.8	17.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26,084	55,520	81,604	17.5	37.2	54.7	32.2	133.5	66.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3,597	7,639	21,236	26.9	15.1	41.9	18.6	27.4	21.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8,428	12,182	30,609	27.0	17.9	44.9	13.9	25.9	17.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22,702	19,209	41,910	63.9	54.1	118.0	19.4	23.5	21.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9,933	4,331	14,263	35.5	15.5	51.0	9.6	17.6	11.1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10,124	3,699	13,822	59.7	21.8	81.5	9.9	14.6	10.9
	1조원이상	(89)	15,318	17,471	32,789	177.1	202.0	379.1	11.8	20.4	15.2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53,141	26,871	80,012	40.9	20.7	61.5	12.0	22.6	14.2
	수출없음	(2,706)	64,553	93,858	158,411	23.9	34.8	58.7	21.2	43.0	30.3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2,733	1,270	4,003	1.9	0.9	2.8	12.7	19.7	14.3
	50 ~ 100명미만	(686)	5,352	2,257	7,608	7.8	3.3	11.1	14.1	20.2	15.5
	100 ~ 200명미만	(608)	10,926	3,746	14,672	18.0	6.2	24.1	16.1	17.7	16.5
	200 ~ 300명미만	(387)	12,799	6,755	19,554	33.3	17.6	50.9	17.2	32.0	20.4
	300 ~ 500명미만	(397)	15,886	6,742	22,628	40.3	17.1	57.4	13.5	19.7	14.9
	500 ~ 1,000명미만	(326)	17,549	6,347	23,895	55.0	19.9	74.9	9.6	14.6	10.6
	1,000명이상	(168)	52,449	93,613	146,062	311.4	555.9	867.3	21.3	46.9	32.8
업력	0 ~ 7년미만	(617)	3,874	1,171	5,044	13.2	4.0	17.2	6.9	10.1	7.5
	7 ~ 20년미만	(1,644)	51,591	85,370	136,961	29.4	48.7	78.1	23.7	53.7	36.3
	20 ~ 30년미만	(679)	16,014	16,402	32,417	21.6	22.1	43.6	14.3	23.5	17.8
	30 ~ 40년미만	(459)	20,504	7,353	27,857	39.8	14.3	54.1	17.5	23.2	18.7
	40 ~ 50년미만	(340)	15,446	6,978	22,424	38.3	17.3	55.7	10.9	16.1	12.1
	50년이상	(275)	10,264	3,455	13,720	35.0	11.8	46.7	10.0	15.9	11.0
매출유형	B2B	(3,223)	90,363	100,177	190,539	28.1	31.2	59.3	14.9	42.2	22.6
	B2C	(650)	23,160	19,911	43,071	35.7	30.7	66.5	21.3	21.0	21.2
	B2G	(141)	4,171	641	4,813	30.3	4.7	34.9	12.8	13.7	12.9
상장	상장	(757)	39,551	20,958	60,509	45.8	24.3	70.0	11.4	22.5	13.7
	비상장	(3,257)	78,142	99,771	177,913	24.9	31.8	56.7	19.5	40.9	27.6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업종은 인력순환이 많음, 해당 기업 포함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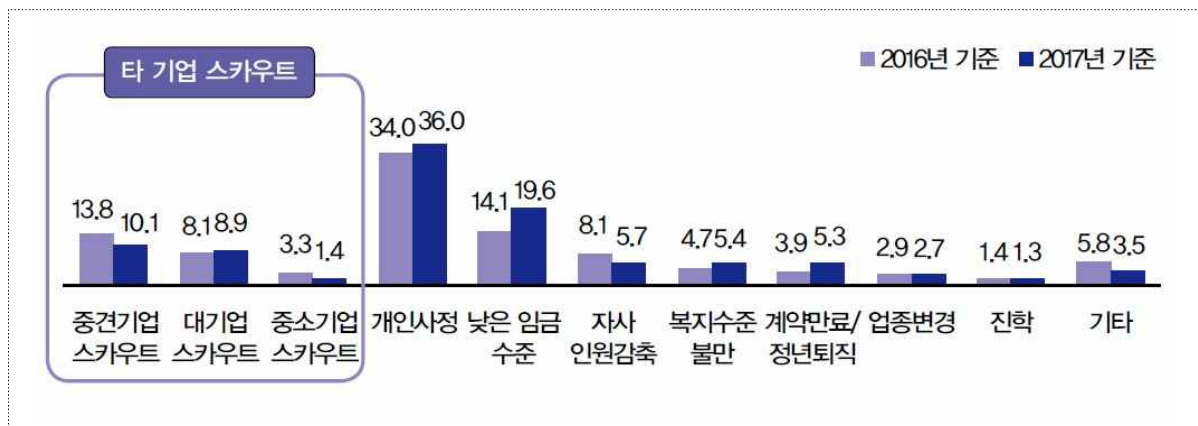
※ 이직률 = 이직자수 / 총인력(전체인력)

□ 주요 이직원인

- 중견기업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개인사정(36.0%), 타 기업 스카우트 20.4%(중견기업스카우트(10.1%), 대기업 스카우트(8.9%), 중소기업 스카우트(1.4%)), 낮은 임금수준(19.6%), 자사 인원감축(5.7%) 순임
- 2016년 기준 결과,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개인사정(34.0%), 타 기업 스카우트 25.2%(중견기업 스카우트(13.8%), 대기업 스카우트(8.1%), 중소기업 스카우트(3.3%)) 등의 순임

[그림 2-41]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단위: %, 이직자가 있는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타 기업 스카우트 27.9%(중견기업 스카우트(15.0%), 대기업 스카우트(11.8%), 중소기업 스카우트(1.1%)), 개인사정(27.6%), 낮은 임금수준(17.7%), 자사 인원감축(7.8%) 순임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개인사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규모가 클수록 타 기업 스카우트 및 계약만료/정년퇴직, 복지수준 불만, 진학 등으로 인한 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유형별로는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과, 소비자가 주 거래처인 B2C기업은 개인사정이 많은 반면, 정부/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기업은 타 기업 스카우트(22.7%), 자사 인원감축(12.2%)이 높게 나타남

[표 2-62]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3,366개사)

구분		계	타 기업 스카우트			개인사정	낮은 임금 수준
			중견기업 스카우트	대기업 스카우트	중소기업 스카우트		
전체		20.4	10.1	8.9	1.4	36.0	19.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7.9	15.0	11.8	1.1	27.6	17.7
	피출자/관계기업	13.1	5.3	6.1	1.7	44.2	21.4
업종	제조업	23.8	11.3	10.0	2.5	35.8	15.7
	비제조업	17.9	9.2	8.1	0.6	36.1	22.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0.6	2.7	7.9	0.0	47.9	12.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1.9	5.2	5.2	1.5	42.1	25.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2.9	12.4	7.3	3.2	39.2	16.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25.8	11.7	12.9	1.2	30.1	18.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6.4	16.1	9.3	1.0	23.1	16.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4.2	21.3	11.1	1.8	27.9	19.3
	5천억원 ~ 1조원미만	36.2	17.4	18.8	0.0	30.4	7.2
	1조원이상	16.2	0.0	16.2	0.0	34.0	12.0
수출여부	수출있음	27.5	13.1	12.6	1.8	32.5	16.1
	수출없음	16.4	8.4	6.8	1.2	38.1	21.6
종사자수	50명미만	11.3	3.7	5.9	1.7	48.8	18.8
	50 ~ 100명미만	17.0	11.2	4.2	1.6	39.9	22.7
	100 ~ 200명미만	23.9	9.3	12.4	2.2	27.9	23.1
	200 ~ 300명미만	20.5	13.6	6.3	0.6	34.0	19.4
	300 ~ 500명미만	28.0	12.1	15.1	0.8	26.0	15.0
	500 ~ 1,000명미만	32.8	20.0	11.6	1.2	26.8	18.0
	1,000명이상	28.4	11.5	16.9	0.0	26.8	13.5
업력	0 ~ 7년미만	14.9	13.2	1.7	0.0	45.0	18.3
	7 ~ 20년미만	16.9	8.0	7.5	1.4	36.9	24.0
	20 ~ 30년미만	21.5	11.3	9.8	0.4	38.9	16.3
	30 ~ 40년미만	23.8	12.2	8.8	2.8	30.5	18.1
	40 ~ 50년미만	24.8	7.4	14.7	2.7	29.3	13.1
	50년이상	29.0	16.9	11.1	1.0	37.7	16.2
매출유형	B2B	21.0	9.7	9.6	1.7	35.3	21.0
	B2C	17.4	12.0	4.9	0.5	40.4	15.9
	B2G	22.7	11.7	11.0	0.0	30.7	0.0
상장	상장	32.5	16.4	14.5	1.6	33.2	14.0
	비상장	16.6	8.1	7.1	1.4	36.9	21.3

[표 2-63] 주요 이직원인 : 1순위(계속)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3,366개사)

구분		자사 인원감축	복지수준 불만	계약만료/ 정년퇴직	업종변경	진학	기타
전체		5.7	5.4	5.3	2.7	1.3	3.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8	7.9	3.8	2.0	1.5	4.0
	피출자/관계기업	3.8	3.1	6.7	3.4	1.1	3.1
업종	제조업	6.3	7.8	2.6	1.8	1.3	4.8
	비제조업	5.3	3.7	7.3	3.3	1.3	2.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9.1	5.6	4.5	2.2	1.2	6.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6	2.1	7.5	3.7	1.1	2.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7	4.4	6.0	1.5	1.2	2.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4	8.0	4.2	3.3	0.6	4.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0.9	9.8	2.5	2.5	1.7	6.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7	6.5	3.7	0.9	1.8	1.8
	5천억원 ~ 1조원미만	7.2	11.7	0.0	1.5	1.5	4.3
	1조원이상	12.4	6.2	6.7	0.0	6.2	6.2
수출여부	수출있음	8.2	6.0	3.2	2.4	1.3	2.9
	수출없음	4.3	5.1	6.5	2.9	1.3	3.9
종사자수	50명미만	5.9	3.6	4.8	2.1	1.8	2.9
	50 ~ 100명미만	3.4	2.5	6.9	3.2	0.0	4.5
	100 ~ 200명미만	7.3	7.6	3.6	3.4	1.6	1.5
	200 ~ 300명미만	5.8	5.5	4.5	3.2	1.5	5.6
	300 ~ 500명미만	7.0	8.6	9.0	3.2	0.6	2.5
	500 ~ 1,000명미만	5.8	7.6	2.8	0.8	0.8	4.6
	1,000명이상	4.8	7.2	4.9	3.4	4.7	6.2
업력	0 ~ 7년미만	4.6	4.4	3.1	2.3	0.0	7.3
	7 ~ 20년미만	4.7	3.7	4.7	3.9	1.7	3.5
	20 ~ 30년미만	6.6	4.5	4.3	2.5	0.9	4.6
	30 ~ 40년미만	6.9	6.0	5.0	3.1	2.3	4.4
	40 ~ 50년미만	8.2	12.7	10.4	0.0	0.6	0.9
	50년이상	4.3	6.3	5.5	0.0	0.0	1.0
매출유형	B2B	5.6	5.5	4.7	2.2	1.3	3.4
	B2C	5.3	4.0	5.1	5.8	1.6	4.5
	B2G	12.2	12.0	20.2	0.0	0.0	2.2
상장	상장	6.4	6.8	3.4	1.2	0.7	1.8
	비상장	5.5	5.0	5.9	3.2	1.5	4.1

[표 2-64]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3,366개사)

구분		계	타 기업 스카우트			개인사정	낮은 임금 수준
			중견기업 스카우트	대기업 스카우트	중소기업 스카우트		
전체		35.6	18.8	12.5	4.3	44.2	26.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8.5	26.4	17.3	4.8	35.3	26.7
	피출자/관계기업	23.1	11.4	7.8	3.9	52.8	27.1
업종	제조업	40.7	21.5	14.4	4.8	44.0	24.0
	비제조업	31.8	16.8	11.0	4.0	44.3	29.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7.9	7.3	7.9	2.7	54.8	19.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21.2	10.8	6.7	3.7	50.8	30.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4.0	18.8	9.9	5.3	50.1	26.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6.5	24.1	16.4	6.0	34.0	28.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7.8	27.7	13.8	6.3	30.4	22.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64.1	37.1	22.4	4.6	41.7	26.7
	5천억원 ~ 1조원미만	59.4	29.0	30.4	0.0	36.3	17.4
	1조원이상	28.3	8.7	19.6	0.0	44.0	21.6
수출여부	수출있음	46.3	23.0	17.8	5.5	39.9	24.6
	수출없음	29.2	16.3	9.3	3.6	46.7	28.3
종사자수	50명미만	22.6	11.0	6.7	4.9	54.9	22.9
	50 ~ 100명미만	25.0	15.1	7.0	2.9	45.6	28.2
	100 ~ 200명미만	41.7	19.0	15.1	7.6	38.9	30.2
	200 ~ 300명미만	39.5	26.6	10.2	2.7	44.5	30.2
	300 ~ 500명미만	49.2	24.1	19.6	5.5	30.9	27.8
	500 ~ 1,000명미만	53.2	30.0	20.8	2.4	38.0	24.1
	1,000명이상	50.3	22.9	27.4	0.0	41.5	27.8
업력	0 ~ 7년미만	30.2	25.6	4.6	0.0	62.1	22.9
	7 ~ 20년미만	30.0	15.6	10.3	4.1	45.4	30.5
	20 ~ 30년미만	37.0	20.7	11.9	4.4	44.0	24.0
	30 ~ 40년미만	32.8	16.9	9.9	6.0	38.6	26.5
	40 ~ 50년미만	49.6	18.9	25.3	5.4	38.0	21.9
	50년이상	51.3	30.7	16.9	3.7	45.2	25.0
매출유형	B2B	36.9	18.9	13.2	4.8	43.5	28.2
	B2C	27.5	16.6	7.9	3.0	49.4	23.6
	B2G	41.7	26.2	15.5	0.0	35.7	9.3
상장	상장	53.5	27.9	20.7	4.9	40.8	25.4
	비상장	29.8	15.9	9.8	4.1	45.2	27.4

[표 2-65]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계속)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3,366개사)

구분		복지수준 불만	자사 인원감축	계약만료/ 정년퇴직	진학	업종변경	기타
전체		18.2	9.2	5.7	4.1	3.4	5.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1.5	11.7	4.7	5.2	2.5	5.8
	피출자/관계기업	14.9	6.7	6.7	3.1	4.2	4.3
업종	제조업	19.8	9.6	3.4	5.6	3.2	6.5
	비제조업	17.0	8.9	7.4	3.0	3.5	3.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2.4	13.5	4.5	1.2	2.2	6.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5.4	6.9	7.5	3.7	4.8	4.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5.2	7.9	6.0	2.9	1.5	3.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22.8	10.2	4.2	4.8	4.0	7.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5.3	16.9	4.4	4.6	3.5	7.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5.8	5.6	5.6	5.5	0.9	3.6
	5천억원 ~ 1조원미만	26.1	7.2	1.5	4.4	1.5	4.3
	1조원이상	18.2	12.4	6.7	12.9	2.9	9.1
수출여부	수출있음	18.3	11.8	4.1	5.4	3.8	4.7
	수출없음	18.1	7.6	6.6	3.3	3.1	5.2
종사자수	50명미만	10.8	9.5	4.8	5.2	2.5	2.9
	50 ~ 100명미만	21.0	7.0	6.9	0.9	3.2	5.8
	100 ~ 200명미만	23.8	10.1	3.6	3.5	5.3	2.9
	200 ~ 300명미만	14.4	12.4	5.2	2.2	3.2	9.1
	300 ~ 500명미만	23.6	9.8	9.0	2.1	4.2	6.6
	500 ~ 1,000명미만	22.1	8.0	6.4	8.0	1.8	5.4
	1,000명이상	15.4	6.4	4.9	14.6	3.4	7.7
업력	0 ~ 7년미만	14.2	4.6	5.0	2.9	2.3	7.3
	7 ~ 20년미만	16.2	8.3	4.7	4.5	4.1	4.8
	20 ~ 30년미만	20.6	8.8	4.3	2.9	3.1	5.2
	30 ~ 40년미만	18.1	12.6	5.0	7.5	4.9	7.7
	40 ~ 50년미만	22.4	12.5	11.9	1.8	0.0	2.4
	50년이상	19.5	6.6	7.5	3.2	2.8	3.4
매출유형	B2B	18.5	9.2	5.2	4.3	3.0	4.9
	B2C	15.0	7.6	5.1	3.8	5.8	6.1
	B2G	26.7	15.6	20.2	0.0	0.0	2.2
상장	상장	18.4	10.3	4.8	5.2	1.6	3.7
	비상장	18.2	8.8	6.0	3.8	3.9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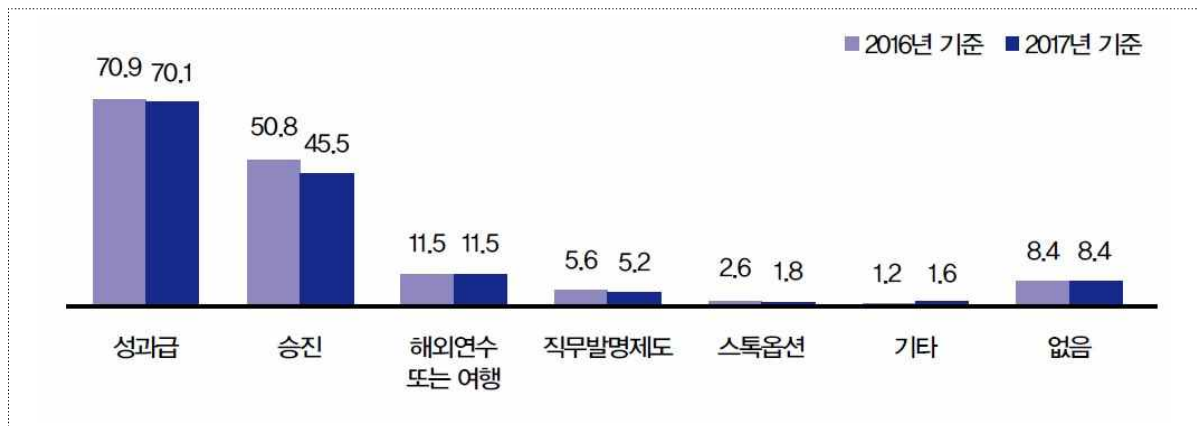
2. 직원 복지

□ 성과보상 제도

- 중견기업의 성과보상 제도는 성과급(70.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승진(45.5%), 해외연수 또는 여행(11.5%), 직무 발명제도(5.2%)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성과급(70.9%), 승진(50.8%), 해외연수 또는 여행(11.5%)등의 순임

[그림 2-42] 성과보상 제도

(단위: %, 중복응답)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성과급(70.3%), 승진(54.5%), 해외연수 또는 여행(15.3%), 직무 발명제도(6.8%) 순임
- 제조업의 경우 성과급(72.3%), 승진(49.5%), 해외연수/여행(12.1%), 직무발명제도 (9.0%)로 조사됨
-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인력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성과보상 제도는 성과급과 승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이 성과보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반면, 비제조업, 내수기업, 비상장기업은 성과보상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조사됨

[표 2-66] 성과보상 제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성과급	승진	해외연수 /여행	직무발명 제도	스톡옵션	기타	없음
전체		(4,014)	70.1	45.5	11.5	5.2	1.8	1.6	8.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70.3	54.5	15.3	6.8	2.9	2.0	6.0
	피출자/관계기업	(2,219)	69.9	38.2	8.5	4.0	0.9	1.2	10.3
업종	제조업	(1,552)	72.3	49.5	12.1	9.0	2.5	0.7	8.3
	비제조업	(2,462)	68.7	42.9	11.2	2.8	1.3	2.1	8.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57.4	38.6	6.5	4.2	0.6	0.0	20.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70.9	36.8	8.3	3.2	1.2	1.8	9.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70.1	45.9	12.2	5.5	1.4	0.5	7.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69.6	56.0	11.1	6.1	3.3	2.7	4.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73.4	50.6	16.4	11.3	1.7	0.8	4.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73.5	56.9	19.4	6.3	2.7	1.8	6.1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83.5	54.0	25.0	5.6	2.8	4.2	0.0
	1조원이상	(89)	70.2	66.5	19.0	6.5	3.2	0.0	2.8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73.8	50.9	13.4	10.5	4.0	1.1	4.8
	수출없음	(2,706)	68.3	42.8	10.6	2.7	0.7	1.8	10.1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67.2	36.7	9.5	3.0	0.2	2.0	13.8
	50 ~ 100명미만	(686)	68.7	44.2	8.4	4.9	1.3	0.0	7.3
	100 ~ 200명미만	(608)	74.2	46.8	8.1	4.0	2.7	1.9	4.2
	200 ~ 300명미만	(387)	71.2	56.4	19.4	5.0	2.7	1.0	5.4
	300 ~ 500명미만	(397)	70.1	54.0	13.4	8.9	2.1	1.2	3.7
	500 ~ 1,000명미만	(326)	75.9	57.9	15.5	13.6	4.2	3.4	4.4
	1,000명이상	(168)	71.8	50.9	23.8	6.3	6.7	1.6	6.8
업력	0 ~ 7년미만	(617)	67.3	38.5	9.4	5.5	0.8	0.9	15.1
	7 ~ 20년미만	(1,644)	70.2	40.8	9.5	5.2	2.1	1.3	9.1
	20 ~ 30년미만	(679)	71.5	46.5	14.1	4.2	1.0	1.9	5.0
	30 ~ 40년미만	(459)	68.5	53.2	10.7	6.4	1.2	1.7	8.2
	40 ~ 50년미만	(340)	70.3	50.4	16.0	4.5	1.2	2.1	6.1
	50년이상	(275)	70.5	57.1	14.5	6.8	4.8	2.0	8.9
매출유형	B2B	(3,223)	72.9	44.0	10.9	6.0	1.7	1.4	7.4
	B2C	(650)	58.8	50.7	14.3	2.0	2.5	2.3	13.3
	B2G	(141)	57.3	54.8	13.7	2.6	0.0	1.7	6.4
상장	상장	(757)	80.0	53.4	20.5	10.1	4.5	1.1	2.5
	비상장	(3,257)	67.3	43.3	9.1	3.9	1.0	1.7	10.0

7절 국제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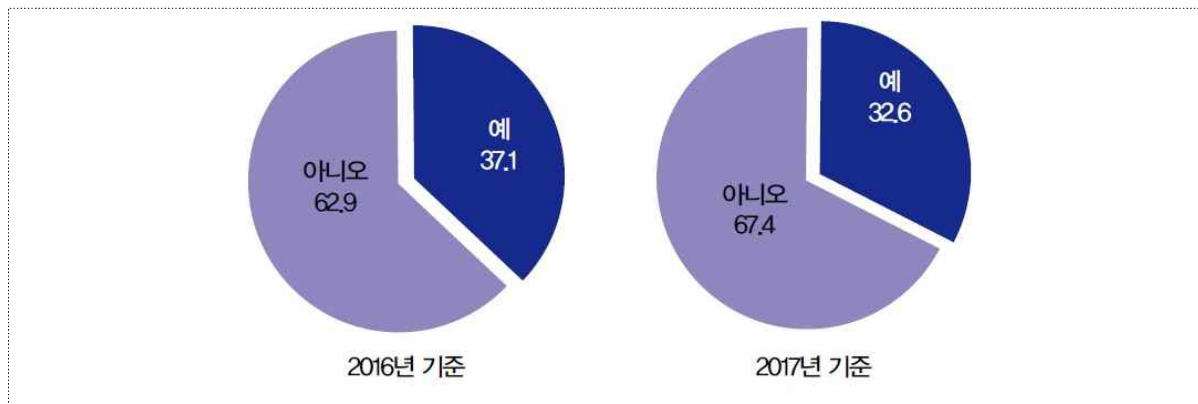
1. 수출

□ 해외수출

- 중견기업 전체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2.6%⁵⁾이며, 내수기업은 67.4%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7.1%이며, 내수기업은 62.9%로 나타남

[그림 2-43] 해외 수출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51.1%, 피출자/관계기업의 17.6%가 수출실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피출자/관계기업보다 일반 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65.1%, 비제조업의 12.1%가 수출실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제조업의 수출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수출 실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매출유형별로는 B2B기업이 37.7%로 수출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B2G기업이 27.4%, B2C기업이 8.5%로 나타나 거래처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5) 기업특성별 무역통계(2017) 상 중견기업 수출 비중 : 41%

[표 2-67] 해외 수출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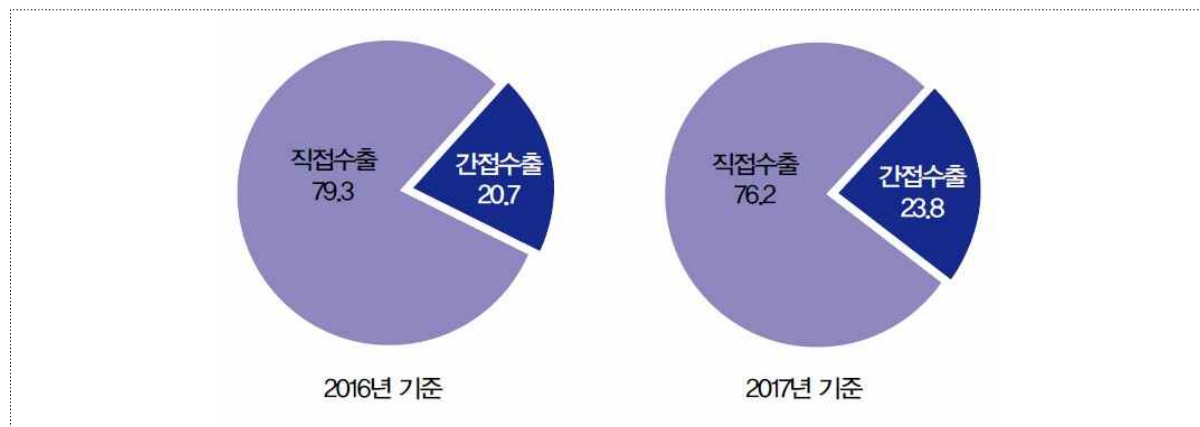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4,014)	32.6	67.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51.1	48.9
	피출자/관계기업	(2,219)	17.6	82.4
업종	제조업	(1,552)	65.1	34.9
	비제조업	(2,462)	12.1	87.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8.3	91.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13.9	86.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37.9	62.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51.5	48.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59.6	40.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53.1	46.9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54.5	45.5
	1조원이상	(89)	71.5	28.5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100.0	0.0
	수출없음	(2,706)	0.0	100.0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10.9	89.1
	50 ~ 100명미만	(686)	22.5	77.5
	100 ~ 200명미만	(608)	40.3	59.7
	200 ~ 300명미만	(387)	51.9	48.1
	300 ~ 500명미만	(397)	54.2	45.8
	500 ~ 1,000명미만	(326)	71.6	28.4
	1,000명이상	(168)	61.0	39.0
업력	0 ~ 7년미만	(617)	14.7	85.3
	7 ~ 20년미만	(1,644)	24.5	75.5
	20 ~ 30년미만	(679)	32.6	67.4
	30 ~ 40년미만	(459)	45.2	54.8
	40 ~ 50년미만	(340)	47.7	52.3
	50년이상	(275)	55.9	44.1
매출유형	B2B	(3,223)	37.7	62.3
	B2C	(650)	8.5	91.5
	B2G	(141)	27.4	72.6
상장	상장	(757)	62.7	37.3
	비상장	(3,257)	24.3	75.7

□ 직/간접수출 비중

- 전체 수출 중견기업 중 직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76.2%,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23.8%로 직접수출 비중이 간접수출 비중의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직접수출을 하는 중견기업은 79.3%, 간접수출은 20.7%로 조사됨

[그림 2-44] 직/간접수출 비중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 중 직접수출기업은 76.0%인 반면, 피출자/관계기업은 82.3%로 나타나 피출자/관계기업의 직접수출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제조업 수출기업은 74.9%가 직접수출을 하고, 25.1%가 간접수출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제조업 수출기업은 84.4%가 직접수출을 하고, 15.6%가 간접수출을 한다고 응답함
- 매출규모별로는 1백억원 미만 기업의 직접수출이 96.5%로 타 매출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3천억원~5천억원 미만 기업의 직접수출은 70.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 거래처별로는 B2C기업의 99.1%가 직접수출을 하여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B2B기업은 간접수출이 24.6%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68] 직/간접수출 비중

(단위 : %, 수출기업 1,30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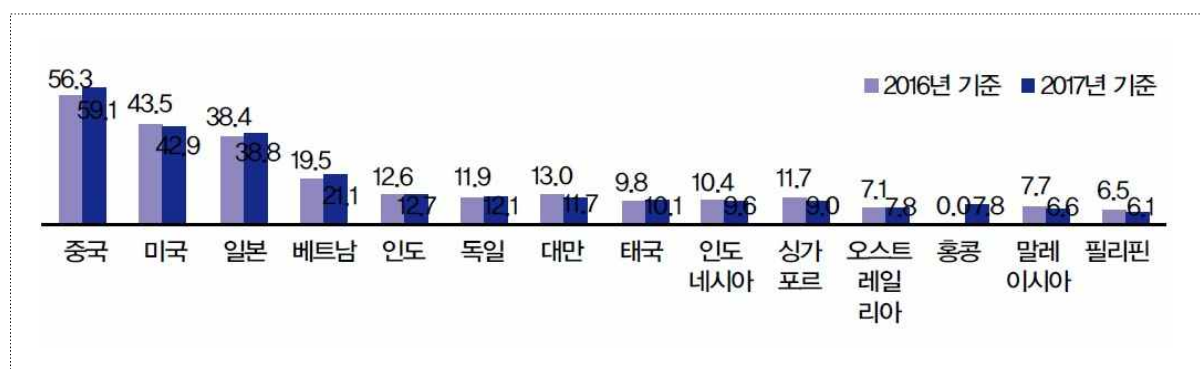
구분		직접수출	간접수출
전체		76.2	23.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6.0	24.0
	피출자/관계기업	82.3	17.7
업종	제조업	74.9	25.1
	비제조업	84.4	15.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96.5	3.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88.1	11.9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5.1	24.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5.7	24.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77.9	22.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0.0	30.0
	5천억원 ~ 1조원미만	84.7	15.3
	1조원이상	73.1	26.9
수출여부	수출있음	76.2	23.8
	수출없음	-	-
종사자수	50명미만	68.9	31.1
	50 ~ 100명미만	77.2	22.8
	100 ~ 200명미만	72.6	27.4
	200 ~ 300명미만	70.8	29.2
	300 ~ 500명미만	87.6	12.4
	500 ~ 1,000명미만	71.7	28.3
	1,000명이상	77.5	22.5
업력	0 ~ 7년미만	87.6	12.4
	7 ~ 20년미만	81.4	18.6
	20 ~ 30년미만	75.6	24.4
	30 ~ 40년미만	80.5	19.5
	40 ~ 50년미만	60.4	39.6
	50년이상	79.3	20.7
매출유형	B2B	75.4	24.6
	B2C	99.1	0.9
	B2G	98.9	1.1
상장	상장	76.9	23.1
	비상장	75.0	25.0

□ 주요 수출지역 및 금액

- 중견기업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수출 지역으로는 중국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42.9%), 일본(38.8%), 베트남(21.1%), 인도(12.7%), 독일(12.1%), 대만(11.7%), 태국(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중국(56.3%), 미국(43.5%), 일본(3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5]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

(단위: %, 수출기업, 중복응답)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중국(62.0%), 미국(47.0%), 일본(40.9%), 베트남(2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별로는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미국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은 중국(61.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국(43.5%), 일본(39.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가 주 거래처인 B2C기업은 미국(53.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국(51.1%), 홍콩(37.4%)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기업에 비해 홍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B2G기업은 일본(38.7%), 베트남(35.1%), 홍콩(23.0%), 인도네시아(13.3%)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요 수출국가가 타 기업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

[표 2-69]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

(단위 : %, 수출기업 1,308개사, 중복응답)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	독일	대만
전체		59.1	42.9	38.8	21.1	12.7	12.1	11.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2.0	47.0	40.9	23.2	13.0	14.4	14.6
	피출자/관계기업	52.5	33.3	33.9	16.2	12.0	6.5	5.2
업종	제조업	61.3	48.8	42.5	18.5	15.2	14.4	13.4
	비제조업	51.9	22.7	26.2	30.0	4.3	4.2	6.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2.3	22.3	14.1	0.0	0.0	7.4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7.1	28.9	37.4	15.8	6.2	8.2	9.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1.6	37.1	36.1	23.3	19.6	1.6	2.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5.4	46.4	43.7	22.3	16.8	17.1	15.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57.7	32.9	38.3	27.0	8.9	13.5	20.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1.0	52.9	39.0	20.2	6.8	15.4	10.1
	5천억원 ~ 1조원미만	71.8	71.9	41.1	25.6	23.2	12.9	7.7
	1조원이상	52.0	65.6	35.6	12.4	8.5	17.5	13.0
수출여부	수출있음	59.1	42.9	38.8	21.1	12.7	12.1	11.7
	수출없음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44.8	18.9	31.0	17.4	6.8	4.4	9.9
	50 ~ 100명미만	52.8	35.4	25.4	15.2	10.0	12.4	0.0
	100 ~ 200명미만	71.8	34.7	40.9	17.3	15.6	6.7	9.7
	200 ~ 300명미만	56.3	42.4	43.7	29.0	16.4	3.0	24.7
	300 ~ 500명미만	64.3	50.8	50.8	25.4	16.9	23.5	17.5
	500 ~ 1,000명미만	61.1	57.4	39.5	17.7	8.2	15.5	9.3
	1,000명이상	50.7	61.5	29.3	28.0	13.1	21.8	5.2
업력	0 ~ 7년미만	59.5	58.9	48.1	5.9	8.8	12.5	5.4
	7 ~ 20년미만	50.8	27.2	37.0	23.2	11.2	8.5	14.1
	20 ~ 30년미만	64.0	47.0	31.1	16.4	16.6	7.2	14.3
	30 ~ 40년미만	76.1	46.7	39.2	28.1	15.8	11.8	7.6
	40 ~ 50년미만	61.8	57.2	52.0	13.1	9.0	24.3	13.3
	50년이상	46.6	51.3	36.0	25.9	12.1	14.5	7.6
매출유형	B2B	61.1	43.5	39.7	20.8	13.4	12.7	12.2
	B2C	51.1	53.9	18.0	17.0	0.0	5.9	10.3
	B2G	9.4	9.4	38.7	35.1	9.4	0.0	0.0
상장	상장	63.7	53.8	44.1	24.1	13.6	17.2	13.6
	비상장	55.9	35.1	35.0	19.0	12.1	8.4	10.4

[표 2-70]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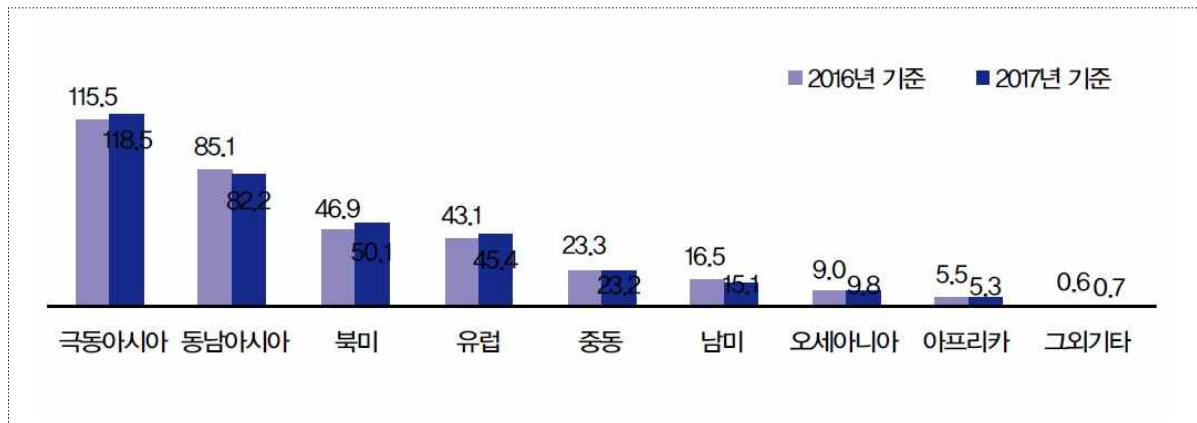
(단위 : %, 수출기업 1,308개사, 중복응답)

구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전체		10.1	9.6	9.0	7.8	7.8	6.6	6.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1.5	10.5	8.3	10.1	7.6	7.2	7.2
	피출자/관계기업	7.1	7.4	10.7	2.5	8.0	5.3	3.7
업종	제조업	12.1	8.6	7.8	8.2	6.2	7.3	4.4
	비제조업	3.5	12.9	13.1	6.4	13.0	4.2	12.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21.5	0.0	14.1	21.5	7.4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5	8.2	11.7	0.0	8.4	2.1	4.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8	7.4	6.4	6.4	3.2	4.4	3.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4.7	9.4	9.7	11.6	9.4	7.4	4.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7.1	15.3	7.4	7.7	7.1	10.5	9.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3.6	10.1	6.6	8.5	8.3	8.4	10.1
	5천억원 ~ 1조원미만	12.9	5.0	0.0	15.5	10.2	2.5	10.2
	1조원이상	13.6	13.0	20.9	8.5	3.9	4.5	3.9
수출여부	수출있음	10.1	9.6	9.0	7.8	7.8	6.6	6.1
	수출없음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4.4	9.2	22.0	2.3	13.4	6.2	5.1
	50 ~ 100명미만	11.0	9.8	5.2	3.5	6.8	7.4	7.7
	100 ~ 200명미만	12.9	7.3	7.8	12.5	6.9	5.5	5.2
	200 ~ 300명미만	14.3	13.0	9.7	3.5	9.6	8.0	1.3
	300 ~ 500명미만	9.4	12.7	7.4	12.5	7.3	10.4	4.2
	500 ~ 1,000명미만	8.7	5.9	6.4	11.1	3.5	3.5	10.0
	1,000명이상	7.5	10.0	5.2	2.4	9.4	5.1	12.4
업력	0 ~ 7년미만	12.7	9.8	0.0	0.0	5.6	5.4	0.0
	7 ~ 20년미만	7.2	6.3	15.0	4.2	8.4	6.1	5.5
	20 ~ 30년미만	6.8	9.7	5.3	8.3	2.5	11.0	6.9
	30 ~ 40년미만	18.5	11.7	6.4	6.3	10.2	9.0	6.0
	40 ~ 50년미만	12.1	8.0	9.8	9.0	5.8	2.7	4.6
	50년이상	7.8	16.4	3.7	19.2	13.0	3.1	10.4
매출유형	B2B	10.6	8.9	9.2	7.7	5.9	6.5	5.7
	B2C	6.9	20.3	5.6	15.9	37.4	13.3	14.8
	B2G	0.0	13.3	6.5	0.0	23.0	0.0	6.3
상장	상장	11.2	8.6	8.4	8.7	8.8	7.3	5.8
	비상장	9.4	10.3	9.4	7.2	7.0	6.2	6.4

- 중견기업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수출 대륙으로는 극동아시아가 11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82.2%), 북미(50.1%), 유럽(45.4%), 중동(2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동일하게 극동아시아(115.5%), 동남아시아(85.1%), 북미(4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6] 주요수출 대륙 1+2+3+4+5순위

(단위: %, 수출기업, 중복응답)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극동아시아(125.6%), 동남아시아(89.2%), 북미(53.7%), 유럽(4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출자/관계기업의 경우도 극동아시아(101.8%), 동남아시아(65.8%), 북미(41.6%), 유럽(36.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음
- 종사자수별로는 1,000명 미만의 기업은 극동아시아가 가장 높은 반면, 1,000명 이상의 기업은 동남아시아(99.1%) 수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B2B기업과 B2C기업은 극동아시아가 각각 120.1%와 116.1%로 주요 수출 대륙인 반면, B2G기업은 동남아시아(123.9%)가 상대적으로 높음
- B2G기업은 타 매출유형 기업에 비해 아프리카(25.4%)의 비율이 높아 B2B기업이나 B2C기업과는 주요 수출대륙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

[표 2-71] 주요수출 대륙 1+2+3+4+5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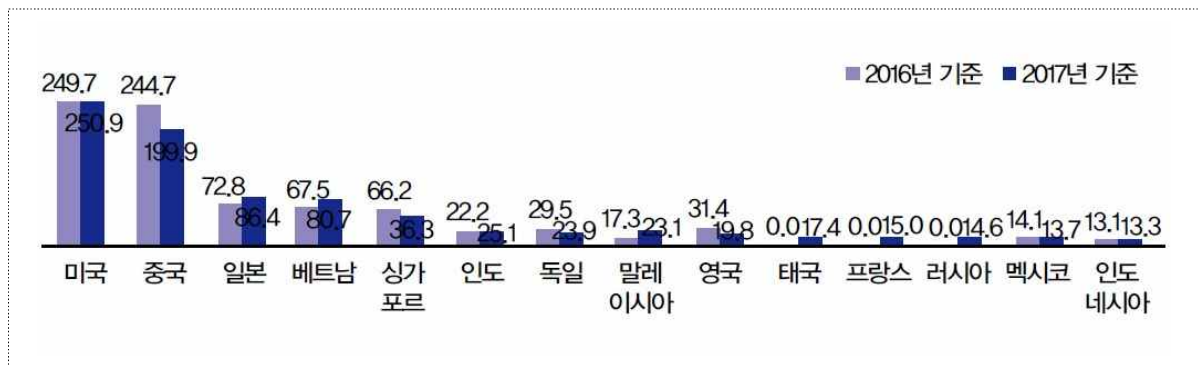
(단위 : %, 수출기업 1,308개사, 중복응답)

구분		극동 아시아	동남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남미	오세 아니아	아프 리카	그 외 기타
전체		118.5	82.2	50.1	45.4	23.2	15.1	9.8	5.3	0.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25.6	89.2	53.7	49.2	25.6	17.6	12.6	6.9	1.0
	피출자/관계기업	101.8	65.8	41.6	36.7	17.6	9.2	3.2	1.5	0.0
업종	제조업	123.6	79.3	55.0	51.2	20.6	17.2	9.8	5.0	0.7
	비제조업	101.0	92.3	33.3	25.7	32.2	8.0	9.7	6.3	0.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0.5	50.5	29.0	22.3	0.0	0.0	0.0	0.0	5.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06.7	55.7	47.3	35.3	18.8	8.4	0.0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15.1	75.7	27.6	37.1	17.8	14.4	6.4	4.3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33.9	95.4	53.9	46.4	30.2	15.2	14.5	9.4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23.7	93.6	45.4	37.5	24.2	10.5	9.2	4.6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10.1	85.7	61.2	54.6	23.7	23.8	11.9	8.5	3.3
	5천억원 ~ 1조원미만	130.9	87.1	54.0	77.0	15.4	28.3	18.0	2.6	2.6
	1조원이상	104.5	80.7	101.2	70.1	35.0	22.1	16.9	3.9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5	82.2	50.1	45.4	23.2	15.1	9.8	5.3	0.7
	수출없음	-	-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100.9	76.0	37.4	18.9	22.1	8.0	2.3	4.0	0.0
	50 ~ 100명미만	90.8	68.4	45.0	35.4	17.2	0.0	5.3	0.0	1.3
	100 ~ 200명미만	129.3	78.1	36.3	38.4	21.6	19.6	14.0	8.1	0.0
	200 ~ 300명미만	134.2	97.1	52.8	44.6	30.6	20.0	4.8	3.8	0.0
	300 ~ 500명미만	139.9	90.4	50.4	56.2	23.8	10.9	14.0	8.1	1.1
	500 ~ 1,000명미만	114.6	72.3	63.7	59.8	15.8	24.2	14.8	3.3	1.1
	1,000명이상	94.7	99.1	72.6	64.3	38.8	16.1	7.7	9.5	2.3
업력	0 ~ 7년미만	118.5	50.1	65.4	76.9	41.3	12.5	0.0	5.9	0.0
	7 ~ 20년미만	112.4	77.8	49.5	30.0	16.7	11.5	5.4	2.7	0.0
	20 ~ 30년미만	113.1	76.9	45.1	48.8	31.7	21.3	8.3	8.7	1.0
	30 ~ 40년미만	133.2	104.5	34.7	48.1	19.5	16.5	6.3	2.8	0.9
	40 ~ 50년미만	132.9	66.7	69.5	57.2	24.4	16.6	12.6	1.6	0.0
	50년이상	104.9	96.5	53.9	54.8	26.8	12.1	27.6	14.4	3.0
매출유형	B2B	120.1	80.0	51.1	45.7	23.3	16.0	9.3	4.6	0.6
	B2C	116.9	102.1	19.2	65.7	32.9	0.0	15.9	4.6	4.4
	B2G	71.2	123.9	62.0	9.4	6.1	6.3	15.9	25.4	0.0
상장	상장	130.7	90.6	58.8	56.5	25.3	13.2	11.8	5.0	1.4
	비상장	109.8	76.2	43.8	37.5	21.7	16.4	8.4	5.5	0.3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전체 수출금액은 980억불이며, 수출한 국가는 미국(250.8억불), 중국(199.9억불), 일본(86.3억불), 베트남(80.6억불)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미국 19,385.2천불, 중국 15,448.6천불, 일본 6,673.5천불, 베트남 6,234.6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미국(249.7억불), 중국(244.7억불), 일본(72.8억불)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47] 주요수출 국가별 총수출금액(상위 14개)

(단위: 억불, 수출기업)



[표 2-72] 주요수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단위 : 천불, %, 수출기업 1,30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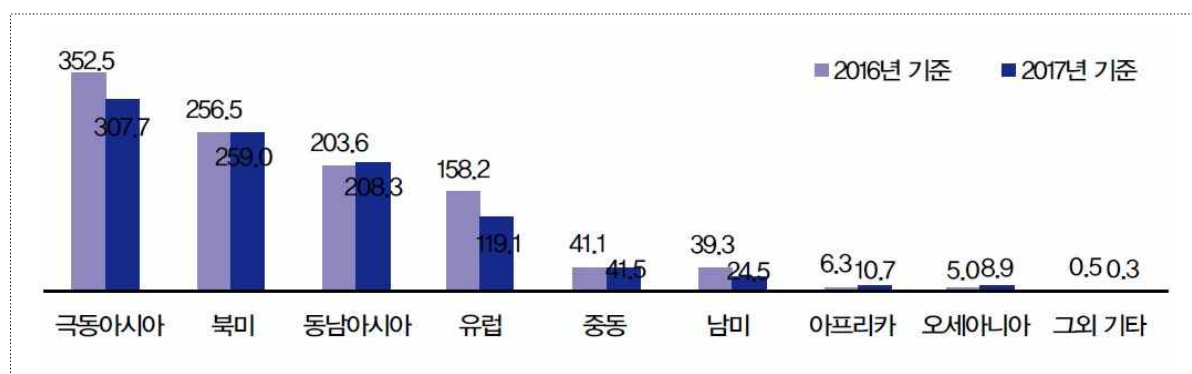
구 분	지역별 수출금액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98,004,372	100.0	75,722.2
미국	25,089,473	22.0	19,385.2
중국	19,994,491	17.5	15,448.6
일본	8,637,221	7.6	6,673.5
베트남	8,069,178	7.1	6,234.6
싱가포르	3,628,337	3.2	2,803.4
인도	2,505,270	2.2	1,935.7
독일	2,386,931	2.1	1,844.2
말레이시아	2,306,029	2.0	1,781.7
영국	1,984,295	1.7	1,533.1
태국	1,738,019	1.5	1,342.9
프랑스	1,499,305	1.3	1,158.4
러시아	1,464,459	1.3	1,131.5
멕시코	1,374,773	1.2	1,062.2
인도네시아	1,330,127	1.2	1,027.7
그 외 국가	15,996,464	14.0	12359.5

※ 그 외 국가 : 82개 국가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대륙별 수출금액은 극동아시아(307.7억불), 북미(259.0억불), 동남아시아(208.3억불), 유럽(119.1억불)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극동아시아 23,774.4천불, 북미 20,012.8천불, 동남아시아 16,094.0천불, 유럽 9,200.1천불, 중동 3,209.6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극동아시아(352.5억불), 북미(256.5억불), 동남아시아(203.6억불)의 순임

[그림 2-48] 주요수출 대륙별 총수출금액

(단위: 억불, 수출기업)



[표 2-73] 주요수출 대륙별 수출금액

(단위 : 천불, %, 수출기업 1,308개사)

구 분	지역별 수출금액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98,004,372	100.0	75,722.2
극동아시아	30,770,284	31.7	23,774.4
북미	25,901,761	26.7	20,012.8
동남아시아	20,829,808	21.5	16,094.0
유럽	11,907,309	12.3	9,200.1
중동	4,154,087	4.3	3,209.6
남미	2,447,385	2.5	1,890.9
아프리카	1,068,612	1.1	825.7
오세아니아	894,655	0.9	691.2
그외 기타	30,470	0.0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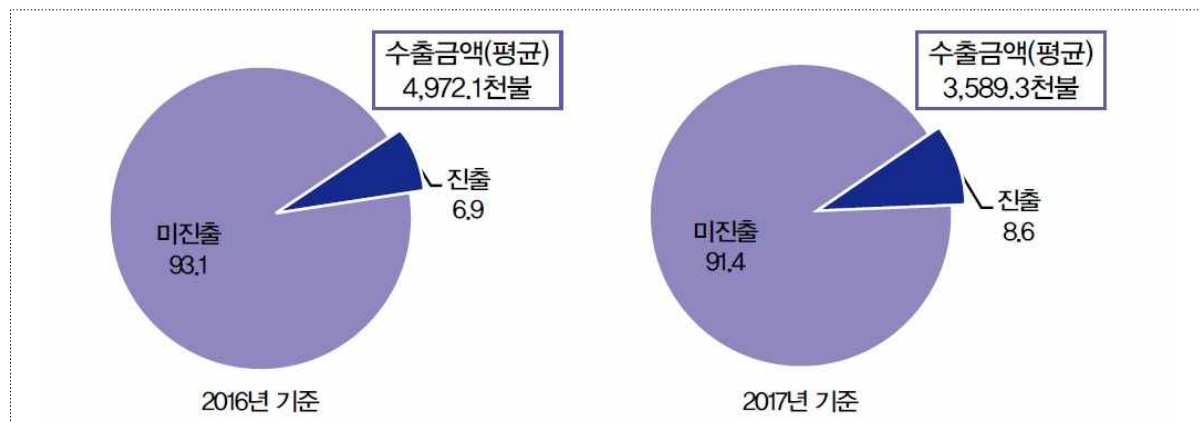
※ 그 외 기타 : 응답자가 기타로 응답

□ 해외 신규 진출

- 수출 중견기업 중 2017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8.6%이며, 이들의 평균 수출금액은 3,589.3천불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6.9%, 수출금액(평균)은 4,972.1천불임

[그림 2-49] 신규 진출 여부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 중 2017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9.2%이며, 이들의 평균 수출금액은 4,807.8천불로 나타나, 피출자/관계기업보다 신규 진출 기업이 많으며, 수출금액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 2017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8.4%, 이들의 평균 수출금액은 4,723.4천불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9.4%(237.9천불)로 조사되어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약 20배 높은 수출금액을 보임
- B2C, B2G기업의 신규 진출 평균 수출금액이 464.1천불, 270.0천불에 불과한 반면, B2B기업의 신규 진출 평균 수출금액은 3,932.9천불로 매출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

[표 2-74] 신규 진출 여부

(단위: %, 천불, 개, 수출기업 1,30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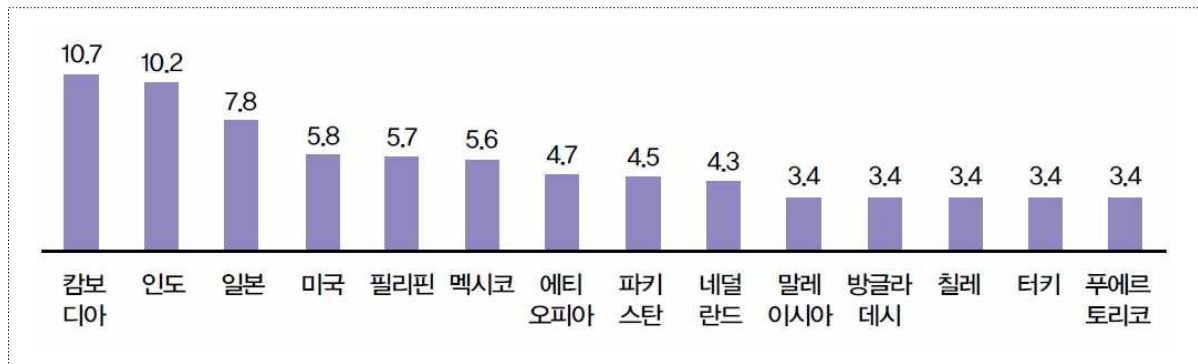
구분		미진출	진출	평균 수출금액
전체		91.4	8.6	3,589.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90.8	9.2	4,807.8
	피출자/관계기업	92.6	7.4	162.1
업종	제조업	91.6	8.4	4,723.4
	비제조업	90.6	9.4	237.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92.6	7.4	133.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7	6.3	114.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88.2	11.8	1,135.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7.0	13.0	3,560.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95.7	4.3	2,490.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98.3	1.7	-
	5천억원 ~ 1조원미만	84.5	15.5	12,651.7
	1조원이상	96.1	3.9	21.0
수출여부	수출있음	91.4	8.6	3,589.3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93.8	6.2	148.4
	50 ~ 100명미만	94.3	5.7	203.8
	100 ~ 200명미만	87.9	12.1	389.8
	200 ~ 300명미만	91.7	8.3	9,870.0
	300 ~ 500명미만	89.1	10.9	3,746.0
	500 ~ 1,000명미만	95.5	4.5	11,991.1
	1,000명이상	85.8	14.2	399.9
업력	0 ~ 7년미만	94.4	5.6	24,879.0
	7 ~ 20년미만	89.8	10.2	2,920.1
	20 ~ 30년미만	90.0	10.0	6,278.6
	30 ~ 40년미만	92.8	7.2	2,547.2
	40 ~ 50년미만	98.0	2.0	70.0
	50년이상	86.7	13.3	704.6
매출유형	B2B	91.6	8.4	3,932.9
	B2C	87.2	12.8	464.1
	B2G	90.6	9.4	270.0
상장	상장	92.9	7.1	4,025.5
	비상장	90.3	9.7	3,353.4

□ 신규 진출 지역

- 해외 수출기업의 신규 진출지역으로는 캄보디아가 1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도(10.2%), 일본(7.8%), 미국(5.87%), 필리핀(5.7%), 멕시코(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터키 1,262.6천불, 독일 1,091.9천불, 캄보디아 573.6천불, 미국 206.2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0] 신규 진출 국가(상위 14개)

(단위: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표 2-75] 신규 진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단위: 천불,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11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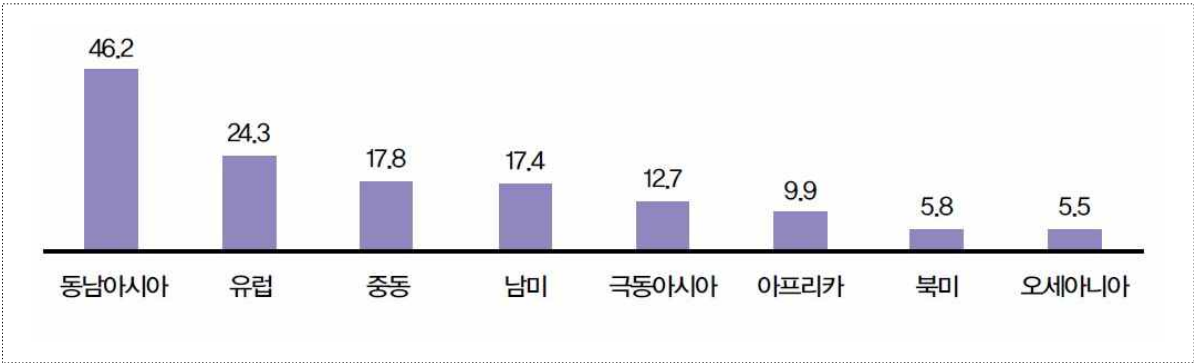
구 분	신규 진출 국가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396,881	100.0	3,589.3
터키	139,613	35.2	1,262.6
독일	120,732	30.4	1,091.9
캄보디아	63,422	16.0	573.6
미국	22,800	5.7	206.2
인도	13,826	3.5	125.0
멕시코	6,549	1.7	59.2
쿠바	6,540	1.6	59.1
베냉	6,540	1.6	59.1
우즈베키스탄	4,385	1.1	39.7
몰도바	2,037	0.5	18.4
레바논	2,031	0.5	18.4
중국	1,047	0.3	9.5
일본	1,011	0.3	9.1
스리랑카	982	0.2	8.9
그 외 국가	5,367	1.4	48.5

※ 그 외 국가 : 24개 국가

- 해외 수출기업의 신규 진출 대륙으로는 동남아시아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럽(24.3%), 중동(17.8%), 남미(17.4%), 극동아시아(12.7%), 아프리카(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중동 1,324.4천불, 유럽 1,129.1천불, 동남아시아 718.0천불, 북미 206.2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1] 신규 진출 대륙

(단위: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표 2-76] 신규 진출 대륙별 수출금액

(단위 : 천불,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111개사)

구 분	신규 진출 국가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396,881	100.0	3,589.3
중동	146,444	36.9	1,324.4
유럽	124,847	31.5	1,129.1
동남아시아	79,391	20.0	718.0
북미	22,800	5.7	206.2
남미	14,256	3.6	128.9
아프리카	6,648	1.7	60.1
극동아시아	2,070	0.5	18.7
오세아니아	423	0.1	3.8

※ 그 외 기타 : 응답자가 기타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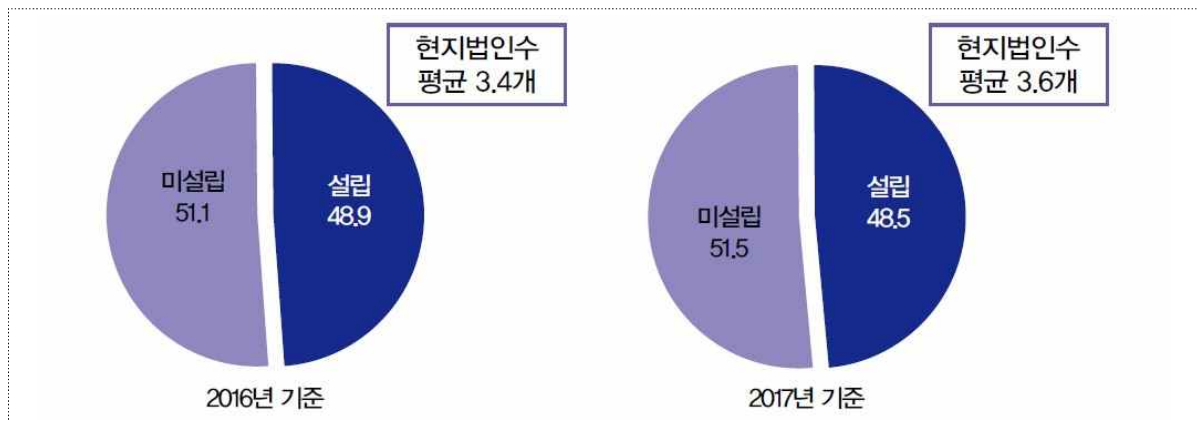
2. 현지법인

□ 현지법인 설립

- 수출기업 중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은 48.5%이며, 기업당 평균 3.6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현지법인 설립은 48.9%이며, 기업당 평균 3.4개로 조사됨

[그림 2-52] 현지법인 설립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수출기업 중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보유비율은 63.9%로 피출자/관계기업 12.3%에 비해 약 5배가량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해외 현지법인 수는 3.8개이며, 피출자/관계기업은 1.6개임
- 상장기업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 비율이 66.6%(평균 현지법인 수 4.2개)이며, 비상장기업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 비율 35.6%(평균 현지법인수 2.8개)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해외 현지법인 설립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평균 현지법인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2-77] 현지법인 설립

(단위: %, 천불, 개, 수출기업 1,308개사)

구분		미설립	설립	평균 법인수
전체		51.5	48.5	3.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6.1	63.9	3.8
	피출자/관계기업	87.7	12.3	1.6
업종	제조업	49.3	50.7	3.6
	비제조업	58.9	41.1	3.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00.0	0.0	-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83.3	16.7	1.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7.4	22.6	2.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4.0	56.0	2.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3.4	56.6	4.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0.7	69.3	3.5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82.1	4.3
	1조원이상	9.1	90.9	7.5
수출여부	수출있음	51.5	48.5	3.6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84.0	16.0	1.1
	50 ~ 100명미만	76.1	23.9	2.4
	100 ~ 200명미만	68.8	31.2	3.0
	200 ~ 300명미만	48.5	51.5	2.3
	300 ~ 500명미만	28.9	71.1	3.3
	500 ~ 1,000명미만	33.1	66.9	3.9
	1,000명이상	19.0	81.0	6.9
업력	0 ~ 7년미만	36.5	63.5	6.5
	7 ~ 20년미만	67.0	33.0	3.1
	20 ~ 30년미만	52.4	47.6	2.7
	30 ~ 40년미만	46.2	53.8	4.1
	40 ~ 50년미만	29.2	70.8	3.9
	50년이상	47.5	52.5	3.4
매출유형	B2B	51.4	48.6	3.6
	B2C	43.2	56.8	4.0
	B2G	65.4	34.6	1.2
상장	상장	33.4	66.6	4.2
	비상장	64.4	35.6	2.8

□ 현지법인 설립 국가

- 수출 중견기업의 현지법인은 총 2,286개이며, 기업당 평균 3.60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812개(평균 1.28개), 미국 316개(평균 0.50개), 베트남 241개(평균 0.38개) 순으로 나타남
- 대륙별로 살펴보면, 극동아시아 965개(평균 1.52개), 동남아시아 551개(평균 0.87개), 북미 325개(평균 0.51개) 순으로 나타남

[표 2-78] 진출 국가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상위 14개)

(단위 : 개사, %, 현지법인 설립기업 634개사, 중복응답)

구 분	전체		평균 현지법인 수
	현지법인 수	비중	
전체	2,286	100.0	3.60
중국	812	35.5	1.28
미국	316	13.8	0.50
베트남	241	10.6	0.38
인도	103	4.5	0.16
일본	73	3.2	0.11
인도네시아	64	2.8	0.10
독일	64	2.8	0.10
멕시코	47	2.1	0.07
싱가포르	42	1.8	0.07
홍콩	36	1.6	0.06
필리핀	27	1.2	0.04
러시아	27	1.2	0.04
슬로바키아	26	1.2	0.04
폴란드	26	1.1	0.04
그 외 국가	381	16.7	0.60

※ 그 외 국가 : 42개 국가

[표 2-79] 진출 대륙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

(단위 : 개사, %, 현지법인 설립기업 634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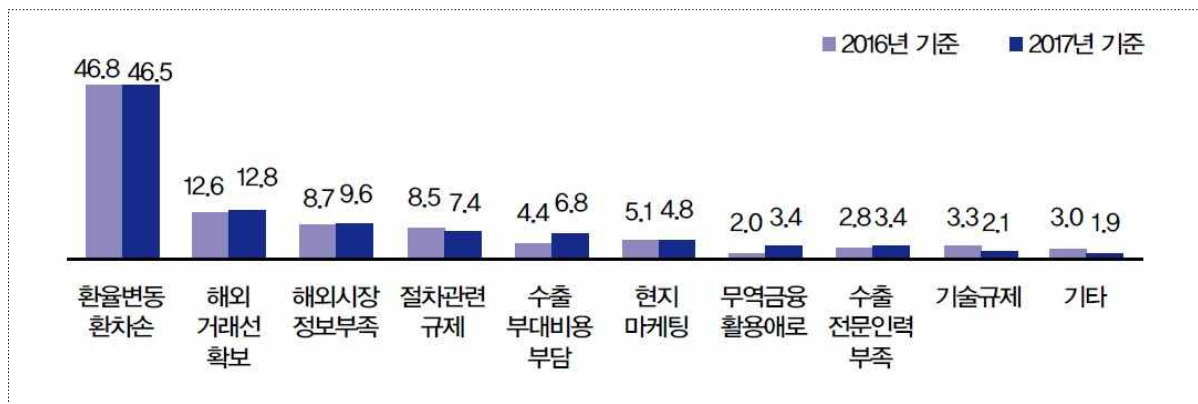
구 분	전체		평균 현지법인 수
	현지법인 수	비중	
전체	2,286	100.0	3.60
극동아시아	965	45.6	1.52
동남아시아	551	26.0	0.87
북미	325	15.4	0.51
유럽	274	13.0	0.43
남미	91	4.3	0.14
중동	51	2.4	0.08
오세아니아	19	0.9	0.03
아프리카	10	0.5	0.02

□ 수출시 애로사항

- 수출 중견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으로는 환율변동 환차손(46.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외 거래선 확보(12.8%), 해외시장 정보부족(9.6%), 절차관련 규제(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환율변동 환차손(46.8%), 해외 거래선 확보(12.6%), 해외시장 정보부족(8.7%), 절차관련 규제(8.5%) 등의 순임

[그림 2-53] 수출시 애로사항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46.3%)과 피출자/관계기업(46.9%) 모두 환율변동 환차손을 가장 큰 수출 애로요인이라고 응답함
- 매출규모로 살펴보면,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의 30.5%가 해외 거래선 확보를 선택하여, 타 기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 B2G기업은 경우 해외 거래선 확보(15.9%), 해외시장 정보부족(18.9%)이 다른 기업 대비 높아,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이기에 주로 국내에 국한되어있어 해외 거래선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0]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수출기업 1,308개사)

구분		환율변동 환차손	해외 거래선 확보	해외시장 정보부족	절차관련 규제	수출 부대비용 부담
전체		46.5	12.8	9.6	7.4	6.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6.3	13.6	8.7	7.2	5.0
	피출자/관계기업	46.9	11.1	11.7	7.8	11.1
업종	제조업	47.8	13.6	7.0	7.4	6.4
	비제조업	42.1	10.2	18.5	7.5	8.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7.9	7.4	21.5	0.0	14.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8.6	10.4	10.4	7.8	12.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1	13.3	11.2	10.1	7.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5.1	9.4	10.6	8.8	5.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51.8	12.0	7.1	7.1	5.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2.5	17.0	11.8	6.8	1.7
	5천억원 ~ 1조원미만	43.5	15.5	5.1	5.2	10.2
	1조원이상	52.0	30.5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6.5	12.8	9.6	7.4	6.8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42.8	8.6	11.9	15.4	9.6
	50 ~ 100명미만	39.0	10.3	10.9	5.9	17.7
	100 ~ 200명미만	57.8	11.3	12.8	2.7	2.6
	200 ~ 300명미만	41.4	15.2	7.7	13.2	11.1
	300 ~ 500명미만	42.3	14.8	4.6	8.3	4.0
	500 ~ 1,000명미만	52.4	13.7	10.9	3.3	2.0
	1,000명이상	41.9	16.0	8.2	4.7	4.7
업력	0 ~ 7년미만	50.1	0.0	7.1	37.2	5.6
	7 ~ 20년미만	47.1	7.9	9.5	7.7	11.2
	20 ~ 30년미만	42.5	13.4	6.7	8.0	7.3
	30 ~ 40년미만	57.4	15.1	9.6	7.6	1.8
	40 ~ 50년미만	45.3	12.5	14.8	5.3	1.2
	50년이상	35.7	25.4	8.8	0.0	8.6
매출유형	B2B	46.5	12.8	9.8	7.6	6.7
	B2C	48.4	10.9	0.0	6.9	9.1
	B2G	42.4	15.9	18.9	0.0	7.0
상장	상장	46.5	15.9	7.9	6.3	5.4
	비상장	46.5	10.6	10.9	8.1	7.8

[표 2-81]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수출기업 1,308개사)

구분		현지마케팅	무역금융 활용애로	수출 전문인력 부족	기술규제	기타	없음
전체		4.8	3.4	3.4	2.1	1.9	1.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0	4.5	3.9	1.3	1.5	1.8
	파출자/관계기업	1.9	0.7	2.1	3.8	3.1	0.0
업종	제조업	6.0	3.5	2.5	2.7	1.8	1.4
	비제조업	0.8	2.9	6.3	0.0	2.5	0.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7.4	0.0	0.0	21.5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2.1	0.0	2.1	4.1	2.1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8	0.0	4.6	3.2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8	4.3	4.3	0.0	0.0	3.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6	2.8	1.5	4.6	1.5	1.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4	10.1	3.3	0.0	3.3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7.7	2.6	2.6	2.6	2.6	2.6
	1조원이상	0.0	4.5	8.5	0.0	4.5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8	3.4	3.4	2.1	1.9	1.3
	수출없음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2.7	4.0	0.0	0.0	4.9	0.0
	50 ~ 100명미만	0.0	3.9	6.8	2.8	2.8	0.0
	100 ~ 200명미만	6.0	0.0	2.5	4.3	0.0	0.0
	200 ~ 300명미만	3.1	3.1	0.0	3.3	0.0	1.9
	300 ~ 500명미만	12.5	4.8	4.0	0.0	1.2	3.6
	500 ~ 1,000명미만	2.5	5.4	4.2	2.4	1.0	2.2
	1,000명이상	4.6	2.8	8.8	0.0	8.3	0.0
업력	0 ~ 7년미만	0.0	0.0	0.0	0.0	0.0	0.0
	7 ~ 20년미만	3.2	2.7	4.3	2.7	2.8	0.9
	20 ~ 30년미만	6.5	4.3	5.7	1.4	0.0	4.2
	30 ~ 40년미만	2.0	1.4	2.4	0.0	1.4	1.2
	40 ~ 50년미만	7.6	3.9	3.2	3.3	2.8	0.0
	50년이상	8.1	7.1	0.0	3.4	2.9	0.0
매출유형	B2B	4.4	3.4	3.1	2.2	1.9	1.4
	B2C	15.7	4.6	4.4	0.0	0.0	0.0
	B2G	0.0	0.0	9.4	0.0	6.3	0.0
상장	상장	7.1	3.0	2.6	1.8	2.5	0.9
	비상장	3.1	3.6	4.0	2.2	1.6	1.5

[표 2-82]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중복응답, 수출기업 1,308개사)

구분		환율변동 환차손	해외 거래선 확보	수출 부대비용 부담	해외시장 정보부족	절차관련 규제
전체		57.0	27.0	21.5	20.2	17.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7.3	29.5	20.6	18.2	19.5
	피출자/관계기업	56.2	21.1	23.6	24.9	12.8
업종	제조업	57.6	29.0	23.3	18.3	19.0
	비제조업	54.8	20.1	15.4	26.7	12.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9.5	7.4	21.5	29.0	7.4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9.0	21.4	18.7	22.9	16.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3.2	25.9	31.1	24.6	11.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1.6	26.5	24.7	20.4	17.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2.3	34.2	15.8	14.8	21.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9.3	28.9	13.6	20.4	22.2
	5천억원 ~ 1조원미만	58.9	23.1	30.8	20.4	20.6
	1조원이상	69.5	39.0	8.5	9.1	17.5
수출여부	수출있음	57.0	27.0	21.5	20.2	17.5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57.2	20.8	19.1	23.7	17.1
	50 ~ 100명미만	53.5	24.1	26.6	28.2	11.1
	100 ~ 200명미만	67.3	21.4	21.7	21.1	13.0
	200 ~ 300명미만	45.8	38.6	28.2	15.9	23.8
	300 ~ 500명미만	51.6	33.0	23.0	15.6	13.9
	500 ~ 1,000명미만	63.7	24.0	17.3	20.5	17.2
	1,000명이상	55.1	25.4	10.7	18.0	34.4
업력	0 ~ 7년미만	55.7	7.1	11.4	12.5	63.6
	7 ~ 20년미만	57.8	17.2	25.4	20.4	15.1
	20 ~ 30년미만	54.3	29.5	26.1	21.2	22.2
	30 ~ 40년미만	61.8	32.9	23.0	18.2	17.9
	40 ~ 50년미만	59.9	33.2	11.3	24.1	16.1
	50년이상	48.9	38.1	17.2	18.4	6.1
매출유형	B2B	57.2	27.1	21.8	20.6	18.1
	B2C	57.4	32.2	20.4	11.5	16.3
	B2G	48.9	15.9	14.1	18.9	0.0
상장	상장	57.8	31.2	21.1	18.4	19.5
	비상장	56.4	23.9	21.9	21.5	16.1

[표 2-83]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수출기업 1,308개사)

구분		현지마케팅	수출 전문인력 부족	무역금융 활용애로	기술규제	기타	없음
전체		12.9	10.0	8.6	5.7	1.9	1.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3.2	9.2	9.8	4.4	1.5	1.8
	피출자/관계기업	12.1	11.8	5.8	8.7	3.1	0.0
업종	제조업	13.6	7.2	8.5	6.3	1.8	1.4
	비제조업	10.3	19.4	8.8	3.8	2.5	0.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9.7	7.4	14.9	0.0	21.5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2.5	14.7	4.1	10.4	2.1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1.0	11.7	5.2	6.4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5.3	10.3	12.4	4.4	0.0	3.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5.1	5.9	5.6	6.1	1.5	1.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8.4	8.4	16.8	1.7	3.3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7.7	5.1	2.6	10.2	2.6	2.6
	1조원이상	13.0	13.0	8.5	0.0	4.5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2.9	10.0	8.6	5.7	1.9	1.3
	수출없음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12.3	12.8	12.5	2.7	4.9	0.0
	50 ~ 100명미만	10.9	14.7	9.0	10.5	2.8	0.0
	100 ~ 200명미만	15.5	10.1	6.1	4.3	0.0	0.0
	200 ~ 300명미만	9.7	2.7	11.2	7.1	0.0	1.9
	300 ~ 500명미만	20.2	8.6	6.7	7.7	1.2	3.6
	500 ~ 1,000명미만	10.1	10.3	10.2	3.5	1.0	2.2
	1,000명이상	7.4	14.6	2.8	4.6	8.3	0.0
업력	0 ~ 7년미만	0.0	18.7	5.4	5.6	0.0	0.0
	7 ~ 20년미만	10.2	10.3	10.0	6.7	2.8	0.9
	20 ~ 30년미만	10.2	10.6	8.0	4.3	0.0	4.2
	30 ~ 40년미만	12.2	9.7	5.6	3.7	1.4	1.2
	40 ~ 50년미만	21.9	4.6	8.5	7.7	2.8	0.0
	50년이상	17.3	12.4	10.8	5.8	2.9	0.0
매출유형	B2B	12.5	8.7	8.8	5.9	1.9	1.4
	B2C	29.4	9.9	4.6	0.0	0.0	0.0
	B2G	0.0	51.3	6.3	6.1	6.3	0.0
상장	상장	17.0	6.9	5.8	5.7	2.5	0.9
	비상장	9.9	12.1	10.6	5.7	1.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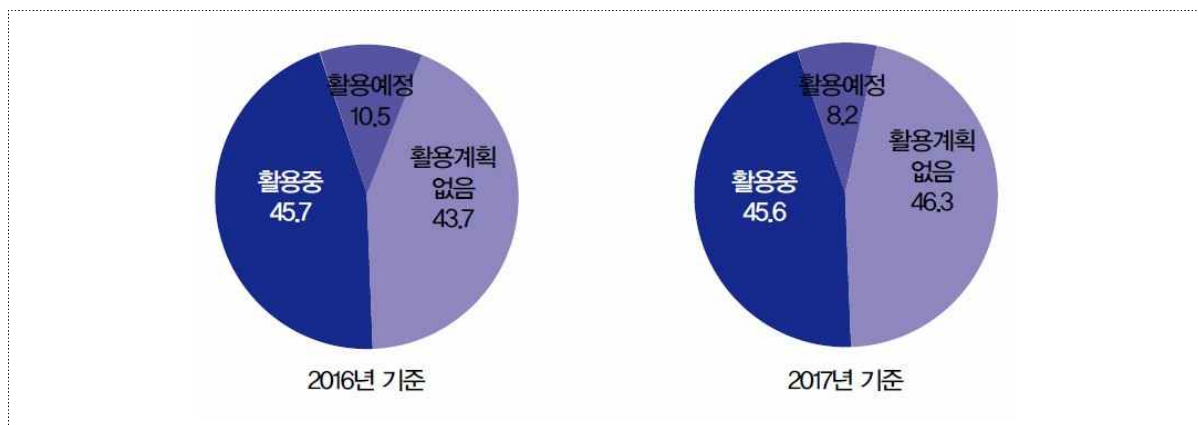
3. FTA 활용

□ FTA 활용 여부

- 수출 중견기업 중 FTA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5.6%, 활용예정 기업은 8.2%, 활용예정인 기업이 없는 기업은 46.3%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5.7%, 활용예정 기업은 10.5%, 활용예정인 기업이 없는 기업은 43.7%로 조사됨

[그림 2-54] FTA 활용 여부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활용 중(46.1%), 활용예정(9.8%), 활용계획 없음(44.1%)임
- 제조업은 51.4%가 이미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25.7%만이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비제조업의 65.4%는 FTA 활용계획이 없어 제조업에 비해 활용계획 없는 비율 또한 높아 추후 업종에 따라 FTA 활용비율의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B2B기업의 경우 47.0%가 이미 FTA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B2C기업은 23.0%, B2G기업은 32.5%만이 활용하고 있어 거래처별로 많이 차이남
 -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인 B2G기업은 현재 FTA 활용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추후 활용계획 없음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남

[표 2-84] FTA 활용 여부

(단위 : %, 수출기업 1,30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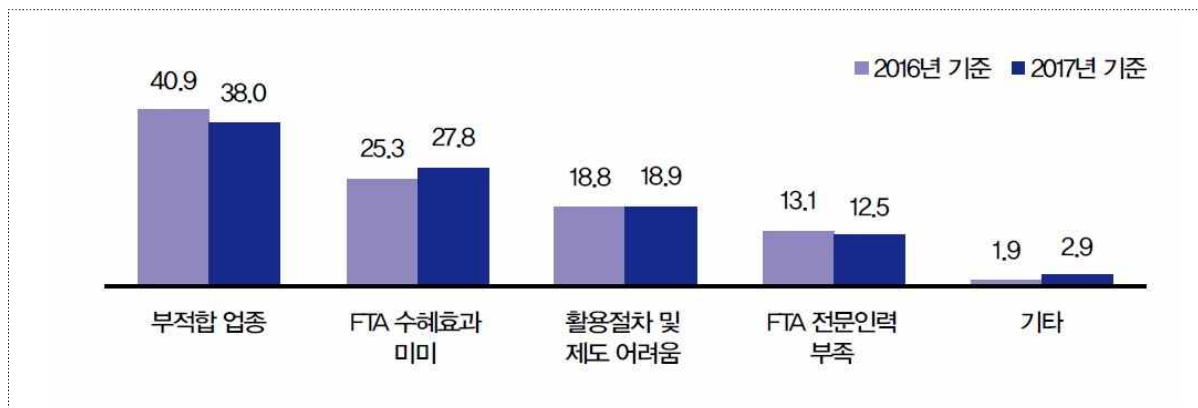
구분		활용중	활용예정	활용계획없음
전체		45.6	8.2	46.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6.1	9.8	44.1
	피출자/관계기업	44.2	4.3	51.5
업종	제조업	51.4	8.0	40.6
	비제조업	25.7	8.9	65.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5.4	0.0	64.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1.6	2.1	56.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8	3.7	48.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4.0	14.6	41.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6.7	10.2	43.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9.4	8.3	42.3
	5천억원 ~ 1조원미만	51.5	5.1	43.4
	1조원이상	44.1	8.5	47.4
수출여부	수출있음	45.6	8.2	46.3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40.6	2.5	56.9
	50 ~ 100명미만	39.5	6.0	54.5
	100 ~ 200명미만	36.6	10.2	53.2
	200 ~ 300명미만	47.3	9.1	43.6
	300 ~ 500명미만	52.1	14.9	33.0
	500 ~ 1,000명미만	56.1	5.6	38.3
	1,000명이상	42.5	5.2	52.2
업력	0 ~ 7년미만	69.5	0.0	30.5
	7 ~ 20년미만	40.1	8.4	51.5
	20 ~ 30년미만	46.0	5.6	48.3
	30 ~ 40년미만	54.5	7.9	37.6
	40 ~ 50년미만	49.0	2.7	48.2
	50년이상	36.0	20.3	43.7
매출유형	B2B	47.0	7.2	45.8
	B2C	23.0	26.0	51.0
	B2G	32.5	13.3	54.2
상장	상장	47.1	8.2	44.7
	비상장	44.4	8.2	47.4

□ FTA 미활용 사유

- 수출 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사유는 부적합 업종(3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FTA 수혜효과 미미(27.8%),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18.9%)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동일하게 부적합 업종(40.9%), FTA 수혜효과 미미(25.3%),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18.8%)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5] FTA 미활용 사유

(단위: %, FTA 미활용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부적합 업종(41.2%)이 가장 큰 FTA 미활용 사유로 나타났으며, FTA 수혜효과 미미(28.5%),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16.6%), FTA 전문인력 부족(10.1%) 순으로 나타남
- 피출자/관계기업은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24.1%), FTA 전문인력 부족(17.8%)이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게 나타나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남
- 매출규모별 살펴보면, 1백억원 미만에서 부적합 업종(5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백억원~1천억원 미만에서는 FTA 수혜효과 미미(45.8%)가 가장 높게 나타나 매출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표 2-85] FTA 미활용 사유

(단위 : %, FTA 미활용기업 712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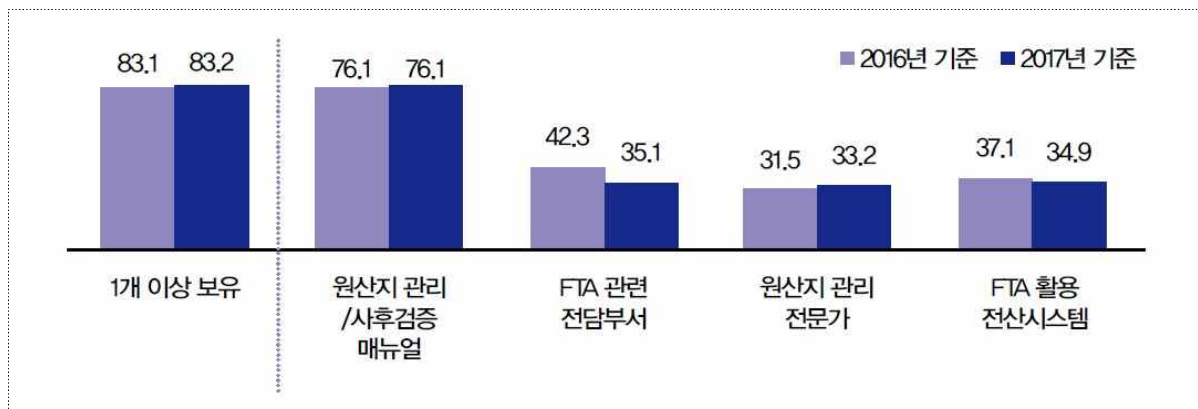
구분		부적합 업종	FTA 수혜효과 미미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	FTA 전문인력 부족	기타
전체		38.0	27.8	18.9	12.5	2.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1.2	28.5	16.6	10.1	3.6
	피출자/관계기업	30.7	26.0	24.1	17.8	1.4
업종	제조업	36.9	29.7	20.4	10.7	2.2
	비제조업	40.3	23.4	15.6	16.2	4.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5.2	0.0	33.3	11.5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2.2	16.8	24.6	26.3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9.8	45.8	19.5	9.6	5.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3.9	24.6	14.8	13.0	3.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3.5	30.6	18.2	5.3	2.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6.5	30.0	30.1	3.4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42.0	36.8	5.3	10.6	5.3
	1조원이상	45.4	24.3	7.0	15.1	8.1
수출여부	수출있음	38.0	27.8	18.9	12.5	2.9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39.9	18.5	23.8	15.3	2.5
	50 ~ 100명미만	18.1	19.6	31.5	23.6	7.2
	100 ~ 200명미만	46.3	25.1	16.4	9.9	2.3
	200 ~ 300명미만	29.6	37.7	18.8	13.9	0.0
	300 ~ 500명미만	41.5	39.0	19.5	0.0	0.0
	500 ~ 1,000명미만	34.2	26.6	17.2	16.6	5.5
	1,000명이상	59.6	27.2	0.0	9.1	4.1
업력	0 ~ 7년미만	17.8	64.6	17.6	0.0	0.0
	7 ~ 20년미만	35.9	21.6	24.6	14.6	3.2
	20 ~ 30년미만	55.3	24.4	11.7	8.6	0.0
	30 ~ 40년미만	26.3	29.3	26.2	12.3	6.0
	40 ~ 50년미만	44.8	39.7	2.6	9.3	3.7
	50년이상	29.5	29.6	22.0	16.5	2.3
매출유형	B2B	40.1	28.4	16.9	12.3	2.3
	B2C	17.2	21.8	42.0	13.5	5.5
	B2G	18.9	23.0	30.1	14.0	14.0
상장	상장	39.5	31.9	11.1	14.7	2.8
	비상장	36.9	25.0	24.2	10.9	3.0

□ FTA 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 FTA를 활용하는 중견기업의 83.2%는 1개 이상의 FTA 관련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76.1%), FTA관련 전담부서(35.1%)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83.1%의 중견기업은 1개 이상의 FTA 관련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76.1%), FTA관련 전담부서(42.3%)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56]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단위: %, FTA 활용기업)



특성별 분석

- FTA를 활용하는 일반 중견기업의 82.0%, 피출자/관계기업의 86.1%가 FTA 활용을 위해 1개 이상의 내부시스템을 구축함
- 가장 많이 구축한 시스템은 일반 중견기업, 피출자/관계기업 모두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 매뉴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6.1%가 FTA 활용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1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반면, 비제조업은 63.4%만이 관련 시스템을 보유한 것을 알 수 있음
- 종사자수별로는 50명 미만의 기업은 62.1%가 FTA 활용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50~100명 미만의 기업의 구축율은 100.0%임
- 대체적으로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매출규모가 클수록 시스템 구축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86]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단위 : %, FTA 활용기업 596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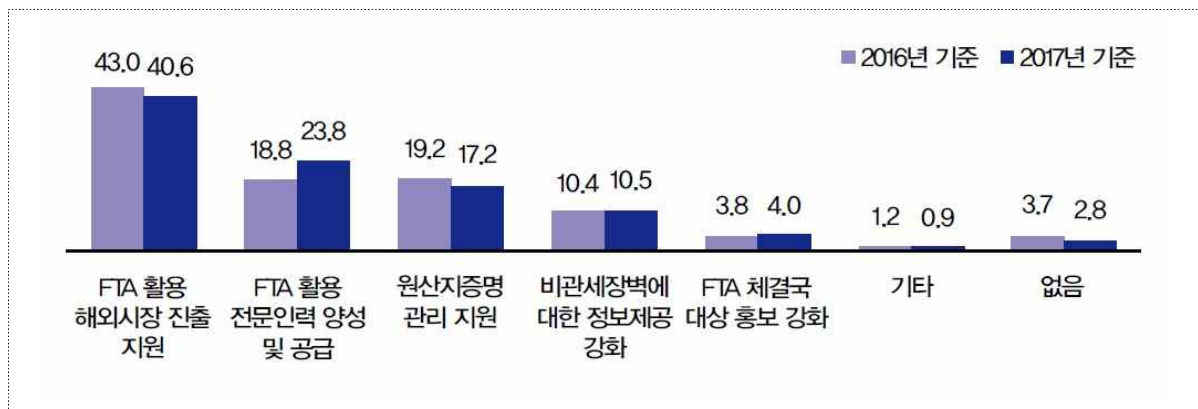
구분		1개 이상 시스템 구축	FTA활용 내부시스템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매뉴얼	FTA관련 전담부서	원산지관리 전문가	FTA활용 전산시스템
전체		83.2	76.1	35.1	33.2	34.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2.0	76.7	40.0	34.8	42.2
	피출자/관계기업	86.1	74.9	23.3	29.3	17.0
업종	제조업	86.1	79.5	38.3	33.7	36.6
	비제조업	63.4	53.2	13.4	30.3	23.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9.0	79.0	21.0	36.9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9.8	74.9	24.7	30.0	15.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95.7	76.7	28.1	32.1	25.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0.4	78.6	37.1	19.2	37.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81.4	71.6	39.4	45.9	39.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86.2	79.3	48.4	41.3	48.4
	5천억원 ~ 1조원미만	70.0	70.0	20.0	30.0	45.0
	1조원이상	91.1	82.2	61.6	61.6	60.3
수출여부	수출있음	83.2	76.1	35.1	33.2	34.9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62.1	62.1	16.6	29.7	14.0
	50 ~ 100명미만	100.0	100.0	17.8	21.1	14.6
	100 ~ 200명미만	84.8	71.3	19.3	25.3	29.4
	200 ~ 300명미만	80.9	67.6	30.7	29.5	40.3
	300 ~ 500명미만	79.8	74.1	41.3	27.4	25.0
	500 ~ 1,000명미만	87.2	80.7	50.7	45.3	55.4
	1,000명이상	89.0	83.2	65.6	58.1	57.2
업력	0 ~ 7년미만	83.5	83.5	20.4	20.4	28.4
	7 ~ 20년미만	81.0	70.8	31.1	38.4	21.3
	20 ~ 30년미만	81.8	69.9	43.1	24.0	31.1
	30 ~ 40년미만	87.5	87.5	34.4	31.3	49.3
	40 ~ 50년미만	92.5	86.1	37.5	44.2	41.6
	50년이상	68.1	59.4	37.0	28.5	43.2
매출유형	B2B	84.7	77.9	35.4	34.2	36.5
	B2C	100.0	74.3	55.8	20.0	0.0
	B2G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86.9	82.2	44.4	37.2	40.6
	비상장	80.4	71.6	28.1	30.2	30.6

□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는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4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23.8%),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7.2%),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43.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산지 증명 관리 지원(19.2%),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18.8%),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7]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지원 (41.2%),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22.1%),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7.3%)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43.4%가 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의 34.1%가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업종별 차이를 보임
- 주 거래처별로 살펴보면, B2C기업의 경우 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2G의 경우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87]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단위 : %, 수출기업 1,308개사)

구분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
전체		40.6	23.8	17.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1.2	22.1	17.3
	피출자/관계기업	39.4	28.0	16.9
업종	제조업	43.4	20.8	19.4
	비제조업	31.2	34.1	9.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3.9	14.1	42.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1.0	25.1	20.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5.4	30.5	15.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3.5	24.2	18.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1.6	20.1	17.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0.7	23.7	11.9
	5천억원 ~ 1조원미만	35.8	25.7	12.9
	1조원이상	44.1	13.0	4.5
수출여부	수출있음	40.6	23.8	17.2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31.1	27.7	30.1
	50 ~ 100명미만	40.8	35.7	16.1
	100 ~ 200명미만	44.0	23.7	12.6
	200 ~ 300명미만	40.7	15.0	22.7
	300 ~ 500명미만	45.0	19.5	17.2
	500 ~ 1,000명미만	40.5	25.1	14.6
	1,000명이상	38.2	24.1	5.2
업력	0 ~ 7년미만	39.8	14.6	27.9
	7 ~ 20년미만	32.0	28.0	14.5
	20 ~ 30년미만	45.3	27.0	17.7
	30 ~ 40년미만	43.9	22.0	19.8
	40 ~ 50년미만	45.9	17.9	20.5
	50년이상	45.7	20.4	13.1
매출유형	B2B	41.2	23.8	18.1
	B2C	47.9	18.1	9.8
	B2G	12.5	34.4	0.0
상장	상장	42.4	23.7	16.7
	비상장	39.4	23.9	17.5

[표 2-88]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계속)

(단위 : %, 수출기업 1,308개사)

구분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FTA 체결국 대상 홍보 강화	기타	없음
전체		10.5	4.0	0.9	2.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2.3	3.1	0.9	3.2
	파출자/관계기업	6.3	6.3	1.1	2.1
업종	제조업	9.2	3.7	1.2	2.2
	비제조업	14.9	5.2	0.0	5.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0.6	8.4	2.1	2.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6	3.7	0.0	2.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4	3.3	0.0	2.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3.0	4.3	0.0	3.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1.8	5.1	1.7	5.0
	5천억원 ~ 1조원미만	20.5	0.0	2.6	2.6
	1조원이상	26.0	0.0	4.5	7.9
수출여부	수출있음	10.5	4.0	0.9	2.8
	수출없음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0.0	11.1	0.0	0.0
	50 ~ 100명미만	2.8	2.6	0.0	2.1
	100 ~ 200명미만	13.5	1.3	1.7	3.2
	200 ~ 300명미만	14.1	3.8	0.0	3.8
	300 ~ 500명미만	9.1	5.8	0.0	3.4
	500 ~ 1,000명미만	13.0	3.6	1.1	2.2
	1,000명이상	21.4	0.0	5.2	6.0
업력	0 ~ 7년미만	11.0	0.0	6.6	0.0
	7 ~ 20년미만	15.1	8.1	0.6	1.8
	20 ~ 30년미만	6.1	0.0	0.0	3.9
	30 ~ 40년미만	7.5	2.8	2.9	1.1
	40 ~ 50년미만	6.8	3.0	0.0	5.8
	50년이상	13.5	3.5	0.0	3.9
매출유형	B2B	10.3	2.6	1.0	3.1
	B2C	5.9	18.4	0.0	0.0
	B2G	23.0	30.1	0.0	0.0
상장	상장	9.9	4.0	1.0	2.3
	비상장	11.0	4.0	0.9	3.2

[표 2-89]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

(단위 : %, 수출기업 1,308개사, 중복응답)

구분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
전체		55.0	46.1	32.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3.3	45.0	30.8
	피출자/관계기업	59.0	48.7	34.8
업종	제조업	56.3	43.5	35.7
	비제조업	50.5	54.8	19.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3.9	65.4	49.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9.6	43.8	37.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8.3	50.2	33.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5.4	49.6	29.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54.6	45.1	30.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5.8	38.9	32.4
	5천억원 ~ 1조원미만	48.6	43.5	28.3
	1조원이상	65.6	35.0	22.1
수출여부	수출있음	55.0	46.1	32.0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55.1	50.7	44.0
	50 ~ 100명미만	57.3	59.6	37.1
	100 ~ 200명미만	60.6	47.9	20.7
	200 ~ 300명미만	56.0	39.1	35.0
	300 ~ 500명미만	51.9	40.7	33.3
	500 ~ 1,000명미만	47.0	46.8	31.1
	1,000명이상	60.4	37.5	26.2
업력	0 ~ 7년미만	45.3	40.4	47.2
	7 ~ 20년미만	52.0	45.6	31.2
	20 ~ 30년미만	61.9	48.1	26.5
	30 ~ 40년미만	52.2	43.8	40.8
	40 ~ 50년미만	55.1	46.8	31.7
	50년이상	58.8	48.2	26.0
매출유형	B2B	55.4	46.7	33.8
	B2C	52.4	32.7	14.4
	B2G	45.0	47.7	0.0
상장	상장	52.8	46.7	31.6
	비상장	56.6	45.6	32.2

[표 2-90]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계속)

(단위 : %, 수출기업 1,308개사, 중복응답)

구분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FTA 체결국 대상 홍보 강화	기타	없음
전체		29.1	12.4	1.5	2.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2.6	13.6	1.6	3.2
	파출자/관계기업	21.0	9.7	1.1	2.1
업종	제조업	29.6	12.6	1.9	2.2
	비제조업	27.6	11.7	0.0	5.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22.9	11.7	2.1	2.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2.8	11.2	0.0	2.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30.0	14.2	1.1	2.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9.1	16.1	1.5	3.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7.3	15.4	1.7	5.0
	5천억원 ~ 1조원미만	43.6	10.2	2.6	2.6
	1조원이상	39.6	0.0	4.5	7.9
수출여부	수출있음	29.1	12.4	1.5	2.8
	수출없음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14.7	16.5	0.0	0.0
	50 ~ 100명미만	20.5	7.0	0.0	2.1
	100 ~ 200명미만	24.0	11.8	1.7	3.2
	200 ~ 300명미만	31.8	13.4	1.6	3.8
	300 ~ 500명미만	32.0	16.7	1.8	3.4
	500 ~ 1,000명미만	41.4	11.4	1.1	2.2
	1,000명이상	36.9	7.1	5.2	6.0
업력	0 ~ 7년미만	36.1	5.9	6.6	0.0
	7 ~ 20년미만	31.0	12.7	0.6	1.8
	20 ~ 30년미만	25.1	10.6	1.6	3.9
	30 ~ 40년미만	26.8	14.7	2.9	1.1
	40 ~ 50년미만	26.6	19.2	1.7	5.8
	50년이상	34.5	5.1	0.0	3.9
매출유형	B2B	28.9	10.5	1.6	3.1
	B2C	31.9	31.2	0.0	0.0
	B2G	32.4	45.6	0.0	0.0
상장	상장	32.3	13.6	1.7	2.3
	비상장	26.8	11.6	1.3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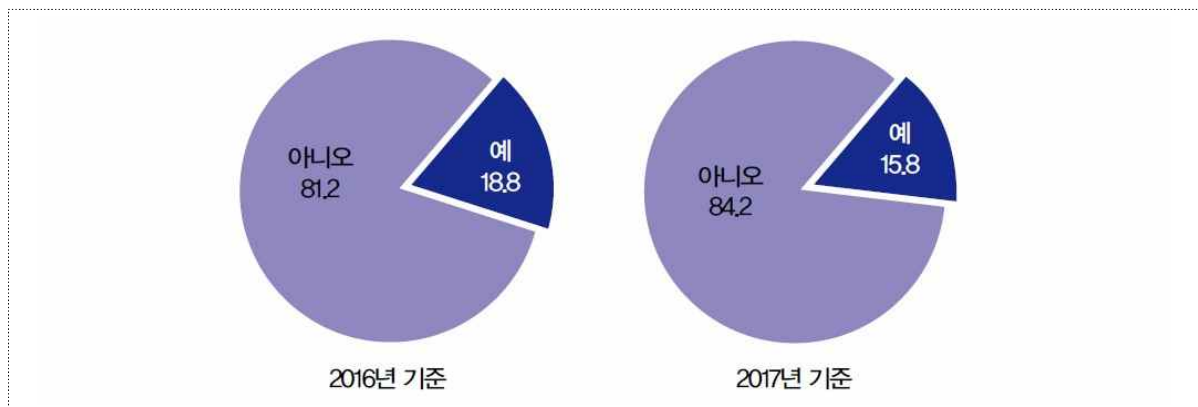
□ 해외진출 고려 여부

○ 중견기업의 15.8%는 향후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결과, 중견기업의 18.8%는 향후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8] 해외진출 고려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24.7%가 향후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피출자/관계기업은 8.6%만이 고려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7.0%, 비제조업의 8.8%가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 수출기업의 경우 37.4%가 추가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내수기업은 5.4%만이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약 7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규모별로 대체적으로 매출이 높을수록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종사자수별로는 종사자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음

- 이는 중견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내수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후 해외로 신규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표 2-91] 해외진출 고려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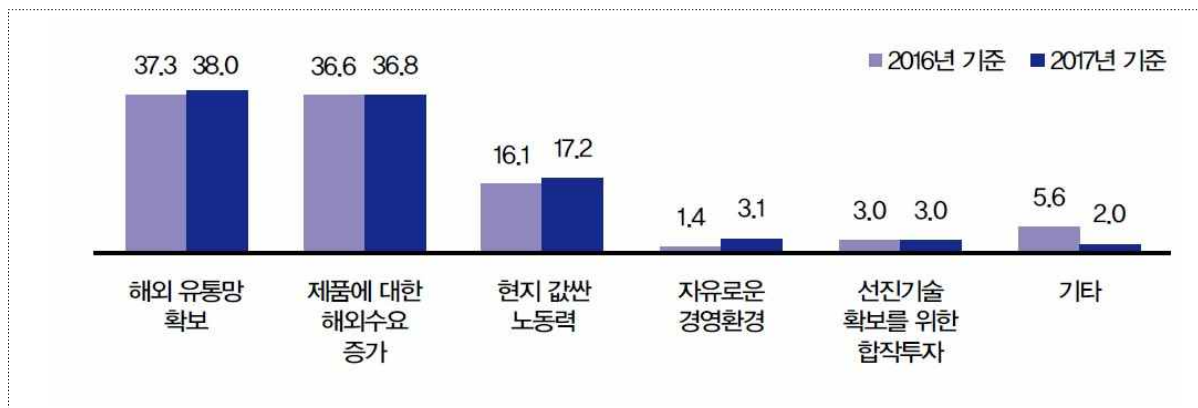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해외진출 고려	해외진출 미고려
전체		(4,014)	15.8	84.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24.7	75.3
	피출자/관계기업	(2,219)	8.6	91.4
업종	제조업	(1,552)	27.0	73.0
	비제조업	(2,462)	8.8	91.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6.0	94.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7.5	92.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15.3	84.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25.3	74.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28.1	71.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24.2	75.8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29.2	70.8
	1조원이상	(89)	31.1	68.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37.4	62.6
	수출없음	(2,706)	5.4	94.6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5.6	94.4
	50 ~ 100명미만	(686)	10.0	90.0
	100 ~ 200명미만	(608)	16.1	83.9
	200 ~ 300명미만	(387)	27.6	72.4
	300 ~ 500명미만	(397)	25.4	74.6
	500 ~ 1,000명미만	(326)	34.9	65.1
	1,000명이상	(168)	38.6	61.4
업력	0 ~ 7년미만	(617)	15.9	84.1
	7 ~ 20년미만	(1,644)	11.8	88.2
	20 ~ 30년미만	(679)	14.1	85.9
	30 ~ 40년미만	(459)	19.1	80.9
	40 ~ 50년미만	(340)	26.5	73.5
	50년이상	(275)	23.2	76.8
매출유형	B2B	(3,223)	17.4	82.6
	B2C	(650)	6.2	93.8
	B2G	(141)	23.3	76.7
상장	상장	(757)	30.7	69.3
	비상장	(3,257)	11.7	88.3

□ 해외진출 고려 이유

-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해외 유통망 확보가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6.8%), 현지 값싼 노동력(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동일하게 해외 유통망 확보(37.3%),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6.6%), 현지 값싼 노동력(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9] 해외진출 고려 이유

(단위: %, 해외진출 고려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유통망 확보(37.5%),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6.6%), 현지 값싼 노동력(20.3%) 등의 순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해외 유통망 확보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함
- 매출규모 1백억원 미만 구간 및 업력 20~30년 미만 구간에서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응답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대체적으로 중견기업 중 매출액이 낮고, 업력이 짧은 기업군은 제품의 해외수요 증가를 계기로 해외진출 및 기업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임
- B2B기업은 신규 해외진출 고려 이유로 해외 유통망 확보(38.7%)를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B2C기업과 B2G기업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의 비율이 높아 주 거래처별로 차이가 나타남

[표 2-92]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순위

(단위 : %, 해외진출 고려 기업 634개사)

구분		해외 유통망 확보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현지 값싼 노동력	자유로운 경영환경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합작투자	기타
전체		38.0	36.8	17.2	3.1	3.0	2.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7.5	36.6	20.3	1.6	1.3	2.8
	파출자/관계기업	39.1	37.4	9.9	6.7	6.9	0.0
업종	제조업	37.7	37.2	19.9	2.9	1.7	0.6
	비제조업	38.5	36.0	11.9	3.5	5.4	4.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8.0	51.3	20.5	10.3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9.0	35.4	3.8	0.0	11.8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5.2	33.5	14.9	13.0	0.0	3.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3.2	32.8	17.6	2.1	0.0	4.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7.6	40.0	26.5	3.2	2.7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2.9	48.3	15.0	0.0	0.0	3.7
	5천억원 ~ 1조원미만	47.8	33.1	19.1	0.0	0.0	0.0
	1조원이상	19.4	29.9	40.3	0.0	10.4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35.1	38.5	18.6	4.0	2.0	1.8
	수출없음	47.7	31.0	12.6	0.0	6.1	2.5
종사자수	50명미만	51.6	29.2	11.0	8.2	0.0	0.0
	50 ~ 100명미만	26.2	52.4	4.0	4.5	13.0	0.0
	100 ~ 200명미만	42.3	36.9	7.0	10.2	0.0	3.7
	200 ~ 300명미만	32.7	23.7	33.6	0.0	6.5	3.4
	300 ~ 500명미만	36.6	34.8	26.1	0.0	0.0	2.5
	500 ~ 1,000명미만	34.6	53.7	9.4	0.0	0.0	2.3
	1,000명이상	43.5	24.8	27.2	0.0	4.4	0.0
업력	0 ~ 7년미만	43.3	38.9	11.7	0.0	6.1	0.0
	7 ~ 20년미만	40.2	36.9	15.5	1.9	4.3	1.3
	20 ~ 30년미만	28.8	33.7	16.0	11.5	4.1	5.9
	30 ~ 40년미만	34.9	39.0	26.1	0.0	0.0	0.0
	40 ~ 50년미만	37.0	39.6	16.6	3.4	0.0	3.4
	50년이상	47.6	32.3	16.1	0.0	4.0	0.0
매출유형	B2B	38.7	34.9	18.5	3.5	2.9	1.6
	B2C	33.9	59.4	6.8	0.0	0.0	0.0
	B2G	30.6	42.0	8.1	0.0	8.3	11.1
상장	상장	35.5	42.8	17.1	2.5	1.1	1.0
	비상장	39.7	32.5	17.2	3.5	4.3	2.7

[표 2-93]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2순위

(단위 : %, 해외진출 고려 기업 634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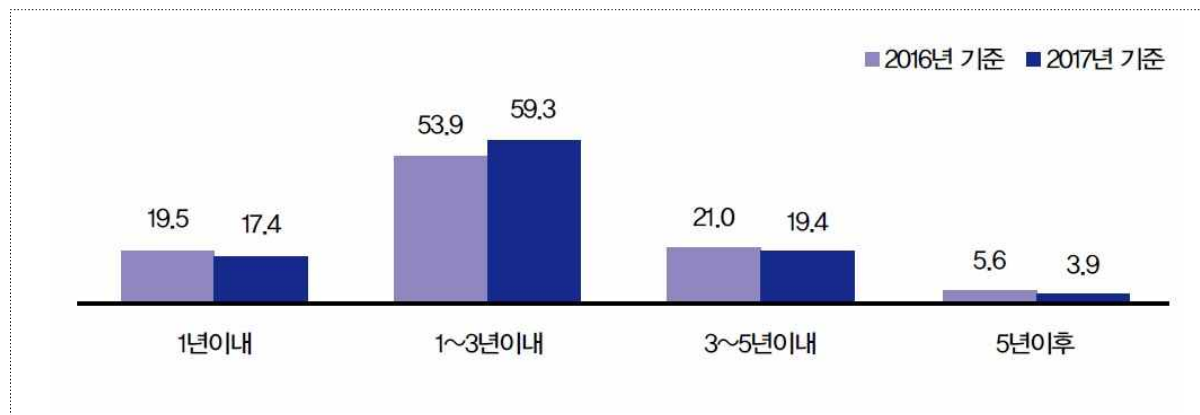
구분		해외 유통망 확보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현지 값싼 노동력	자유로운 경영환경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합작투자	현지 연구인력 채용	기타
전체		75.7	58.6	21.7	9.2	9.1	1.9	4.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4.8	56.2	26.7	4.7	8.3	1.7	6.0
	파출자/관계기업	77.8	64.0	9.9	19.9	10.8	2.2	2.2
업종	제조업	74.7	61.7	25.0	6.7	9.7	1.9	3.3
	비제조업	77.6	52.5	15.3	14.2	7.8	1.7	8.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9.0	82.0	20.5	10.3	0.0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88.2	58.7	3.8	19.8	15.6	3.8	3.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66.5	51.6	14.9	23.4	10.7	0.0	3.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6.1	52.2	24.0	2.1	4.5	4.3	10.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70.3	61.6	36.2	9.2	5.9	0.0	3.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7.5	66.9	22.5	0.0	7.5	0.0	3.7
	5천억원 ~ 1조원미만	76.1	66.5	23.9	0.0	14.4	0.0	0.0
	1조원이상	79.2	49.3	40.3	10.4	20.8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73.7	60.1	23.6	9.0	8.3	1.5	4.8
	수출없음	82.6	53.4	15.1	10.1	11.7	2.9	5.2
종사자수	50명미만	83.1	62.1	11.0	28.2	3.2	0.0	0.0
	50 ~ 100명미만	88.1	60.8	4.0	4.5	23.7	6.2	5.3
	100 ~ 200명미만	66.1	58.4	10.7	21.6	6.6	7.6	12.0
	200 ~ 300명미만	70.4	42.4	37.2	2.5	6.5	0.0	6.5
	300 ~ 500명미만	74.1	60.5	38.3	3.2	2.4	0.0	2.5
	500 ~ 1,000명미만	78.9	76.1	14.8	2.3	7.9	0.0	2.3
	1,000명이상	73.5	44.7	31.0	4.4	21.3	0.0	5.6
업력	0 ~ 7년미만	69.8	77.6	17.1	6.6	12.7	0.0	0.0
	7 ~ 20년미만	75.7	60.9	19.1	12.5	12.9	0.0	1.3
	20 ~ 30년미만	73.5	54.8	22.3	11.5	6.6	0.0	12.9
	30 ~ 40년미만	82.6	49.8	29.4	6.0	8.5	0.0	8.2
	40 ~ 50년미만	74.7	58.1	22.2	8.6	6.3	3.4	6.4
	50년이상	74.9	57.4	19.8	3.4	4.0	11.8	0.0
매출유형	B2B	75.8	56.9	22.3	10.0	9.8	2.1	4.9
	B2C	85.6	78.2	15.8	6.8	0.0	0.0	0.0
	B2G	61.5	62.2	19.2	0.0	8.3	0.0	11.1
상장	상장	82.2	58.1	21.6	5.7	8.5	3.0	2.3
	비상장	71.0	58.9	21.7	11.8	9.5	1.0	6.8

□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은 1~3년 이내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5년 이내(19.4%), 1년 이내(17.4%), 5년 이후(3.9%)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은 1~3년 이내가 5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5년 이내(21.0%), 1년 이내(19.5%), 5년 이후(5.6%) 순으로 조사됨

[그림 2-60]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단위: %, 해외진출 고려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이 계획하는 신규 해외진출 시점은 1~3년 이내(56.1%), 3~5년 이내(20.6%), 1년 이내(20.3%), 5년 이후(3.0%) 순임
- 매출유형별로 살펴보면,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C기업은 1~3년 이내(63.7%), 1년 이내(20.5%), 3~5년 이내(15.8%) 순이었으며, B2G기업은 1~3년 이내(49.7%), 3~5년 이내(34.8%), 1년 이내(15.5%) 순으로 나타남
- B2G기업은 상대적으로 3~5년 이내 비율이 높아 타 기업군에 비해 해외진출에 대해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표 2-94]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단위 : %, 해외진출 고려 기업 634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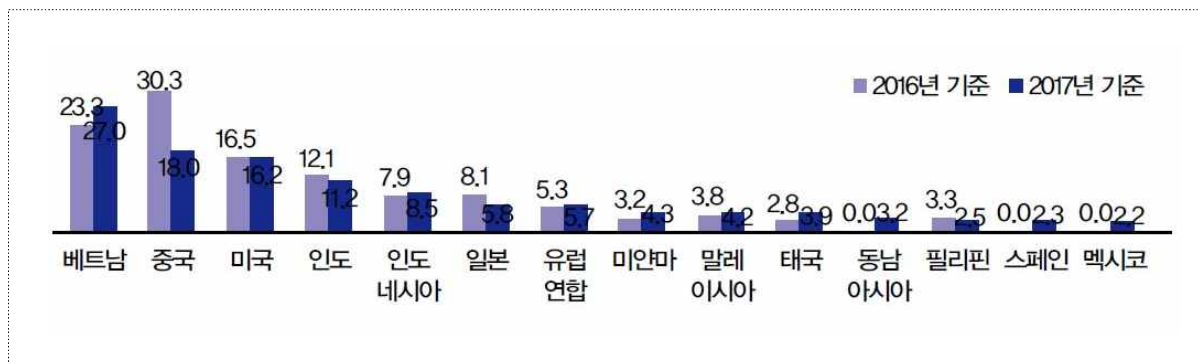
구분		1년 이내	1~3년 이내	3~5년 이내	5년 이후
전체		17.4	59.3	19.4	3.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0.3	56.1	20.6	3.0
	피출자/관계기업	10.6	66.9	16.7	5.9
업종	제조업	17.9	59.2	17.0	5.9
	비제조업	16.3	59.6	24.1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8.0	61.5	10.3	10.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7	64.9	19.8	7.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4.3	70.3	15.4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4.7	61.2	19.6	4.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7.3	55.1	24.3	3.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2.3	51.7	22.3	3.7
	5천억원 ~ 1조원미만	33.1	57.3	9.6	0.0
	1조원 이상	40.3	29.9	29.9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6.3	60.3	18.8	4.5
	수출없음	20.9	55.9	21.4	1.8
종사자수	50명미만	9.5	55.2	35.3	0.0
	50 ~ 100명미만	23.4	72.8	0.0	3.9
	100 ~ 200명미만	10.6	68.8	12.9	7.7
	200 ~ 300명미만	14.2	46.9	27.7	11.2
	300 ~ 500명미만	20.3	58.6	21.1	0.0
	500 ~ 1,000명미만	16.0	61.7	20.1	2.2
	1,000명 이상	34.1	53.3	12.6	0.0
업력	0 ~ 7년미만	22.6	45.2	32.2	0.0
	7 ~ 20년미만	9.8	64.5	19.1	6.6
	20 ~ 30년미만	14.5	60.5	20.9	4.1
	30 ~ 40년미만	20.1	62.1	13.5	4.3
	40 ~ 50년미만	22.5	51.4	26.2	0.0
	50년 이상	29.1	59.9	7.4	3.7
매출유형	B2B	17.3	59.6	18.8	4.4
	B2C	20.5	63.7	15.8	0.0
	B2G	15.5	49.7	34.8	0.0
상장	상장	16.1	61.2	20.6	2.2
	비상장	18.3	58.0	18.6	5.1

□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 향후 신규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로는 베트남이 2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18.0%), 미국(16.2%), 인도(11.2%), 인도네시아(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중국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23.3%), 미국(16.5%), 인도(12.1%), 일본(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1]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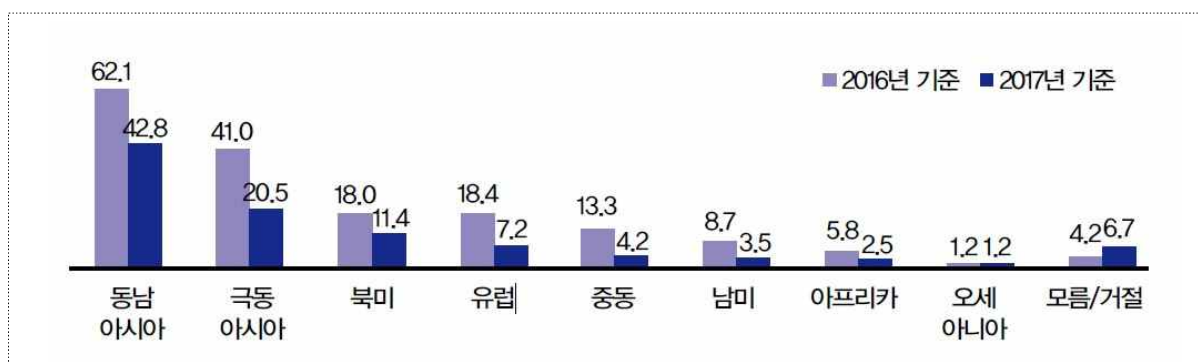
(단위: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 향후 신규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대륙으로는 동남아시아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극동아시아(20.5%), 북미(11.4%), 유럽(7.2%), 중동(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결과로는 동남아시아 (62.1%), 극동아시아(41.0%), 유럽(18.4%), 북미(18.0%), 중동(13.3%) 등의 순임

[그림 2-62]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단위: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표 2-95]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계속)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34개사)

구분		베트남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 유럽/EU
전체		27.0	18.0	16.2	11.2	8.5	5.8	5.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7.7	14.4	15.6	14.5	9.4	3.4	6.5
	피출자/관계기업	25.4	26.1	17.8	3.5	6.3	11.4	3.6
업종	제조업	28.3	15.8	13.6	15.4	5.0	3.5	8.0
	비제조업	24.4	22.1	21.4	3.1	15.2	10.2	1.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0.8	18.0	10.3	10.3	0.0	18.0	10.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27.1	31.3	19.8	0.0	8.0	8.0	3.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9.4	19.2	15.3	11.5	10.7	13.0	3.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30.8	14.9	13.0	15.6	15.2	4.3	2.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1.6	15.1	11.9	9.7	2.7	5.4	13.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2.1	7.5	26.0	18.7	7.3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9.5	9.6	28.5	14.4	0.0	0.0	14.4
	1조원이상	10.4	31.2	0.0	10.4	9.0	0.0	9.0
수출여부	수출있음	25.4	14.7	16.4	14.5	8.4	4.7	7.3
	수출없음	32.3	28.9	15.7	0.0	8.7	9.4	0.0
종사자수	50명미만	40.6	20.5	0.0	11.4	0.0	10.6	3.3
	50 ~ 100명미만	3.9	34.4	20.3	0.0	17.5	22.0	0.0
	100 ~ 200명미만	21.5	24.9	37.2	7.3	10.3	6.5	4.4
	200 ~ 300명미만	42.0	12.2	6.3	13.0	10.8	0.0	2.2
	300 ~ 500명미만	33.8	9.2	11.9	23.9	5.2	0.0	13.5
	500 ~ 1,000명미만	18.5	13.4	18.9	12.2	2.3	3.4	7.2
	1,000명이상	22.1	18.2	18.9	4.4	18.7	4.2	7.4
업력	0 ~ 7년미만	34.5	16.0	11.1	19.7	5.4	10.8	0.0
	7 ~ 20년미만	21.5	20.5	25.2	7.7	10.3	6.2	4.0
	20 ~ 30년미만	29.2	23.3	14.9	15.6	10.6	6.1	6.2
	30 ~ 40년미만	41.3	19.6	12.6	12.1	9.6	8.5	16.4
	40 ~ 50년미만	31.4	10.0	2.4	10.5	5.9	3.6	4.5
	50년이상	7.4	13.5	21.7	9.3	3.8	0.0	0.0
매출유형	B2B	27.3	19.2	16.9	12.0	8.5	6.5	6.4
	B2C	31.9	0.0	13.7	9.6	6.0	0.0	0.0
	B2G	15.5	19.4	7.4	0.0	11.1	0.0	0.0
상장	상장	26.6	15.9	14.5	13.5	3.8	1.4	8.5
	비상장	27.3	19.5	17.5	9.6	11.9	8.9	3.6

[표 2-96]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34개사)

구분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동남아시아	필리핀	스페인	멕시코
전체		4.3	4.2	3.9	3.2	2.5	2.3	2.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1	3.2	5.6	4.6	2.0	0.6	2.4
	피출자/관계기업	4.7	6.6	0.0	0.0	3.6	6.3	1.6
업종	제조업	2.6	3.6	4.7	2.8	1.7	1.4	3.3
	비제조업	7.5	5.3	2.4	4.0	4.2	4.1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0.0	0.0	10.3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8.0	7.7	0.0	0.0	3.8	8.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6.4	5.1	0.0	0.0	0.0	4.0	4.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0.0	2.2	4.5	2.1	2.1	0.0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2	2.7	9.2	9.2	5.4	0.0	3.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1.0	7.1	3.7	7.5	0.0	0.0	3.7
	5천억원 ~ 1조원미만	4.7	0.0	0.0	4.7	0.0	0.0	9.6
	1조원이상	0.0	10.4	19.4	0.0	0.0	10.4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5.5	4.1	4.0	2.4	2.7	3.0	2.8
	수출없음	0.0	4.6	3.6	6.0	1.8	0.0	0.0
종사자수	50명미만	3.2	10.2	0.0	0.0	8.5	0.0	0.0
	50 ~ 100명미만	13.0	0.0	0.0	0.0	0.0	0.0	0.0
	100 ~ 200명미만	2.6	4.4	0.0	2.8	6.5	9.0	0.0
	200 ~ 300명미만	4.4	3.6	6.0	6.5	2.5	2.9	5.9
	300 ~ 500명미만	0.0	2.4	6.5	0.0	0.0	0.0	2.4
	500 ~ 1,000명미만	7.2	0.0	2.9	9.4	0.0	0.0	2.2
	1,000명이상	0.0	12.3	13.3	0.0	0.0	4.4	3.7
업력	0 ~ 7년미만	0.0	0.0	0.0	0.0	0.0	0.0	6.6
	7 ~ 20년미만	4.3	3.2	3.1	0.0	2.1	5.8	1.2
	20 ~ 30년미만	2.5	12.8	0.0	5.0	2.5	0.0	0.0
	30 ~ 40년미만	2.4	3.9	3.3	2.6	2.7	0.0	0.0
	40 ~ 50년미만	2.2	2.7	7.6	8.6	3.4	0.0	5.3
	50년이상	15.7	0.0	10.4	4.8	4.0	4.2	3.7
매출유형	B2B	3.9	3.9	4.4	1.5	1.2	2.6	2.4
	B2C	6.4	12.0	0.0	14.9	0.0	0.0	0.0
	B2G	7.4	0.0	0.0	18.3	27.5	0.0	0.0
상장	상장	3.1	3.4	5.5	2.1	0.0	1.1	4.0
	비상장	5.1	4.8	2.8	4.0	4.3	3.2	0.8

[표 2-97]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34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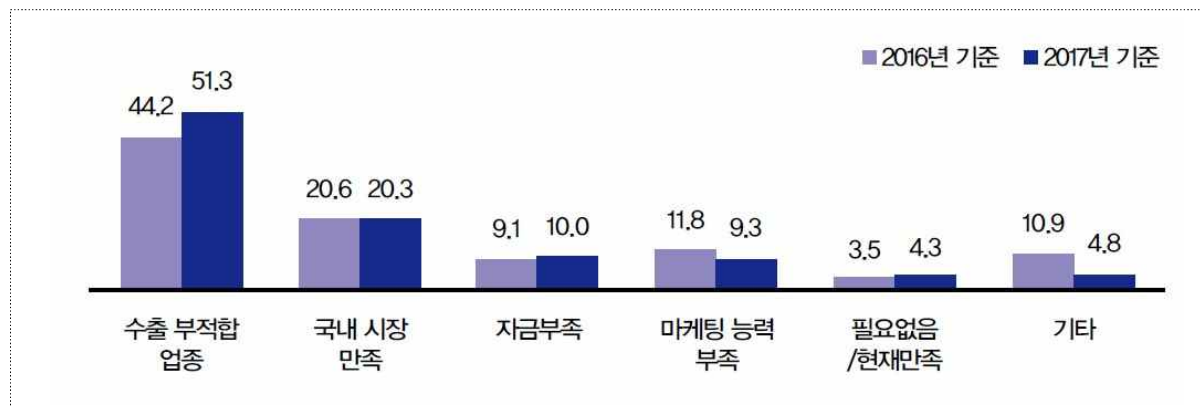
구분		동남아 시아	극동아 시아	북미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 니아	모름/거 절
전체		42.8	20.5	11.4	7.2	4.2	3.5	2.5	1.2	6.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7.8	15.5	11.7	6.5	3.3	3.3	3.6	1.6	6.7
	피출자/관계기업	31.2	32.3	10.9	9.0	6.1	3.9	0.0	0.0	6.7
업종	제조업	43.6	17.2	9.9	10.3	4.2	5.3	2.3	1.2	5.9
	비제조업	41.2	26.9	14.4	1.2	4.2	0.0	2.9	1.1	8.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1.3	18.0	10.3	10.3	0.0	0.0	0.0	0.0	10.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5.1	35.4	8.0	7.7	10.1	3.8	0.0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5.2	28.3	15.3	7.0	4.0	4.0	0.0	0.0	16.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8.4	15.1	10.9	3.8	2.1	6.7	2.1	0.0	10.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57.3	15.1	5.9	9.7	5.9	3.2	2.7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5.2	11.2	14.8	3.7	3.7	0.0	3.7	3.7	3.7
	5천억원 ~ 1조원미만	19.0	19.1	28.5	9.6	0.0	0.0	14.4	9.5	0.0
	1조원이상	40.3	19.4	0.0	19.4	0.0	0.0	0.0	0.0	20.8
수출여부	수출있음	44.1	16.4	12.5	9.4	4.5	3.7	2.7	1.5	5.2
	수출없음	38.5	34.3	7.7	0.0	2.9	2.9	1.9	0.0	11.7
종사자수	50명미만	55.7	25.4	0.0	3.3	8.6	0.0	0.0	0.0	7.1
	50 ~ 100명미만	20.8	55.8	7.3	0.0	5.3	6.2	0.0	0.0	4.5
	100 ~ 200명미만	31.4	14.1	25.8	4.4	7.5	0.0	9.1	0.0	7.8
	200 ~ 300명미만	54.9	14.5	6.3	7.7	0.0	9.5	0.0	0.0	7.0
	300 ~ 500명미만	48.0	13.0	9.4	11.3	5.8	3.8	2.4	2.5	3.8
	500 ~ 1,000명미만	39.9	20.9	14.4	9.4	0.0	3.4	2.1	2.1	7.7
	1,000명이상	44.1	7.6	14.8	13.2	4.2	0.0	3.7	3.6	8.9
업력	0 ~ 7년미만	47.7	16.4	11.1	0.0	0.0	6.6	5.1	0.0	13.1
	7 ~ 20년미만	28.8	29.6	19.3	6.4	3.5	1.9	1.2	0.0	9.3
	20 ~ 30년미만	50.3	16.3	8.9	3.1	11.6	0.0	2.6	0.0	7.1
	30 ~ 40년미만	60.3	12.6	5.7	16.4	2.7	0.0	0.0	2.4	0.0
	40 ~ 50년미만	50.4	13.3	0.0	9.5	4.0	6.6	5.6	4.6	6.0
	50년이상	33.4	24.6	18.0	4.2	0.0	11.8	3.7	0.0	4.2
매출유형	B2B	41.1	21.6	11.5	8.2	4.7	3.9	2.4	0.9	5.7
	B2C	58.4	6.2	13.7	0.0	0.0	0.0	6.8	5.9	9.1
	B2G	53.1	19.4	7.4	0.0	0.0	0.0	0.0	0.0	20.2
상장	상장	40.0	17.6	11.3	7.5	3.2	5.7	3.2	2.7	8.7
	비상장	44.8	22.6	11.5	7.1	4.9	1.9	2.1	0.0	5.2

□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중견기업은 주요 사유로 수출 부적합 업종(51.3%)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 시장 만족(20.3%), 자금부족(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수출 부적합 업종(44.2%), 국내 시장 만족(20.6%), 마케팅 능력 부족(11.8%) 등의 순임

[그림 2-63]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단위: %, 해외진출 미고려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수출 부적합 업종(38.9%)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 시장 만족(20.0%), 자금부족(14.7%) 등의 순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국내 시장 만족(25.6%)을 신규 진출 미고려 사유로 응답하였으며, 비제조업의 경우는 수출 부적합 업종(68.6%)을 가장 큰 사유로 응답함
 - 제조업은 비제조업에 비해 자금부족(20.4%), 마케팅 능력 부족(18.6%) 등 다른 요인들을 택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수출기업은 마케팅 자금부족(22.6%)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내수기업은 수출 부적합 업종(65.1%)을 가장 높게 응답함
 - 내수기업은 향후에도 수출 부적합 업종으로 인해 해외진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2-98]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단위 : %, 해외진출 미고려 기업 3,38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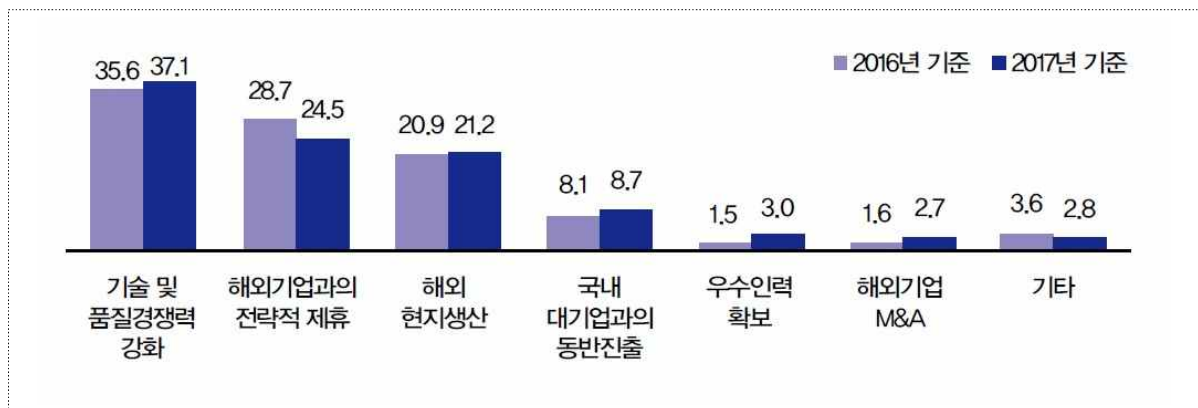
구분		수출 부적합 업종	국내 시장 만족	자금부족	마케팅 능력부족	필요없음 /현재만족	기타
전체		51.3	20.3	10.0	9.3	4.3	4.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8.9	20.0	14.7	12.1	9.2	5.1
	파출자/관계기업	59.5	20.6	6.9	7.5	1.0	4.6
업종	제조업	17.0	25.6	20.4	18.6	11.2	7.2
	비제조업	68.6	17.7	4.8	4.7	0.8	3.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3.8	13.5	6.9	3.8	0.7	1.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0.5	19.8	6.1	8.5	0.0	5.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2.9	28.1	13.5	7.1	2.7	5.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33.9	21.7	17.9	12.7	9.2	4.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6.4	25.0	9.7	20.7	13.5	4.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3.5	19.9	11.8	9.6	9.4	6.0
	5천억원 ~ 1조원미만	44.8	15.6	11.8	11.9	7.9	7.9
	1조원이상	41.4	4.1	18.2	0.0	31.7	4.7
수출여부	수출있음	8.1	20.3	22.6	21.5	17.3	10.2
	수출없음	65.1	20.4	6.0	5.5	0.1	3.0
종사자수	50명미만	67.1	16.1	7.1	4.9	0.9	3.9
	50 ~ 100명미만	47.1	29.2	8.8	9.9	1.1	3.9
	100 ~ 200명미만	39.2	22.9	13.0	12.9	5.1	6.9
	200 ~ 300명미만	38.1	22.5	13.9	11.0	11.3	3.2
	300 ~ 500명미만	37.0	18.1	11.8	17.0	10.7	5.4
	500 ~ 1,000명미만	31.2	16.0	19.6	18.3	7.2	7.7
	1,000명이상	44.7	20.6	5.1	2.3	20.9	6.3
업력	0 ~ 7년미만	71.5	16.9	7.0	3.4	1.2	0.0
	7 ~ 20년미만	57.1	21.1	8.4	6.2	2.1	5.1
	20 ~ 30년미만	49.6	16.0	13.9	9.0	5.5	6.0
	30 ~ 40년미만	36.0	28.7	9.0	16.7	5.0	4.5
	40 ~ 50년미만	40.9	20.3	14.2	13.7	7.2	3.7
	50년이상	35.7	15.8	10.0	18.5	13.8	6.2
매출유형	B2B	47.7	19.9	11.3	10.4	5.3	5.4
	B2C	66.7	20.2	6.1	5.1	0.5	1.4
	B2G	51.7	31.5	0.0	8.2	0.0	8.5
상장	상장	32.0	17.3	15.1	17.0	13.0	5.6
	비상장	55.4	21.0	8.9	7.7	2.4	4.6

□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은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으로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7.1%)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4.5%), 해외 현지생산(2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5.6%)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8.7%), 해외 현지생산(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4]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단위: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은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0.6%), 해외 현지생산(28.0%),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4.3%),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9.5%) 등의 순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45.2%)를 우선전략으로 고려하는 반면, 비제조업은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33.3%)를 고려해 업종별 차이를 보임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해외 현지생산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36.8%),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3.2%), 해외 현지생산(22.1%) 응답율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반면, B2C기업은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41.4%), B2G기업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54.8%)를 1/2정도 응답하여 다른 양상을 보임

[표 2-99]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계속)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34개사)

구분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해외 현지생산
전체		37.1	24.5	21.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0.6	24.3	28.0
	피출자/관계기업	52.3	25.0	5.3
업종	제조업	45.2	20.0	25.3
	비제조업	21.5	33.3	13.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9.0	20.5	10.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6.3	23.6	3.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1.1	23.7	1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37.3	25.7	24.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1.4	26.5	24.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3.5	21.9	22.3
	5천억원 ~ 1조원미만	9.5	33.1	47.8
	1조원이상	19.4	10.4	49.3
수출여부	수출있음	38.6	22.4	23.9
	수출없음	32.1	31.5	11.8
종사자수	50명미만	36.9	27.6	13.0
	50 ~ 100명미만	46.8	31.0	4.0
	100 ~ 200명미만	48.1	24.0	7.0
	200 ~ 300명미만	32.5	24.8	32.3
	300 ~ 500명미만	43.7	15.2	27.2
	500 ~ 1,000명미만	36.3	21.0	25.6
	1,000명이상	9.4	34.4	35.2
업력	0 ~ 7년미만	46.6	37.2	16.2
	7 ~ 20년미만	38.3	22.3	13.6
	20 ~ 30년미만	32.6	23.6	20.5
	30 ~ 40년미만	42.7	16.2	26.8
	40 ~ 50년미만	34.6	22.0	32.5
	50년이상	30.0	39.8	22.8
매출유형	B2B	36.8	23.2	22.1
	B2C	26.8	41.4	19.0
	B2G	54.8	26.7	7.4
상장	상장	30.0	27.0	29.1
	비상장	42.3	22.7	15.4

[표 2-100]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34개사)

구분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우수인력 확보	해외기업 M&A	기타
전체		8.7	3.0	2.7	2.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9.5	3.7	1.9	2.1
	파출자/관계기업	6.7	1.4	4.7	4.7
업종	제조업	6.2	2.0	0.7	0.7
	비제조업	13.5	4.9	6.6	7.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10.3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8.0	0.0	8.0	10.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8.5	3.4	3.4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0.8	0.0	0.0	2.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5.9	8.6	2.7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5.0	7.3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9.6	0.0	0.0	0.0
	1조원이상	0.0	0.0	10.4	10.4
수출여부	수출있음	8.7	2.3	1.1	2.9
	수출없음	8.6	5.4	8.0	2.5
종사자수	50명미만	15.8	3.3	0.0	3.3
	50 ~ 100명미만	5.3	0.0	13.0	0.0
	100 ~ 200명미만	3.7	5.4	2.7	9.0
	200 ~ 300명미만	7.0	0.0	0.0	3.4
	300 ~ 500명미만	10.7	3.2	0.0	0.0
	500 ~ 1,000명미만	14.7	2.3	0.0	0.0
	1,000명이상	0.0	7.9	8.6	4.4
업력	0 ~ 7년미만	0.0	0.0	0.0	0.0
	7 ~ 20년미만	10.5	2.4	5.5	7.4
	20 ~ 30년미만	12.5	10.8	0.0	0.0
	30 ~ 40년미만	11.7	0.0	0.0	2.7
	40 ~ 50년미만	5.6	0.0	5.2	0.0
	50년이상	3.7	3.7	0.0	0.0
매출유형	B2B	9.2	2.5	3.0	3.2
	B2C	0.0	12.8	0.0	0.0
	B2G	11.1	0.0	0.0	0.0
상장	상장	7.2	1.2	2.1	3.5
	비상장	9.8	4.3	3.1	2.4

[표 2-101]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계속)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34개사, 중복응답)

구분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해외 현지생산
전체		54.1	50.8	32.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0.8	45.1	39.7
	피출자/관계기업	61.9	64.3	14.9
업종	제조업	54.2	56.9	38.9
	비제조업	54.0	39.1	19.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8.7	69.2	20.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2.5	58.1	11.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7.8	63.1	15.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7.5	46.0	39.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58.9	55.7	24.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1.5	44.4	44.8
	5천억원 ~ 1조원미만	57.0	28.6	57.4
	1조원이상	40.3	38.9	80.6
수출여부	수출있음	53.3	51.4	34.8
	수출없음	56.9	49.1	23.3
종사자수	50명미만	42.4	56.0	16.3
	50 ~ 100명미만	76.0	57.0	16.9
	100 ~ 200명미만	66.6	57.4	17.6
	200 ~ 300명미만	50.5	50.1	42.1
	300 ~ 500명미만	42.5	55.8	42.3
	500 ~ 1,000명미만	43.8	53.1	40.4
	1,000명이상	68.9	17.6	44.1
업력	0 ~ 7년미만	60.0	71.1	30.5
	7 ~ 20년미만	54.2	45.8	27.7
	20 ~ 30년미만	49.3	48.9	24.1
	30 ~ 40년미만	56.9	56.0	38.5
	40 ~ 50년미만	46.9	47.8	45.1
	50년이상	64.6	52.2	30.2
매출유형	B2B	54.0	50.5	33.9
	B2C	63.2	45.6	19.0
	B2G	45.0	62.2	19.5
상장	상장	55.7	45.8	39.0
	비상장	53.0	54.5	27.3

[표 2-102]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34개사, 중복응답)

구분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우수인력 확보	해외기업 M&A	기타
전체		16.3	11.9	7.8	5.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1	11.2	7.9	5.7
	파출자/관계기업	14.2	13.5	7.7	4.7
업종	제조업	15.5	11.2	5.3	3.0
	비제조업	17.7	13.3	12.8	1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0.3	30.8	10.3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5.6	7.7	8.0	10.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5.4	15.3	7.3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9.6	10.8	6.6	6.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4.6	8.6	8.6	5.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2.5	22.1	0.0	3.7
	5천억원 ~ 1조원미만	14.4	4.7	18.8	0.0
	1조원이상	0.0	9.0	10.4	10.4
수출여부	수출있음	17.9	9.0	5.9	6.2
	수출없음	10.5	21.8	14.2	2.5
종사자수	50명미만	24.4	13.6	3.3	3.3
	50 ~ 100명미만	5.3	10.7	13.0	5.3
	100 ~ 200명미만	7.0	17.3	9.5	9.0
	200 ~ 300명미만	18.2	8.7	3.6	10.1
	300 ~ 500명미만	22.5	3.2	9.7	2.5
	500 ~ 1,000명미만	19.1	15.4	2.1	2.4
	1,000명이상	13.5	15.5	19.6	4.4
업력	0 ~ 7년미만	0.0	6.6	0.0	0.0
	7 ~ 20년미만	22.9	11.0	8.2	10.6
	20 ~ 30년미만	21.0	19.8	4.8	3.5
	30 ~ 40년미만	17.3	4.3	9.6	2.7
	40 ~ 50년미만	12.8	9.9	14.7	5.4
	50년이상	3.7	20.3	3.4	0.0
매출유형	B2B	17.2	10.1	7.2	6.1
	B2C	6.8	28.2	13.5	0.0
	B2G	11.1	23.5	11.1	0.0
상장	상장	13.1	9.0	9.3	5.4
	비상장	18.6	14.0	6.7	5.3

8절 수.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

1. 수.위탁 거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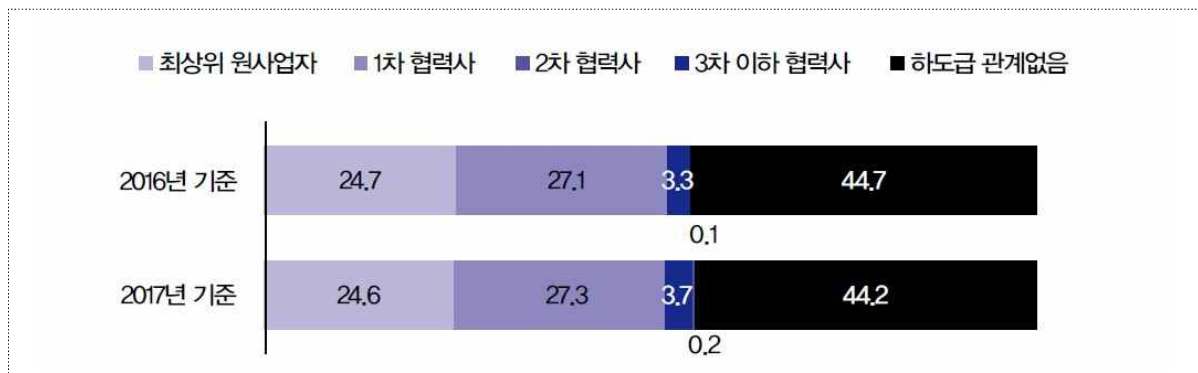
□ 수.위탁 거래 단계

- 중견기업의 55.8%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계별로는 1차 협력사인 경우가 2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최상위 원사업자 24.6%, 2차 협력사인 경우가 3.7%, 3차 이하 협력사인 경우가 0.2% 순임

- 2016년 기준 결과, 중견기업의 55.3%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5] 수.위탁거래 단계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일반 중견기업이 65.8%, 피출자/관계기업이 47.8%로 나타나 피출자/관계기업보다 일반 중견기업이 수.위탁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반 중견기업은 33.7%가 최상위 원사업자, 29.3%가 1차 협력사, 2.7%가 2차 협력사이며, 피출자/관계기업은 일반 중견기업에 비해 2차 협력사 비중은 높은 반면, 최상위 원사업자, 1차 협력사 비중은 낮음
- 수출기업의 71.7%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수기업은 48.1%만이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03] 수.위탁거래 단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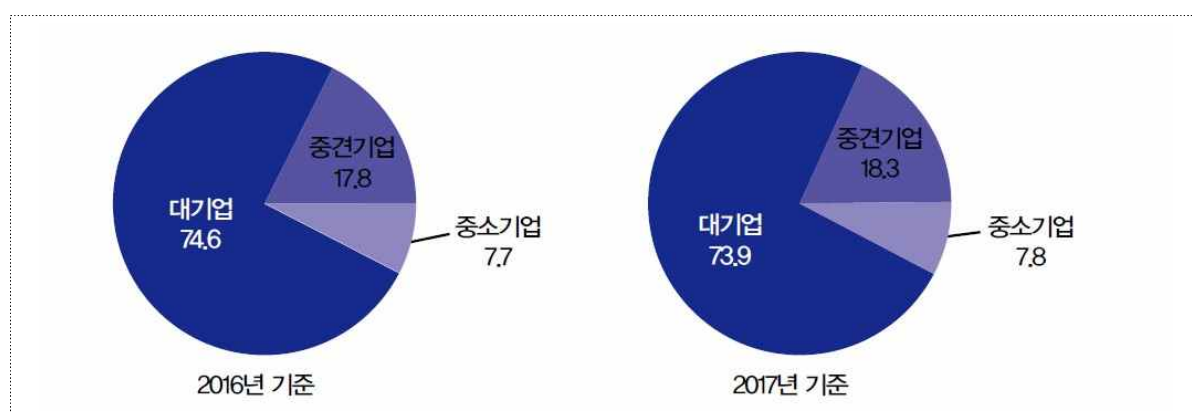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하도급 관계없음	최상위 원사업자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이하 협력사
전체		(4,014)	44.2	24.6	27.3	3.7	0.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34.2	33.7	29.3	2.7	0.0
	피출자/관계기업	(2,219)	52.2	17.3	25.6	4.5	0.5
업종	제조업	(1,552)	27.8	24.3	40.4	6.8	0.6
	비제조업	(2,462)	54.5	24.8	18.9	1.8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64.4	16.6	16.1	2.3	0.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53.8	15.1	26.5	4.4	0.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35.4	28.9	29.5	5.7	0.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35.6	28.5	32.5	3.4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23.8	36.9	33.9	5.3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33.4	38.6	27.1	0.9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31.9	37.4	30.7	0.0	0.0
	1조원이상	(89)	41.5	49.2	9.3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28.3	27.6	38.7	5.1	0.3
	수출없음	(2,706)	51.9	23.1	21.7	3.0	0.2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59.7	19.0	18.8	2.5	0.0
	50 ~ 100명미만	(686)	45.2	21.8	26.9	5.3	0.8
	100 ~ 200명미만	(608)	41.8	24.3	28.3	5.5	0.0
	200 ~ 300명미만	(387)	34.3	28.5	31.8	4.2	1.1
	300 ~ 500명미만	(397)	24.5	38.0	34.9	2.6	0.0
	500 ~ 1,000명미만	(326)	25.7	30.9	40.5	3.0	0.0
	1,000명이상	(168)	21.0	32.4	43.0	3.5	0.0
업력	0 ~ 7년미만	(617)	42.7	21.7	31.7	3.0	0.9
	7 ~ 20년미만	(1,644)	48.3	22.9	24.7	3.7	0.4
	20 ~ 30년미만	(679)	49.1	20.6	26.2	4.2	0.0
	30 ~ 40년미만	(459)	36.8	25.7	33.8	3.7	0.0
	40 ~ 50년미만	(340)	33.5	31.2	33.1	2.2	0.0
	50년이상	(275)	36.3	36.9	21.5	5.4	0.0
매출유형	B2B	(3,223)	43.2	19.9	32.1	4.5	0.3
	B2C	(650)	51.9	41.5	6.6	0.0	0.0
	B2G	(141)	29.8	55.6	12.7	1.9	0.0
상장	상장	(757)	35.2	31.9	29.8	3.1	0.0
	비상장	(3,257)	46.7	22.6	26.6	3.9	0.3

□ 위탁기업⁶⁾과의 거래 현황

- 수탁⁷⁾ 중견기업의 거래대상별 매출 비중을 보면 73.9%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8.3%는 중견기업, 7.8%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74.6%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7.8%는 중견기업, 7.7%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6] 위탁기업과의 거래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전체 2,167억 60백만원 중 76.5%(평균:1,657억 51백만원)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6.1%(평균: 349억 73백만원)는 중견기업, 7.4%(평균: 160억 35백만원)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피출자/관계기업의 경우, 대기업(평균:135억 85백만원) 54.9%, 중견기업(평균:85억 69백만원) 34.6%, 중소기업(평균:25억 84백만원) 10.4%임
- 제조업의 경우는 전체 위탁기업과의 매출액이 1,397억 70백만원으로 그 중 대기업이 81.0%(평균:1,131억 54백만원), 중견기업이 14.6%(평균:204억 7백만원), 중소기업이 4.4%(평균:62억 9백만원)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위탁기업과의 거래금액이 큰 것으로 조사됨

6) 위탁기업(모기업) : 용역 등을 의뢰하는 기업

7) 수탁기업(협력사) : 위탁기업의 주문에 따라 부품 생산, 완제품 조립 또는 제조, 원재료 공급 등을 이행하는 기업

[표 2-104] 위탁기업과의 거래 현황

(단위 : %, 백만원, 하도급 관계 기업 1,25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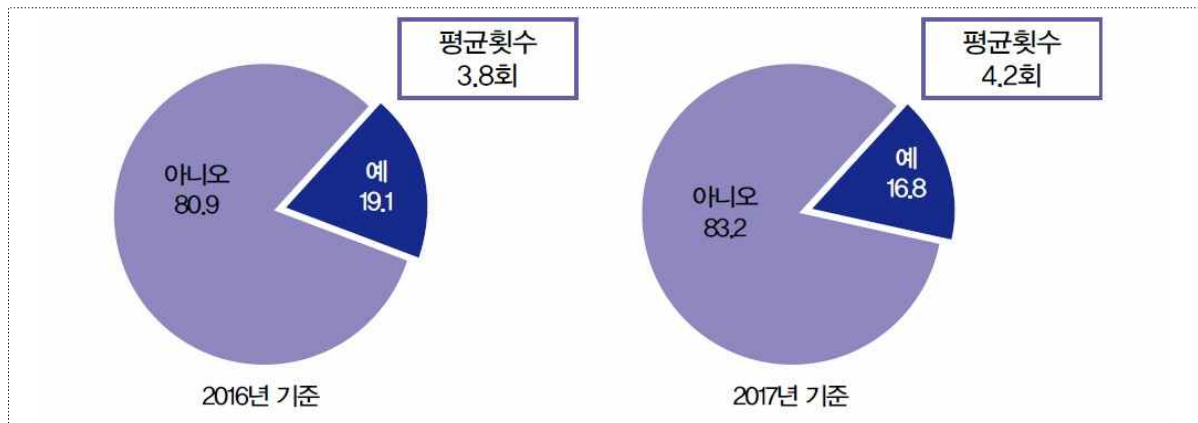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비율
전체		112,907.1	100	83,453.3	73.9	20,693.3	18.3	8,760.5	7.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16,760.3	100	165,751.1	76.5	34,973.6	16.1	16,035.7	7.4
	피출자/관계기업	24,739.5	100	13,585.6	54.9	8,569.8	34.6	2,584.2	10.4
업종	제조업	139,770.7	100	113,154.6	81.0	20,407.0	14.6	6,209.0	4.4
	비제조업	73,596.3	100	39,989.9	54.3	21,112.1	28.7	12,494.3	17.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856.1	100	1,461.1	30.1	3,071.0	63.2	324.1	6.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8,325.7	100	7,313.4	39.9	8,881.3	48.5	2,131.0	11.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8,691.0	100	41,969.0	71.5	10,731.9	18.3	5,990.1	10.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06,288.3	100	79,440.0	74.7	17,143.0	16.1	9,705.2	9.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27,569.8	100	165,483.8	72.7	40,343.2	17.7	21,742.8	9.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27,170.6	100	293,585.5	89.7	28,900.0	8.8	4,685.0	1.4
	5천억원 ~ 1조원미만	590,402.5	100	404,957.0	68.6	130,959.0	22.2	54,486.5	9.2
	1조원이상	951,907.0	100	801,125.0	84.2	108,856.7	11.4	41,925.3	4.4
수출여부	수출있음	175,748.2	100	137,771.2	78.4	25,342.7	14.4	12,634.3	7.2
	수출없음	59,912.0	100	37,646.0	62.8	16,772.3	28.0	5,493.7	9.2
종사자수	50명미만	29,403.2	100	17,194.4	58.5	10,680.5	36.3	1,528.3	5.2
	50 ~ 100명미만	47,707.4	100	26,721.8	56.0	12,320.6	25.8	8,665.0	18.2
	100 ~ 200명미만	89,854.2	100	62,331.9	69.4	16,041.6	17.9	11,480.7	12.8
	200 ~ 300명미만	101,005.2	100	83,261.4	82.4	14,934.9	14.8	2,808.9	2.8
	300 ~ 500명미만	162,822.1	100	121,019.3	74.3	33,208.6	20.4	8,594.2	5.3
	500 ~ 1,000명미만	255,628.5	100	209,161.4	81.8	37,368.1	14.6	9,099.0	3.6
	1,000명이상	353,028.2	100	259,919.6	73.6	52,908.5	15.0	40,200.1	11.4
업력	0 ~ 7년미만	140,376.9	100	71,035.3	50.6	44,515.0	31.7	24,826.7	17.7
	7 ~ 20년미만	67,624.7	100	51,385.5	76.0	12,028.5	17.8	4,210.8	6.2
	20 ~ 30년미만	132,422.9	100	100,474.9	75.9	17,300.1	13.1	14,647.9	11.1
	30 ~ 40년미만	101,974.9	100	84,162.3	82.5	12,474.2	12.2	5,338.4	5.2
	40 ~ 50년미만	201,951.5	100	159,933.9	79.2	32,198.6	15.9	9,819.0	4.9
	50년이상	184,967.8	100	119,364.8	64.5	59,976.1	32.4	5,626.9	3.0
매출유형	B2B	116,797.3	100	86,821.7	74.3	21,198.5	18.1	8,777.1	7.5
	B2C	35,510.5	100	17,860.4	50.3	6,866.6	19.3	10,783.5	30.4
	B2G	40,933.7	100	18,413.8	45.0	18,558.8	45.3	3,961.1	9.7
상장	상장	222,463.1	100	181,270.8	81.5	31,778.7	14.3	9,413.6	4.2
	비상장	79,806.7	100	53,899.5	67.5	17,344.0	21.7	8,563.2	10.7

□ 납품단가 인하

- 수탁 중견기업의 16.8%는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횟수는 평균 4.2회, 평균 단가인하율은 3~5%미만(36.6%)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19.1%는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횟수는 평균 3.8회임

[그림 2-67]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특성별 분석

- 수탁거래를 하는 일반 중견기업의 22.1%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횟수는 평균 4.4회로 나타났으며, 피출자/관계기업은 12.2%의 경험이 있으며 평균 3.8회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2.7%가 평균 4.0회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8.0%가 평균 5.1회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험율은 제조업이 높으나 경험횟수는 비제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평균 단가인하율은 3~5%미만(43.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미만(36.3%), 5~10%미만(12.5%) 등의 순인 반면, 비제조업은 5~10%미만(40.5%), 10~20%미만(21.6%), 20~30%미만(2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평균 단가인하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수출기업은 26.5%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은 반면, 내수기업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은 경험이 8.4%로 나타나 수출여부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있음

[표 2-105]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및 평균단가인하율

(단위 : %, 하도급 관계 기업 1,25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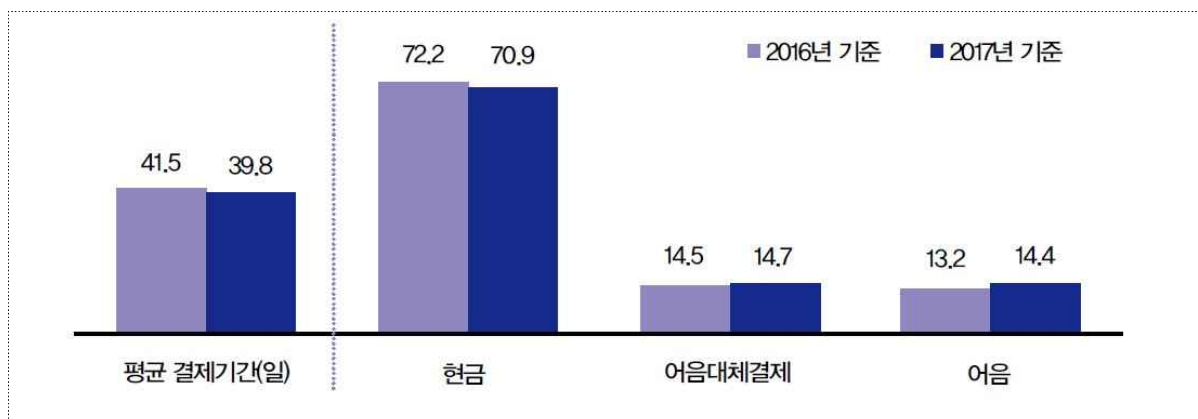
구분		경험 있음	횟수	경험 없음	평균 단가인하율				
					3% 미만	3~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전체		16.8	4.2	83.2	31.1	36.6	18.0	8.6	5.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2.1	4.4	77.9	33.6	40.4	18.8	7.2	0.0
	피출자/관계기업	12.2	3.8	87.8	27.2	30.9	16.8	10.7	14.4
업종	제조업	22.7	4.0	77.3	36.3	43.9	12.5	5.4	1.8
	비제조업	8.0	5.1	92.0	9.7	6.6	40.5	21.6	21.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9.2	1.7	80.8	33.9	33.9	32.2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8.5	5.7	91.5	10.8	21.7	22.5	22.5	22.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8.3	3.0	81.7	58.3	32.4	0.0	0.0	9.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22.3	5.2	77.7	40.4	45.5	7.1	7.1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2.5	3.2	77.5	20.7	39.6	39.6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9	3.0	74.1	37.5	37.5	25.0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22.9	6.0	77.1	0.0	60.0	20.0	20.0	0.0
수출여부	1조원이상	34.9	-	65.1	0.0	0.0	0.0	100.0	0.0
	수출있음	26.5	4.2	73.5	34.0	44.2	13.8	6.0	2.0
	수출없음	8.4	4.3	91.6	23.4	16.2	29.2	15.6	15.6
종사자수	50명미만	13.4	4.9	86.6	24.2	12.9	33.8	0.0	29.1
	50 ~ 100명미만	5.4	1.7	94.6	57.9	42.1	0.0	0.0	0.0
	100 ~ 200명미만	29.2	3.3	70.8	32.6	42.0	10.6	14.8	0.0
	200 ~ 300명미만	11.5	6.4	88.5	0.0	56.9	19.8	23.3	0.0
	300 ~ 500명미만	25.6	3.4	74.4	53.2	22.4	24.3	0.0	0.0
	500 ~ 1,000명미만	22.3	5.4	77.7	26.4	73.6	0.0	0.0	0.0
	1,000명이상	13.1	5.6	86.9	0.0	0.0	48.4	51.6	0.0
업력	0 ~ 7년미만	16.8	6.2	83.2	36.2	0.0	13.7	0.0	50.2
	7 ~ 20년미만	13.7	3.7	86.3	30.3	22.4	30.3	17.0	0.0
	20 ~ 30년미만	12.1	5.2	87.9	38.9	15.7	31.3	14.1	0.0
	30 ~ 40년미만	21.3	2.2	78.7	27.0	65.1	7.9	0.0	0.0
	40 ~ 50년미만	21.4	4.9	78.6	44.1	37.4	8.3	0.0	10.1
	50년이상	29.7	5.5	70.3	10.8	79.0	0.0	10.2	0.0
매출유형	B2B	16.9	4.2	83.1	28.1	38.2	18.8	9.0	5.9
	B2C	14.4	4.0	85.6	100.0	0.0	0.0	0.0	0.0
	B2G	12.9	2.0	87.1	100.0	0.0	0.0	0.0	0.0
상장	상장	29.7	4.5	70.3	37.4	35.2	21.1	6.3	0.0
	비상장	12.9	4.0	87.1	26.8	37.6	15.9	10.2	9.5

□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 중견기업이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기간은 평균 39.8일이며, 결제수단비중은 현금(70.9%), 어음대체결제(14.7%), 어음(14.4%)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평균 41.5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72.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음대체결제(14.5%), 어음(13.2%)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8]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단위: %, 하도급 피출자/관계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기간은 평균 39.8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62.0%), 어음대체결제(19.9%), 어음(18.0%) 순임
- 제조업의 경우 대금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2.2일, 결제수단은 현금(60.7%), 어음대체결제(20.5%), 어음(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대금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6.3일, 결제수단은 현금(85.6%), 어음(8.0%), 어음대체결제(6.3%) 순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결제기간도 빠른 것으로 조사됨
- 매출규모별로는 5천억원~1조원 미만 기업에서는 어음이 24.7%로 타 기업군에 비해 높으며, 1조원 이상 기업에서는 어음대체결제가 27.8%로 타 기업군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금액 또한 증가하여 현금보다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

[표 2-106]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단위 : %, 하도급 관계 기업 1,25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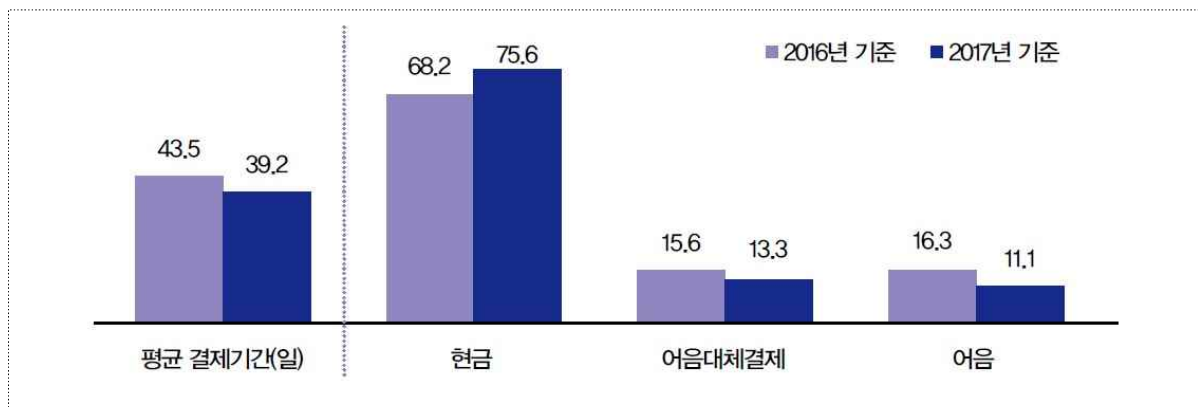
구분		평균 결제기간	결제수단별 비중		
			현금	어음대체결제	어음
전체		39.8	70.9	14.7	14.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9.8	62.0	19.9	18.0
	파출자/관계기업	39.9	78.3	10.3	11.4
업종	제조업	42.2	60.7	20.5	18.8
	비제조업	36.3	85.6	6.3	8.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3.1	74.0	14.3	11.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1.4	78.6	8.3	13.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5.4	77.3	13.3	9.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1.3	57.1	25.3	17.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7.2	70.4	16.1	13.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3.7	60.7	16.1	23.2
	5천억원 ~ 1조원미만	42.1	55.7	19.6	24.7
	1조원이상	66.6	72.2	27.8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2.0	61.4	20.8	17.9
	수출없음	38.0	79.0	9.5	11.5
종사자수	50명미만	38.6	83.6	7.1	9.3
	50 ~ 100명미만	43.6	70.5	15.4	14.1
	100 ~ 200명미만	37.9	66.1	16.7	17.3
	200 ~ 300명미만	38.6	63.6	21.2	15.2
	300 ~ 500명미만	38.8	62.7	21.1	16.2
	500 ~ 1,000명미만	45.2	59.7	17.1	23.2
	1,000명이상	32.9	83.4	9.1	7.5
업력	0 ~ 7년미만	37.5	77.5	12.3	10.1
	7 ~ 20년미만	39.5	77.5	10.4	12.1
	20 ~ 30년미만	33.0	65.9	20.7	13.4
	30 ~ 40년미만	42.2	72.7	13.5	13.7
	40 ~ 50년미만	46.7	57.4	22.1	20.5
	50년이상	45.4	53.6	17.8	28.7
매출유형	B2B	39.5	70.4	15.1	14.5
	B2C	52.9	78.3	5.1	16.6
	B2G	29.6	82.3	10.3	7.3
상장	상장	45.1	55.7	22.5	21.8
	비상장	38.3	75.3	12.4	12.3

□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 중견기업이 수탁기업(협력사)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은 평균 39.2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위탁기업 결제와 동일하게 현금(75.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음대체결제(13.3%), 어음(11.1%)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기간은 평균 43.5일이며, 결제수단비중은 현금(68.2%), 어음(16.3%) 등의 순임

[그림 2-69]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이 수탁기업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은 평균 41.2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70.2%), 어음대체결제(16.5%), 어음(13.3%)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수탁기업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이 평균 43.2일, 결제수단은 현금(63.9%), 어음대체결제(19.5%), 어음(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이 평균 35.0일, 결제수단은 현금(87.9%), 어음대체결제(6.9%), 어음(5.2%) 순으로 나타남
- 위탁기업 결제와 동일하게 비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현금 결제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규모별로는 1조원 이상 기업은 어음대체결제 비중이 26.5%로 타 기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5천억원~1조원 미만 기업은 어음의 비중이 18.5%로 타 기업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이는 위탁기업 결제와 동일하게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금액 또한 증가하여 현금보다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

[표 2-107]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단위 : %, 하도급 관계 기업 1,975개사)

구분		평균 결제기간	결제수단별 비중		
			현금	어음대체결제	어음
전체		39.2	75.6	13.3	11.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1.2	70.2	16.5	13.3
	파출자/관계기업	36.5	82.9	9.0	8.1
업종	제조업	43.2	63.9	19.5	16.7
	비제조업	35.0	87.9	6.9	5.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5.8	88.3	0.0	11.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5.1	86.3	8.0	5.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7.1	76.6	13.0	10.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1.9	68.1	17.0	14.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0.8	74.2	14.4	11.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4.9	62.0	23.5	14.5
	5천억원 ~ 1조원미만	40.3	66.9	14.5	18.5
	1조원이상	48.7	64.6	26.5	9.0
수출여부	수출있음	42.7	63.7	21.6	14.7
	수출없음	36.4	85.2	6.7	8.1
종사자수	50명미만	35.0	87.1	5.2	7.8
	50 ~ 100명미만	34.9	83.6	9.2	7.2
	100 ~ 200명미만	42.2	75.0	11.5	13.5
	200 ~ 300명미만	43.0	69.2	20.6	10.2
	300 ~ 500명미만	40.5	67.0	20.5	12.5
	500 ~ 1,000명미만	43.2	61.9	18.7	19.4
	1,000명이상	41.5	68.9	20.4	10.7
업력	0 ~ 7년미만	39.4	87.6	6.6	5.8
	7 ~ 20년미만	37.0	80.9	9.3	9.8
	20 ~ 30년미만	35.8	77.3	13.5	9.2
	30 ~ 40년미만	42.4	73.1	16.4	10.4
	40 ~ 50년미만	44.4	65.3	19.5	15.1
	50년이상	42.3	58.2	21.6	20.2
매출유형	B2B	40.2	73.8	14.1	12.2
	B2C	36.6	81.4	12.2	6.4
	B2G	30.2	89.4	3.4	7.2
상장	상장	42.6	62.0	22.6	15.4
	비상장	37.9	80.8	9.7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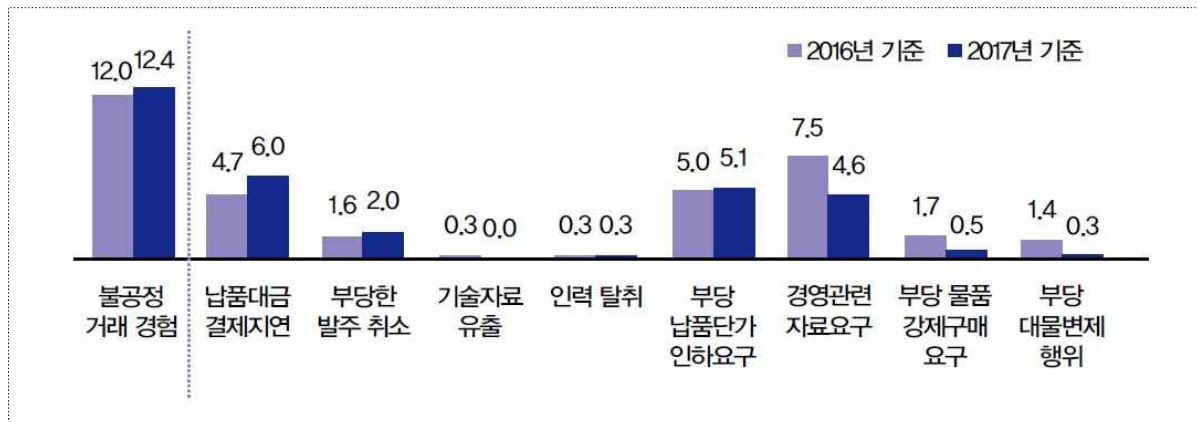
2.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 불공정거래

- 수탁 중견기업 중 12.4%는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납품대금 결제지연(6.0%),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5.1%), 경영관련 자료요구(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12.0%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관련 자료요구(7.5%),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5.0%), 납품대금 결제지연(4.7%)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70] 불공정거래 경험율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15.9%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품대금 결제지연(6.7%), 부당 납품단가 인하 요구(6.7%), 경영관련 자료요구(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피출자/관계기업은 9.4%만이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11.5%가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13.6%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함
-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불공정 거래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수출기업은 14.3%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수기업은 10.8%로 나타났으며, 상장기업은 15.3%의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는 반면, 비상장 기업은 11.5%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2-108] 불공정거래 경험율(계속)

(단위 : %, 하도급 관계 기업 1,253개사)

구분		불공정거래 경험율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율			
			납품대금 결제지연	부당한 발주취소	기술자료 유출	인력탈취
전체		12.4	6.0	2.0	0.0	0.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5.9	6.7	2.0	0.0	0.6
	피출자/관계기업	9.4	5.3	2.1	0.0	0.0
업종	제조업	11.5	2.6	0.8	0.0	0.4
	비제조업	13.6	10.9	3.9	0.0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5.6	6.2	6.2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0.4	6.7	1.9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8	1.3	1.3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8.2	7.6	1.5	0.0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9.8	5.8	2.3	0.0	2.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2.8	6.3	0.0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9.0	9.0	4.5	0.0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4.3	3.5	1.0	0.0	0.6
	수출없음	10.8	8.1	2.9	0.0	0.0
종사자수	50명미만	13.6	7.4	5.3	0.0	0.0
	50 ~ 100명미만	2.9	2.9	0.0	0.0	0.0
	100 ~ 200명미만	17.8	6.1	1.6	0.0	0.0
	200 ~ 300명미만	13.3	2.7	0.0	0.0	0.0
	300 ~ 500명미만	17.2	10.2	0.0	0.0	2.2
	500 ~ 1,000명미만	9.9	1.7	1.7	0.0	0.0
	1,000명이상	14.7	14.7	4.6	0.0	0.0
업력	0 ~ 7년미만	8.4	0.0	0.0	0.0	0.0
	7 ~ 20년미만	12.1	6.9	3.2	0.0	0.0
	20 ~ 30년미만	14.1	7.4	1.6	0.0	1.5
	30 ~ 40년미만	10.2	3.1	0.0	0.0	0.0
	40 ~ 50년미만	11.5	6.9	2.3	0.0	0.0
	50년이상	21.5	9.4	3.0	0.0	0.0
매출유형	B2B	12.5	6.3	1.9	0.0	0.3
	B2C	14.4	0.0	5.4	0.0	0.0
	B2G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15.3	3.8	3.2	0.0	1.1
	비상장	11.5	6.6	1.7	0.0	0.0

[표 2-109] 불공정거래 경험율

(단위 : %, 하도급 관계 기업 1,25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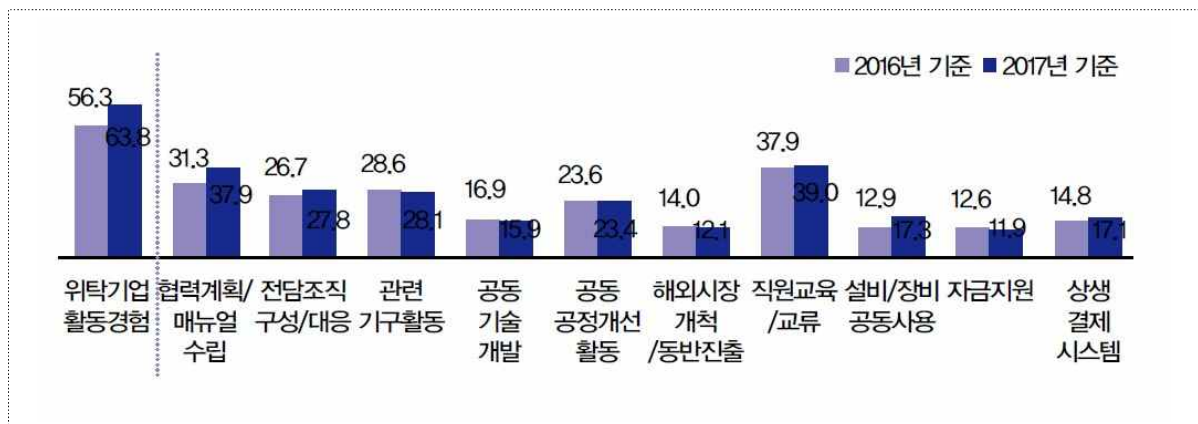
구분		불공정거래 경험율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율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	경영관련 자료요구	부당 물품 강제구매 요구	부당대물 변제행위
전체		12.4	5.1	4.6	0.5	0.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5.9	6.7	6.5	1.1	0.6
	피출자/관계기업	9.4	3.8	3.0	0.0	0.0
업종	제조업	11.5	5.0	5.7	0.3	0.0
	비제조업	13.6	5.2	3.0	0.7	0.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5.6	9.4	0.0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0.4	3.8	3.7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8	2.6	1.3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8.2	7.8	7.3	1.5	1.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9.8	7.0	8.9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2.8	3.2	6.5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9.0	4.6	4.6	4.6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4.3	6.5	6.6	0.4	0.0
	수출없음	10.8	3.9	2.9	0.5	0.5
종사자수	50명미만	13.6	9.0	0.0	0.0	0.0
	50 ~ 100명미만	2.9	1.0	0.0	0.0	0.0
	100 ~ 200명미만	17.8	5.6	10.7	0.0	0.0
	200 ~ 300명미만	13.3	4.9	5.6	0.0	0.0
	300 ~ 500명미만	17.2	2.4	8.7	0.0	0.0
	500 ~ 1,000명미만	9.9	6.4	4.1	0.0	0.0
	1,000명이상	14.7	3.1	11.2	7.7	4.6
업력	0 ~ 7년미만	8.4	8.4	0.0	0.0	0.0
	7 ~ 20년미만	12.1	5.2	3.5	0.0	0.0
	20 ~ 30년미만	14.1	1.7	9.0	1.6	1.6
	30 ~ 40년미만	10.2	6.4	5.9	0.0	0.0
	40 ~ 50년미만	11.5	2.3	2.3	0.0	0.0
	50년이상	21.5	12.0	6.2	3.0	0.0
매출유형	B2B	12.5	4.9	4.5	0.5	0.3
	B2C	14.4	14.4	9.0	0.0	0.0
	B2G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15.3	5.8	10.9	2.1	1.3
	비상장	11.5	4.9	2.8	0.0	0.0

□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수탁 중견기업의 63.8%는 위탁기업(모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원교육/교류(39.0%),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7.9%), 관련 기구활동(28.1%) 등이 높게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56.3%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원교육/교류(37.9%),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1.3%)등의 순임

[그림 2-71]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68.7%는 위탁기업(모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교육/교류(41.8%), 협력계획/매뉴얼 수립(41.0%), 관련 기구활동(35.5%) 등이 높게 나타남
- 피출자/관계기업은 직원교육/교류(36.7%), 협력계획/매뉴얼 수립(35.3%), 전담조직 구성/대응(26.2%)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69.1%, 비제조업의 56.0%가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을 진행 중으로 제조업의 수행율이 높게 나타남
- B2B기업은 65.3%, B2G기업은 43.6%, B2C기업은 32.9%의 수행율로 조사됨
- B2G기업의 경우 전담조직 구성/대응, 공동 기술 개발, 공동 공정개선 활동, 해외시장 개척/동반진출, 직원교육/교류, 설비/장비 공동사용에 대한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공공기관을 주 거래처로 하는 특성상 타 기업군과 달리 모든 활동에 대해 활발하지는 않

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10]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단위 : %, 하도급 관계 기업 1,253개사)

구분		동반성장/ 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	전담조직 구성/대응	관련 기구활동	공동 기술 개발	공동 공정개선 활동
전체		63.8	37.9	27.8	28.1	15.9	23.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8.7	41.0	29.8	35.5	24.7	28.5
	피출자/관계기업	59.7	35.3	26.2	21.8	8.4	19.1
업종	제조업	69.1	41.4	29.7	35.2	22.4	29.8
	비제조업	56.0	32.9	25.1	17.8	6.5	14.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3.2	22.1	31.2	18.9	3.3	22.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2.1	37.6	26.3	22.6	9.3	17.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8.0	29.6	19.1	17.5	8.9	18.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4.5	41.9	27.8	34.0	22.5	22.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8.6	36.1	27.2	25.6	14.0	27.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4.3	51.6	38.7	61.5	29.1	45.3
	5천억원 ~ 1조원미만	82.1	54.7	45.7	50.3	63.9	45.6
	1조원이상	69.8	69.8	69.8	69.8	69.8	69.8
수출여부	수출있음	73.9	41.9	32.1	38.4	23.6	32.3
	수출없음	55.1	34.5	24.2	19.3	9.4	15.8
종사자수	50명미만	65.5	40.7	34.6	27.8	7.3	26.0
	50 ~ 100명미만	58.6	35.1	30.8	19.8	9.6	15.5
	100 ~ 200명미만	52.6	26.6	15.2	23.4	12.7	20.9
	200 ~ 300명미만	63.7	38.9	15.1	16.7	15.4	19.5
	300 ~ 500명미만	83.9	44.2	30.1	39.5	30.5	32.9
	500 ~ 1,000명미만	67.8	48.0	37.8	50.8	28.2	32.9
	1,000명이상	56.1	33.5	26.9	24.0	27.4	14.8
업력	0 ~ 7년미만	71.6	17.7	20.6	20.1	12.1	26.2
	7 ~ 20년미만	61.7	41.4	31.7	29.8	12.4	23.0
	20 ~ 30년미만	69.3	38.4	26.3	30.0	18.6	28.1
	30 ~ 40년미만	57.2	32.7	18.7	25.1	11.9	23.7
	40 ~ 50년미만	65.3	47.2	30.0	31.3	25.5	22.9
	50년이상	64.6	37.5	35.6	24.5	28.5	9.5
매출유형	B2B	65.3	39.4	28.9	29.2	16.6	24.7
	B2C	32.9	10.6	10.6	6.1	4.5	0.0
	B2G	43.6	12.9	0.0	12.9	0.0	0.0
상장	상장	77.3	49.4	40.6	43.6	34.5	31.0
	비상장	59.8	34.6	24.1	23.6	10.4	21.2

[표 2-111]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 하도급 관계 기업 1,25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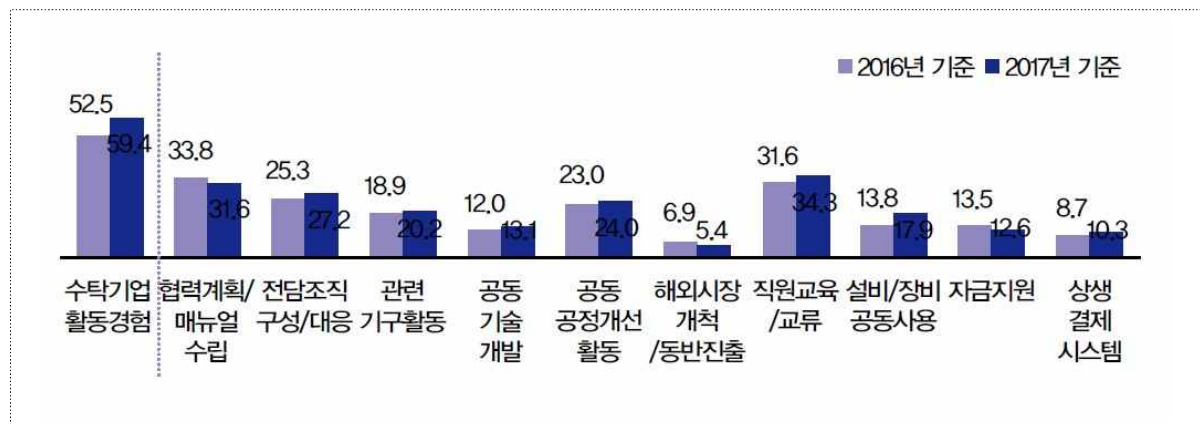
구분		동반성장/ 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해외시장 개척 /동반진출	직원교육 /교류	설비/장비 공동사용	자금지원	상생 결제 시스템
전체		63.8	12.1	39.0	17.3	11.9	17.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8.7	19.8	41.8	16.4	12.8	26.9
	피출자/관계기업	59.7	5.6	36.7	18.1	11.1	8.8
업종	제조업	69.1	16.8	42.9	18.0	11.7	24.5
	비제조업	56.0	5.2	33.4	16.4	12.2	6.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3.2	9.4	30.7	25.4	9.4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2.1	3.7	39.5	20.7	13.2	9.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8.0	7.0	32.3	10.1	5.9	12.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4.5	15.1	40.1	12.4	10.8	32.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8.6	15.5	39.5	15.5	17.8	23.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4.3	32.4	51.8	16.2	12.9	29.1
	5천억원 ~ 1조원미만	82.1	45.6	41.0	27.3	13.7	22.9
	1조원이상	69.8	69.8	69.8	34.9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73.9	21.3	44.8	18.2	11.1	27.7
	수출없음	55.1	4.2	34.1	16.6	12.6	8.1
종사자수	50명미만	65.5	6.7	42.2	24.4	19.9	8.2
	50 ~ 100명미만	58.6	6.6	31.7	19.3	2.6	6.8
	100 ~ 200명미만	52.6	7.5	37.4	5.0	6.1	18.8
	200 ~ 300명미만	63.7	9.5	29.7	10.6	15.2	30.0
	300 ~ 500명미만	83.9	21.4	49.0	26.4	19.0	33.9
	500 ~ 1,000명미만	67.8	26.4	47.0	15.0	9.4	23.2
	1,000명이상	56.1	22.7	36.2	16.0	7.4	10.5
업력	0 ~ 7년미만	71.6	8.9	38.0	27.9	11.0	2.4
	7 ~ 20년미만	61.7	11.8	37.8	20.6	12.6	13.0
	20 ~ 30년미만	69.3	14.4	47.2	13.1	18.0	26.2
	30 ~ 40년미만	57.2	6.9	36.3	10.6	7.0	15.1
	40 ~ 50년미만	65.3	17.4	32.5	14.7	10.8	33.0
	50년이상	64.6	15.1	43.2	16.2	5.4	13.2
매출유형	B2B	65.3	12.7	40.4	17.8	12.3	17.5
	B2C	32.9	0.0	19.6	12.3	0.0	7.2
	B2G	43.6	0.0	0.0	0.0	12.9	17.7
상장	상장	77.3	24.5	47.0	18.3	10.7	33.0
	비상장	59.8	8.5	36.7	17.1	12.2	12.4

□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위탁 중견기업의 59.4%는 수탁기업(협력사)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원교육/교류(34.3%), 협력계획/매뉴얼 수립(31.6%), 전담조직 구성/대응(27.2%) 등이 높게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52.5%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3.8%), 직원교육/교류(31.6%), 전담조직 구성/대응(2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2]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63.6%는 수탁기업(협력사)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계획/매뉴얼 수립(39.5%), 직원교육/교류(36.8%), 전담조직 구성/대응(31.6%) 등이 높게 조사됨
- 피출자/관계기업의 동반성장/상생협력 추진율은 53.7%로 나타났으며, 직원교육/교류(30.9%), 전담조직 구성/대응(21.2%), 협력계획/매뉴얼 수립(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의 68.7%, 내수기업의 51.9%가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을 진행 중으로 수출기업의 수행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수출기업은 협력계획/매뉴얼 수립(3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수기업의 경우는 직원 교육/교류(33.3%)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수출/상장기업이 내수/비상장기업보다 동반성장/상생협력 추진율이 높음

[표 2-112]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단위 : %, 하도급 관계 기업 1,975개사)

구분		동반성장 /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	전담조직 구성/대응	관련 기구활동	공동 기술 개발	공동 공정개선 활동
전체		59.4	31.6	27.2	20.2	13.1	24.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3.6	39.5	31.6	23.6	16.5	27.6
	피출자/관계기업	53.7	20.9	21.2	15.5	8.4	19.2
업종	제조업	63.3	37.6	29.7	24.1	20.3	31.7
	비제조업	55.3	25.3	24.6	16.1	5.6	16.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4.5	27.4	34.0	15.8	4.7	18.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1.1	16.4	16.4	14.3	7.1	16.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7.7	30.5	27.0	16.1	14.0	19.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9.1	34.8	28.8	19.3	16.2	24.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2.4	36.5	25.3	24.9	12.7	27.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2.8	48.2	34.5	31.5	12.6	31.7
	5천억원 ~ 1조원미만	78.8	61.9	51.2	38.5	32.1	49.1
	1조원이상	63.5	31.7	47.6	16.6	27.7	38.0
수출여부	수출있음	68.7	37.8	31.8	27.0	20.7	33.4
	수출없음	51.9	26.6	23.5	14.7	7.0	16.4
종사자수	50명미만	52.4	28.8	29.3	18.9	3.7	18.2
	50 ~ 100명미만	53.5	18.2	17.9	9.9	8.4	16.3
	100 ~ 200명미만	52.1	25.2	18.8	15.4	14.0	18.5
	200 ~ 300명미만	67.1	41.0	28.6	25.8	14.3	36.6
	300 ~ 500명미만	67.2	32.1	25.6	22.1	18.6	22.9
	500 ~ 1,000명미만	72.9	52.7	42.5	33.7	25.4	34.9
	1,000명이상	62.9	36.3	38.7	24.2	22.2	40.5
업력	0 ~ 7년미만	69.1	17.0	42.8	24.7	7.7	28.7
	7 ~ 20년미만	56.8	26.2	20.8	14.8	9.9	17.6
	20 ~ 30년미만	59.4	35.9	26.5	23.7	18.7	21.9
	30 ~ 40년미만	58.2	30.9	22.5	22.2	10.2	31.4
	40 ~ 50년미만	57.3	42.9	38.1	26.8	16.2	35.1
	50년이상	68.2	43.5	37.5	20.1	20.9	23.8
매출유형	B2B	59.3	32.0	27.2	21.2	15.0	25.4
	B2C	54.3	31.2	21.7	11.6	4.4	14.4
	B2G	78.2	25.0	45.3	31.5	8.7	31.8
상장	상장	70.1	45.6	39.4	28.1	22.2	36.7
	비상장	55.3	26.2	22.5	17.1	9.6	19.1

[표 2-113]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 하도급 관계 기업 1,975개사)

구분		동반성장 /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해외시장 개척 /동반진출	직원교육 /교류	설비/장비 공동사용	자금지원	상생 결제 시스템
전체		59.4	5.4	34.3	17.9	12.6	10.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3.6	7.4	36.8	19.5	17.5	13.9
	피출자/관계기업	53.7	2.7	30.9	15.8	6.0	5.4
업종	제조업	63.3	6.5	32.5	22.0	15.4	13.7
	비제조업	55.3	4.2	36.2	13.7	9.7	6.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4.5	4.7	42.9	25.0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1.1	3.2	27.5	15.5	8.4	6.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7.7	0.0	28.9	11.6	5.3	7.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9.1	8.0	36.4	16.6	13.4	10.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2.4	4.7	32.8	13.9	13.5	16.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2.8	11.0	39.6	22.1	24.9	15.1
	5천억원 ~ 1조원미만	78.8	12.8	55.2	32.0	32.0	19.1
	1조원이상	63.5	5.5	42.8	48.3	26.9	15.9
수출여부	수출있음	68.7	8.9	35.5	23.4	16.6	14.0
	수출없음	51.9	2.6	33.3	13.5	9.4	7.2
종사자수	50명미만	52.4	3.6	32.4	12.4	5.9	2.2
	50 ~ 100명미만	53.5	0.0	32.0	19.6	7.5	6.4
	100 ~ 200명미만	52.1	3.8	29.6	14.2	6.4	7.4
	200 ~ 300명미만	67.1	5.2	39.2	19.4	15.1	18.7
	300 ~ 500명미만	67.2	7.2	37.7	14.3	16.6	18.6
	500 ~ 1,000명미만	72.9	14.3	37.5	29.2	31.9	14.6
	1,000명이상	62.9	11.1	37.4	29.4	18.1	15.8
업력	0 ~ 7년미만	69.1	4.8	39.9	18.1	6.8	5.8
	7 ~ 20년미만	56.8	4.7	33.0	17.9	8.6	6.3
	20 ~ 30년미만	59.4	4.7	34.4	16.3	15.3	12.2
	30 ~ 40년미만	58.2	4.1	33.1	14.9	15.2	12.1
	40 ~ 50년미만	57.3	7.3	31.5	24.9	17.1	18.4
	50년이상	68.2	10.2	42.0	17.1	18.7	12.2
매출유형	B2B	59.3	6.0	32.7	19.0	12.7	9.7
	B2C	54.3	0.9	40.4	9.2	12.8	8.5
	B2G	78.2	9.6	42.6	28.7	9.6	25.6
상장	상장	70.1	11.7	41.7	25.1	22.5	17.1
	비상장	55.3	3.0	31.5	15.2	8.8	7.6

9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

□ 사회적 책임(CSR) 경영 인지 및 도입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을 알고있거나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으나 기업경영에 미도입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혀모름이 24.7%, 일부 도입 20.9%,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도입 9.3%, 과거 도입 경험 있으나 현재 미추진 0.3%로 나타남

[그림 2-73] 사회적 책임(CSR) 경영 인지 및 도입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알고 있으나 기업경영에 미도입이 4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부 도입이 26.4%, 전혀 모름 18.4%,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도입 12.4%, 과거 도입 경험 있으나 현재 미추진 0.6%의 순으로 나타남
- 피출자/관계기업의 경우는 알고 있으나 기업 경영에 미도입 46.8%, 전혀 모름 29.8%, 일부 도입 16.5%, 적극 도입 6.9%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 중견기업보다 전혀 모르거나 미도입한 기업이 많은 반면, 일부 도입과 적극 도입의 비율은 낮음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높을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알고 있으나 기업경영에 미도입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알고 있으며 일부 도입의 비율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14] 사회적 책임(CSR) 경영 인지 및 도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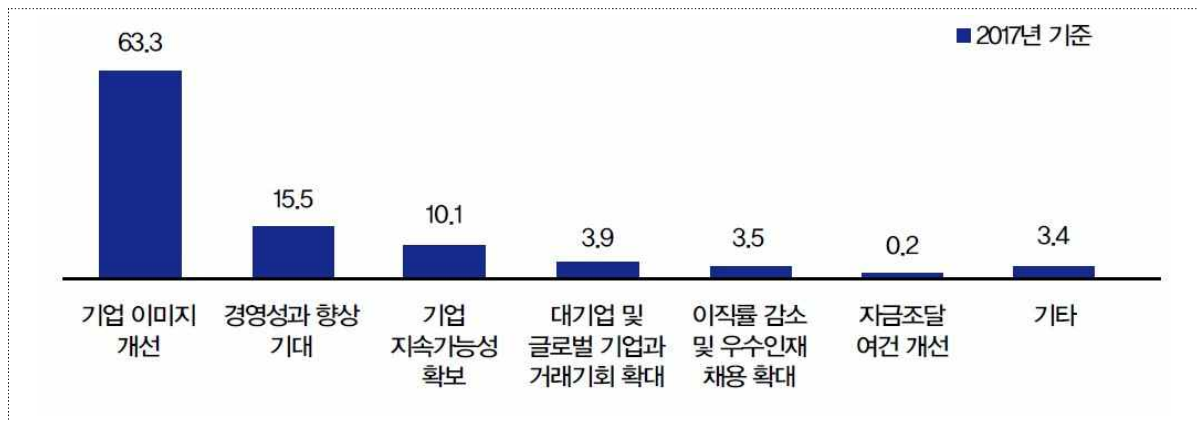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알고 있으나 기업경영에 미도입	알고 있으며 일부 도입	알고 있으며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도입	과거 도입 경험 있으나 현재 미추진
전체		(4,014)	24.7	44.8	20.9	9.3	0.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18.4	42.3	26.4	12.4	0.6
	피출자/관계기업	(2,219)	29.8	46.8	16.5	6.9	0.0
업종	제조업	(1,552)	22.2	41.0	26.7	9.8	0.3
	비제조업	(2,462)	26.3	47.2	17.3	9.0	0.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19.3	58.9	10.7	11.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33.5	44.6	16.0	6.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26.3	40.4	25.4	7.5	0.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8.4	48.4	23.4	9.2	0.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15.2	53.2	21.6	9.3	0.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18.4	34.4	33.8	12.4	0.9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20.7	23.7	32.0	23.7	0.0
	1조원이상	(89)	8.4	17.7	42.8	31.1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19.7	40.9	27.1	12.1	0.2
	수출없음	(2,706)	27.1	46.7	17.9	8.0	0.3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30.5	50.4	11.3	7.6	0.2
	50 ~ 100명미만	(686)	27.3	45.4	22.4	4.6	0.4
	100 ~ 200명미만	(608)	21.3	44.7	23.5	10.5	0.0
	200 ~ 300명미만	(387)	16.9	50.5	24.9	7.7	0.0
	300 ~ 500명미만	(397)	25.1	35.6	27.0	11.6	0.7
	500 ~ 1,000명미만	(326)	15.1	34.3	35.1	15.5	0.0
	1,000명이상	(168)	12.5	23.2	37.0	25.1	2.2
업력	0 ~ 7년미만	(617)	22.2	43.3	26.6	7.8	0.0
	7 ~ 20년미만	(1,644)	28.4	46.8	16.3	8.5	0.1
	20 ~ 30년미만	(679)	26.0	43.7	18.9	10.9	0.5
	30 ~ 40년미만	(459)	24.6	40.6	25.5	8.8	0.5
	40 ~ 50년미만	(340)	20.4	44.7	24.0	10.3	0.7
	50년이상	(275)	8.2	44.6	35.4	11.8	0.0
매출유형	B2B	(3,223)	24.7	43.8	21.3	10.0	0.2
	B2C	(650)	28.2	46.9	17.4	7.2	0.4
	B2G	(141)	9.6	57.3	27.6	3.6	1.9
상장	상장	(757)	18.1	35.6	30.5	15.0	0.7
	비상장	(3,257)	26.5	47.3	18.2	7.8	0.2

□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 사회적 책임(CSR) 경영을 도입한 중견기업의 도입이유로는 기업 이미지 개선이 6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영성과 향상 기대가 15.5%,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4]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단위: %, CSR 도입기업)



특성별 분석

-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중견기업은 기업 이미지개선(56.8%), 경영성과 향상 기대(18.6%),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피출자/관계기업도 일반 중견기업과 동일한 순으로 경영 도입 이유를 응답함
- B2B기업은 기업 이미지 개선(62.8%), 경영성과 향상 기대(14.7%),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10.6%)등의 순으로 나타남
 - B2C기업과 B2G기업도 동일한 순으로 조사됨

[표 2-115]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1순위(계속)

(단위 : %, CSR 도입기업 1,225개사)

구분		기업 이미지 개선	경영성과 향상 기대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전체		63.3	15.5	10.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6.8	18.6	12.7
	피출자/관계기업	72.2	11.3	6.5
업종	제조업	52.4	18.8	14.6
	비제조업	72.8	12.7	6.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1.7	8.2	11.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3.0	10.2	6.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0.7	14.4	1.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2.7	18.0	13.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5.9	17.8	13.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9.0	24.6	14.9
	5천억원 ~ 1조원미만	57.4	15.1	17.5
	1조원이상	54.1	24.6	13.2
수출여부	수출있음	56.9	16.5	14.9
	수출없음	68.0	14.8	6.6
종사자수	50명미만	69.5	8.5	8.7
	50 ~ 100명미만	78.1	14.6	2.1
	100 ~ 200명미만	64.3	17.7	8.7
	200 ~ 300명미만	56.3	20.8	11.1
	300 ~ 500명미만	44.2	14.9	15.3
	500 ~ 1,000명미만	57.2	25.9	11.0
	1,000명이상	65.3	9.6	20.1
업력	0 ~ 7년미만	59.6	7.4	20.2
	7 ~ 20년미만	62.2	11.6	10.0
	20 ~ 30년미만	67.0	10.2	12.1
	30 ~ 40년미만	62.1	27.2	3.9
	40 ~ 50년미만	64.3	20.5	8.7
	50년이상	64.2	22.0	9.2
매출유형	B2B	62.8	14.7	10.6
	B2C	69.5	16.4	6.4
	B2G	53.8	29.9	10.9
상장	상장	60.3	16.2	11.1
	비상장	64.8	15.2	9.6

[표 2-116]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1순위

(단위 : %, CSR 도입기업 1,225개사)

구분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 거래기회 확대	이직률 감소 및 우수인재 채용 확대	자금조달 여건 개선	기타
전체		3.9	3.5	0.2	3.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1	2.3	0.4	4.1
	피출자/관계기업	2.2	5.2	0.0	2.5
업종	제조업	6.5	4.5	0.0	3.1
	비제조업	1.6	2.7	0.4	3.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7	5.4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2.6	4.0	0.0	4.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8	3.6	1.6	6.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3	6.2	0.0	1.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9	0.0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8	1.9	0.0	5.7
	5천억원 ~ 1조원미만	2.5	2.5	0.0	5.0
	1조원이상	4.4	0.0	0.0	3.8
수출여부	수출있음	4.9	2.8	0.0	4.0
	수출없음	3.1	4.1	0.4	3.0
종사자수	50명미만	2.4	6.2	0.0	4.8
	50 ~ 100명미만	2.3	1.5	0.0	1.4
	100 ~ 200명미만	3.8	5.4	0.0	0.0
	200 ~ 300명미만	5.9	5.9	0.0	0.0
	300 ~ 500명미만	10.2	1.6	1.7	12.1
	500 ~ 1,000명미만	1.5	1.5	0.0	3.0
	1,000명이상	2.7	0.0	0.0	2.3
업력	0 ~ 7년미만	4.9	5.5	0.0	2.3
	7 ~ 20년미만	3.2	5.7	0.6	6.7
	20 ~ 30년미만	6.7	2.8	0.0	1.2
	30 ~ 40년미만	3.2	2.1	0.0	1.4
	40 ~ 50년미만	2.7	2.0	0.0	1.9
	50년이상	2.7	0.0	0.0	1.8
매출유형	B2B	4.7	4.0	0.0	3.2
	B2C	0.0	1.6	1.6	4.5
	B2G	0.0	0.0	0.0	5.4
상장	상장	5.4	2.3	0.7	4.1
	비상장	3.1	4.2	0.0	3.1

[표 2-117]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1+2순위(계속)

(단위 : %, CSR 도입기업 1,225개사, 중복응답)

구분		기업 이미지 개선	경영성과 향상 기대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전체		74.4	33.3	28.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8.4	36.9	31.7
	피출자/관계기업	82.4	28.3	23.7
업종	제조업	66.8	39.1	29.1
	비제조업	80.9	28.2	27.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9.9	40.8	25.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85.0	20.9	29.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8.6	35.1	10.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4.0	38.0	29.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71.2	34.1	32.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60.4	43.6	35.5
	5천억원 ~ 1조원미만	77.4	32.6	35.0
	1조원이상	67.2	41.5	38.3
수출여부	수출있음	68.1	34.6	36.4
	수출없음	78.9	32.3	22.4
종사자수	50명미만	80.4	29.6	24.3
	50 ~ 100명미만	83.2	27.4	23.0
	100 ~ 200명미만	73.3	31.8	27.3
	200 ~ 300명미만	62.4	35.4	23.9
	300 ~ 500명미만	63.0	31.2	34.5
	500 ~ 1,000명미만	70.2	48.1	32.5
	1,000명이상	82.3	33.3	39.4
업력	0 ~ 7년미만	75.8	26.3	33.6
	7 ~ 20년미만	74.4	25.2	28.8
	20 ~ 30년미만	75.6	34.4	23.0
	30 ~ 40년미만	68.8	45.2	23.0
	40 ~ 50년미만	80.2	37.5	25.8
	50년이상	72.6	41.7	40.6
매출유형	B2B	72.7	33.3	28.2
	B2C	87.5	30.8	17.8
	B2G	64.7	40.7	67.8
상장	상장	71.7	35.4	30.6
	비상장	75.7	32.2	27.2

[표 2-118]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이유 1+2순위

(단위 : %, CSR 도입기업 1,225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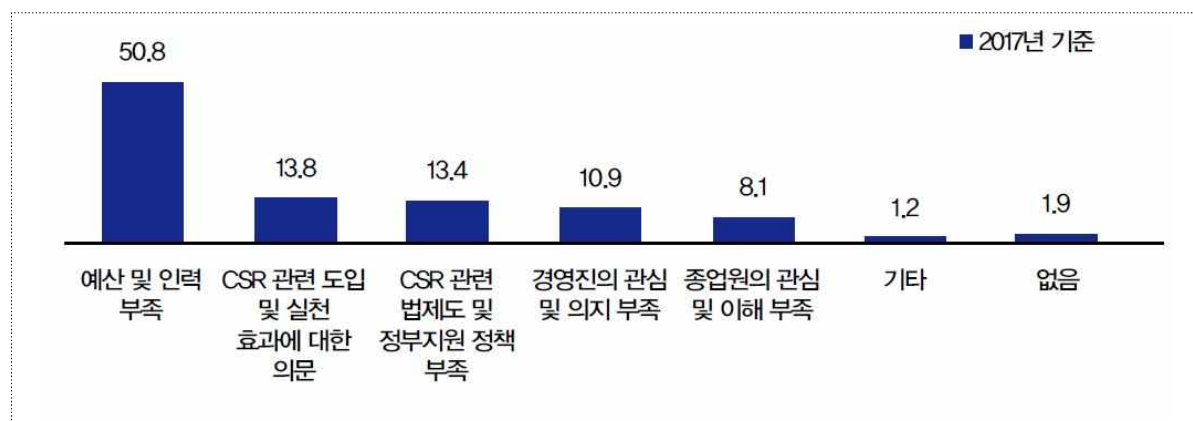
구분		이직률 감소 및 우수인재 채용 확대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 거래기회 확대	자금조달 여건 개선	기타
전체		12.8	10.1	1.1	4.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2.8	9.9	1.4	5.5
	피출자/관계기업	12.7	10.5	0.8	3.1
업종	제조업	16.3	13.2	0.7	4.8
	비제조업	9.7	7.4	1.5	4.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3.6	11.9	3.7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0.2	13.3	0.0	4.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4.4	3.2	3.9	7.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6.3	15.0	1.7	3.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7.7	8.2	0.0	5.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7.1	7.7	0.0	5.7
	5천억원 ~ 1조원미만	15.1	5.0	0.0	5.0
	1조원이상	4.4	8.8	0.0	3.8
수출여부	수출있음	13.4	9.8	1.5	5.9
	수출없음	12.3	10.4	0.9	3.5
종사자수	50명미만	10.0	12.9	1.2	4.8
	50 ~ 100명미만	5.6	11.1	2.1	3.0
	100 ~ 200명미만	27.7	6.7	1.9	0.0
	200 ~ 300명미만	18.5	14.6	0.0	2.6
	300 ~ 500명미만	6.5	15.9	1.7	12.1
	500 ~ 1,000명미만	12.1	3.1	0.0	3.0
	1,000명이상	7.1	5.3	0.0	8.7
업력	0 ~ 7년미만	15.3	9.1	0.0	2.3
	7 ~ 20년미만	11.9	14.6	2.4	6.7
	20 ~ 30년미만	15.4	6.7	1.5	4.2
	30 ~ 40년미만	15.9	4.5	0.0	3.2
	40 ~ 50년미만	8.3	15.2	0.0	1.9
	50년이상	10.1	4.6	0.0	4.0
매출유형	B2B	14.0	11.7	1.1	4.5
	B2C	9.0	3.1	1.6	4.5
	B2G	0.0	0.0	0.0	5.4
상장	상장	11.3	9.6	2.5	6.7
	비상장	13.5	10.4	0.5	3.5

□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및 실천 시 어려운점

-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및 실천시 예산 및 인력 부족이 50.8%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CSR 관련 도입 및 실천 효과에 대한 의문 13.8%, CSR 관련 법제도 및 정부지원 정책 부족 13.4%,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부족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5]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및 실천시 어려운점

(단위: %, CSR 인지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예산 및 인력 부족 44.9%, CSR 관련 법제도 및 정부지원 정책 부족 17.6%, CSR 관련 도입 및 실천 효과에 대한 의문 15.9%등의 순임
- 매출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 및 인력 부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한 것은 동일하지만 B2B기업은 CSR 관련 법제도 및 정부지원 정책 부족 13.7%, CSR 관련 도입 및 실천 효과에 대한 의문 13.3%,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부족 10.4%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B2C기업은 CSR 관련 도입 및 실천 효과에 대한 의문이 18.0%,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부족 13.0%등의 순으로 나타남
- B2G기업은 CSR 관련 법제도 및 정부지원 정책 부족 24.8%,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부족 11.6%의 순으로 나타나 매출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표 2-119]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및 실천시 어려움점(계속)

(단위 : %, CSR 인지기업, 3,023개사)

구분		예산 및 인력 부족	CSR 관련 도입 및 실천 효과에 대한 의문	CSR 관련 법제도 및 정부지원 정책 부족
전체		50.8	13.8	13.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4.9	15.9	17.6
	파출자/관계기업	56.4	11.9	9.5
업종	제조업	51.6	12.8	15.5
	비제조업	50.2	14.4	12.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8.0	18.5	7.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7.2	8.7	9.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7	16.6	11.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8.3	14.4	16.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0.3	19.4	16.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0.1	12.8	16.4
	5천억원 ~ 1조원미만	36.8	15.8	28.1
	1조원이상	37.5	16.7	33.0
수출여부	수출있음	48.8	14.4	16.1
	수출없음	51.9	13.5	12.0
종사자수	50명미만	59.5	13.6	9.2
	50 ~ 100명미만	45.8	9.5	12.3
	100 ~ 200명미만	54.4	11.0	11.0
	200 ~ 300명미만	46.3	15.7	15.7
	300 ~ 500명미만	42.5	18.0	17.7
	500 ~ 1,000명미만	39.1	20.7	20.2
	1,000명이상	44.9	12.8	27.5
업력	0 ~ 7년미만	68.5	9.6	6.5
	7 ~ 20년미만	54.3	13.2	11.1
	20 ~ 30년미만	44.9	13.1	16.7
	30 ~ 40년미만	41.7	23.5	14.1
	40 ~ 50년미만	45.9	12.0	17.8
	50년이상	50.2	9.7	17.2
매출유형	B2B	49.9	13.3	13.7
	B2C	56.4	18.0	9.0
	B2G	47.9	7.6	24.8
상장	상장	43.1	15.0	20.4
	비상장	53.1	13.4	11.2

[표 2-120] 사회적 책임(CSR) 경영 도입 및 실천시 어려운점

(단위 : %, CSR 인지기업, 3,023개사)

구분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부족	종업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기타	없음
전체		10.9	8.1	1.2	1.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0.5	8.5	0.7	2.1
	파출자/관계기업	11.2	7.7	1.6	1.8
업종	제조업	7.9	9.1	1.2	1.8
	비제조업	12.8	7.4	1.1	2.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3.9	0.8	0.8	0.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1.5	8.4	2.2	2.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0.1	11.6	0.7	1.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9.6	8.8	1.4	1.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1.6	10.6	0.0	2.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1.9	7.6	0.0	1.1
	5천억원 ~ 1조원미만	8.8	7.0	0.0	3.5
	1조원이상	0.0	6.6	0.0	6.1
수출여부	수출있음	8.6	9.7	1.0	1.4
	수출없음	12.1	7.2	1.3	2.2
종사자수	50명미만	9.0	4.7	1.1	2.8
	50 ~ 100명미만	17.5	9.4	2.6	2.8
	100 ~ 200명미만	11.4	11.6	0.0	0.7
	200 ~ 300명미만	12.3	9.9	0.0	0.0
	300 ~ 500명미만	9.5	10.1	1.3	0.9
	500 ~ 1,000명미만	7.0	8.9	2.3	1.8
	1,000명이상	6.0	5.5	0.0	3.4
업력	0 ~ 7년미만	2.3	11.9	0.0	1.2
	7 ~ 20년미만	11.0	7.4	1.3	1.7
	20 ~ 30년미만	13.8	7.5	0.7	3.2
	30 ~ 40년미만	10.4	8.4	0.0	2.0
	40 ~ 50년미만	13.1	8.3	1.2	1.6
	50년이상	9.3	8.4	4.2	0.9
매출유형	B2B	10.4	9.0	1.4	2.3
	B2C	13.0	3.0	0.0	0.5
	B2G	11.6	8.1	0.0	0.0
상장	상장	9.0	9.8	0.5	2.0
	비상장	11.4	7.5	1.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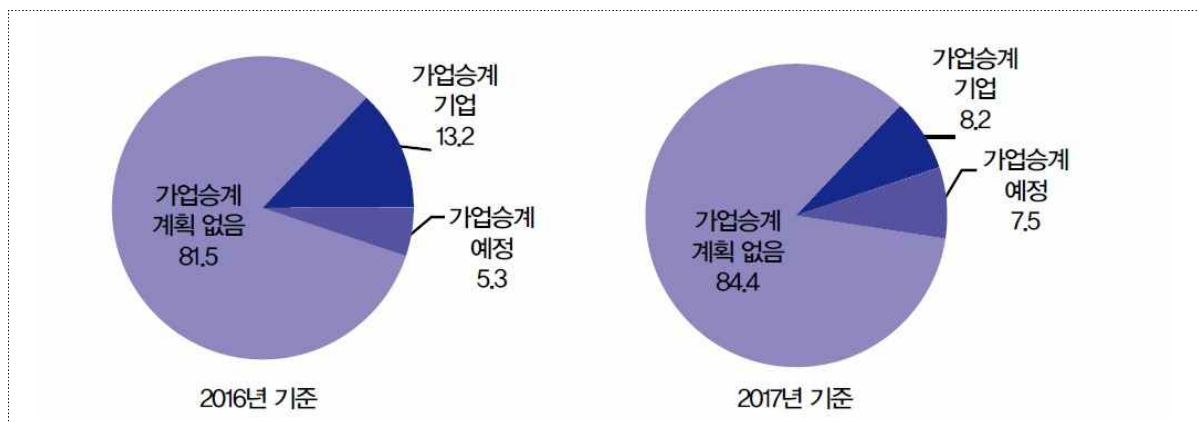
2. 가업승계

□ 가업승계 도입 여부

- 중견기업의 84.4%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2%는 가업승계 기업, 7.5%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81.5%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2%는 가업승계 기업, 5.3%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2-76] 가업승계 도입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77.1%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5%는 가업승계 기업, 11.4%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피출자/관계기업의 90.3%는 가업 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음
- 제조업의 11.7%는 이미 가업승계기업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5.9%만이 가업승계기업으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업승계 예정 기업 비중도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많음
- 대체적으로 업력이 길수록 가업승계기업이 많으며, 가업승계 예정 기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력 0~7년 미만 가업승계기업이 1.4%인 반면, 30~40년 미만 가업승계기업은 18.9%로 약 18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의 영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

[표 2-121] 가업승계 도입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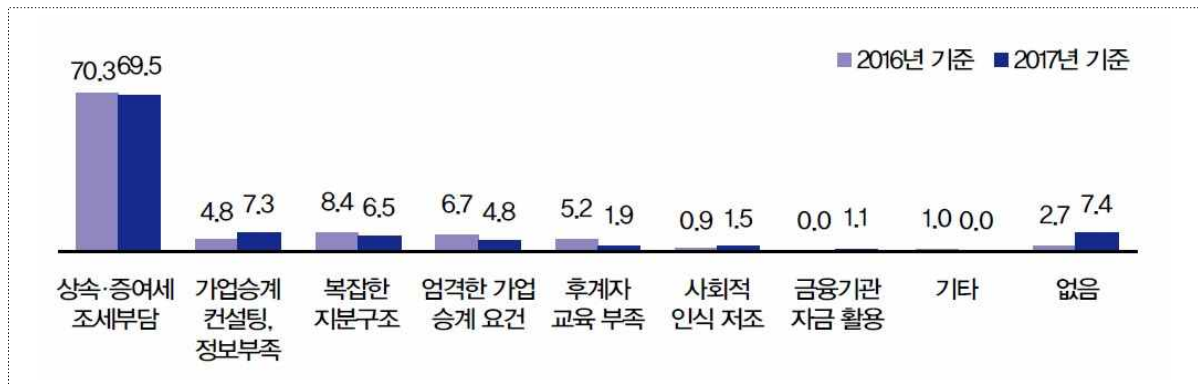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업승계기업	가업승계예정	가업승계계획없음
전체		(4,014)	8.2	7.5	84.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795)	11.5	11.4	77.1
	피출자/관계기업	(2,219)	5.5	4.3	90.3
업종	제조업	(1,552)	11.7	8.7	79.7
	비제조업	(2,462)	5.9	6.7	87.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9)	4.1	3.1	92.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3)	4.7	4.6	90.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9)	8.4	3.8	87.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82)	15.4	11.2	73.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8)	9.0	16.7	74.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82)	10.8	11.6	77.7
	5천억원 ~ 1조원미만	(172)	13.9	13.9	72.2
	1조원이상	(89)	6.0	6.0	87.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08)	9.8	10.5	79.8
	수출없음	(2,706)	7.4	6.0	86.6
종사자수	50명미만	(1,442)	4.5	4.6	90.9
	50 ~ 100명미만	(686)	8.9	8.7	82.4
	100 ~ 200명미만	(608)	8.2	5.7	86.2
	200 ~ 300명미만	(387)	11.8	7.2	81.0
	300 ~ 500명미만	(397)	8.9	14.0	77.0
	500 ~ 1,000명미만	(326)	16.7	10.3	72.9
	1,000명이상	(168)	9.1	13.3	77.5
업력	0 ~ 7년미만	(617)	1.4	4.7	93.9
	7 ~ 20년미만	(1,644)	4.5	3.7	91.8
	20 ~ 30년미만	(679)	6.8	10.2	83.0
	30 ~ 40년미만	(459)	18.9	12.5	68.5
	40 ~ 50년미만	(340)	14.2	10.0	75.8
	50년이상	(275)	12.8	13.2	74.0
매출유형	B2B	(3,223)	7.8	7.5	84.7
	B2C	(650)	10.0	6.9	83.1
	B2G	(141)	7.9	9.5	82.6
상장	상장	(757)	13.1	16.1	70.9
	비상장	(3,257)	6.8	5.1	88.1

□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조세부담(69.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7.3%), 복잡한 지분구조(6.5%),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결과,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0.3%), 복잡한 지분구조(8.4%),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6.7%) 등의 순임

[그림 2-77]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단위: %, 가업승계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2.5%),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7.4%),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6.1%) 등의 순임
- 피출자/관계기업은 상대적으로 상속·증여세 조세부담(64.3%), 복잡한 지분구조(11.2%) 등을 선택한 비중이 높음(없음 제외)
- 제조업의 75.6%, 비제조업의 62.0%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 매출규모별로는 1백억원미만의 기업이 복잡한 지분구조(28.3%)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B2C기업의 상속·증여세 조세부담 응답율이 72.8%로 집중된 것에 비해 B2G기업은 복잡한 지분구조(45.0%)이 높게 도출되어 매출유형에 따라 다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됨

[표 2-122]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가업승계기업 327개사)

구분		상속·증여세 조세부담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	부족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
전체		69.5	7.3	6.5	4.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2.5	7.4	3.7	6.1
	피출자/관계기업	64.3	7.3	11.2	2.5
업종	제조업	75.6	3.5	9.0	5.6
	비제조업	62.0	12.1	3.4	3.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1.7	0.0	28.3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9.8	12.7	12.2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80.4	12.3	0.0	7.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8.7	7.1	0.0	3.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72.9	0.0	0.0	27.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1.6	0.0	25.2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89.9	10.1	0.0	0.0
	1조원이상	10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75.8	1.9	6.0	5.4
	수출없음	65.4	10.8	6.8	4.4
종사자수	50명미만	63.7	0.0	13.0	4.1
	50 ~ 100명미만	61.3	14.6	0.0	9.5
	100 ~ 200명미만	87.0	5.3	0.0	7.7
	200 ~ 300명미만	80.6	5.7	0.0	0.0
	300 ~ 500명미만	51.8	0.0	21.4	9.2
	500 ~ 1,000명미만	72.3	13.7	4.7	0.0
	1,000명이상	67.7	15.7	16.6	0.0
업력	0 ~ 7년미만	100.0	0.0	0.0	0.0
	7 ~ 20년미만	67.6	4.6	11.7	0.0
	20 ~ 30년미만	47.6	22.9	8.5	13.8
	30 ~ 40년미만	78.2	6.6	2.6	8.9
	40 ~ 50년미만	82.5	4.2	8.9	0.0
	50년이상	56.6	0.0	0.0	0.0
매출유형	B2B	69.3	7.1	6.5	6.2
	B2C	72.8	9.6	0.0	0.0
	B2G	55.0	0.0	45.0	0.0
상장	상장	78.4	7.6	4.5	2.7
	비상장	64.8	7.2	7.5	5.9

[표 2-123]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가업승계기업 327개사)

구분		후계자 교육부족	사회적 인식저조	금융기관 자금 활용	없음
전체		1.9	1.5	1.1	7.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0	2.4	1.8	3.1
	피출자/관계기업	0.0	0.0	0.0	14.6
업종	제조업	1.4	1.4	0.0	3.5
	비제조업	2.5	1.7	2.5	12.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0.0	0.0	0.0	25.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0.0	0.0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3.5	0.0	3.5	3.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0.0	0.0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8.4	16.4	0.0	8.4
	5천억원 ~ 1조원미만	0.0	0.0	0.0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2.0	3.9	0.0	5.0
	수출없음	1.8	0.0	1.8	8.9
종사자수	50명미만	5.6	0.0	0.0	13.6
	50 ~ 100명미만	0.0	0.0	0.0	14.6
	100 ~ 200명미만	0.0	0.0	0.0	0.0
	200 ~ 300명미만	0.0	5.3	0.0	8.4
	300 ~ 500명미만	0.0	7.2	10.3	0.0
	500 ~ 1,000명미만	4.7	0.0	0.0	4.7
	1,000명이상	0.0	0.0	0.0	0.0
업력	0 ~ 7년미만	0.0	0.0	0.0	0.0
	7 ~ 20년미만	0.0	0.0	0.0	16.0
	20 ~ 30년미만	7.2	0.0	0.0	0.0
	30 ~ 40년미만	0.0	0.0	3.7	0.0
	40 ~ 50년미만	0.0	4.4	0.0	0.0
	50년이상	6.8	6.4	0.0	30.2
매출유형	B2B	1.4	2.0	1.4	6.1
	B2C	3.9	0.0	0.0	13.6
	B2G	0.0	0.0	0.0	0.0
상장	상장	2.2	2.2	0.0	2.2
	비상장	1.7	1.1	1.7	10.1

[표 2-124]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가업승계기업 327개사, 중복응답)

구분		상속·증여세 조세부담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
전체		78.7	23.8	21.6	19.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0.4	23.8	26.0	18.6
	피출자/관계기업	75.8	23.6	14.2	19.6
업종	제조업	83.0	27.7	24.8	17.1
	비제조업	73.3	18.9	17.6	21.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00.0	28.3	0.0	28.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2.4	12.2	6.1	18.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80.4	52.2	23.8	12.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8.7	13.2	27.6	26.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91.5	16.9	54.2	10.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5.2	58.9	8.4	8.0
	5천억원 ~ 1조원미만	89.9	19.7	30.2	19.9
	1조원이상	10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83.8	26.3	26.9	14.2
	수출없음	75.4	22.1	18.2	22.0
종사자수	50명미만	63.7	24.2	10.7	14.2
	50 ~ 100명미만	80.4	13.4	28.3	29.1
	100 ~ 200명미만	87.0	29.6	26.0	10.1
	200 ~ 300명미만	80.6	8.4	22.7	13.7
	300 ~ 500명미만	89.7	35.2	29.8	10.9
	500 ~ 1,000명미만	77.0	32.1	18.5	32.1
	1,000명이상	84.3	33.7	15.7	15.7
업력	0 ~ 7년미만	100.0	0.0	0.0	0.0
	7 ~ 20년미만	74.0	31.2	17.6	20.4
	20 ~ 30년미만	65.3	26.5	21.7	27.7
	30 ~ 40년미만	86.9	10.7	30.8	21.0
	40 ~ 50년미만	95.8	28.0	18.4	15.7
	50년이상	56.6	34.4	13.1	6.2
매출유형	B2B	79.3	22.1	25.6	17.4
	B2C	72.8	26.5	9.8	28.3
	B2G	100.0	45.0	0.0	0.0
상장	상장	85.2	26.9	23.7	24.8
	비상장	75.3	22.1	20.5	15.9

[표 2-125]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가업승계기업 327개사, 중복응답)

구분		사회적 인식저조	금융기관 자금 활용	후계자 교육부족	없음
전체		9.4	7.1	6.9	7.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5	8.8	9.7	3.1
	피출자/관계기업	10.8	4.1	2.2	14.6
업종	제조업	5.9	6.6	8.5	3.5
	비제조업	13.7	7.7	5.0	12.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28.3	15.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8.8	0.0	0.0	25.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6.2	11.7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1	7.1	14.2	3.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0.0	10.2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6.4	0.0	8.4	8.4
	5천억원 ~ 1조원미만	0.0	10.1	10.1	0.0
	1조원이상	46.4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9.2	7.4	9.7	5.0
	수출없음	9.5	6.9	5.1	8.9
종사자수	50명미만	6.5	7.7	9.6	13.6
	50 ~ 100명미만	14.6	0.0	0.0	14.6
	100 ~ 200명미만	13.0	4.8	7.7	0.0
	200 ~ 300명미만	5.3	14.2	5.3	8.4
	300 ~ 500명미만	17.5	16.9	0.0	0.0
	500 ~ 1,000명미만	0.0	6.0	18.4	4.7
	1,000명이상	16.2	0.0	0.0	0.0
업력	0 ~ 7년미만	100.0	0.0	0.0	0.0
	7 ~ 20년미만	3.2	6.3	3.3	16.0
	20 ~ 30년미만	17.6	5.2	7.2	0.0
	30 ~ 40년미만	10.3	13.4	6.4	0.0
	40 ~ 50년미만	4.4	4.2	6.7	0.0
	50년이상	6.4	0.0	16.4	30.2
매출유형	B2B	10.2	9.2	6.5	6.1
	B2C	4.0	0.0	3.9	13.6
	B2G	22.4	0.0	32.6	0.0
상장	상장	4.4	7.8	5.6	2.2
	비상장	12.0	6.7	7.6	10.1

부 록

설 문 지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영에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중견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사의 응답 내용이 중견기업 시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담당자 : 중견기업정책과 김정미 주무관 044-203-4367)
- 수탁기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담당자 : 임희성 대리 02-3275-3094)
- 조사업체 : 한국기업데이터(주)

□ 작성자 정보

성명		소속부서		직 위	1. 대표이사 2. 임원 3. 과장, 차장, 부장 4. 사원 주임 대리
연락처				이메일	

※ 모든 설문은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기업 일반현황

A1. 응답기업 기본정보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명																	
창업연도																	
회사주소																	
주생산품*																	

* 주생산품 : 매출액 비중을 가장 높게 차지하는 생산품

A2. 대표자 정보

성명		성별	① 남 ② 여	대표이사 출생년도	1 9 _ _ 년도
경영유형	① 창업자 ② 승계자 ③ 전문경영인 ④ 기타	전공*	① 공학계열 ② 자연과학계열 ③ 상경계열 ④ 인문사회계열 ⑤기타		

* 공학계열 : 공대 자연과학계열 : 공대를 제외한 순수과학 계열
상경계열 : 경영·경제 계열 인문사회계열 : 경영·경제를 제외한 어문 및 사회계열

A3. 귀사의 2017년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B2B 거래	()%	B2C 거래	()%	B2G 거래	()%
--------	------	--------	------	--------	------

* B2B기업 : 주 거래처가 기업 / B2C기업 : 주 거래처가 소비자 / B2G기업 :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

B.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B1. 중소기업 정책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까?

- [illegible]

B1-1. (문 B1에 '㉠'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중소기업 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기술개발 지원 ② 조세혜택 ③ 전문인력 확보 지원 ④ 금융 지원
⑤ 해외시장 개척 ⑥ 공공조달 지원 ⑦ 중소기업 적합업종 ⑧ 기타()

B2. 귀사는 2017년 M&A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경험있음(인수규모 : _____ 억원) ② 경험없음 (☞ B2-2로 이동)

B2-1. (문 B2에 '㉠' 응답한 경우), 귀사가 경험한 인수합병은 어떤 형태 입니까?

- ① 동종업종의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 ② 타업종의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
- ③ 동종업종의 중소·벤처기업과의 인수합병 ④ 타업종의 중소·벤처기업과의 인수합병
- ⑤ 동종업종의 대기업과의 인수합병 ⑥ 타업종의 대기업과의 인수합병
- ⑦ 해외 외국계 기업과의 인수합병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B2-2. 귀사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② 규제완화 ③ 정책자금 확대
- ④ M&A 컨설팅 지원 ⑤ 기타(구체적으로 :)

B3. 귀사의 가장 큰 경영애로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내수부진 ② 수출부진 ③ 우수인재 유치 ④ 인건비 부담
⑤ 자금조달 곤란 ⑥ 동종업계 과당경쟁 ⑦ 과도한 규제 ⑧ 기타()

C. 기술혁신

C1. 귀사의 기술개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내수시장 확대·유지 ② 해외시장 개척 ③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
④ 경쟁으로부터 도태 위협 ⑤ 모기업의 품질개선 요구 ⑥ 국내외 표준 및 규제 대응
⑦ 기타()

C2. 귀사의 기술개발 방식별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자체(단독) 개발	외부기관과 공동개발*	외부기관 위탁개발	국내 기술도입	해외 기술도입	기술개발 해당없음	합계
활용비율	%	%	%	%	%	%	100 %

*외부기관 : 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C3. 귀사의 현재(2017년 12월 31일 기준) 연구개발 조직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기업부설연구소 ②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조직 없고, 인력만 있음 ④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없음

C3-1. (문 C2에 '①,②,③' 응답한 경우) 현재 귀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몇 명입니까?(_____명)

*연구개발인력 : 연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

C4. 귀사는 지난 1년(2017년) 동안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까?

- ① 예(_____)건 ② 아니오 (☞ C5로 이동)

C4-1. (문 C4에 '①' 응답한 경우) 협력기관은 어디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 ② 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 투자기관포함)
③ 민간연구기관 ④ 해외기업·기관

C5. 귀사는 지난 1년 동안(2017년)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_____)건 ② 아니오

C5-1. (문 C5에 '①' 응답한 경우) 기술 이전처는 어디 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 ② 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 투자기관포함)
③ 민간연구기관 ④ 해외기업·기관

C6.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서비스)은 세계최고 기술(서비스) 대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기술개발, 연구개발과 무관한 업종인 경우 동종분야에서 귀사의 산업 경쟁력 수준 평가 요망

세계최고 기술(서비스)대비 수준	%
·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 : 100% 수준 ·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준 : 80%~100% 미만 ·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준 : 60%~80% 미만 · 국내시장에서도 범용적인 기술수준 : 60% 미만	

C7.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7. 12. 31 기준)

구분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국내	()건	()건	()건	()건
해외	()건	()건	()건	()건
합계	()건	()건	()건	()건

C7-1. 귀사는 2017년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_____)건 ② 아니오

C7-2. (문 C7-1에 '①' 응답한 경우) 귀사의 지재권을 침해한 주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해외기업 ② 국내 대기업 ③ 국내 중견기업 ④ 국내 중소기업 ⑤ 기타()

C8. 귀사의 2017년 R&D관련 정부지원사업(자금지원, 인력, 기자재, 보증서 활용 등) 활용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지원 R&D 사업 활용 경험	① 있다()건 ② 없다
-------------------	------------------------------------

C8-1. (문 C8에 '②' 응답한 경우) 정부지원 R&D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심사업의 부재 ② 지원요건 복잡 ③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 ④ 관련 정보 부족
⑤ 지원했으나 미선정 ⑥ 기타(구체적으로 :)

D. 투자현황

D1. 귀사의 R&D 및 설비투자 실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R&D투자 금액	② 설비투자 금액
2017년 (실적)	() 백만원	() 백만원
2018년 (계획)	() 백만원	() 백만원
2019년 (계획)	() 백만원	() 백만원
※ R&D투자 금액 = (a)+(b)+(c)+(d) (a) 당기개발비(재무상태표) - 전기개발비(재무상태표) (b) 경상개발비·연구비(손익계산서) (c)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공사/용역원가명세서) (d) 연구개발 인건비(제조/공사/용역원가명세서) ※ 설비투자 금액 = 1년간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등 모든 설비(시설, 유형자산)에 투자한 총액		

D1-1. 2017년 귀사의 연간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은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운수장비	기타()	합 계
비 중	%	%	%	%	%	100 %

D2. 귀사의 최근 가장 관심 있는 투자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신사업 진출 ② 신제품 개발 ③ 설비 자동화 ④ 기존설비 확장 ⑤ 기존설비 교체·보수
⑥ 연구개발 ⑦ 에너지 절약 ⑧ 환경오염 방지 ⑨ 공장 이전 ⑩ 기타()

E. 금융 및 자금조달

E1. 귀사의 2017년 전체 자금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구 분	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기술개발자금	수출금융	기타()	합 계
비 중	%	%	%	%	%	100 %

E2. 귀사의 2017년 전체 자금(조달)원은 무엇입니까?

구 분	내부 유보자금	시중은행 차입	회사채 발행	IPO (주식공개상장)	펀드 등 투자유치	정부정책자금* 활용	기타	합 계
비 중	%	%	%	%	%	%	%	100 %

*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 비상장 기업의 주식 매매를 통한 자금조달, 사채 등은 기타에 해당

E3. 귀사가 외부자금 조달 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2017년 외부자금 조달이 없었더라도 외부자금 조달시 겪는 일반적인 애로사항 응답 요망

1순위		2순위	
-----	--	-----	--

- ① 금리상승 ② 복잡한 대출 심사 ③ 매출액 위주의 한도사정 ④ 보증서 위주의 대출
⑤ 추가 담보요구 ⑥ 장기차입의 어려움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E4. (문 E2 정책자금 활용 기준)귀사는 2017년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H1으로 이동)

E4-1. (문 G4에 '①'에 응답한 경우), 기관별 활용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타	합 계
비 중	%	%	%	%	%	%	%	100 %

F. 인재확보 (내국인 근로자 기준)

※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포함

F1. 귀사의 인력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7. 12. 31 기준)

구 분	①사무·관리직	②생산직	③영업·마케팅직	④기술·연구직	⑤기타
남성	명	명	명	명	명
여성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 인력 현황은 국내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 생산공장 등 해외 사업장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 R&D 인력은 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유무 관계없이 R&D를 전담하는 모든 인력을 의미함

F2. 귀사의 2017년 채용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①사무·관리직	②생산직	③영업·마케팅직	④기술·연구직	⑤기타
남성	명	명	명	명	명
여성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청년(만 15~34세)	() 명				

F3. 귀사는 2018 ~ 2019년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2018년	()명	2019년	()명
-------	------	-------	------

F4. 귀사의 2017년 신입사원 평균 초임 수준(보너스, 성과금 등 지급되는 모든 비용 포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입사원 채용이 없더라도 귀사의 일반적인 신입사원 급여 기준에 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입사원				
	박 사	석 사	대 졸	전문대졸	고 졸
남성					
여성					
① 1,500만원 미만	②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③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④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⑤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⑥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⑦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⑧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⑨ 5,000만원 이상		

F5. 귀사의 재직연수별 인력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D1 응답과 일치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남성	명	명	명	명	명
여성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F5-1. 귀사 인력의 2017년 이직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남성	()명	여성	()명
----	------	----	------

F5-2. 귀사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대기업 스카우트 ② 중견기업 스카우트 ③ 중소기업 스카우트 ④ 진학
⑤ 자사 인원감축 ⑥ 낮은 임금수준 ⑦ 복지 수준 불만 ⑧ 기타()

F6. 귀사 인력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스톡옵션 ② 직무발명제도 ③ 성과급 ④ 해외연수 또는 여행 ⑤ 승진 ⑥ 기타()

G. 국제화 촉진

G1. 귀사는 2017년 해외수출(직접, 간접수출 모두 포함) 실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 G7로 이동)

G2. 귀사의 2017년 주요 수출국가 및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금액이 큰 국가순으로 5순위까지 응답)

구분	수출국가	수출금액(직접+간접)
1 순위		()천불
2 순위		()천불
3 순위		()천불
4 순위		()천불
5 순위		()천불
수 출 총 액		직접수출 : ()천불
(1~5순위 지역을 포함한 모든 수출지역으로의 수출금액 합계)		간접수출 : ()천불

* 직접수출 : 해외 고객에게 직접 수출 / 간접수출 : 상사 등 중개업체를 통한 수출

* 2017년 평균 환율 : 1달러 = 1130.84원

G2-1. 2017년에 신규 진출한 국가가 있습니까?

- ① 예(국가명 : / 수출금액 : 천불) ② 아니오

G3. 귀사는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해외지사 제외)이 있습니까?(합작투자, 기술투자 등 포함, 2017. 12. 31 기준)

- ① 예 ② 아니오 (☞ G4로 이동)

G3-1. 현지법인이 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법인수가 많은 순으로 응답)

구분	현지법인 소재 국가	현지법인 수	구분	현지법인 소재 국가	현지법인 수
1 순위		()개	6 순위		()개
2 순위		()개	7 순위		()개
3 순위		()개	8 순위		()개
4 순위		()개	9 순위		()개
5 순위		()개	10 순위		()개

G4. 귀사가 지난 1년 동안(2017년 1월~12월) 수출 시 겪은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② 무역금융 활용애로 ③ 인증 등 기술규제 ④ 통관 등 절차관련 규제
 ⑤ 수출 부대비용 부담 ⑥ 해외시장 정보부족 ⑦ 수출 전문인력 부족 ⑧ 현지 마케팅
 ⑨ 해외 거래선 확보 ⑩ 기타()

G5. 귀사는 FTA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① 활용 중 (☞ G5-2 이동) ② 활용 예정 ③ 활용계획 없음

G5-1. (문 G5에 '②, ③' 응답한 경우) FTA 미활용 사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 G6으로 이동)

- ① FTA 수혜효과 미미 ② 부적합 업종 ③ 활용절차 및 제도의 어려움
 ④ FTA 전문인력 부족 ⑤ 기타(구체적으로 :)

G5-2. (문 G5에 '①' 응답한 경우) 귀사의 FTA 활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7. 12. 31 기준)

세부내용	① 있음	② 없음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을 위한 업무 매뉴얼 보유		
FTA 관련 전담부서		
원산지 관리 전문가(원산지 관리자, 관세사 등) 보유		
FTA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G6. FTA를 활용하기 위해 귀사가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③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 ④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⑤ FTA 체결국 대상 홍보 강화 ⑥ 기타(구체적으로 :)

G7. 귀사는 향후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illegible]

G7-1. (문 G7에 '①' 응답한 경우), 귀사가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현지의 값싼 노동력 ②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③ 해외 유통망 확보
④ 자유로운 경영환경 ⑤ 현지 연구인력 채용 ⑥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합작투자
⑦ 기타(구체적으로 :)

G7-2. (문 G7에 '①' 응답한 경우), 귀사가 계획하는 신규 해외 진출 시점은 언제입니까?

- ① 1년 이내 ② 1~3년 이내 ③ 3~5년 이내 ④ 5년 이후

G7-3. (문 G7에 '①' 응답한 경우) 귀사가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는 어디입니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국가명			

G7-4. (문 G7에 '②' 응답한 경우), 귀사가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출 부적합 업종 ② 국내 시장에 만족 ③ 마케팅 능력 부족
④ 자금 부족 ⑤ 기타(구체적으로 :)

G8. (문 G7에 '①' 응답한 경우)해외 수출 및 진출 시 귀사가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해외 현지생산 ②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③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④ 해외기업 M&A ⑤ 우수인력 확보 ⑥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⑦ 기타(구체적으로 :)

H. 수·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

- 위탁기업(모기업) : 귀사에게 용역 등을 의뢰하는 기업
- 수탁기업(협력사) : 귀사로부터 용역 등을 의뢰받은 기업
- 주거래 위탁기업 : 귀사가 거래하는 위탁기업 중 거래비중이 가장 큰 기업

H1. 귀사는 수.위.탁.거.래 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니까?

- ① 하도급 관계 없음 (☞ I1으로 이동) ② 최상위 원사업자 (☞ H4로 이동)
- ③ 1차 협력사 ④ 2차 협력사 ⑤ 3차 이하 협력사

H1-1. (문 H1에 '③, ④, ⑤' 응답한 경우) 2017년 전체 위탁기업과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및 비중은 얼마입니까?

구 분	위탁기업과의 거래금액 및 비중 (2017년 총 매출액보다 많을 수 없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거래금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비 중	%	%	%	100 %

H2. 귀사는 2017년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_____회) ② 아니오 (☞ H3으로 이동)

H2-1. (문 H2에 '①' 응답한 경우), 평균 단가인하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3%미만 ② 3~5%미만 ③ 5~10%미만 ④ 10~20%미만 ⑤ 20~30%미만

H3. 귀사는 2017년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① 경험있음	② 경험없음
1. 납품대금 결제지연(지연이자 미지급 포함)		
2. 부당한 발주(구주발주) 취소		
3. 기술자료 유출		
4. 인력 탈취		
5.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6. 경영 관련자료(재무 및 인력자료 등) 요구		
7. 부당한 물품 등의 강제구매 요구		
8.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H4. 2017년 수·위탁 거래 기업과의 결제기간 및 수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제기간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기간 (평균 _____ 일)			수탁기업(협력사)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 (평균 _____ 일)		
결제수단별 비중	현금 (수표포함)	어음대체결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 구매론)	어음 (전자어음 포함)	현금 (수표포함)	어음대체결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 구매론)	어음 (전자어음 포함)
	%	%	%	%	%	%

H5. 귀사는 지난 1년 동안(2017년 1 ~ 12월)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까? (해당란에 V 표시)

구 분	위탁기업(모기업)과의 활동		수탁기업(협력사)과의 활동	
	① 활동있음	② 활동없음	① 활동있음	② 활동없음
1.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				
2. 전담조직 구성 및 대응				
3. 협의회 등 관련 기구활동				
4. 공동기술개발				
5. 공동 공정개선활동				
6. 해외시장 개척 및 동반진출				
7. 직원교육 및 교류				
8. 생산설비 및 실험장비 공동사용				
9. 자금지원				
10. 상생결제시스템('15년 산업부 시행)				

I.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이란 기업과 관련된 경제·사회·환경적 요소(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기업 활동에 자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함

※ CSR 표준 : ISO 26000, GRI Standard, UNGC, SA 8000, EICC 등

※ 유사 개념 :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책임경영, 인권경영, 공유가치창출(CSV) 등

11. 귀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을 알고있거나 도입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알고 있으나 기업경영에 미도입 ③ 알고 있으며 일부 도입
④ 알고 있으며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도입 ⑤ 과거 도입 경험 있으나 현재 미추진

12. (문 11에 '③~⑤'에 응답한 경우) 귀사가 사회적 책임(CSR) 경영을 도입한 이유는?

1순위

2순위

- ① 기업 이미지 개선 ② 매출 및 이윤 증가, 원가절감 등 경영성과 향상 기대
③ 이직률 감소 및 우수인재 채용 확대 ④ 자금조달 여건 개선
⑤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 거래기회 확대 ⑥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⑦ 기타()

13. (문 11에 '②~⑤'에 응답한 경우) 귀사가 CSR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예산 및 인력 부족 ②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부족
③ CSR 관련 법제도 및 정부지원 정책 부족 ④ 종업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⑤ CSR 관련 도입 및 실천 효과에 대한 의문 ⑥ 기타()

14. 귀사는 가업승계* 도입 또는 가업승계 계획 중에 있습니까?

* 가업승계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경영권(소유권)과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업이 정신을 승계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

- ① 가업승계 완료 또는 진행 중 ② 가업승계 예정 ③ 가업승계 계획 없음

14-1. (문 14에 '①'에 응답한 경우),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2순위

- ①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 ② 복잡한 지분구조 ③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④ 후계자 교육 부족 ⑤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 부족 ⑥ 사회적 인식 저조
⑦ 금융기관 자금 활용 ⑧ 기타()

문의 : 산업부 김정미 주무관 044-203-4367,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임희성 대리 02-3275-3094

♠ 수고하셨습니다. 귀사의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9년 01월 인쇄
2019년 02월 발행

발행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79(상장회사회관 5층)
전화 : 02-3275-3094
팩스 : 02-3275-2980

인 쇄 : 경성문화사
